
감염병 재난에 대한 연령층별 회복 탄력성 향상 방안

2021. 12.

제 출 문

부산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감염병 재난에 대한 연령층별 회복 탄력성 향상 방안」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 12.

(사)공공정책연구원
이 사 장 박 진 규

참여연구진

| | |
|-----------|-------|
| 책 임 연 구 원 | 박 진 규 |
| 책 임 연 구 원 | 최 현 목 |
| 연 구 원 | 허 거 훈 |
| 연 구 원 | 이 희 민 |
| 연 구 보 조 원 | 이 희 선 |

전문가 자문단

| | |
|---------------|-------|
| 경 주 대 학 교 | 권 보 민 |
| 영 산 대 학 교 | 오 창 석 |
| 부 산 복 지 개 발 원 | 김 두 례 |
| 부 산 연 구 원 | 배 수 현 |

행정지원

| | |
|-------------|-------|
| 자 치 분 권 과 장 | 김 정 수 |
| 분권균형발전팀장 | 김 가 영 |
| 전 문 위 원 | 김 근 혜 |

연구 요약

1. 연구 개요

□ 연구의 배경, 의의 및 방법

- 현대사회에서 증가하는 재난의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에 의해 최근 재난정책의 패러다임은 ‘취약성(Vulnerability)’중심에서 ‘회복탄력성(Resilience)’ 강화로 변화되고 있음
- 지방정부의 역할도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취약한 지역을 강화시키는 인프라적인 면보다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회복력을 향상시켜 피해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역량이 되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방법을 통해 코로나 감염병 재난 시대에 시민들의 연령층별 회복탄력성 향상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환경분석, 타지자체 사례 조사, 설문조사, 연령 연령층별 대상자 심층 인터뷰,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며 통계적 방법으로는 회귀분석, 분산분석, 다중교차분석 등을 실시함

2. 현황 분석

□ 부산시 현황의 시사점

- 부산시 회복탄력성 관련 법령에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주로 物的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物的 피해’ 뿐 아니라 ‘심리적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보다 구체화 시킬 필요 있음
-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심리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임

- 부산시의 인구는 약 340만명으로 상담 인력 약 210~220명으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 대응이 어려움(상담인력 1인당 서비스 인구는 약 15,000명 수준)

□ 중앙정부 심리지원 대응 체계의 시사점

- 중앙정부는 재난과 상관없이 일상적인 심리적 분야부터 세월호 관련 심리지원, 재난관련 심리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심리 피해의 단계에 따라 지원체계를 달리하고 있음
-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의 거버넌스 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 있음
- 단순한 프론트 오피스-체계적인 백 오피스를 구축할 필요성
 - 112나 119처럼 심리지원 관련 대표번호의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부담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

□ 타 지자체 코로나 19 대응 체계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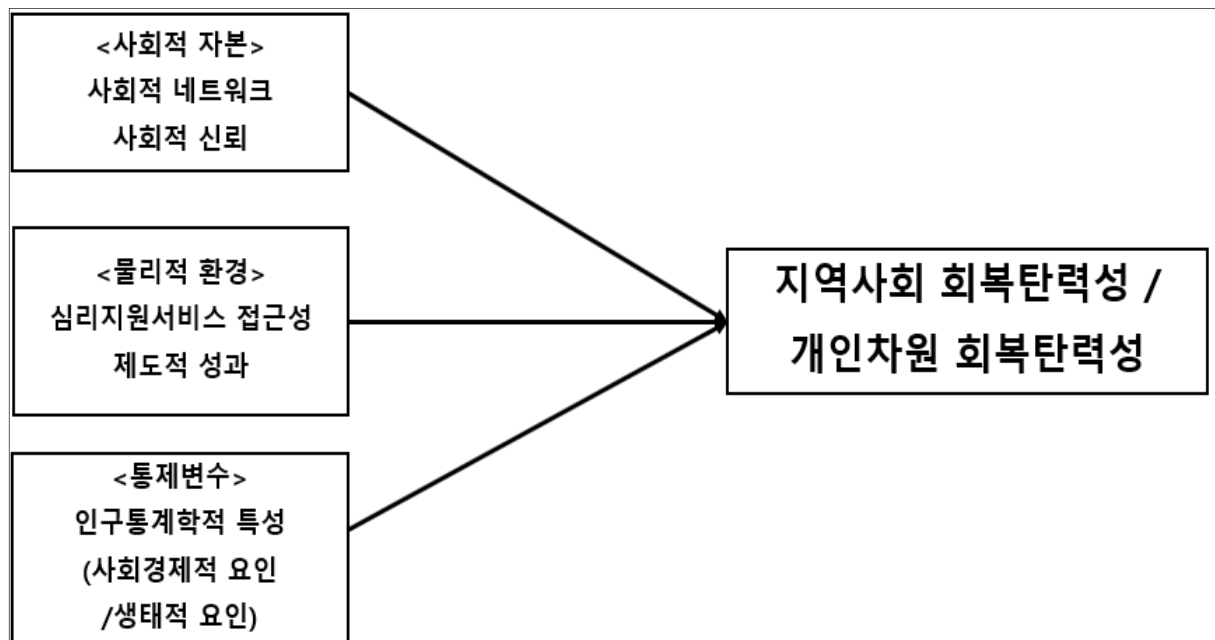
- 타 광역시의 코로나 19 대응 정책은 공통적으로 직원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외국인, 노숙인 등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함(인천시, 대전시 등)
- 울산시, 인천시는 반려식물을 활용한 심리적 스트레스 경감을 시도함
- 대구시는 문화를 적극 활용한 정책적 대응 시도
- 타 광역시 사례에서 보듯 시민에 대한 직접적 정책 외에도 취약계층, 식물, 문화, 서비스 공급자인 공무원에 대한 심리 경감 등 폭넓은 정책적 대응을 통한 심리 탄력 회복성 향상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3. 분석모델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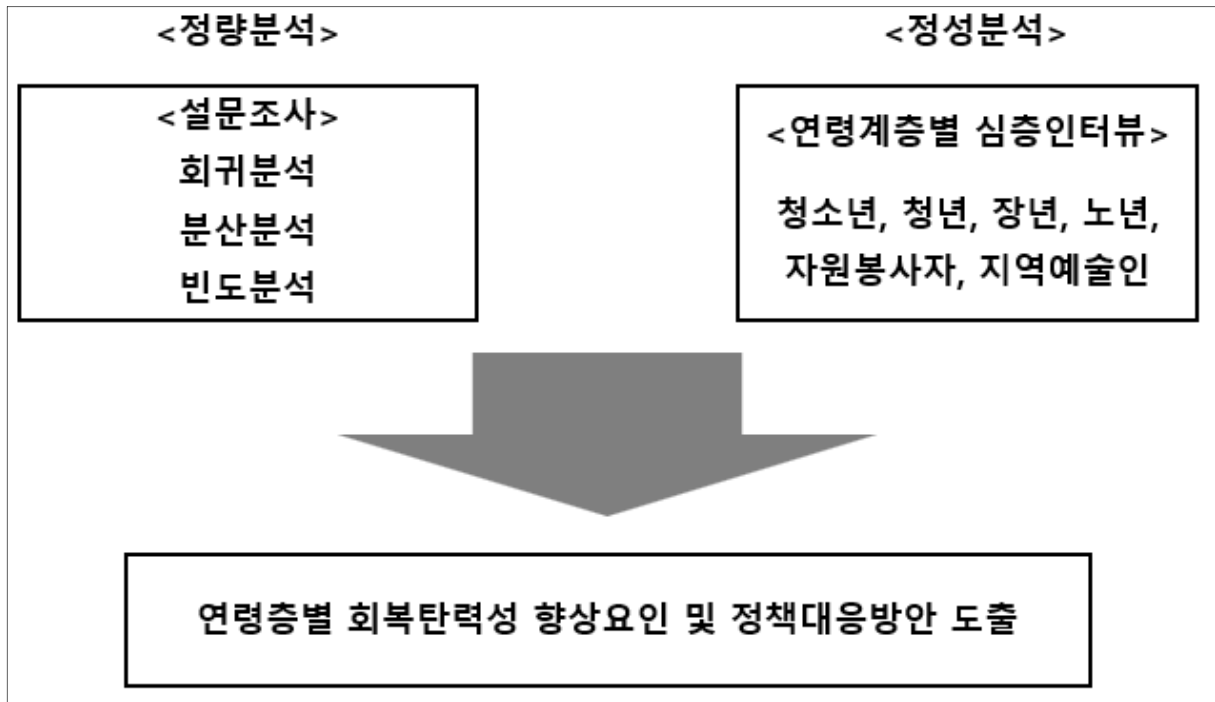
□ 변수의 설정

| 변 인 | | 변수 | 측정치 |
|-----|------------------|----------------------|---|
| 종속 | 지역 사회 회복탄력성 | 집단적 대응 효과 | 재난 발생 시 자원의 효과적 분배 수준 재난 복구에 대한 주민들의 협력 정도(의사), 이웃간 신뢰도/친밀도 지방정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한 기대감(미래) |
| | 개인차원 회복탄력성 | 개인적 회복탄력성 | 현재의 심리상태 |
| 독립 | 사회적 자본 |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지지) | 재난복구참여의사 감염자에 대한 사회적지지(인식) |
| | | 사회적 신뢰 (구성원간 신뢰) | 대인관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구성원 신뢰 수준의 변화 |
| | 물리적 환경 | 심리지원서비스 접근성 | 심리지원서비스 인지 정도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경험 |
| | | 제도적 성과(환경) | 지방정부 재난 대책 효과성 지방정부 지지 |
| 통제 | 인구 통계학적 특성 | 사회경제적 요인 | 거주지역, 소득수준, 주거형태, 가족구성형태, 근로형태, 최종학력 |
| | | 생태적 요인 | 연령, 성별, COVID-19 진단검사 유무 건강 수준(일반적 수준/우울감 또는 스트레스 수준) |

□ 회복탄력성 영향요인 분석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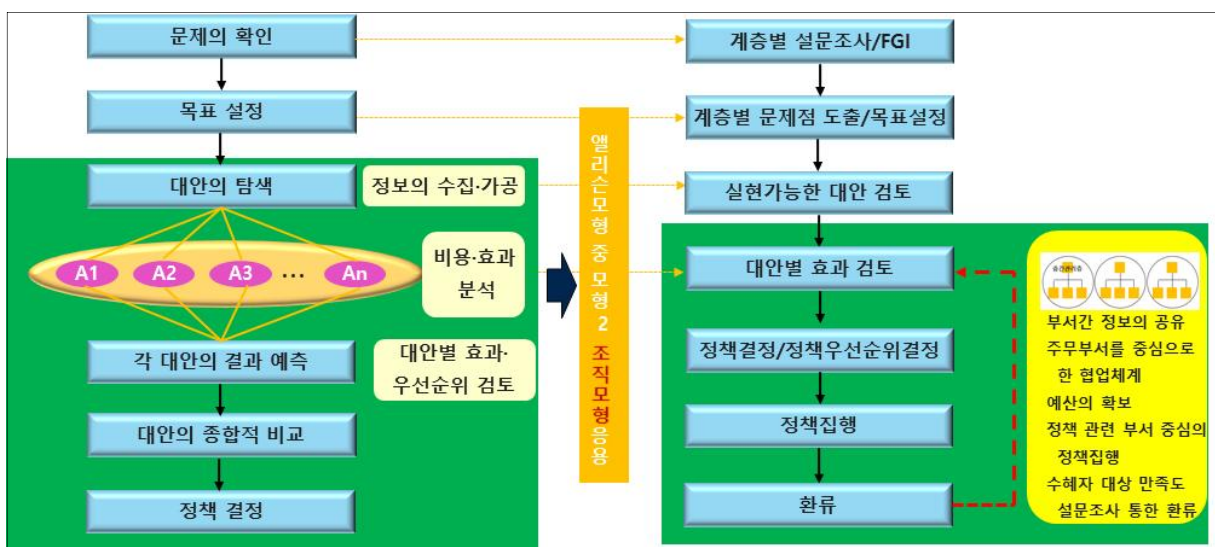


□ 연구의 분석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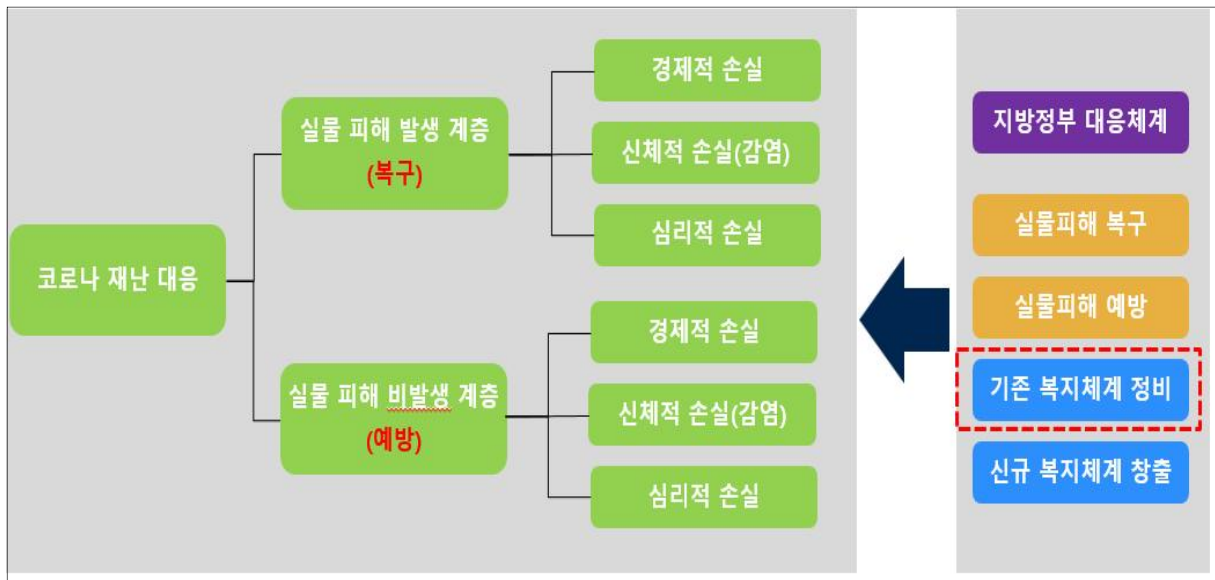
4. 연구의 주요 내용

□ 감염병 재난 대응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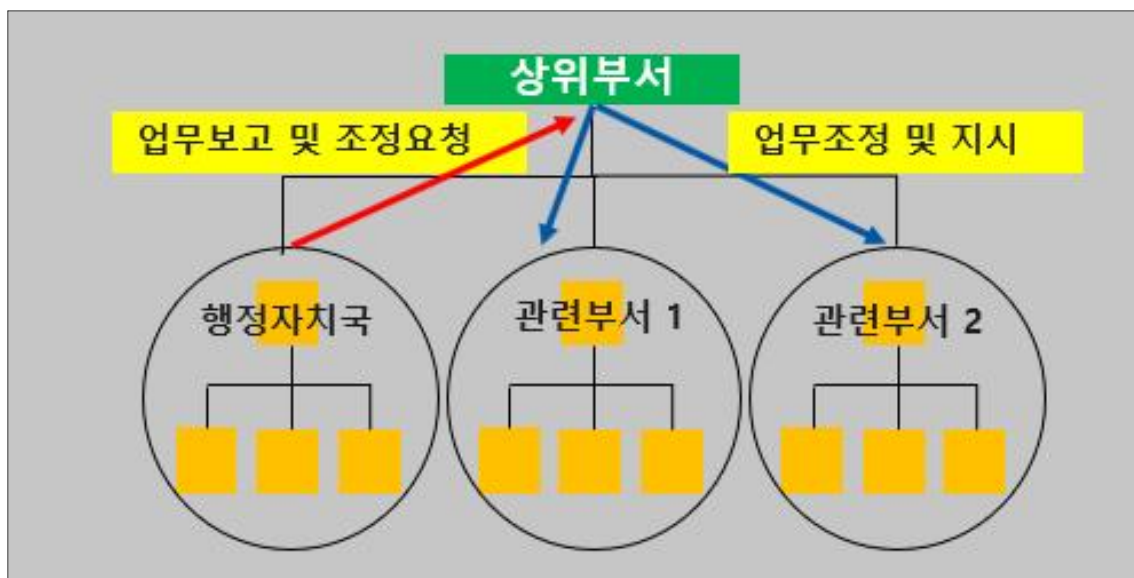
○ 감염병 재난 유형에 따른 대응체계 차이

- 코로나 재난의 대응체계는 실물 손실이 발생한 계층의 피해 회복과 잠재적 당사자인 일반인들의 스트레스 완화 및 예방의 두 트랙 대응 전략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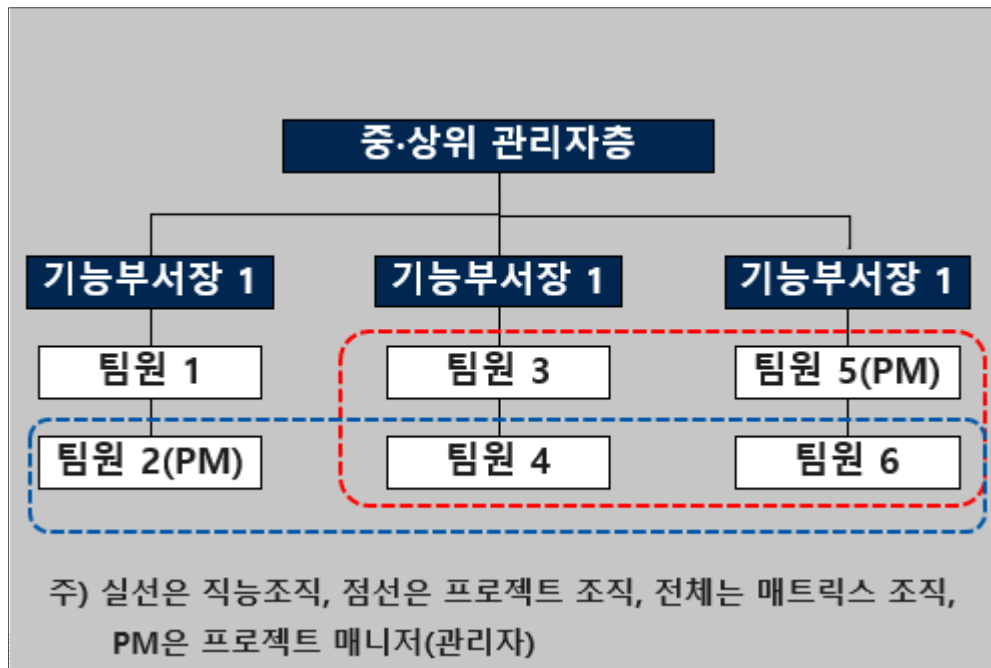


○ 기존의 조직체계를 활용한 모형 적용 방안(Top-bottom 방식 예시)

- 일반적인 조정 기능의 방법으로서 부서간 협업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계층제의 권위나 회의에 의해 조정하는 방법



○ 비정형 조직을 활용한 모형 적용 방안(adhocracy 활용 방식 예시)



□ 설문조사 결과 주요 내용

○ 설문조사 최종 유효 표본 분포 현황

- 설문조사는 지역의 소득 수준, 연령, 계층 등을 고려한 층화표본추출 방법으로 표본 할당 후 설문조사 실시(총 유효표본 수 1,866)

| 소득수준 | | 표본 수 | 청소년 | 청년1 (대학 생) | 청년2 (대졸 이후) | 중년 | 장년 | 노년1 | 노년2 |
|----------|-------------------------------|-------|-----|------------------|-------------------|-----|-----|-----|-----|
| 상위 지역 | 중, 강서, 남,동, 해운대 | 511 | 34 | 42 | 48 | 133 | 97 | 83 | 74 |
| 중위 지역 | 부산진, 기장, 연제, 사상, 수영, 금정 | 762 | 43 | 51 | 93 | 158 | 128 | 157 | 132 |
| 하위 지역 | 동래,서, 사하, 영도, 북 | 593 | 33 | 42 | 69 | 123 | 111 | 120 | 95 |
| 계 | | 1,866 | 110 | 135 | 210 | 414 | 336 | 360 | 301 |

○ 심리 회복 위해 필요 우선 순위 결과

- 1순위에서 상위권으로 도출된 응답 문항은 2, 3순위에서도 높게 나타남

| 문항 | 1순위 (1,873명)(%) |
|------------------------------|--------------------|
| 코로나 백신 접종 | 17.9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향상 | 16 |
| 충분한 재난 지원금 | 15.7 |
| 공동시설에 대한 정기적 방역 | 6.5 |
| 접촉자의 자가 시설격리 범위 확대 | 5.8 |
| 충분한 휴식 | 5.1 |
| 비등교로 인한 자녀 돌봄 지원 정책 | 4.4 |
| 문항 | 2순위 (1,873명)(%) |
| 코로나 백신 접종 | 14.6 |
| 공동시설에 대한 정기적 방역 | 11.5 |
| 충분한 재난 지원금 | 11.3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향상 | 9.8 |
| 투명한 정보 공개(확진자 동선, 방역매장 정보 등) | 8.8 |
| 접촉자의 자가 시설격리 범위 확대 | 8.3 |
| 감염병 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 | 6.9 |
| 문항 | 3순위 (1,872명)(%) |
| 코로나 백신 접종 | 13.6 |
| 공동시설에 대한 정기적 방역 | 11.1 |
| 충분한 재난 지원금 | 8.7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향상 | 6.4 |
| 투명한 정보 공개 | 6.3 |
| 적절한 운동 | 6.1 |
| 접촉자의 자가 및 시설격리 범위 확대 | 5.8 |

○ 코로나 이전 대비 스트레스 증가 이유

- ‘감염의 두려움’과 ‘대인관계 축소’가 가장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 문항(영역, 대응 방향) | 전체(명) |
|---|--------|
| 언론매체의 보도가 <u>감염의 두려움</u> 을 증가하게 만든다.(심리, 예방) | 307 |
| 주위 사람이 코로나에 걸린 줄 모르고 있다가 <u>나도 전염될까봐</u> (심리, 예방) | 418 |
|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수익의 감소(실물, 회복) | 225 |
| 회사의 매출감소로 인한 실직의 두려움(실물, 예방) | 222 |
|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 이동의 제한, 만남의 감소, 온라인 수업 등 <u>대인관계의 축소</u> (실물, 회복) | 334 |
| 자녀가 등교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녀 돌봄의 어려움 발생(실물, 회복) | 125 |
| 기타 | 5 |
| 계(복수응답 비율의 합) | 985(명) |

○ 설문조사 주요 시사점

- 스트레스의 주요 요인으로는 대인관계 제약, 경제적 어려움, 전염에 대한 두려움이 주요 원인으로 도출됨
- 각 연령층별 심도있는 추가 조사를 통해 연령층별 맞춤형 정책 도출 필요성
- 모든 계층에서 외부활동 제약, 모임 제약 등의 제약을 불편하게 느끼는 비율이 70% 내외임
- 감염자의 심리적 격리 경감 필요성
- 부산시 정책에 대한 신뢰도, 지지도는 높은 편임
- 연령층별 맞춤형 대응방안 도출 필요성
- 현 코로나 상황에 대해 연령층별 특성에 관계없이 전 계층의 보편적 인식이 비슷하게 도출됨
- 따라서 연령층별 맞춤형 우선 정책보다는 보편적 정책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미

- 단 연령층별 특성이 도출되는 영역에 대하여서는 정책적 대응을 검토할 필요(ex, 비등교로 인한 자녀 돌봄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30~40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나타내고 있음, 70대 이상에서는 휴식, 취미, 여가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장년 계층에서는 우울증, 불안감을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자원봉사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 필요성
- 응답자의 1,900여명 중 1,600여명 정도는 재난복구 참여의지를 나타냄
- 이는 시민을 서비스의 수혜자로서만 대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 공급자로서 기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의미

□ 심층 인터뷰 주요 내용

○ 공통 항목의 주요 키워드

| 구분 | 스트레스 요인 | 개인적 해소 방안 | 정책적 해소방안 |
|--------|--|--|--|
| 주요 키워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인관계/시간 제약 경제적 문제 낮선 상황에 대한 불안 / 두려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책 가벼운 운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역 수칙 준수 및 체계화 정책의 지역적 형평성 체육시설, 공원 정비(H/W, S/W) |

○ 청소년(이하 공통 키워드 제외)

| 구분 | 스트레스 요인 | 개인적 해소 방안 | 정책적 해소방안 |
|--------|---|---|--|
| 주요 키워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효율적 온라인 수업 교우관계 붕괴 수련회/활동 못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시간 활용 휴대폰 활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격차 해소 방역수칙 준수하여 선별 (야외, 현장, 수련회 등)활동 기회 |

○ 대학생

| 구분 | 스트레스 요인 | 개인적 해소 방안 | 정책적 해소방안 |
|--------|---|---|--|
| 주요 키워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수업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교우관계 붕괴 대학낭만 사라짐 정보의 비대칭(취업, 자격, 교류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대면(Zoom) 술자리 홈트레이닝 온라인 콘텐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접근 가능성 향상 방안 대학생 할인제도 |

○ 대학졸업 이후 (취(창)업(준비)자)

| 구분 | 스트레스 요인 | 개인적 해소 방안 | 정책적 해소방안 |
|--------|--|---|---|
| 주요 키워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영업 매출 감소 여가시간 활용방안 부재 업의 전문성 미흡 코로나로 폐업, 이에 따른 경제적 문제 심각(재창업의 어려움) 주택 문제(벼락거지) 결혼 보류(포기) 청년 직장인 해고의 두려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근하면 이미 시간제한으로 여가생활 거의 불가능 개인적으로 집 또는 근처에서 가벼운 산책/운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자영업, 결혼 예비 청년 주거 문제 해결 위한 대출장벽 완화 필요 업의 전문성향상 위한 전문컨설팅 필요 격리자(감염자 포함)에 인적·물적·심리적 충분한 지원 필요 |

○ 중년 : 40대, 사업, 남

| 구분 | 스트레스 요인 | 개인적 해소 방안 | 정책적 해소방안 |
|--------|---|---|--|
| 주요 키워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거리두기, 대면 업무 제약 자녀의 비등교에 따른 보육 문제 자녀 보육을 위한 업의 중단으로 경제적 피해 감수 단체 활동(운동)의 제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목한 가정 생활 중요 산책, 공원, 체육시설 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간 형평성 있는 정책 지원 특정시간 제약보다 일정기간 제약 격리에 따른 업의 중단, 이에 대한 보상 체계 구축 필요 확진자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필요 주부 격리시 가정돌봄 서비스 필요 확진자 중심 심리 상담 필요 충분한 병상, 의료인, 의료시설 확보 자녀학력 공백 방지위한 교육서비스 |

○ 중~장년 : 40~50대, 주부

| 구분 | 스트레스 요인 | 개인적 해소 방안 | 정책적 해소방안 |
|--------|---|---|---|
| 주요 키워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 권고사직 실직 중장년층 재취업의 어려움 중장년 취업지원 센터 현장 상황 고려 안된 탁상 행정 재취업 어려움에 따른 자존감 하락 자녀의 대외활동 제약/수업의 질 하락 자녀 비등교에 따른 돌봄 문제 발생 부산내에서도 코로나 지원 정책 차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부가 할 수 있는게 거의 없음 가끔 음악 들으며 힐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With코로나 되면 지역 상설시장(벼룩시장 형태) 통해 주민들 친목 도모/경제적 효용 도모→제도화 필요성 벼룩시장 + 예술인 재능기부 기회 제공 취업지원센터 실효성 향상 방안 필요 연령대별 세분화한 맞춤형 심리 상담 필요(상담 센터 홍보 필요) 아이돌봄 지원 사업 진짜 필요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

○ 건강한 60대 노년

| 구분 | 스트레스 요인 | 개인적 해소 방안 | 정책적 해소방안 |
|--------|--|---|---|
| 주요 키워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인관계의 어려움 명절/연휴에도 가족/손자 못만남 사업장에 코로나 격리자 발생에 대한 두려움 백신에 대한 부정적 뉴스에 따른 두려움 확진자 동선 공개 자주 보니 불안감 커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명 소수 배움/취미/당일 여행 등으로 해소 공원/산책/간단한 신체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지원금 취약계층 위주 지원 필요 동백전 사용방법 간소화해서 노인도 이용할 수 있게 할 필요 공연/영화 등 방역수칙 준수하여 문화 즐길 수 있는 지원 정책 필요 공원/산책로 등에 특정 시간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건강 프로그램 건강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필요 노인 활용 사회적 기업 지원 필요 |

○ 보호가 필요한 70대 노년

| 구분 | 스트레스 요인 | 개인적 해소 방안 | 정책적 해소방안 |
|--------|---|---|--|
| 주요 키워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대인 관계 주저. 모임에 대한 두려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텃밭 작물 재배를 통해 내 손으로 키우고 수확해서 먹는 재미 방역 수칙 지키면서 지인들과 정기모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지원금 취약계층 위주 지원 필요 재난지원금 일괄지원이면 지역적 형평성 유지할 필요성 정기건강검진 외 고령자 특화 건강지원 프로그램 재활치료나 주기적 검사 등 고령자 특화 의료 혜택의 확대 주기적 말벗 고령자의 관심분야에 대한 자원봉사 지원(헤어, 강의, 교육, 체험, 관련분야 대화 등 고령자에게 선택권 부여할 수 있는 제도화 필요) 일상적 어려움에 대한 주기적 심리상담 (취약계층) 고령자 주기적 지역상품권 제공 |

○ 보호가 필요한 80대 이후 노인

| 구분 | 스트레스 요인 | 개인적 해소 방안 | 정책적 해소방안 |
|--------|--|---|---|
| 주요 키워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인관계의 어려움 명절/연휴에도 가족/손자 못만남 고령 남자 1인가구는 술로 외로움을 달래는 경우 많음, 혼자 있는 분들 외로움, 고립감, 불안감 등 스트레스 해소 방안이 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에서 가벼운 운동 종교활동을 통한 마음의 안정 아직 움직일 수 있어서 가벼운 활동을 통해서 해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상담이나 정기적인 사람과의 만남 개인적 보호망이 없는 고령 1인가구는 심신의 건강에 상당히 취약적이기 때문에 국가적 보호망을 갖출 필요 기능인(예술, 문학)의 자원봉사 공연기회 제공은 기능인에 재능을 펼칠 기회가 되고 참여자들의 심리적 우울감도 해소될 것 여생을 건강하고 사회와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정책 |

○ 재능기부 지역예술인

| 구분 | 스트레스 요인 | 개인적 해소 방안 | 정책적 해소방안 |
|--------|--|--|---|
| 주요 키워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은 무대가 생명인데 무대가 다 사라짐 재능을 펼칠 기회 상실에 따른 자존감 하락 경제적 피해 개인적으로 협찬을 받고 예술인들 모여서 자원봉사 공연 진행하지만 현실적·재정적 한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기회가 사라지다 보니 집에서 혼자 음악들으면서 지휘 연습 예술인들 공연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정서적·문화적 안정감 제공 관중들의 호응이 예술인들에게 생명력을 불어 넣고 힘이 나게 함 지역민에 봉사한다는 자부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의 공연에는 장소 / 시설 / 장비 /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비용이 발생하므로 예술인의 자원봉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지역·자치구·부산시의 협력체계 조성) 이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 시민들의 문화적 정서 함양 |

○ 전문자원봉사자

| 구분 | 확진자 | 개인적 해소 방안 | 정책적 해소방안 |
|--------|---|---|---|
| 주요 키워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진자는 감염의 두려움, 고립에 따른 외로움, 경제적 피해에 따른 상실감으로 자원봉사자에게 애기를 쏟아 냄 자영업 확진자는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지며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떠안게 됨(폐업비용, 빚, 세금, 생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진자의 개인적 해소방안은 거의 없는 상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락 제공의 정책화(주기적 방문 통한 말벗, 안부 확인) 자원봉사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들에게 큰 힘이 됨 전화통로 오픈으로 재난 당사자에 선제적 대응 필요 자원봉사자 인원/공간 부족 해소 위해 최소경비 및 도시락 만들 공간 지원 퇴직한 전문가 활용 체계적 자원봉사자 양성 시스템 구축 필요 자원봉사자 연수 및 교육 재난대피소 생활할 수 있는 시설 구비 필요 |

○ 연령층별 인터뷰 주요 시사점

- 모든 계층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호소(심리불안 주요원인)
- 공통적으로 가벼운 운동, 산책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방안으로 응답
-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 회복탄력성 관련, 문화 / 예술 관련 지원에 대한 선호가 높게 도출됨
- 모든 계층에서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 선별 지원이 타당하다고 인식
- 온라인 활용 문화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확산이 필요
-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와 심층 인터뷰의 주요 결과가 상당 부분 유사함
- 이는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설문조사의 거시적 방향을 바탕으로 인터뷰에서 도출된 연령층별 정책의 적용에 대한 근거가 됨(연령층별 세부정책 도출)

○ 정책요인별 분야

| 구분 | 청소년 | 대학생 | (예비)취(창)업생 | 중년 | 장년 | 60대 | 70대 이상 | 자원봉사자 | 지역예술인 |
|--------|----------------------|-------------------------|--------------------|---------------------------------|--------------------------|---------------------------|--------------------|---------------------------------|-----------------------------|
| 경제 | 재난지원금 | *재난지원금, 대학생할인제도 | 재난지원금, 주택/자영업 대출완화 | 재난지원금, 격리자 충분한 보상지원 | 재난지원금 | 재난지원금, 동백전 활용도 향상 | 재난지원금, 주기적 지역상품권 | 자원봉사실비 지원 | 공연최소경비 지원방안 |
| 문화 | 야외활동 기회 | 온라인 문화컨텐츠 지원 | | | 지역상설 베토크시장, 예술인 재능기부 체계화 | 공연/전시 등 문화컨텐츠 지원, 생활체육활성화 | 자원봉사 분야 선택권 | 취약계층방문 말벗/ 안부 / 간단한 (신체)활동(주기적) | 재능기부 자원봉사 체계화, 지역커뮤니티/정서 회복 |
| 교육 | 온라인 수업방식 개선, 학습격차 해소 | 취업, 교육, 시험 등의 정보접근성 | 전문성 향상 컨설팅 | 자녀 학력공백 방지지원 | 자녀돌봄 지원서비스, 취업지원센터 실효성 | | | 자원봉사자 연수 및 교육, 퇴직한 전문가 자원봉사 | |
| 상담 | 심리상담 | | | 격리자/확진자 심리상담 | 심리상담센터 홍보필요 | | 주기적 상담 및 말벗 | 취약계층 전화통로 오픈 | |
| 시설 | | 공원/산책로 정비 | 공원/산책로 정비 | 공원/산책로 정비 | 공원/산책로 정비 | 공원/산책로 정비 | 공원/산책로 정비 | 자원봉사자 시설, 재난대피소 시설 구비 | 공연장소 지원(문화회관이 나 A광장 등) |
| 건강 | | 충분한 휴식 | | 병상,의료인, 시설 확보 | 자유로운 참여의 건강프로그램 | | 고령자특화 건강 프로그램,의료혜택 | 도시락 제공 정책화 | |
| 감염병 관리 | 백신, 방역, 격리시설, 거리두기 | 백신, 방역, 격리시설, 예방법 위반 관리 | 백신, 방역, 격리시설, 거리두기 | 백신, 방역, 격리 시설, 거리두기, 정보공개, 기간제약 | 백신, 방역, 격리시설, 거리두기, 정보공개 | 백신, 방역, 격리시설, 거리두기 | 백신, 방역, 격리시설, 거리두기 | | |
| 기타 | 유급휴일 확대 | | | 주부격리시 가정돌봄, 정책 형평성 | | 노인의 사회적 기업 지원 | 정책형평성, 국가보호망 체계화 | | 예술인에게 무대기회 제공 |

*대학생 이상의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 위주 선별 지원을 의미함

□ 연령층별 주요 정책 리스트

| 구분 | 청소년 | 대학생 | (예비)취(창)업생 |
|-----------|------------------------------|-----------------------|--------------------------------|
| 경제 | 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원스톱서비스 | 저소득 대학생 재난지원금 지원 | 청년 취업앵커 인프라 연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
| | 외국인청소년에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 대학생 문화바우처 | 청년사회진입활동비 지원사업 |
| | | | 청년 지원사업 정보 일원화 제공으로 정보접근성강화 |
| | | | 경영악화/폐업 청년 자영업자 지원기준 마련 |
| | | | 신혼부부 주택용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
| 문화 | 청소년 문화의집 온택트 페스티벌 | 부산시 자체 콘텐츠 개발 | |
| | 청소년 야외 활동공간 조성 | 온라인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 |
| | 체험활동 확대 | 대학 동아리 공연 및 버스킹 지원 | |
| | 문화바우처 | | |
| 교육 | | 온라인 교육 및 진로 콘텐츠 제공 | 취창업생 멘토스쿨 운영 |
| | | 취업박람회 체계화 | 청년 폐업자와 재창업 희망분야 전문가 멘토스쿨 |
| | | 원스톱 취업정보 서비스 | 주요산업체 청년 견학 프로그램 |
| | | 대학생 해커톤캠프 | 청년 창업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확대 |
| | | 대학생 깍이어 프로젝트 | 부산형 도전숙 |
| 상담 | 청소년심리상담 의무화 | | |
| | 심리상담 바우처 | | |
| 시설 | | 청년문화(활동)공간 조성 | |
| 건강 | | 산책로 조성/ 정비 | 산책로 조성 / 정비 |
| 감염병 관리 | 청소년 방문시설 모니터링 강화 | 대학생 방문시설 모니터링 강화 | 청년 방문시설 모니터링 강화 |
| | | | 자영업 매장 대상 백신스티커 제작 및 보급 |
| | | | 격리자에 대한 지원금 외 보상안 마련 |
| 기타 | | | |

| 구분 | 중년 | 장년 | 60대 |
|-------|------------------------------------|--------------------------|--|
| 경제 | 코로나 19 격리자 충분한 보상지원 | 장년층 맞춤형 고용안정지원금 |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추가지급(전시민 대상 + 60대 이상 취약계층 추가지급) |
| | | | 60대 이상 동백전 이용활성화 지원 |
| 문화 | | 지역별 상설 벼룩시장 정기 개설 | 코로나 블루 극복 체험키트 활용 비대면 생활원에 체험 |
| | | 재능기부 자원봉사 체계화 | |
| 교육 | 중년층 재취업지원 | 진인교육(음악, 미술, 체육) 확대 | |
| | |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 |
| 상담 | 격리자/확진자 심리상담 | 4050 장년층 맞춤형 무료 심리상담 | |
| | 계층 특성에 적합한 심리상담 인력 확보 | 심리상담센터 홍보 활성화 | |
| 시설 | 산책로 조성, 정비(60대 이상 공원 및 산책로 이용률 높음) | | |
| | | | 어르신 배움교실 공간 조성 / 프로그램 개설 |
| 건강 | 충분한 병상, 의료인, 시설 확보 | 주요 공원 자유로운 건강 참여 프로그램 | 어르신 생활체육지도 프로그램 |
| | | 코로나 극복 실내·외 운동 아이디어 영상공모 | |
| 감염병관리 | 자가격리자/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충분한 구호물품 지급 | | |
| |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 공개 | | |
| 기타 | 주부격리시 가정돌봄 서비스 제공 | | 노인 사회적 기업 운영 및 지원 |
| | 가족돌봄 휴가제도 | | |
| | 어린이집 교사 고용 안정성 향상 | | |

| 구분 | 70대 이상 | 자원봉사자 | 지역예술인 |
|--------|----------------------------------|-----------------------------|---------------------------------|
| 경제 | 거동불편 독거노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방문신청 서비스 | 자원봉사단체 경비/물품 지원 | 자원봉사 공연자 최소 경비 지원(신청 및 심사 후 선정) |
| | 시설 입소 독거노인 재난지원금 제도홍보 및 방문신청 서비스 | | |
| 문화 | 자원봉사 수혜분야 선택권 부여 | 방문 말벗, 안부 연계 도시락 배달 서비스 | 벼룩시장 연계 지역예술인 자원봉사 체계화 |
| | 자원봉사자 공연 지원 및 시설 대여 | | 아마추어 예술인/대학동아리/청소년합창단 자원봉사 체계화 |
| 교육 | | 자원봉사자 연수 / 교육 프로그램 | |
| | | 퇴직 전문가 자원봉사 참여 프로그램 | |
| 상담 | 정기 상담 및 말벗 방문 서비스 | 심리 취약계층 상시 전화통로 지원 체계화 | |
| 시설 | 산책로 조성, 정비 | 구 별(또는 권역별) 봉사단체 전용 공간 | 재능기부 자원봉사기관/단체 지역 문화회관 무료대관 |
| | 텃밭 임대 및 재배방법 교육 / 실내텃밭 | 자원봉사기관 거점 활동공간 조성 | |
| 건강 | 고령자 건강관리 디지털 플랫폼 | 대한적십자사 연계 황금도시락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 |
| 감염병 관리 | 노인 자가격리 돌봄 서비스 | | |
| 기타 | | 재난 대피소 내 최소 물품 구비 | |

□ 감염병 재난 시대의 회복탄력성 정의

감염병과 동행하는 삶을 받아들이고 이에 적응해 가는 개인적·집단적·체계적 대처역량

□ 본 연구 결과 주요 정책적 시사점

○ 복지전달체계 개편 필요성 대두

- 형식적 정보제공, 시민들의 낮은 인지도, 시민의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정책내용 등 문제점 파악하여 실질적 기능하도록 보완 필요

○ 감염병 재난은 발생 손실 극복과 손실 발생 예방의 두 가지 접근 방법이 필요

○ 부산시 부서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대두

○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성 대두

○ 환류 체계 구축 필요성

○ 감염병 재난 시대 인식의 전환

- 감염병 재난에 대한 개인적·집단적·정책적 대처역량 향상이 감염병 재난 하에서의 최고의 회복탄력성이라 할 수 있음

○ 부산시 맞춤형 재난대응모델의 적용

- 실제 행정 현장에서 본 모델의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질 때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및 전 주민에게 보다 균등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임

○ 부산시 - 의회의 협력적 관계에 의한 예산 확보

-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다양한 정책들은 필수적으로 예산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함

- 이는 부산시와 의회의 협력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함
- 필요성이 높은 정책이나 부산시 자체 예산으로만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국비 확보도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부산시와 의회는 시민들이 일상으로의 복귀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적 관계 구축 필요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심리 회복탄력성 향상방안 시도

- 금번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한 본 연구는 기존의 기준과 관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재난에 대해 ‘전 시민 연령층에 대한 심리 회복탄력성 향상 방안’을 시도한 최초의 연구라 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부산시 뿐 아니라 타 지자체, 나아가 장래의 유사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함
- 다만,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적, 기간적, 상황적 제한이 존재하고 있어 지역과 시기를 넘어서서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타 지자체 및 유사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보다 보편화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
- 본 연구의 결과는 상황과 시기를 초월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수요에 따른 공공서비스 제공, 이용자 만족도 향상 방안 등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시키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함

목 차

| | |
|----------------------------------|----|
| 제1장 연구 개요 | 1 |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 1. 연구의 배경 | 1 |
| 2. 연구의 목적 | 3 |
| 제2절 연구의 범위 | 3 |
| 제3절 연구방법 | 4 |
| 제4절 연구수행절차 | 5 |
| 제2장 회복탄력성의 이론적 논의 | 9 |
| 제1절 회복탄력성의 개념과 연구 동향 | 9 |
| 1. 회복탄력성의 개념 | 9 |
| 2. 회복탄력성 관련 연구동향과 접근방법 | 10 |
| 3. 회복탄력성 접근모형 | 10 |
| 4. 심리적 스트레스 관점에서의 회복탄력성 모델 | 11 |
| 제2절 회복탄력성 향상 영향 요인 | 12 |
| 1. 회복탄력성 향상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 12 |
| 2. 회복탄력성의 측정 | 16 |

제3장 회복탄력성의 사례분석 21

제1절 부산시 지역사회 현황 21

1. 부산시 지역사회 특성 21
2. 2020부산사회조사 결과 23

제2절 회복탄력성 관련 부산광역시 현황 28

1. 관련 법령 28
2. 부산시의 재난 추진 정책 30

제3절 회복탄력성 관련 타 지자체 대응 사례 32

1. 중앙정부 32
2. 지방정부 35

제4장 분석모델의 설정 47

제1절 국내외 기술현황 47

1. 국내 정신건강지표 검토 47
2. 해외 정신건강지표 검토 49

제2절 연구의 분석모델 54

1. 변수의 설정 54
2. 분석모형의 설계 55
3. 설문조사 설계 57

| | |
|---------------------------------|------------|
| 제5장 연구의 주요내용 | 61 |
| 제1절 감염병 재난 대응 모델 | 61 |
| 1. 감염병 재난 대응 모델 구축방안 | 61 |
| 제2절 설문조사 주요내용 | 73 |
| 1. 설문조사 개요 | 73 |
| 2. 설문조사 응답자 개요 | 81 |
| 3. 설문조사 주요결과 | 84 |
| 제3절 연령층별 주요 인터뷰 내용 | 117 |
| 1. 심층 인터뷰 주요 내용 | 117 |
| 2. 연령층별 회복 탄력성 정책 방향 도출 | 127 |
| 제4절 감염병 재난 시대의 회복탄력성 정의 | 143 |
| 1. 코로나 재난 | 143 |
| 2. 회복탄력성 | 144 |
| 제5절 연령층별 주요 정책 | 146 |
| 1. 연령층별 주요 정책 도출 절차 | 146 |
| 2. 연령층별 주요 정책 리스트 | 147 |
| 3. 연령층별 주요 정책 | 150 |
| 제6장 정책 제언 | 199 |
| 제1절 연령층별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정책 | 199 |
| 제2절 정책 제언 | 207 |
| 참고문헌 | 214 |
| 부록 | 221 |

그 림

| | |
|--|----|
| [그림 1] 연구의 수행절차 | 5 |
| [그림 2] 포괄적 회복탄력성 모형 | 11 |
| [그림 3] COVID-19 관련 지역사회 재난 회복탄력성 | 14 |
| [그림 4] 스트레스 요인별 체감 수준 | 23 |
| [그림 5]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주요 업무 | 32 |
| [그림 6] 국립트라우마센터 재난 정신건강 위기대응 | 33 |
| [그림 7] 힐링송 선정 곡 | 36 |
| [그림 8] 대구시의 코로나 극복 이모티콘 | 37 |
| [그림 9] UCC공모전 포스터 | 37 |
| [그림 10]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 38 |
| [그림 11] 슬기로운 정신건강 생활 포스터 | 39 |
| [그림 12] 1인가구 돌봄플러그 | 41 |
| [그림 13] 행복드림 상자텃밭 | 41 |
| [그림 14] 마음으로 안심버스 구성 | 42 |
| [그림 15] Minimum data set of European mental health indicators에서의 정 신보건 기능모형 | 52 |
| [그림 16] 회복탄력성 영향요인 분석모형 | 55 |
| [그림 17] 연구의 분석모형 | 56 |
| [그림 18] 변수도출 및 설문 문항 구성 절차 | 57 |
| [그림 19] 합리모형 | 63 |
| [그림 20] 엘리슨 모형 | 65 |
| [그림 21] 부산시 맞춤형 재난대응모델 | 66 |
| [그림 22] 감염병 재난 유형에 따른 대응체계의 차이 | 67 |
| [그림 23]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주간 감염병 소식지 조회 수 | 70 |

| | |
|---|-----|
| [그림 24] Top-bottom 방식 적용 예시 | 71 |
| [그림 25] 비정형 조직 활용 예시 | 73 |
| [그림 26] 설문 문항 설계 과정 | 79 |
| [그림 27] 설문조사 현장사진 | 80 |
| [그림 28] 부산의 코로나 대응 주된 컨트롤 타워(총괄기관) | 93 |
| [그림 29] 연령층별 인터뷰를 통한 정책 방향성 도출 프레임 | 128 |
| [그림 30] 자원봉사 음악회 공연 | 136 |
| [그림 31] 부산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문자원봉사자의 도시락 배달 | 137 |
| [그림 32] 타지자체 깎이어 지원 정책 사례 | 156 |
| [그림 33] 청년 버스킹 / 청년 활동 공간 | 158 |
| [그림 34]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 168 |
| [그림 35] 부산시 광역 /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 191 |
| [그림 36] 대한적십자사 황금도시락 사례 | 193 |
| [그림 37] 아파트 단지 내의 자원봉사 음악회 개최 사례 | 194 |

표

| | |
|---|----|
| <표 1> 회복탄력성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 15 |
| <표 2> 복합적 차원의 고려사항 | 17 |
| <표 3> 국외의 회복탄력성 주요측정방법 | 18 |
| <표 4> 부산시의 인구 변동 현황 | 21 |
| <표 5> 연도별 인구변동 추이 | 22 |
| <표 6> 공동체 의식 정도 | 26 |
| <표 7> 주요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 40 |
| <표 8> 기존 국가수준 건강조사에 조사된 정신건강영역 (국내) | 47 |
| <표 9> 기존 국가수준 건강조사에서 조사된 정신건강영역 (미국-NHANES) | 50 |
| <표 10> 기존 국가수준 건강조사에서 조사된 정신건강영역 (스코틀랜드) | 51 |
| <표 11> UK Biobank의 정신건강영역 조사항목 | 51 |
| <표 12> 주요 국제기구의 정신지표개발현황 요약 | 53 |
| <표 13> 변수의 정의 및 목록 | 54 |
| <표 14> 코로나19 대응 서울시 특화 정책 논리모형 사례 | 62 |
| <표 15> 합리모형의 한계 | 64 |
| <표 16> 엘리슨의 집단 의사결정 모형 | 64 |
| <표 17> 모형 적용 예시 | 66 |
| <표 18> 기존 복지체계 정비 필요성 | 68 |
| <표 19> 감염병 관리지원단의 주요 제공 서비스와 문제점 | 69 |
| <표 20> 매트릭스 조직의 장단점 | 72 |
| <표 21> 조사 대상 구분 | 74 |
| <표 22> 부산시 지역별·연령층별 인구수 | 76 |
| <표 23> 지역별 경제수준 도출 | 77 |
| <표 24> 지역별 표본규모 할당 | 78 |
| <표 25> 지역별 표본규모 할당 | 79 |
| <표 26> 응답자 분포 현황 | 81 |

| | |
|--|-----|
| <표 27> 응답자 특성 | 82 |
| <표 28> 코로나 이전과 비교시,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인식 | 84 |
| <표 29> 코로나 19 방역과 관련된 인식 | 85 |
| <표 30> 코로나 이후의 대인관계 | 86 |
| <표 31> 코로나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인식 | 87 |
| <표 32> 방역정책 / 회복 및 지원에 대한 인식 | 88 |
| <표 33> 코로나 감염 후 완치자에 대한 인식 | 89 |
| <표 34> 심리상담 기관에 대한 이용경험 및 인지도 | 90 |
| <표 35> 코로나 피해 회복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의견 | 91 |
| <표 36> 부산시/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 92 |
| <표 37> 부산의 코로나 대응 주된 컨트롤 타워(총괄기관) | 93 |
| <표 38> 기술통계 | 94 |
| <표 39> 부산의 동질성 검정 | 94 |
| <표 40>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 94 |
| <표 41> Tukey HSD 다중비교 | 95 |
| <표 42> Dunnett t (양측)a | 95 |
| <표 43> 현재 상태에 대한 인식 | 96 |
| <표 44> 불안감의 연령대별 특성 | 97 |
| <표 45> 심리 회복에 필요한 우선순위 | 98 |
| <표 46> 연령층별 피해회복 요인 1순위 | 100 |
| <표 47> 가중치 부여한 순위 도출 | 101 |
| <표 48> 연령층별 피해회복 요인 평균값 | 102 |
| <표 49> 코로나 사태로 인한 현재의 전반적 스트레스 수준 | 103 |
| <표 50> 코로나 이전 대비 스트레스 증가 이유(복수응답) | 105 |
| <표 51> 코로나 이전 대비 스트레스 증가 이유(복수응답) | 107 |
| <표 52>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소득수준 교차표 | 109 |
| <표 53> 연령층별 재난복구 참여의향 | 109 |
| <표 54> 더미변수의 목록 및 정의 | 110 |
| <표 55> 모형요약 | 111 |
| <표 56> 분산분석 | 111 |

| | |
|---|-----|
| <표 57> 계수 | 112 |
| <표 58> 모형요약 | 113 |
| <표 59> 분산분석 | 113 |
| <표 60> 계수 | 114 |
| <표 61> FGI 개요 | 117 |
| <표 62> 설문조사와 FGI의 비교 | 118 |
| <표 63> 공통 항목의 주요 키워드 | 128 |
| <표 64> 청소년 주요 키워드 | 129 |
| <표 65> 청년 1(대학생) 주요 키워드 | 130 |
| <표 66> 청년 2(대학졸업 이후) 주요 키워드 | 130 |
| <표 67> 중년 주요 키워드 | 131 |
| <표 68> 중·장년 주요 키워드 | 132 |
| <표 69> 건강한 노년 주요 키워드 | 133 |
| <표 70> 보호가 필요한 노년 주요 키워드_1 | 134 |
| <표 71> 보호가 필요한 노년 주요 키워드_2 | 135 |
| <표 72> 지역예술인 주요 키워드 | 136 |
| <표 73> 전문자원봉사자 주요키워드 | 137 |
| <표 74> 연령층별 주요 회복 탄력성 요인_1 | 140 |
| <표 75> 연령층별 주요 회복 탄력성 요인_2 | 141 |
| <표 76> 정책요인별 분야 | 142 |
| <표 77> 재난의 특징 | 143 |
| <표 78> 연령층별 주요 정책 도출 절차 | 146 |
| <표 79> 청소년/대학생/(예비)취(창)업생 주요 정책 리스트 | 147 |
| <표 80> 중년/장년/60대 주요 정책 리스트 | 148 |
| <표 81> 70대 이상/자원봉사자/지역예술인 주요 정책 리스트 | 149 |
| <표 82> 청소년 (경제 - 재난지원금) | 150 |
| <표 83> 청소년 (문화 - 야외활동 기회) | 151 |
| <표 84> 청소년 (상담 - 심리상담) | 152 |
| <표 85> 대학생 (경제 - 재난지원금 대학생 할인제도) | 153 |
| <표 86> 대학생 (문화 - 온라인 문화 콘텐츠 지원) | 154 |

| | |
|--|-----|
| <표 87> 대학생 (교육 - 취업, 교육, 시험 등의 정보 접근성) | 155 |
| <표 88> 대학생 (시설 - 공원/산책로 정비) | 157 |
| <표 89> 대학생 (건강 - 충분한 휴식) | 158 |
| <표 90> 대학생 (감염병 관리 - 백신, 방역, 격리시설) | 159 |
| <표 91> (예비)취·창업생 (경제 - 재난지원금) | 160 |
| <표 92> (예비)취·창업생 (교육 - 전문성 향상 컨설팅) | 162 |
| <표 93> (예비)취·창업생 (시설 - 공원/산책로 정비) | 163 |
| <표 94> (예비)취·창업생 (감염병 관리 - 백신, 방역) | 164 |
| <표 95> 중년 (경제 - 지원금) | 165 |
| <표 96> 중년 (교육 - 중년층 재취업 지원) | 166 |
| <표 97> 중년 (상담 - 격리자/확진자 심리상담) | 167 |
| <표 98> 중년 (시설 - 공원/산책로 정비) | 168 |
| <표 99> 중년 (건강 - 병상, 의료인, 시설확보) | 169 |
| <표 100> 중년 (감염병 관리 - 백신, 방역, 격리시설, 정보공개) | 170 |
| <표 101> 중년 (기타 - 주부격리 시 가정돌봄, 정책 형평성) | 171 |
| <표 102> 중년 (기타 - 고용안정성) | 171 |
| <표 103> 장년 (경제 - 재난지원금) | 173 |
| <표 104> 장년 (문화 - 지역상설 베품시장, 예술인 재능기부 체계화) | 173 |
| <표 105> 장년 (교육 - 자녀돌봄 지원서비스, 취업지원 센터 실효성) | 175 |
| <표 106> 장년 (상담 - 심리상담센터 홍보필요) | 176 |
| <표 107> 장년 (건강 - 자유로운 참여의 건강프로그램) | 177 |
| <표 108> 장년 (감염병 관리 - 백신, 방역 격리시설, 정보공개) | 178 |
| <표 109> 60대 (경제 - 재난지원금, 동백전 활용도 향상) | 179 |
| <표 110> 60대 (문화 - 공연,전시 등 문화콘텐츠지원, 생활체육 활성화) | 180 |
| <표 111> 60대 (시설 - 공원/산책로 정비) | 181 |
| <표 112> 60대 (감염병 관리 - 백신, 방역, 격리시설) | 182 |
| <표 113> 60대 (문화 - 공연,전시 등 문화콘텐츠지원, 생활체육 활성화) | 183 |
| <표 114> 70대 이상 (경제 - 재난지원금, 주기적 지역상품권) | 184 |
| <표 115> 70대 (문화 - 사회봉사 분야 선택권) | 185 |
| <표 116> 70대 이상 (상담 - 주기적 상담 및 말벗) | 186 |

| | |
|--|-----|
| <표 117> 70대 이상 (시설 - 공원/산책로 정비) | 187 |
| <표 118> 70대 이상 (건강 - 고령자특화 건강프로그램) | 188 |
| <표 119> 70대 이상 (감염병 관리 - 백신, 방역, 격리시설) | 188 |
| <표 120> 자원봉사자 (경제 -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 189 |
| <표 121> 자원봉사자 (문화 - 취약계층방문 (말벗,안부,간단한 신체활동)) | 190 |
| <표 122> 자원봉사자 (교육 - 자원봉사자 연수 및 교육) | 190 |
| <표 123> 자원봉사자 (상담 - 취약계층 전화통로 오픈) | 191 |
| <표 124> 자원봉사자 (시설 - 자원봉사자 시설, 재난대피소 시설 구비) | 192 |
| <표 125> 자원봉사자 (건강 - 도시락 제공 정책화) | 193 |
| <표 126> 지역예술인 (경제 - 공연최소경비 지원방안) | 194 |
| <표 127> 지역예술인 (문화 - 자원봉사 체계화, 지역커뮤니티 정서회복) | 195 |
| <표 128> 지역예술인 (시설 - 공연장소지원) | 196 |
| <표 129> 경제분야 연령층별 주요 정책 | 199 |
| <표 130> 문화분야 연령층별 주요 정책 | 200 |
| <표 131> 교육분야 연령층별 주요 정책 | 201 |
| <표 132> 상담분야 연령층별 주요 정책 | 202 |
| <표 133> 시설분야 연령층별 주요 정책 | 203 |
| <표 134> 건강분야 연령층별 주요 정책 | 204 |
| <표 135> 감염병 관리분야 연령층별 주요 정책 | 205 |
| <표 136> 기타 분야 연령층별 주요 정책 | 206 |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의의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지방 정부 중심 재난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

- 현대사회에서 증가하는 재난의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에 의해 최근 재난 정책의 패러다임은 '취약성(Vulnerability)' 중심에서 '회복탄력성(Resilience)' 강화로 변화되고 있음
 - 최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재난 현상은 위험을 인간이 통제하는 대상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어떻게 하면 이를 쉽게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음
 - 즉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려는 노력에서 '재난을 인간 삶의 일부로 인식하여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극복하고 원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응 및 복구 차원에서의 논의가 강조되고 있음
- 지방정부의 역할도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취약한 지역을 강화시키는 인프라적인 면보다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회복력을 향상시켜 피해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역량이 되었음
 - 따라서 기존 시스템으로는 물질적 피해의 최소화 및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되, 더 나아가 사회-생태학적 관점의 '회복탄력성' 개념을 중심으로 피해자 및 불안함을 느끼는 시민들의 심리적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코로나 블루' 현상이 발생하고 사회적 위기가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위기 상황에 대한 심리 극복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이를 위한 심리방역방안에 대해 논의되는 등 심리적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음

- 회복탄력성에 대한 그간 연구들은 정부나 기관, 조직들을 대상으로 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최소화하고,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한 연구들이었으며 이미 많은 논의를 통해 지방정부는 취약성을 보완할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감염병 재난은 일시적 위기 극복이 아니라, 재난 상황으로 인한 일상의 변화로까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아직 심리적 측면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논의는 미비함
 - 한편 같은 위기라도 그 위기를 받아들이고 회복하는 데 개인(연령층)별 차이를 보임을 인식하고, 회복탄력성 향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령층별 맞춤형 정책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 재난 이후 건강한 삶으로 회복하기 위한 심리적 회복은 매우 중요하며(최남희 외, 2018), 이를 간과했을 시,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가늠할 수 없는 사회 간접 비용이 유발될 수 있음
 - 특히, 최근 코로나 19상황에서 확진자 동선 공개 등 방역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 집단, 지역 간 불신은 지역 사회의 연대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공동체 의식의 회복 역시 주요한 재난 대응의 요소로 인식됨
 - 재난 발생 시, 지방정부는 주민과 직접 접촉하며 지역 사회 가용 자원을 파악하고 있어 신속하고 대응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에 그 역할과 책임이 강조됨(김상임, 2020)
 - 재난 대책이 기존의 취약 인프라 강화에서 심리적 회복과 원 상태로의 복귀라는 소프트웨어적 관점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지역 사회에서의 생태적 적응에 있어서도 지방정부의 대응은 중요함
 - 따라서 향후 재난 대응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방역 체계 관리와 보편적 지원 및 해결을 담당한다면 지방정부는 지역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에 중점을 둔 지원이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 연령층별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요인의 확인을 통해 향후 재난 발생 시 위기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연령층별로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현재 부산시에서는 이들의 회복탄력성을 위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함
-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보완하여 재난 발생 시 위기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향후 감염병 재난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할 수 있으며, 치료제와 백신이 만들어지기 전까진 감염병과 공존한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감염병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방정부에서 연령층별 회복탄력성 향상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감염병 재난 속에서도 심리적 안정을 빨리 회복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제2절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부산시
- 시간적 범위 : 2021년
- 내용적 범위
 - 회복탄력성의 개념적 정의 및 관련 선행 연구 분석
 - 회복탄력성 영향요인 도출
 - 연령층별 회복탄력성 향상 요인 분석
 - 향후 재난 발생시 대응이 가능한 회복탄력성 대응 모델 도출
 - 부산시 회복탄력성 대응 기존 정책 분석

- 연령층별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대응 방안 도출

□ 연구기간 : 2021. 03. ~ 2021. 12.

제3절 연구방법

□ 문헌조사

-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논문·보고서 등의 조사
 - 심리적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기존논의를 고찰하기 위해 국내외 보고서, 논문 등 각종 문헌을 조사하는 문헌조사 방법을 적용함
- 부산시와 유사한 사례를 조사하여 부산시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등 전국 단위 사례를 광범위하게 활용함
 - 심리적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부산시의 직·간접적 정책을 분석하여 부산시의 심리적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정책을 파악하며, 유사 사례 조사를 통한 비교·분석 후 부산시에 적용가능한 시사점 도출
- 회복탄력성과 관련한 최근 학계의 경향, 실제 사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고자 함

□ 설문조사

-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행정구역별 표본 추출 후 설문조사 실시
 - 설문결과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부산시를 소득수준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지역별 대표성 확보
 - 연령층별 계층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로 연령층별 대표성 확보
 - 즉, 부산시의 소득 수준별 지역의 대표성 확보·연령층별 대표성을 확보하여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도 향상
 - 설문 문항은 재난에 따른 심리적 피해 정도, 정책적 방향에 대한 선호 등으로 구성함

□ FGI

- 설문조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연령층별 심층 인터뷰 실시
 - 재난에 따른 심리적 피해와 이에 따른 보다 내면의 감정에 대한 사실적 접근을 통해 주민밀착형 정책 방안 도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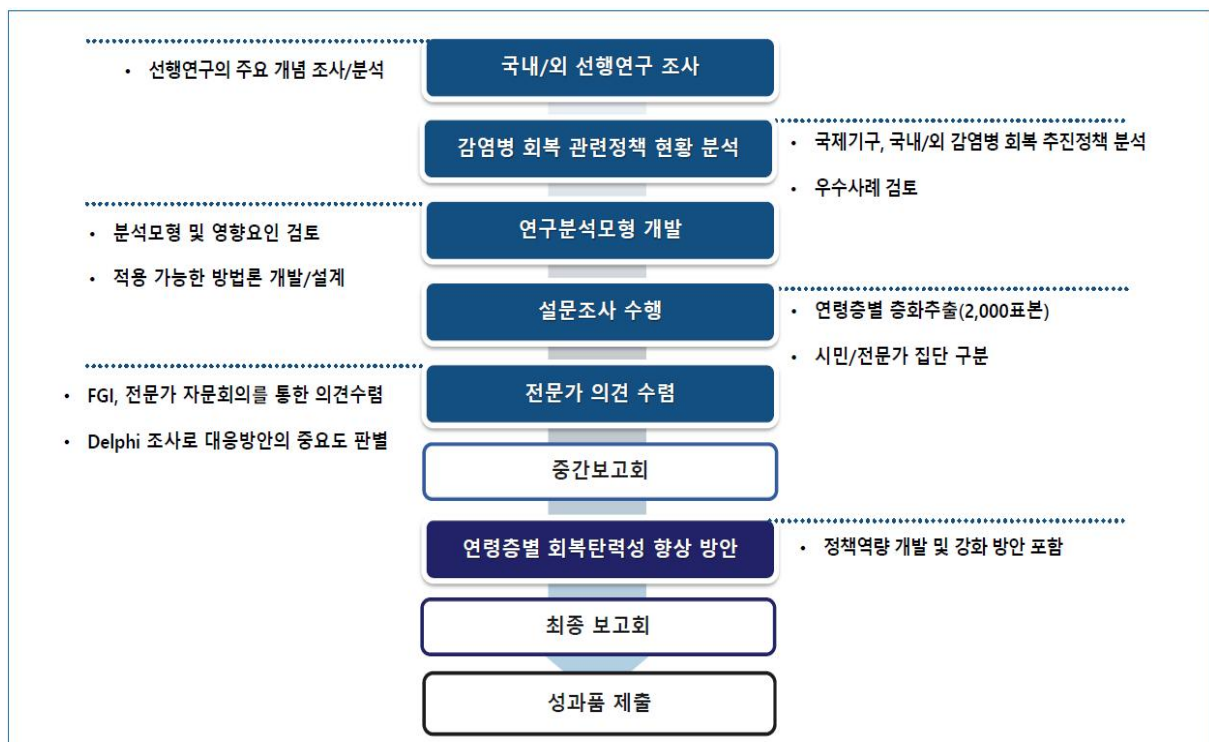
□ 전문가 자문

- 연구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심리 전문 분야, 행정 전문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도 향상

□ 통계적 기법

- 정책적 영향요인 및 시사점 도출을 위해 구조방정식, 회귀분석, t-검증, ANOVA 등 다양한 분석 실시로 신뢰도 높은 연구 결과 도출

제4절 연구수행절차



[그림 1] 연구의 수행절차

제2장 회복탄력성의 이론적 논의

제1절. 회복 탄력성의 개념과 연구 동향

제2절. 국내·외 선행 연구

제2장 회복탄력성의 이론적 논의

제1절 회복탄력성의 개념과 연구 동향

1. 회복탄력성의 개념

- 현재까지의 평형모델, 안정모델과는 반대되는 패러다임으로서의 ‘회복탄력성’
 - 회복탄력성은 심리학(Bonanno, 2004; Masten, 2001), 사회학(Mileti, 1999), 사회생태체계(Folke, 2006; Nelson, Adger & Brown, 2007)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음
 -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개념은 생태계의 변화를 설명한 C.S. Holing의 연구(1973)에서 처음 등장하였음
 - Holing은 “시스템의 지속성, 즉 시스템이 변화와 교란을 흡수하여 인구나 상태 변수 간 동일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의 척도”로 정의 함
 - 따라서 시스템의 변동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생태학적 복원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이는 이제까지의 평형 또는 안정 모델(equilibrium or stability models)과 반대되는 시도임
 - Timmerman(1981)은 “위험한 사건의 발생에 대해서 시스템이 흡수하고 회복할 수 있는 용량”으로 정의한 바 있음
 - Peter(1981)는 재난 분야의 회복탄력성에 대해서 “위험한 사건의 발생을 흡수하고 복구하는 역량”으로 정의하였음
 - 하지만 본질적으로 사회의 회복탄력성이란 “급작스러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환경적 변화에 대한 지역사회와 집단적·체계적 대처 역량”으로 볼 수 있음(Adger, 2000; Kwok et al., 2016)

2. 회복탄력성 관련 연구동향과 접근방법

- 사회 재난에서 회복탄력성을 실질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함
 - Tiernan, A(2018)은 2012년 이후 재난 관련 회복탄력성 주제의 연구동향을 검토하였음
 - 재난과 관련된 회복탄력성 연구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지역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정의하고 논의하는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실제 측정을 가능케 하는 모형이나 평가방법을 제시한 연구는 거의 없다는 점이 지적됨(Mayunga, 2007; Ostadtaghizadah et al, 2015)
 - 한편, 국내의 선행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기존의 취약성을 기존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논의는 많으나, 사회 재난 상황 하에서 ‘심리적 측면의 회복 탄력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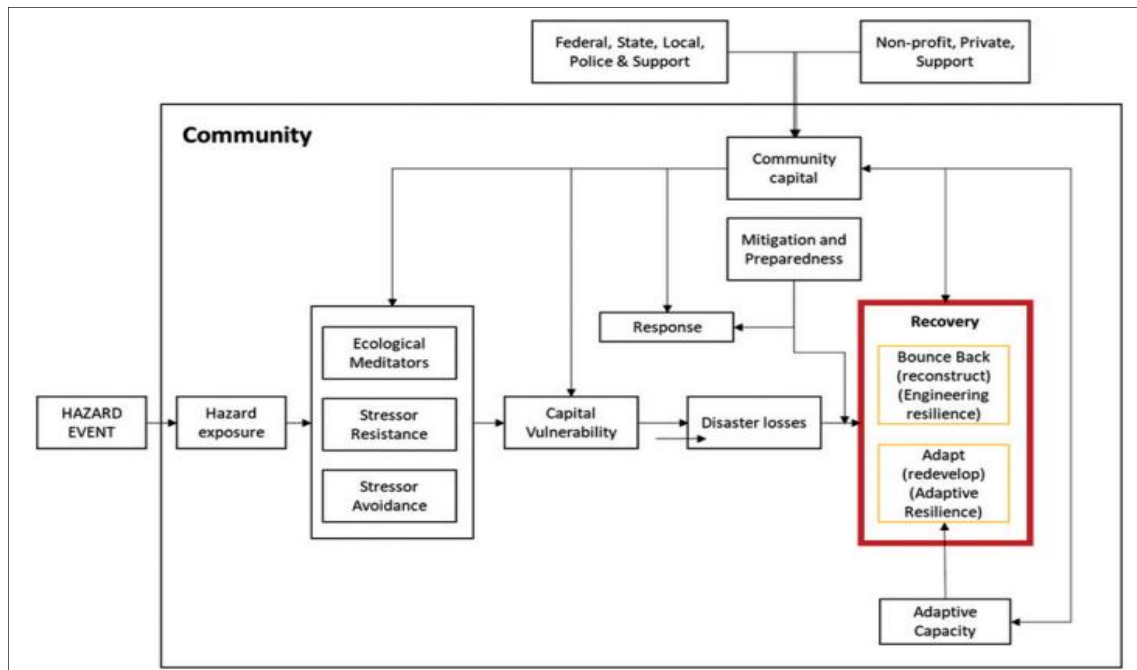
3. 회복탄력성 접근모형

- 회복탄력성의 개념적 변화와 관련하여 Kapucu et al(2013)이 제안한 포괄적 회복탄력성 모형
 - 회복탄력성의 개념적 변화와 관련하여 Kapucu, Hawkins & Rivera(2013)는 사회시스템에 교란을 일으키는 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회복탄력성 모형을 제시하였음
 - ▶ 여기에서는 회복에 대한 접근방법을 “반발”과 “적응”으로 구분함
 - ▶ 이는 단발성 혹은 다중 재해에 대한 복구 기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함
 - 즉, 재난에 대한 적응(대응)만큼 시스템 요소의 안정성 확보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음
 - 한편, 모형의 핵심은 지역사회(communitiy)로 대부분의 구성 요소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함
 - ▶ 따라서 Coles & buckle(2004)는 “지역사회가 회복의 과정에 전적으로 참여할 때 회복탄

력성이 극대화된다”고 주장한 바 있음

- 즉, 지역사회 및 구성원의 참여는 회복탄력성의 성패를 가름하는 핵심 요소로 볼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Aldrich & Meyer(2015)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제안함. 첫째, time banking 프로그램 같은 지역사회 통용가치(currencies)의 실현, 둘째 특정 그룹 및 지역사회의 비대면 이벤트 개최,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구조와 형태의 체계적 계획화



[그림 2] 포괄적 회복탄력성 모형 (*자료: Tiernan, A. et al., (2018))

4. 심리적 스트레스 관점에서의 회복탄력성 모델¹⁾

- 보상모델(compensatory model): 보호 요인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감소시키고, 위험 요인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함
 - ▶ 보상모델에서는 보호 요인과 위험 요인 간 상호작용은 없으며 상호 배타적 관계를 가짐
- 도전 모델(challenge model): 스트레스의 양이 지나치지 않을 경우 위험 요인은 오히려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작용을 하게 됨

1) 본 단락은 추병완(2017)을 발췌·재정리함 (추병완, 2017, 초등 교실에서 회복탄력성 증진 방안, 초등도덕교육, 55)

- 보호 요인 모델(protective factor model) : 보호 요인은 부정적 결과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위험 요인과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여겨짐
 - ▶ 회복탄력성 연구에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일부 연구자는 ‘면역 대 취약성 모델 (Immunity versus vulnerability)’로 명명함
- 보호 안정 모델(protective stabilizing model): 보호 요인이 위험의 효과를 상쇄하는 것을 도울 때 발생한다고 인식 함
 - ▶ 즉, 보호 요인이 있을 때에는 위험과 결과 간 아무 관계가 없음
- 보호 반응 모델(protective reactive model): 보호 요인이 위험과 결과의 관계를 완전히 상쇄하지 못한다 해도 이를 약화시킬 수 있음에 주목함
- 보호 보호 모델(protective protectivemodel): 보호 요인이 결과를 초래함에 있어 또 다른 보호 요인의 효과를 높여준다고 인식함
 - ▶ 회복탄력성은 위험의 현존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모델은 엄밀한 의미에서 회복탄력성 모델이라 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음

제2절 회복탄력성 향상 영향 요인

1. 회복탄력성 영향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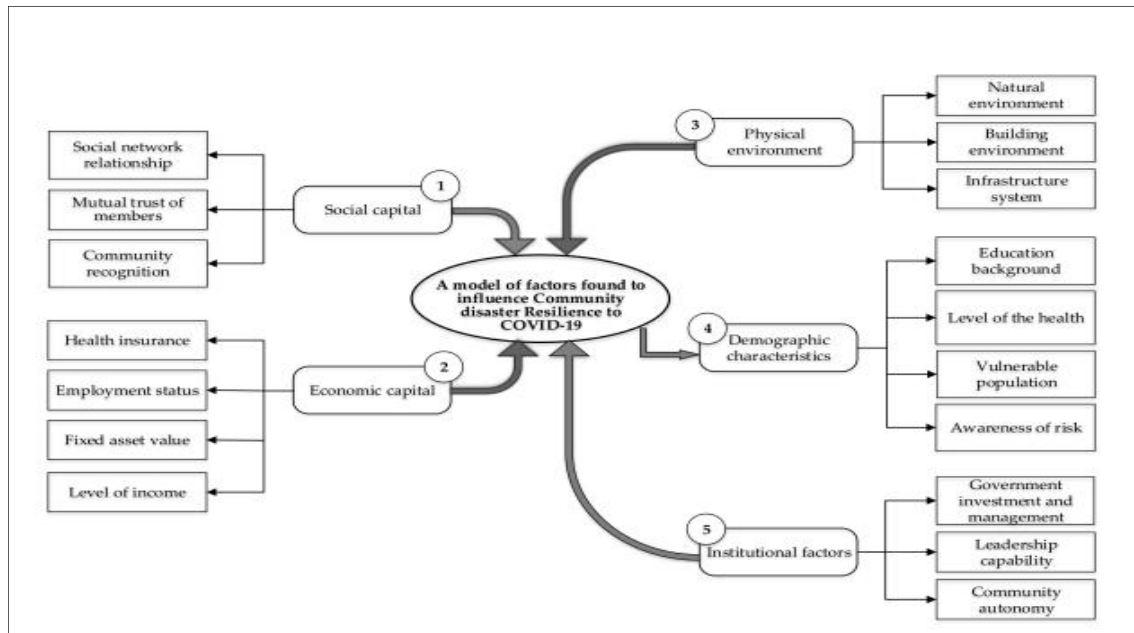
□ Mayer(2013)의 실증 연구

- Mayer(2013)는 회복탄력성을 커뮤니티 지수(Community Indices), 사회적 결속도(Social Cohesion), 재난에 대한 집단적 효과(Disaster Collective Efficacy)로 재구분함
 - 즉, 커뮤니티 수준, 사회적 결속, 재난에 대한 집단적 효과를 회복탄력성의 주된 요인으로 보았음
 - 이들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서는 지역의 역사(Tenure in county), 150% 이하 수준의 빈곤층, 재난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비 수준(인식)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지역 주민이 겪은 재난의 경험은 회복탄력성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였음

□ Xu 외(2021)의 영향요인 탐색 연구

- Xu 외의 연구(2021)에서는 COVID-19 관련 지역사회 재난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해서 ISM-AHP의 통합모델을 사용함
- 우선 AHP를 통해 관련 요인들을 탐색하고, 이후 ISM을 통해 요인 간 상호 네트워크의 계층적 관계를 분석함
- 지역사회 재난 회복탄력성에 대해서는 크게 사회적 자본, 경제적 자본, 물리적 환경, 인구통계학적 특성, 제도적 요인 등 5가지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함
- 각각의 요인에 대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음
 - ▶ 첫째,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네트워크 관계, 구성원 간 신뢰, 지역사회의 특성으로 구성됨
 - ▶ 둘째, 경제적 자본은 건강보험, 고용 현황, 비유동 자산, 소득수준으로 구성됨
 - ▶ 셋째, 물리적 환경은 자연환경, 개발환경, 사회 인프라 및 시스템으로 구성됨
 - ▶ 넷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교육환경, 건강 수준, 취약계층의 인구구성 현황, 위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로 구성됨
 - ▶ 다섯째, 제도적 요인은 정부의 투자와 관리, (주민위원회)리더십 역량, 지방자치 수준으로 구성됨
- 분석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경제적 자본, 물리적 환경, 제도적 요인, 사회적 자본의 순으로 높은 가중치를 확보함



[그림 3] COVID-19 관련 지역사회 재난 회복탄력성(*자료: Wenping Xu et al(2021))

□ 국내 선행연구의 검토

- 첫째, 최근 들어 회복탄력성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으며, 해외와는 다르게 영향요인을 검증한 주제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 주로 지방정부의 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최신 연구에 들어와 ‘사회적 지지’ 및 ‘사회적 자본’ 개념이 주요 변수로 다뤄지고 있음
- 즉, **지방정부 주도의 심리지원 인프라 측면 및 사회적 연계 강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접근방법을 수행**
- 둘째, 재난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감염병 재난(보편적 영향력)에 대한 회복탄력성 조작적 정의의 사례 부재
 - ▶ Mayer(2013), Xu 외 (2021) 등 해외 선행연구 사례를 참고하여 부산지역 실정에 맞는 연구모형의 재설계 수행
- 셋째, 감염병 재난에 관한 연령층별 요인을 고려한 선행연구 역시 거의 없으며, 일부 유사 주제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분석모형을 설계함
 - ▶ 대상별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상시적 재난이라 볼 수 있는 우울감 등에 대한 유의미한 연령층 변수 도출 과정 수행

<표 1> 회복탄력성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 연번 | 저자 | 연구 대상 | 주요 내용 | 연구 방법 | 비고 |
|----|-----------------------|------------------------|---|------------------------------|---------------------------|
| 1 | 김상임 (2020) | 재난피해자 (자연, 사회) | 회복탄력성 개념 정의. 사회적 자본과 회복탄력성 간 인과관계 | 다중회귀분석 | 회복탄력성 조사 항목 |
| 2 | 박진희 (2013) | 문헌연구 | 회복탄력성의 요소, 개념 정의: 견고성, 대체성, 융통성, 신속성, 모듈성, 통합성 | 문헌연구 | 시민성 개념 연계 |
| 3 | 최남희 외 (2018) | 재난피해자 (4개시군구) | 대상(어린이, 노인)과 재난 유형별 심리지원 지침 재난 피해자의 사회심리적 요구 조사 | 설문조사 및 기술 통계 분석 | 재난 심리 지원 단계별 매뉴얼 |
| 4 | 이대웅, 권기현 (2017) | 지방정부 경험 자연재난 | 회복탄력성 비용을 통한 회복 탄력성 측정(종속변수). 지방정부 부문별 역량(독립변수) | 공간 회귀 분석 | 과업지시서 참조 연구 |
| 5 | 김수영 (2020) | 가구 | 가구 유형 및 성별, 학력, 소득 수준,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 포함한 패널데이터 분석 | t-test, 선형회귀분석 | ‘사회적지지’ 유의미 변수 |
| 6 | 이가을, 변병설 (2020) | 지방정부 역량 | 재난 회복탄력성 개념 지자체의 경제적, 물리적, 인적 역량 독립변수. 기후적, 지형적 요인 통제변수 | 패널회귀분석 | 10년 축적 데이터 |
| 7 | 김창진 외 (2020) | 재난전문가 (공무원, 연구원) | 지역사회 요인 중 주민참여, 공동체 신뢰 요인이 주요 변수로 도출 | AHP | 지방정부 초점 |
| 8 | 기경희, 김광수 (2018) | 문헌연구 | 회복탄력성의 개념(필수전제인 역경의 수준과 범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개념 정의 | 문헌 연구 | 회복탄력성 척도 제시, 비교 |
| 9 | 강희숙 외 (2021) | 대학생 | 대학생의 회복탄력성과 긍정적 관계인 보호요인, 부정적 관계인 위험요인 설계 | 사전-사후 실험집단 설계 | |
| 10 | 추병완 (2021) | 초등학생 | 아동 회복탄력성의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 교실 풍토 조성을 통한 회복탄력성 증진 방안 | 회복탄력성 모델 분석 | |
| 11 | 김혜진 (2018) | 중학생 | 회복탄력성 향상 요소: 자아효능감, 건강한 사회적 관계망, 긍정적 마음가짐 및 회복탄력성 개념 정의 |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설계 | 회복 탄력성 프로그램 제시 |
| 12 | 송영지, 김새봄 (2019) | 여성 | 재난관리 지원체계에 관한 제언 | 기술통계분석 | |
| 13 | 송영지 외 (2020) | 노인 | 재난 후 회복탄력성이 노인의 PTSD에 미치는 영향. 재난복지 실천적 함의 제시 |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 - |

2. 회복탄력성의 측정

- 일반적으로 회복탄력성의 측정에는 투입(input)과 산출(output), 결과(outcome)가 활용됨
 -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이라 함
 -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 인력, 시설 등의 투입이 필요함
 - ‘산출’은 공공서비스 제공의 직접적인 산물을 의미함²⁾
 - 본 연구에서 ‘산출’은 제공 정책의 ‘수혜자 수’, 또는 ‘활동의 산물(예를 들어 심리 상담 건수)’로 표시되어 짐
 - ‘결과’는 공공서비스 제공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의 달성 정도를 의미함
 - 즉 재난심리지원센터나 심리상담의 지원 등은 센터의 숫자나 상담 건수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런 공공서비스를 통하여 시민들의 심리적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
 -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제는 심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는 계량적으로 표시하기가 어려우며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의 심리적 회복정도, 회복탄력성 향상 정도 등으로 표시되어 지며,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 ‘심리적 안정감 향상 정도’ 등으로 표시되어 짐

2) 무엇이 ‘산출(output)’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합의된 정의는 부재한 상태임. 이는 명확하게 구별이 쉬운 것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음. 공공 교육서비스 제공의 산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만약 성적향상이라고 한다면 이는 가정교육, 학교 교육, 학원, 인터넷 강의, 개인 과외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성적이 향상되었다고 해서 공교육만의 산출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에 대해 Webster(1984: 61)는 지방정부 활동에 기인하여 지역사회 상황에 어떤 변화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함. 즉, 지방정부의 통제 밖에 있는 외적인 또는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산출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함(박진규, 2016, pp 28)

또한 ‘산출’과 ‘결과’의 구분도 모호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약 재난 이후 시민의 심리적 안정감이 향상되었다고 하여도 그것이 공공서비스 제공의 결과인지, 아니면 개인의 정신력의 영향인지,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영향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 개인의 심리적 향상 정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의 심리적 회복탄력성 향상이라는 목적 하에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다루고자 함

○ 회복탄력성의 이론적 체계를 기반으로 한 각 차원의 측정은 주관적임

- 좁은 범위에 대한 측정은 전문가 조직 혹은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 설계됨
- 반면 광범위한 측정은 다양한 구성 요소의 집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원이 복합적으로 고려됨

<표 2> 복합적 차원의 고려사항

| 차원 | 예시 |
|-----|---|
| 물리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인프라 - 의사소통 체계 및 수준 |
| 인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 지식, 건강, 교육 등 |
| 사회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네트워크 - 사회적 신뢰 - 시민참여 수준 - 법/제도/규범 |
| 정치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위험 대응(감소) 계획 |
| 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대응 책임자 - 대응 시스템 수준 |
| 기술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 경보 시스템, 비상 계획 |
| 경제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생산성 |
| 빈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선 |
| 환경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수, 토양성분, 해안가, 언덕, 분지 등 |

*자료: UNDP(2014)

○ 국외 지역사회(지방정부)의 회복탄력성 측정/관리 시스템

- 국외 지역사회를 주요 범위로 한 회복탄력성 관련 측정/분석 모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3> 국외의 회복탄력성 주요측정방법

| 측정모형 | 출처 | 주요내용 | 구성요인 | 분석 단위 | 방법 |
|---|---|---|--|----------------------|--------------|
| Resilience Capacity Index (RCI) | BBR (Network on Building Resilient Regions) | 미국 내 12개의 동일 가중치 지표에 대한 지역별 점수 | -경제적 요인 -사회인구학적 요인 -커뮤니티 연결 능력 | 지역사회 (미국) | 정량적 지표 |
| Baseline Resilience Indicators for Communities (BRIC) | Vulnerability Research Institute at the Univ. of South Carolina | DROP(Disaster Resilience of Place)모델을 기반으로 한 지표 그룹 |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인프라, 기관, 역량 | 지역사회 | 수치 및 찬반 지표 |
| ResilUS | 웨스턴 워싱턴대 혁신리 환경학과 | 미국 내 지역사회 회복탄력성의 시뮬레이션 모델 | -복구 모듈, 손실 추정 모듈 | 지역사회 (미국) | - |
| Tsunami Recovery Impact Assessment and Monitoring System (TRIAMS) |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몰디브, 태국, IFRC, WHO, UNDP | 2004년 발생한 쓰나미의 영향을 받은 4개국에서 복구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그 영향력을 평가 | -필수 요구 사항 -기초 사회 서비스, -인프라 |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몰디브, 태국 | 20개의 성과 지표 |
| FAO Resilience Tool | FAO (국제식량농업기구) | 가계 취약성의 근본적 원인 | -자산 -수입 및 식품 접근, -기본 서비스 접근성, -사회 안전 -적응능력, 안정성 | 지역사회 | 정량적 지표 |
| Livelihoods Change Over Time (LCOT) | 터프츠 대학교, 메켈레 공립 대학교 | 북부 에티오피아의 주요 지역 식량 안보 위기에서의 회복탄력성 |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계 복지 -식량 안보 유동성 -빈곤 | 가계 | 정량적 지표 |
| PEOPLES Resilience Framework | 지진 공학 연구 종합센터 | MEEC R4 회복탄력성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포괄적 측정 체계 | -인구수 및 인구특성 -환경 및 생태계 -공공 서비스 인프라 -경제, 사회문화 | 지역사회 | 정량적 지표 외 혼합 |
| Community Based Resilience Analysis (CoBRA) | UNDP 육지 개발 센터 | 범용 및 상황별 회복탄력성 정 체계 | -생존 및 생계 보호 -한계점 (육체적, 인간적, 재정적, 자연적, 사회적) | 가계, 지역사회 | 수치 및 찬반 지표 |
| USAID Resilience Domain Framework | 미국 국제 개발처 (USAID) | 3개의 목표 및 하위지표 그룹의 결과 매트릭스 | -수입 -식량 접근성 -자산 적응력 -사회적 자본 및 안전망 -영양 및 건강 | 지역사회 | 정량적 지표 |
| ODI Disaster Risk Management Indicators | ODI | 경제적 영향에 중점을 둔 2015년 이후 개발 목표 중 재난 위험 지표 및 목표 | -국제, 국가, 하위 국가 및 지역 수준에 대한 영향 -결과 산출 및 투입에 대한 지표 | 개인, 가계 및 지역사회 | 개별 지표 Matrix |
| Resilience Cost Approach | IDS | 사회적, 심리적, 생태적 요소를 포함한 탄력성 비용 측정 | -사전 투자 -파괴 비용 -사후 복구 비용 | 가계 및 지역사회 | - |
| Network of Adaptive Capacities | Norries (2008) | 지역사회 회복탄력성 이론 | -경제, 사회 -정보 및 소통 -지역사회 기능 | 지역사회 | - |

*자료: UNDP(2014)

제3장 회복탄력성의 사례분석

제1절. 회복탄력성 관련 부산광역시 현황

제2절. 회복탄력성 관련 타 지자체 현황

제3장 회복탄력성의 사례분석

제1절 부산시 지역사회 현황

1. 부산시 지역사회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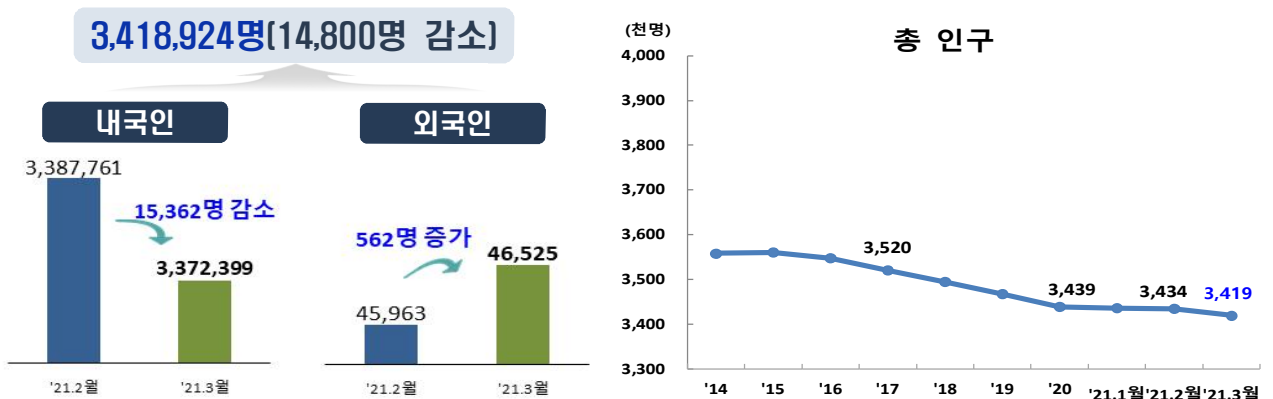
1) 부산시 인구 구조

(1) 부산시 인구 통계(21.03. 기준)

□ 총인구 수

- 총 인구수 : 3,418,924명(부산시청 홈페이지 월별 통계자료)
- 그 중 외국인은 46,525명으로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함
- 부산시는 매년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표 4> 부산시의 인구 변동 현황



- 부산시의 인구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다만 2020년부터 외국인의 감소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판단함
- 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비해 세대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이는 1~2인가구의 증가때문임(전체 세대의 64.0%)

<표 5> 연도별 인구변동 추이

| 구분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3월 |
|------------|-----------|-----------|-----------|-----------|-----------|-----------|-----------|-----------|
| 총인구 | 3,557,716 | 3,559,780 | 3,546,887 | 3,520,306 | 3,494,019 | 3,466,563 | 3,438,710 | 3,418,924 |
| 내국인 | 3,519,401 | 3,513,777 | 3,498,529 | 3,470,653 | 3,441,453 | 3,413,841 | 3,391,946 | 3,372,399 |
| 외국인 | 38,315 | 46,003 | 48,358 | 49,653 | 52,566 | 52,722 | 46,764 | 46,525 |
| 세대수 | 1,421,648 | 1,437,818 | 1,451,270 | 1,467,555 | 1,480,468 | 1,497,908 | 1,530,431 | 1,527,830 |
| 세대당 인구수 | 2.48 | 2.44 | 2.41 | 2.36 | 2.32 | 2.28 | 2.22 | 2.21 |

□ 연령별 인구 구성

- 중위연령 : 46.7세
- 유소년(0~14세) 인구 : 361,787명(총 인구의 10.6%)
- 생산가능(15~64세) 인구 : 2,393,957명(총 인구의 70.0%)
- 고령인구(65세 이상) : 663,180명(총 인구의 19.4%)

(2) 부산시 인구통계의 특성

- 부산시는 매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부산시의 인구 감소와 비슷한 정도로 인근 도시인 양산시와 김해시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음
- 코로나 19 발생 이전인 2019년까지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1~2인 가구의 지속적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산업이 발달한 사하구와 강서구를 중심으로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음
- 학군이 발달한 해운대구와 남구를 중심으로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음
- 강서구는 평균 연령이 39세로 가장 젊으며 이로 인해 인구대비 유소년 인구의 비율이 타 자치구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따라서 부산시의 보편적 특성 뿐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 대응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의 최소화 할 필요성 있음

2. 2020부산사회조사 결과

1) 건강

□ 운동 횟수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42.0%가 운동을 하며, 1주일 평균 운동일수는 3.6일, 1회 평균 운동시간은 1시간 15분으로 나타남

- 운동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59세로 45.2%, 1주일 평균 운동일수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세 이상으로 3.9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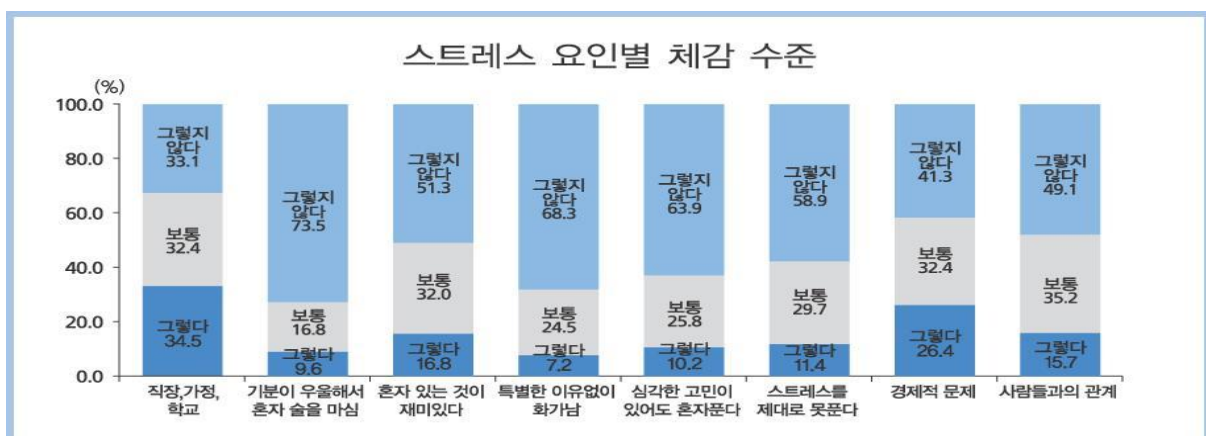
□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

○ 본인의 건강유지나 증진을 위해 중요한 것이 「적절한 식사 및 영양보충(46.1%)」, 「충분한 휴식 및 수면(40.0%)」, 「규칙적인 생활습관(2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충분한 휴식 및 수면」, 「원만한 인간관계」, 「긍정적인 마음」은 15~19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낮아짐

□ 스트레스 요인별 체감 수준

○ 2년전 보다 전체적으로 스트레스가 완화되었으며, 직장·가정·학교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 스트레스 요인별 체감 수준

2) 안전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중 「신종 전염병(50.3%)」에 대해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며, 그 다음으로 「정보보안(27.4%)」, 「범죄 위험(24.6%)」 순으로 나타남
-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으로 신종 전염병에 대한 불안감이 2018년 대비 9.0%증가하였음

□ 재난·안전사고 경험 및 사유

- 지난 1년간 경험한 재난이나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경험한 사고는 「낙상/추락/미끄러짐/물에 빠짐(55.5%)」, 「교통사고(3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부산시 안전 체감도

- 타시도와 비교한 부산시 안전 체감도는 「안전하다」가 56.6%로 가장 높으며, 2018년 대비 13.3%p 상승하였음

3) 가족

□ 선호하는 가족형태 및 부모와의 동거 선호 이유

- 선호하는 가족형태에서 부모와 동거는 25.3%, 부모와 비동거는 74.5%로 나타났으며, 부모와 동거 선호 사유는 「부모에 대한 당연한 의무」가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부모와 함께 사는 형태를 선호하는 이유는 「부모에 대한 당연한 의무(42.3%)」, 「가족 간의 화합용이(24.1%)」, 「생활비 절약 등 경제적 도움(14.1%)」 등의 순임
- 2018년 대비 「자녀 양육 문제해결」이 2.8%p 상승하였으며, 「가족 간의 화합용이」는 24.1%로 2018년 대비 4.8%p 감소함

□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 15세 이상 부산 시민들이 가족과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은 「가족과의 식사」로 평일 34.7분, 주말 51.1분으로 2018년 대비 평일 5.4분, 주말 5.0분 줄어 듦

□ 가족관계 만족도

-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만족한다」 56.7%, 「보통이다」 39.7%, 「불만족한다」 3.6%로 나타남
- 「배우자의 관계」를 보면 남자는 부인에게 74.3% 만족하는 것에 비해 여자는 64.4%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간의 차이를 보임

4) 사회통합

□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

- 부산 시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느끼는 사람은 45.7%인 반면, 「자랑스럽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은 6.6%에 불과함

□ 지역민으로서의 정체성

- 부산 시민들 중 현 거주지에 대한 정체성(소속감)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0명 중 6.3명으로 전년대비 7.7%p 증가함

□ 일반인에 대한 신뢰도

- 부산 시민들은 일반인들을 「신뢰한다」 48.6%, 「신뢰하지 않는다」 51.4%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에서 「신뢰한다(55.9%)」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20대에서 「신뢰하지 않는다(61.4%)」의 비율이 가장 높음

□ 사회적 관계별 소통 정도

-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83.2%, 돈을

빌려야 할 경우 66.5%,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가 82.0%가 「있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2019년 대비 각각 3.6%p, 14.8%p, 0.9%p 증가함

□ 주관적 귀속계층

- 15세 이상 부산 시민들의 주관적 귀속계층에 대한 의식은 「상층」 1.9%, 「중간층」 55.8%, 「하층」 42.4%로 나타남

□ 자원봉사활동 참여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7.2%로 나타났으며, 참여한 사람들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관련」 참여율이 50.9%로 가장 높았음

□ 공동체 의식 정도 및 사회복지 서비스 만족도

- 공동체 의식 정도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모든 분야에서 「그렇다」 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그렇다」 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분은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19.7%)」 임

<표 6> 공동체 의식 정도

(단위 : %)

| | | 매우 그렇다 | 그런편이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 2020 | 3.1 | 16.6 | 33.2 | 29.7 | 17.3 |
| | 남자 | 2.7 | 13.5 | 31.9 | 31.8 | 20.1 |
| | 여자 | 3.4 | 19.7 | 34.5 | 27.8 | 14.6 |
|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자주 이야기 한다 | 2020 | 2.1 | 11.0 | 27.3 | 36.2 | 23.3 |
| | 남자 | 1.9 | 8.2 | 25.7 | 38.2 | 26.0 |
| | 여자 | 2.4 | 13.7 | 28.8 | 34.3 | 20.7 |
|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 2020 | 2.1 | 10.2 | 29.8 | 35.0 | 22.9 |
| | 남자 | 1.8 | 8.2 | 28.0 | 36.3 | 25.6 |
| | 여자 | 2.3 | 12.1 | 31.5 | 33.7 | 20.4 |
|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2020 | 1.7 | 6.2 | 22.7 | 36.9 | 32.5 |
| | 남자 | 1.6 | 5.3 | 21.5 | 36.9 | 34.6 |
| | 여자 | 1.9 | 7.1 | 23.9 | 36.8 | 30.4 |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는 약 20% 정도만 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음

□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 경험

- 부산 시민의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감」, 「주거지역 생활의 전반적 만족감」은 10점 만점에 각각 5.8점, 5.7점으로 나타남
- 부산 시민의 「어제의 행복정도」, 「어제의 근심정도」는 10점 만점에 각각 5.9점, 4.6점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대비 행복정도는 0.2점 증가, 근심정도는 변함이 없음

5) 2020 부산사회조사 결과의 시사점

- 「충분한 휴식 및 수면」, 「원만한 인간관계」, 「긍정적인 마음」은 15~19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사회생활을 오래 할수록 개인주의화되며, 마음의 여유가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충분한 운동 환경 제공, 공동체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을 통해 ‘나’보다는 ‘우리’라는 정서 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 높음
- 직장·가정·학교에서의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생활속에서 심리적인 부담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임
 - 따라서 일상 생활속에서 삶의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 운동,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이 필요함
 - 연령이 낮을수록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또한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서 완화할 수 있음
- 커뮤니티의 활성화는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관점에서 출발함
 - 봉사활동의 활성화는 공동체 의식 함양에 도움이 됨
 - 현재 취약기관 위주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에 대해 ‘재능기부’의 활성화는 봉사활동 참여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³⁾

3) 문화, 예술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능기부자 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제2절 회복탄력성 관련 부산광역시 현황

1. 관련 법령

□ 관련 조례

○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2016.11.02. 제정, 2019. 09. 25. 일부 개정)

-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 수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 재난’의 범위를 동일하게 따름으로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인도 구호 및 복구 지원의 대상으로 규정함
- 지원기준은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장례비·치료비 지원, 그 밖의 생활안정 및 피해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로 다루는 대상이 물리적·경제적 부분에 한정되어 있음
- 타 지자체의 유사 조례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4)의 생활안정지원이 주로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문화, 예술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문화적 욕구 충족 뿐 아니라 그들 또한 다양한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4)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 <개정 2021.1.5>

1. 생활안정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

1)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농업·어업·임업 및 소금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비 지원

1)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2)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가 불가능하게 된 사람

3) 재난 수습을 위하여 주된 거주지에서 이주하게 된 사람

라.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또는 주된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사람에 대한 구호

마.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

있기 때문임

- 부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14.02.12. 제정, 2020. 07. 15. 전부 개정)
 -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
 - 의료인 및 시민의 책무와 권리, 역학조사,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등의 규정
 - 본 조례의 제5조 ③ ‘시민은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고 규정함으로써 포괄적이지만 심리적 피해 구제에 대한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음⁵⁾

□ 부산시 회복탄력성 관련 조례의 시사점

- 아직까지 부산시의 관련 법령에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주로 物的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는 국내의 다른 지자체의 조례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조례재정의 근거로 삼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주로 경제적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임

2. 간접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 가. 농업인·어업인·임업인 및 소금생산업인에 대한 자금 융자
- 나. 농업·어업·임업 및 소금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 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 라. 주택 복구자금의 융자
- 마.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3. 피해수습지원: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

- 가. 공공시설의 복구
- 나. 재난피해자의 수색 및 구조
- 다. 오염물 및 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
- 라.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등의 추모사업

5) 이는 본 규정의 ‘피해’를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며 어느 정도까지를 인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본 규정의 포괄성으로 인해 ‘피해’의 기준이나 정의를 파악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2021. 현재의 COVID-19로 인한 전 세계적 epidemic뿐 아니라 향후 시민의 삶에서 광범위한 또는 지엽적인 재난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物的 피해’ 뿐 아니라 ‘심리적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보다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관련 법령의 근거 마련뿐 아니라 심리적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의 근거가 되며 이를 제도화·정책화시킬 필요가 있음

2. 부산시의 재난 추진 정책

○ 감염병 관리 지원단 운영

- 설립근거 :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7조
- 메르스 이후 감염병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 필요성에 부응하여 2016년 10월 출범
- 지역 특성에 맞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 근거 기반의 신속한 감염병 대응, 감염병 예방 홍보, 교육 강화 목적으로 설립
- 주간 감염병 소식지 발간 및 감염병 뉴스레터 매월 발간 중

○ 「부산형 재난지원금」 (부산시청 홈페이지)

- 피해직접지원확대(661억원) 정책으로 부산형 집합금지업종 플러스 지원금(555억원), 운수업계 피해 사각지대 지원(70억원), 관광사업체 및 문화예술인 지원(30억원),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 보상금 지원(6.4억원) 편성 및 운영 중임
-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해소(198억원) 정책으로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150억원), 착한 임대인 세금지원 확대(48억원) 운영 중임
-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금융(1,361억원) 정책으로 집합금지업종 특별 금융지원(161억원),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운영(500억원), 저신용자 보호 모두론 플러스 운영(500억원), 지역금융·공공기관 상생협력 추진(200억원) 운영중이며 주로 대출정책임

- 이 외에 정부피해지원 대책(9.3조원)은 국가적으로 시행중임
-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정책으로 코로나 19 진단검사 이후 일을 하지 못하고 자가격리한 취약노동자, 비정규직 요양보호자를 대상으로 1인당 23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이 외에 코로나 19 감염자의 동선 정보 제공, 클린존 정보 제공 등이 시행중임
- 광역·기초 자치단체별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지만 주로 정신장애와 관련되어 있음
 - 코로나 19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음(1577-0199, 24시간 운영)
 - 홈페이지상에서 코로나 19 심리지원 자가검진 검사를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온라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음
 - 주로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전문요원과 상담할 수 있음
 -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추가인력이 편성되거나 새로운 정책이 추가되지는 않았고 기존의 체계 내에서 관련 상담 및 정보가 제공됨
 - 부산시 상담 인력은 총 210~220명 정도 운영되고 있음
- 부산시 재난 정책의 시사점
 - 2021년 현재까지 부산시의 코로나 관련 대응 정책은 주로 경제적·물적 피해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심리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임
 - 부산시의 인구는 약 340만명으로 상담 인력 약 210~220명으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 대응이 어려움(상담인력 1인당 서비스 인구는 약 15,000명 수준)

제3절 회복탄력성 관련 타 지자체 대응 사례

1. 중앙정부

1) 중앙정부의 심리지원 체계

- 국가의 심리지원 체계는 일상의 우울이나 정서적 문제를 다루는 단계(각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재난에 특화된 재난심리를 다루는 단계(재난심리 회복지원센터)가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중증일 경우 심리 치료에 특화된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 즉 정서적 피해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지원단계를 달리 함
- 재난심리 회복지원센터 - 주로 재난으로 인한 심리회복을 다루고 있음
- 대한적십자사는 행정안전부 위탁사업으로 전국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재난 경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지원



[그림 5]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주요 업무

□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 주로 질병차원의 심리의 치료를 다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 표준화 된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운영 표준 매뉴얼, 재난 현장 맞춤형 위기대응 지침 및 홍보물 등을 개발·제작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구축 사업을 수행함
 -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보급
 -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그림 6] 국립트라우마센터 재난 정신건강 위기대응

□ 재난 대응 심리지원체계 구축 사업(21년 국회 신규·증액 기준)⁶⁾

-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12.06.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으로 코로나 19등 재난 대응 심리지원 체계 강화한다!

- 기존('20) 2개소 → ('21) 5개소, 12억원 국회 신규 반영

○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

- 세월호 피해자 및 유족 심리지원(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120억원 신규반영, 96억원 국회 추가 증액)

○ 정신건강복지센터

- 코로나 우울 등 심리 지원하는 정신건강 전담인력 증원
- (('20) 1,370명 → ('21) 1,575명(205명 증), 105명 인건비 국회 추가 증액)

○ 코로나 우울 심리지원

- 심층상담 및 심리안정용품 지원(5억원 국회 신규 반영)

○ 자살예방센터 및 자살예방상담전화

- 정부 자살예방정책의 전문적 수행 및 자살위기 조기 개입을 위한 자살예방상담전화(1393)인력 증원
- (자살예방전문인력) ('20) 207명 → ('21) 467명(260명 증), 153명 인건비 국회 추가 증액)
- (자살예방상담전화 상담원) ('20) 26명 → ('21) 57명(31명 증), 31명 인건비 국회 증액)

2) 중앙정부 심리지원 대응체계의 시사점

- 중앙정부는 재난과 상관없이 일상적인 심리적 분야부터 세월호 관련 심리 지원, 재난관련 심리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심리 피해의 단계에 따라 지원체계를 달리하고 있음

- 대한적십자사와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코로나 19관련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원만으로는 대한적십자사가 충분한 상담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움

- 이에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의 거버넌스 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 있음
- 심리상담은 주관적인 분야이기도 하지만 전문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전문 심리상담 인력 양성 체계를 갖출 필요 있음
- 단순한 프론트 오피스-체계적인 백 오피스를 구축할 필요성⁷⁾
 - 중앙과 지방에서 각각 심리 상담 관련 서비스를 진행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어디로 연락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직관적으로 알기가 어려움
 - 따라서 가급적 서비스 창구를 단순화하되 1차 접촉기관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적절한 대응기관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따라서 112나 119처럼 심리지원 관련 대표번호의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부담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

2. 지방정부

1) 지방정부의 심리대응 체계

□ 울산광역시

- 누리보듬 힐링키트('21.5.6.)
 - 자살예방 실무자·코로나19 대응인력의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 목적
 - 구성품은 목안마기, 커피 상품권, 초콜릿, 재난대응인력의 소진관리 안내서, 정신건강관련 안내서

7) 프론트 오피스(front office) : 고객을 직접 접하는 업무 및 그와 연관된 업무. 여기에서는 이용자와 최초로 직접 접하게 되는 서비스 제공자를 의미함. 프론트 오피스가 단순할수록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백 오피스(back office) : 프론트 오피스를 지원하는 업무에 해당함. 시민에게 보다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연결 및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제반 행정적 업무를 담당함

○ 정원 아카데미

- 정원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정원 아카데미”를 zoom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21.5.21.~5.23.)
- 시민들에게 코로나 19상황 속에서 심신건강을 위한 원예치료 및 가족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식물인테리어 등 정원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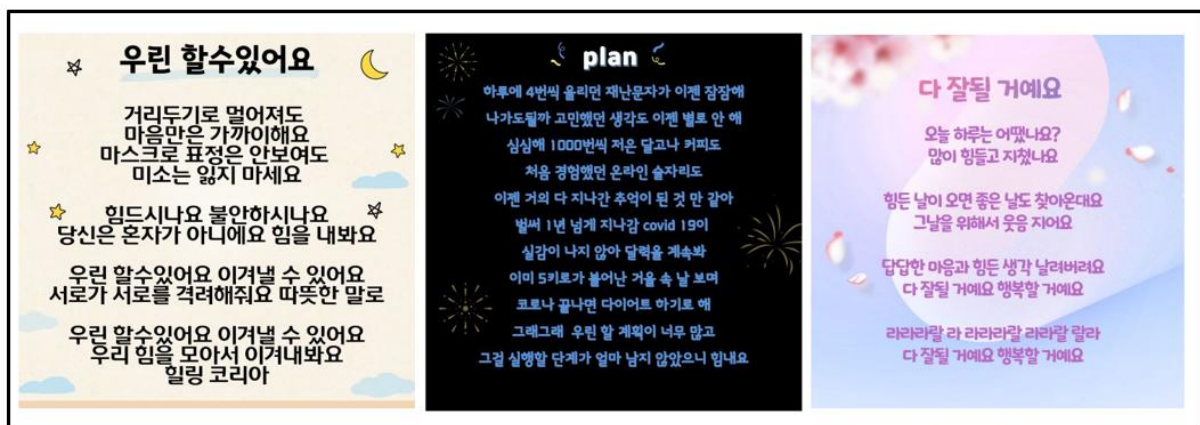
○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홍보활동

- 라디오, 버스 음성광고, 정신건강 온라인 박람회, 체험관, 영상관, 홍보관 운영 등으로 정신건강 친화적 홍보 강화 추진

□ 대구광역시

○ 코로나19 심리방역을 위한 힐링송 공모전('21.3.1.~21.3.31.)

- 힐링송을 공모하여 선정된 3명에게 총 200만원의 온누리 상품권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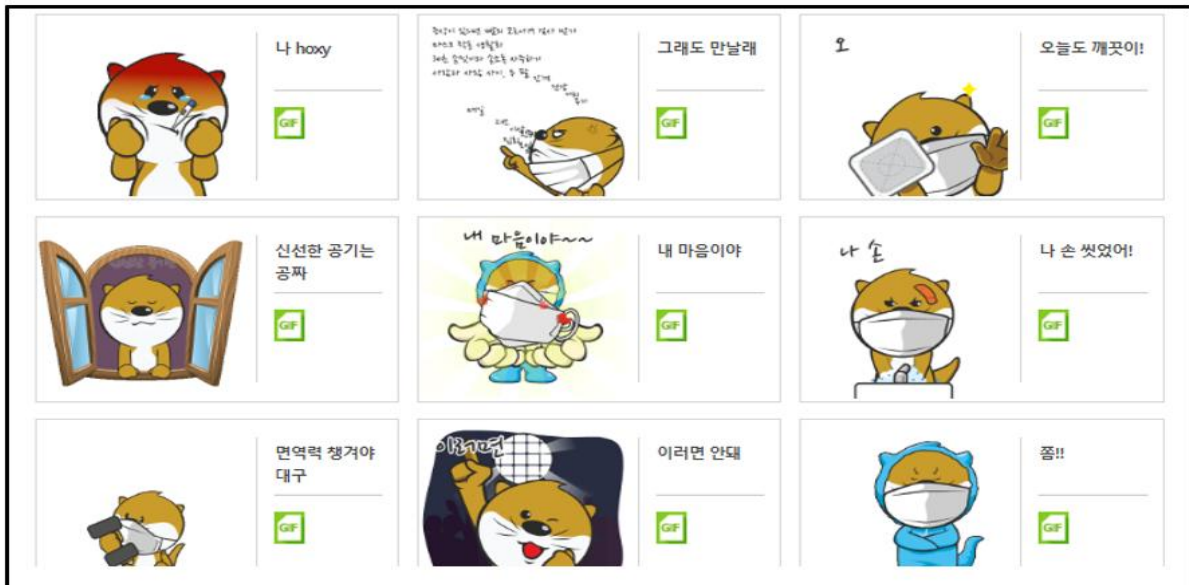


[그림 7] 힐링송 선정 곡

○ 대구의 상징인 수달을 이용하여 코로나 극복 이모티콘 제공

- 대구시는 대구의 상징인 수달을 이용하여 장애인공감 이모티콘, 설맞이 이모티콘, 추석맞이 이모티콘, 코로나 19극복 생활방역수칙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이를 휴대폰에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함



[그림 8] 대구시의 코로나 극복 이모티콘

○ 코로나 우울증 극복! 움직이자! UCC 공모전('21.3.15.~'21.3.31.)

- 코로나 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한 실내·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아이디어 영상 공모

Colorful DAEGU

코로나 우울증 극복!

움직이자! UCC

공모전

2021. 3. 15. (월) - 3. 31. (수)

코로나 블루?

운동으로 블루!

응모주제
코로나 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한 실내·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아이디어 영상

응모자격
대구시민(경산시 포함) 누구나, 개인 또는 4인 이하 팀

응모일정

| | |
|---|---|
| 01 접수 3.15.(월) ~ 31.(수) | 02 심사(1차) 4.12.(월) 전문가 심사 및 발표 |
| 04 발표 4.20.(화) 대구광역시 시민건강놀이터 홈페이지 | 03 심사(2차) 4.12.(월) ~ 19.(월) 시민 평가단 SNS 평가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공지 예정

응모방법

- 1 제작한 영상을 유튜브 또는 개인 SNS에 업로드(전제공개)
* 필수 해시태그 : #움직이자 #코로나우울증극복 #신체활동 #시민건강놀이터
- 2 시민건강놀이터 홈페이지 공지사항(www.dghealth.or.kr)
⇒ 제출서류 다운로드
- 3 업로드 URL, 주소를 포함, 제출서류 작성 후 영상파일과 함께 이메일(hipr@hanmail.net) 제출
*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 참가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그림 9] UCC공모전 포스터

□ 광주광역시

○ 코로나19 완치자 심리회복지원 서비스

- 코로나19 완치 후 일상생활에서 우울이나 불안 등 여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마음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함

광주광역시

코로나19 완치자 심리회복지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광주광역시 코로나19심리지원단이
여러분의 마음회복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완치후 일상생활에서 우울이나 불안 등
여러가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마음건강 회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심리상담과 숲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구 분 | 숲 치유 프로그램 | 심리상담 |
|------------|---|---|
| 내 용 | - 마음회복 훈련 - 꽃차 테라피, 호흡명상, 편백봉채조, 숲치유프로그램 | - 정신건강평가 및 심리상담 - 필요시, 마음건강주치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지원 |
| 일 정 | (1차) 2021년 6월 18일(금) 09:00~17:00 * 접수기간: 2021년 5월 17일(월) ~ 6월 4일(금)까지 (2차) 2021년 10월 2일(토) 09:00~17:00 * 접수기간: 2021년 8월 30일(월) ~ 9월 17일(금)까지 | |
| 주 관 | 코로나19 심리지원단 (광주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코로나19 심리지원반 (자치구별 정신건강복지센터) |

[그림 10]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 직원 심리재해 치료프로그램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무원들의 심리치유와 업무 스트레스 관리를 목적으로 함
- 마음건강 심리상태 자가진단
- 전문 심리상담
- 교육 및 특강

- 참여형 힐링프로그램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직원들의 마음건강을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슬기로운 정신건강 생활(2020.10.5.~2020.10.30.)
 -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2020 정신건강 문화행사



[그림 11] 슬기로운 정신건강 생활 포스터

□ 대전광역시

- 코로나우울 심리지원 대책 간담회 개최(공공·민간 전문가, 분야별 의견 수렴 등)(2021.03.30. 14:00 ~ 16:00)

- 대전시는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우울 심리지원에 위한 대상별 맞춤형 심리제공 등 3대 전략 10대 관제, 20개 세부사업을 공유하고, 대전형 심리지원 관련하여 전문가 간 의견을 심도있게 논의함

<표 7> 주요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 추진과제 | 세부사업 |
|--------------------------|--|
| ① 정신질환 사전예방 | |
| 정보제공및홍보 | ① 심리지원 온라인 플랫폼 운영 ② 코로나 속 마음건강 챙김 캠페인(온·오프라인) |
| 코로나우울 예방 지지체계마련 | ③ 대전형 심리지원단 구성 및 기능 강화 ④ 「청년 마음건강센터」 개설 및 운영 |
| 고위험극복 환경개선 | ⑤ 걷기 좋은 건강도시 대전 ⑥ 들썹 들썹인 대전 |
| ② 맞춤형 대상별 심리지원 제공 | |
| 생애주기별우울 예방대책추진 | ⑦ 생애주기별 심리지원 대상별, 상황별 심리지원 (아동, 청소년, 노인, 소상공인 등) |
| 코로나우울위험군 지지체계마련 | ⑧ 코로나19 대응인력 심리지원 ⑨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톡톡버스’ 운영 ⑩ 학교 등 집단 위기개입시스템 구축사업 |
| 코로나우울 대응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 | ⑪ 1577-0199 위기상담 전화운영 ⑫ 코로나우울 치료비 지원 ⑬ 응급실기반 자살지도자 연계시스템 구축 |
| 치유프로그램 운영 | ⑭ ‘가갸호호’ 프로그램, ‘상처대물림 Cut Off’ ⑮ 만인산 가족휴양캠프, 대전달빛걷기대회 |
| ③ 정신건강 환경조성 | |
| 정신건강 인프라확충 | ⑯ 1차 의료기관 기능강화(생명사랑협력병원 지정사업) ⑰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운영 |
| 심리지원인력확충 및역량강화 | ⑱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및 자살예방 교육 ⑲ 심리지원 실무자 역량강화사업 |
| 근거기반 정신건강 연구체계 마련 | ⑳ 근거기반 조사 및 연구(정신건강 현황분석) |

○ 시 지체장애인협회, ‘하얀민들레’ 심리상담소 개소(2020.10.23.)

- 장애인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고 치유를 돕고자 전문적인 심리상담실 “하얀민들레상담실”을 개소하고, 재능봉사 상담위원(14명)을 위촉함

○ ‘마음힐링센터 다운숲’ 운영

- 코로나19대응으로 심신이 지친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심리상담실 ‘마음힐링센터 다운숲’을 운영
- 최첨단장비(맥파검사)를 이용한 스트레스 검사와 상담을 진행

- 고질적 민원응대로 인한 번 아웃, 코로나 우울과 스트레스로 지친 직원들에게는 다운숲 심리상담사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상담 서비스 제공
- 주요 검사내용은 혈관건강도 측정 및 스트레스 지수 검사, 측정결과에 대한 피드백 상담 외 성격유형검사(MBTI), 애니어그램 검사, ABC 행동유형 검사, 의사소통 검사, 다섯 가지 욕구 검사 및 해석 상담 등 다양한 질문지를 통한 상담 실시

□ 인천광역시

○ 취약계층 1인 가구에 돌봄플러그 설치(2021.05.11.)

- 취약계층 1인 가구에 위기상황 예방을 위한 'IOT 돌봄플러그' 설치
- 광역시 최초 시행, 시민들이 제안해 추진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 대상자는 1인가구로 평상시에도 각종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며, 특히 코로나 19로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전기량 및 온도 변화량을 체크해 실시간으로 위기상황 예방 목적
-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비대면 돌봄플러그 모니터링의 본격적인 시행을 통해 위기가정 돌봄,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플러그 형태로 감시받는 느낌이 적어 심리적 안정감 유지에 도움



[그림 12] 1인가구 돌봄플러그

○ 비대면으로 찾아가는 원예체험(2021.05.10.) (5.10.~5.14.까지 온라인 통합예약 홈페이지 선착순 240명)

- 코로나 19 장기화로 지친 인천시민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식물 관리 교육 및 나만의 반려식물 만들기 진행

○ 인천시농업기술센터, 일상 속 행복드림 상자텃밭 분양(2021.4.20.)

10:00~04.21. 18:00까지

“<http://sweetcafe.co.kr>”에서
선착순으로 진행)

- 엽채류 모종 뿐 아니라 꽃
모종도 추가해 코로나 19로 지친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도록
구성함



- 개인 분양 1200세트는 직접배송
으로 진행, 단체분양 800세트는

[그림 13] 행복드림 상자텃밭

관내 공공기관 ·사회 복지시설 ·교육기관 등에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현장 분양

○ 마음으로 안심버스(2021.07.부터 운영예정)

- 보건복지부‘2021년 안심버스 운영사업’공모에 선정
- 안심버스 명칭에 인천시 정신건강 브랜드‘**마음으로**’를 반영해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한다는 의미로 ‘마음으로 안심버스’로 명칭하고,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거동 불편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그림 14] 마음으로 안심버스 구성

○ IFEZ, 거주 외국인 위한 온라인 ‘마인드 성장 워크숍’ 개최(2021.03.23.)

-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
- 온라인으로 03.17.~05.13.까지 매주 1회 1시간 30분씩 9차례에 걸쳐 영어로 진행
- 워크숍은 사전에 등록한 IFEZ 내 국제기구, 국제학교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20명을 대상으로 외국에서의 직장생활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의 정신 건강에 활력이 되고 우울증 발생 예방과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 및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들로 구성

2) 타 지자체 코로나 19 대응 체계의 시사점

○ 타 광역시의 코로나 19 대응 정책은 공통적으로 직원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코로나 19 대응 관련 직원 뿐 아니라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서 이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 스트레스에 직면하고 있음
- 공무원의 심리적 스트레스 경감은 업무 효율성 향상 뿐 아니라 대민 서비스에 있어서도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
- 따라서 1차적으로 서비스 공급자인 공무원들의 심리적 스트레스 완화는 업무 효율성 향상, 시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영할 필요성 높음

○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외국인, 노숙인 등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함

- 이 계층은 스스로 적극적 서비스 요청이 어렵기 때문에 선제적인 정책적 대응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함(인천시, 대전시 등)

○ 울산시, 인천시는 반려식물을 활용한 심리적 스트레스 경감을 시도함

- 식물은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경감, 우울증

감소 등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유기견 보호센터와 연계하여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을 키우도록 함으로써, 심리적 스트레스 완화, 유기견 감소 등의 효과도 고려할 수 있음(단 선호조사 및 파악 등에 대한 대비도 이루어져야 함)

○ 대구시는 문화를 적극 활용한 정책적 대응 시도

- 대구시는 힐링송, UCC, 대구시 상징인 수달을 이용한 이모티콘 제공 등을 활용함
- 문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거부감없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유사한 방식으로 인천시는 시의 정신건강 브랜드를 안심버스에 반영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홍보효과도 높임
- 즉 문화를 활용한 정책은 그 자체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적 부담이 거의 없으며 자연스럽게 시의 정책을 홍보하는 효과도 가짐

○ 타 광역시 사례에서 보듯 시민에 대한 직접적 정책 외에도 취약계층, 식물, 문화, 서비스 공급자인 공무원에 대한 심리 경감 등 폭넓은 정책적 대응을 통한 심리 탄력 회복성 향상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제4장 분석모델의 설정

제1절. 국내외 기술현황

제2절. 연구의 분석모형

제4장 분석모델의 설정

제1절 국내외 기술현황

1. 국내 정신건강지표 검토

- 기존 국내에서 국가 수준 건강조사에서 조사되었던 정신건강 지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와 관련 있는 부분을 참고하되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설문 문항을 추가 구성함
- 국내 정신건강 관련 문항은 스트레스, 우울, 자살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주로 다루고 있음

<표 8> 기존 국가수준 건강조사에 조사된 정신건강영역 (국내)

| 영역 | 항목 | 특성(문항) | 조사기간 |
|----------|-------------------|---|------------|
| 지역사회건강조사 | | | |
| 스트레스 |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 2017, 2018 |
| |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상담 여부 |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의료 기관, 전문상담기관, 보건소 등)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 2017, 2018 |
| 우울 | 우울감 경험 여부 |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 2017, 2018 |
| | 우울감으로 인한 상담 |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의료 기관, 전문상담기관, 보건소 등)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 2017, 2018 |
| | 우울증상 유병 (PHQ-9) | 지난 2주 동안 아래 나열되는 증상들에 얼마나 자주 시달렸습니까? (PHQ-9 항목) | 2017, 2018 |
| | 정신문제로 인한 상담 경험 | 최근 1년 동안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방문, 전화, 인터넷을 통해 상담을 청한 적이 있습니까? | 2017, 2018 |
| 수면 | 수면 |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주무십니까? | 2017, 2018 |
| | 피츠버그 수면의 질 (PSQI) | PSQI 항목 | 2018 |
| 치매 | 치매 상담 콜센터 인지 | 치매 상담 콜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2018 |

| 영역 | 항목 | 특성(문항) | 조사기간 |
|----------|---------------------|--|------|
| 지역사회건강조사 | | | |
| 치매 | 치매 상담 콜센터 이용 | 치매 상담 콜센터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2018 |
| | 치매 상담 콜센터 미이용 이유 | 치매 상담 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2018 |
| | 인지장애 경험 | 최근 1년 동안 점점 더 자주 또는 더 심하게 정신이 혼란스럽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2018 |
| | 인지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 정도 | 최근 1년 동안 정신이 혼란스럽거나 기억력이 떨어져서 평소 잘하던 집안일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일을 못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 2018 |
| | 인지장애로 인한 도움 필요 정도 | 정신이 혼란스럽거나 기억력이 떨어진 것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도움이 필요했습니까? | 2018 |
| | 일상생활 도움 수혜 정도 |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얼마나 자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 2018 |
| | 인지장애로 인한 사회활동 지장 정도 | 최근 1년 동안 정신이 혼란스럽거나 기억력이 떨어져서 직장생활이나 자원봉사, 사회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자주 지장이 있었습니까? | 2018 |
| | 인지장애 상담 여부 | 귀하의 정신 혼란이나 기억력 감소 때문에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2018 |
| | 연간 치매 선별 검사 수진 여부 | (만 50세 이상 응답) 최근 1년 동안 치매선별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2018 |
| | 치매선별검사 장소 | 최근 1년 동안 치매선별검사를 받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 2018 |
| 자살 | 1년간 자살생각 |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2017 |
| | 자살생각으로 인한 정신상담 여부 |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보건소 등)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 2017 |
| | 자살생각 행동 원인 |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2017 |
| | 1년간 자살시도 | 최근 1년 동안 실제로 자살시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2017 |
| | 자살시도로 인한 정신상담 여부 |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보건소 등)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 2017 |

| 영역 | 항목 | 특성(문항) | 조사기간 |
|-----------------|-----------------|--|------------|
| 국민건강영양조사 | | | |
| 스트레스 | 스트레스 인지 |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 2016, 2017 |
| 우울 | 우울감 경험 여부 | 최근 1년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 2016, 2017 |
| | 우울증상 유병 (PHQ-9) | 지난 2주 동안 아래 나열되는 증상들에 얼마나 자주 시달렸습니까? | 2016 |
| 수면 | 주중/주말 평균 수면시간 | 평소, 주중/주말에 잠자리에 든 시각과 일어난 시각은 언제입니까? | 2016, 2017 |
| 자살 | 1년간 자살생각 |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 2016, 2017 |
| | 1년간 자살계획 | 최근 1년 동안 자살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적이 있습니까? | 2016, 2017 |
| | 1년간 자살시도 | 최근 1년 동안 실제로 자살시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2016, 2017 |
| | 1년간 정신문제 상담 | 최근 1년 동안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방문, 전화, 인터넷을 통해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 2016, 2017 |
|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온라인) | | | |
| 스트레스 | 스트레스 인지 | 평상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 2005-2018 |
| 우울 | 우울감 경험 여부 |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 2011-2018 |
| 수면 | 잠으로 피로회복 정도 | 최근 7일 동안, 잠을 잔 시간이 피로회복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 2009-2018 |
| | 잠든시각, 일어난 시각 | 최근 7일 동안, 잠자리에 든 시각과 일어난 시각은 보통 몇 시, 몇 분 입니까? | 2013-2018 |
| 자살 | 자살 생각 |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 2011-2018 |
| | 자살 계획 |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적이 있습니까? | 2011-2018 |
| | 자살 시도 |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 2011-2018 |
| | 자살 시도로 병원 치료 경험 |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을 시도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2011-2017 |

* 출처 : 국가건강조사 정신건강영역 설문개발(2020)

2. 국외 정신건강지표 검토⁸⁾

8) 국가건강조사 정신건강영역 설문개발(2020) 내용을 요약함

□ 미국

- 미국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에서 시행해온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NHANES)에서는 정신건강영역으로써 청소년기에는 사용장애, 집중장애 등을 Interview 형식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성인 대상 혹은 공통항목으로써 수면장애, 우울증 스크리닝(PHQ-9),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을 측정함

<표 9> 기존 국가수준 건강조사에서 조사된 정신건강영역 (미국-NHANES)

| 영역 | 방법 및 도구 | 대상 | 조사 기간 | | | | | | | | | | | |
|--|-------------------------------|----------------|-----------|-----------|-----------|-----------|-----------|-----------|-----------|-----------|-----------|-----------|-----------|--|
| | | | 1999-2000 | 2001-2002 | 2003-2004 | 2005-2006 | 2007-2008 | 2009-2010 | 2011-2012 | 2013-2014 | 2015-2016 | 2017-2018 | 2019-2020 | |
| Cognitive functioning | Interview based on DSM-IV | Elderly | | | | | | | | | | | | |
| Sleep disorders | Sleep disorders questionnaire | Youth & adults | | | | | | | | | | | | |
| Attention Deficit Disorder/Hyperactivity | Interview based on DSM-IV | Youth | | | | | | | | | | | | |
| Conduct Disorder | Interview based on DSM-IV | Youth | | | | | | | | | | | | |
| Depression | Interview based on DSM-IV | Adults | | | | | | | | | | | | |
| Depression Screener |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 Youth & adults | | | | | | | | | | | | |
| Eating Disorders | Interview based on DSM-IV | Youth | | | | | | | | | | | | |
| Elimination Disorders | Interview based on DSM-IV | Youth | | | | | | | | | | | | |
|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 Interview based on DSM-IV | Youth & adults | | | | | | | | | | | | |
| Major Depression/Dysthymic Disorder | Interview based on DSM-IV | Youth | | | | | | | | | | | | |
| Panic Disorder | Interview based on DSM-IV | Youth & adults | | | | | | | | | | | | |
| Mental Health Diagnostic Interview | Interview based on DSM-IV | Youth & adults | | | | | | | | | | | | |

□ 스코틀랜드

- 정신건강 증진을 국가 비전으로 두고 국가 수준 건강조사에서 정신건강 영역을 상세히 조사함

<표 10> 기존 국가수준 건강조사에서 조사된 정신건강영역 (스코틀랜드)

| 영역 | 항목(지표) | 조사결과 (혹은 도구) | 자료원 |
|----------|------------|---|-----------------|
| 긍정적 정신건강 | 긍정적 정신건강 | WEMWBS (Warwick-Edinburgh Mental Well-being Scale)의 성인 평균점수 스코틀랜드 | 스코틀랜드 건강조사 |
| | 생활만족 | 요즈음 대체로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성인 평균점수 | 스코틀랜드 건강조사 |
| 정신건강 문제 | 흔한 정신건강 문제 | 일반건강질문(GHQ-12)에서 4점 이상 성인의 비율 (4점 이상, 지난 몇 주 동안 정신건강 문제의 가능성을 나타냄) | 스코틀랜드 건강조사 |
| | 우울증 | 수정 임상면접표(CIS-R)의 우울 섹션에서 증상점수가 2 이상인 성인의 비율(2점 이상, 지난 주 매우 심각한 경험을 한 것에 해당하는 증상을 나타냄) | 스코틀랜드 건강조사 |
| | 불안 | 수정 임상면접표(CIS-R)의 불안 섹션에서 증상점수가 2 이상인 성인의 비율(2점 이상, 지난 주 매우 심각한 경험을 한 것에 해당하는 증상을 나타냄) | 스코틀랜드 건강조사 |
| | 알콜 의존성 | CAGE25) 질문지에서 2점 이상인 성인의 비율(2점 이상이 이전 3개월 알코올의존 가능성을 나타냄) | 스코틀랜드 건강조사 |
| | 약물 (관련 사망) | 정신활성의 물질사용에 기인한 정신적 행동적 장애로 지난 1년 내 성인 10만명 당 사망 | 스코틀랜드 일반 등록 사무소 |
| | 자살 | 의도적 자해와 명확하지 않은 의도로 지난 1년 내 성인 10만명 당 사망 | 스코틀랜드 일반 등록 사무소 |
| | 고의적 자해 | 지난 해 자살 의도가 아닌 고의로 자해한 성인의 비율 | 스코틀랜드 건강조사 |

□ 영국

- UK Biobank는 영국 전역에서 50만 명을 대상으로 유전, 신체 및 건강 자료를 수집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임

<표 11> UK Biobank의 정신건강영역 조사항목

| 영역 | 항목 | 특성(문항) |
|---------|------------------|---|
| A. 인적정보 | 응답자 인적사항 | 연령, 성별 |
| B. 정신건강 | 정신건강 상태 | 진단여부, 평생유병여부 |
| | 우울장애, 양극성장애 | PHQ-9 ¹⁾ , CIDI-SF ²⁾ |
| | 범불안장애 | GAD-7 ³⁾ |
| | 중독 | 술, 비처방/불법 약물, 행동 중독 |
| | 알코올 섭취 또는 대마초 사용 | 알코올 - AUDIT |
| | 이상 경험 | 이상적 시각, 청각, 의사소통 경험 |
| | 유년시절 또는 성인시절의 경험 | 경험 및 PTSD 증상 |
| | 자해 행동 | 유무, 빈도, 비자살성 여부 |
| | 주관적 삶의 질 | 행복감, 의미 있는 삶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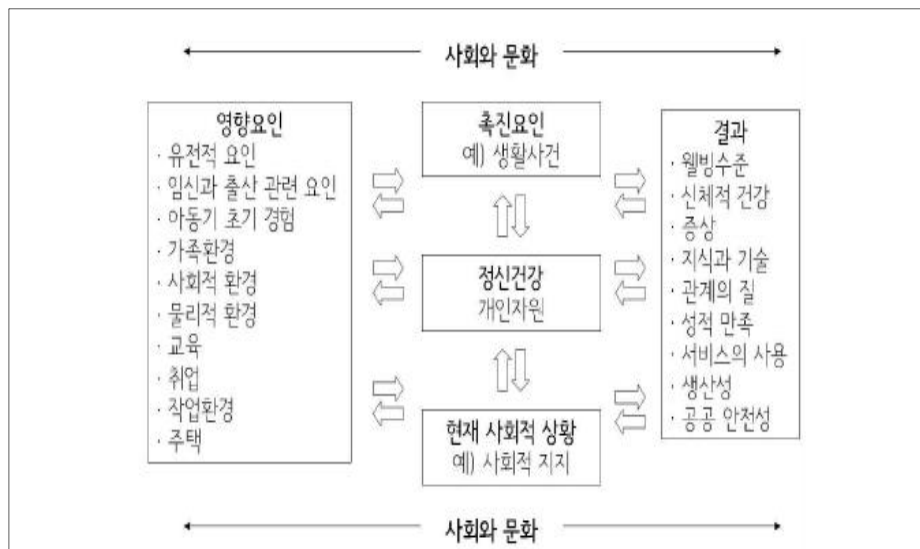
1)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2) CIDI-SF: Com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view - short form

3) GAD-7: 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 유럽

- Minimum data set of European mental health indicators: 1999년 초 유럽에서 정신보건 지표를 구축하기 위해 European Commission(EC) 보건 모니터링 프로그램(Health Monitoring Programme)하에 Finnish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re for Welfare and Health(Stakes)의 조정을 통한 2년간의 행동 프로젝트(action project)가 시작
- 해당 모형에서는 개인적인 정신건강영역은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림 15] Minimum data set of European mental health indicators에서의 정신보건 기능모형 (Lahtinen 외, 1999)

□ 국제기구

-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y Cooperation(OECD), 그리고 Lancet Global Mental Health Group 등의 국제(보건) 기구에서의 보건지표 개발현황을 고찰하였음

<표 12> 주요 국제기구의 정신지표개발현황 요약

| 국제기구 | 자료원 | 정신지표개발과정 | 지표범주(영역) | 지표수 |
|-----------------------------------|--|--|--|------------------------------|
| WHO | WHO-AIMS | : 중저소득국의 정신보건체계 개발을 위함 : 투입 및 과정 지표(자원)에 초점 : 해당 국가 및 국제전문가들의 반복연구과정을 통해 지표개발, 각 지표에 대해 의미, 실행 가능성을 중점으로 3점 척도로 평가 | - 정책과 입법 - 정신보건 서비스 - 1차 의료에서 정신보건 - 인적자원의 대중교육과 다른 섹터와의 연계 - 모니터링과 조사연구 | 6개 영역, 28개 측면, 156개 항목 |
| OECD | Indicators for the Quality of Mental Health Care | : 전문가 집단의 패널을 통해 6개의 우선순위 영역에 대한 잠재적 지표를 구성 : 기존 지표를 검토하는 것에 한정함 | - 치료 - 보호 연속성 - 보호의 조정 - 환자 결과 | 4개 영역, 12개 지표 |
| Lancet Global Mental Health Group | Scale up service for mental health | : 근거기반의 서비스 측정 및 모니터링을 위한 핵심 정신 보건지표 세트 확인이 목적 : 16개의 잠재적 지표 중 Lancet Global Mental Health Group이 지표를 평가하는 델파이를 실시 | - 핵심지표 - 2차 지표 | 핵심지표 5개, 2차 지표 6개 |

□ 정신건강지표 선정시 고려해야 할 점

- 타당도 : 지표가 특정화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하는가
- 신뢰도 : 지표가 일관성있는 측정을 제공하는가
- 비용 : 지표가 측정에 필요한 자원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 특정성 : 지표가 연구 상황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실제로 파악할 수 있는가
- 데이터 수집 :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가

제2절 연구의 분석모델

1. 변수의 설정

□ 변수의 정의 및 목록

○ 지역사회 회복탄력성에 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 분석 및 부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수를 선정함

- 문항은 <부록>의 설문조사⁹⁾에 제시되어 있음

<표 13> 지역 사회 회복탄력성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모형:변수의 정의 및 목록

| 변 인 | | 변수 | 측정치 | 문항 번호 |
|-----|-------------|-------------------|--|--------------------|
| 종속 | 지역 사회 회복탄력성 | 집단적 대응 효과 | 재난 발생 시 자원의 효과적 분배 수준 | (문10-1 ~ 10-3) |
| | | | 재난 복구에 대한 주민들의 협력 정도(의사), 이웃간 신뢰도/친밀도 | (문10-4 ~ 10-7) |
| | | | 지방정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한 기대감(미래) | (문9-13 ~ 9-24) |
| | 개인차원 회복탄력성 | 개인적 회복탄력성 | 현재의 심리상태 | (문12-1 ~ 12-6) |
| 독립 | 사회적 자본 |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지지) | 재난복구참여의사 | (문16-1 ~ 16-3) |
| | | | 감염자에 대한 사회적지지(인식) | (문7-1 ~ 7-4) |
| | | 사회적 신뢰 (구성원간 신뢰) | 대인관계 | (문3-1 ~ 문3-5) |
| | |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구성원 신뢰 수준의 변화 | (문 4-2 ~ 문4-6) |
| | 물리적 환경 | 심리지원서비스 접근성 | 심리지원서비스 인지 정도 | (문8-1 ~ 문8-3)(역코딩) |
| | | |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경험 | (문8-4 ~ 문8-6)(역코딩) |
| | | 제도적 성과(환경) | 지방정부 재난 대책 효과성 | (문 9-1 ~ 문9-12) |
| | | | 지방정부 지지 | (문5-1, 문5-3) |
| 통제 | 인구 통계학적 특성 | 사회경제적 요인 | 거주지역, 소득수준, 주거형태, 가족구성형태, 근로형태, 최종학력 | |
| | | 생태적 요인 | 연령, 성별, COVID-19 진단검사 유무 건강 수준(일반적 수준/우울감 또는 스트레스 수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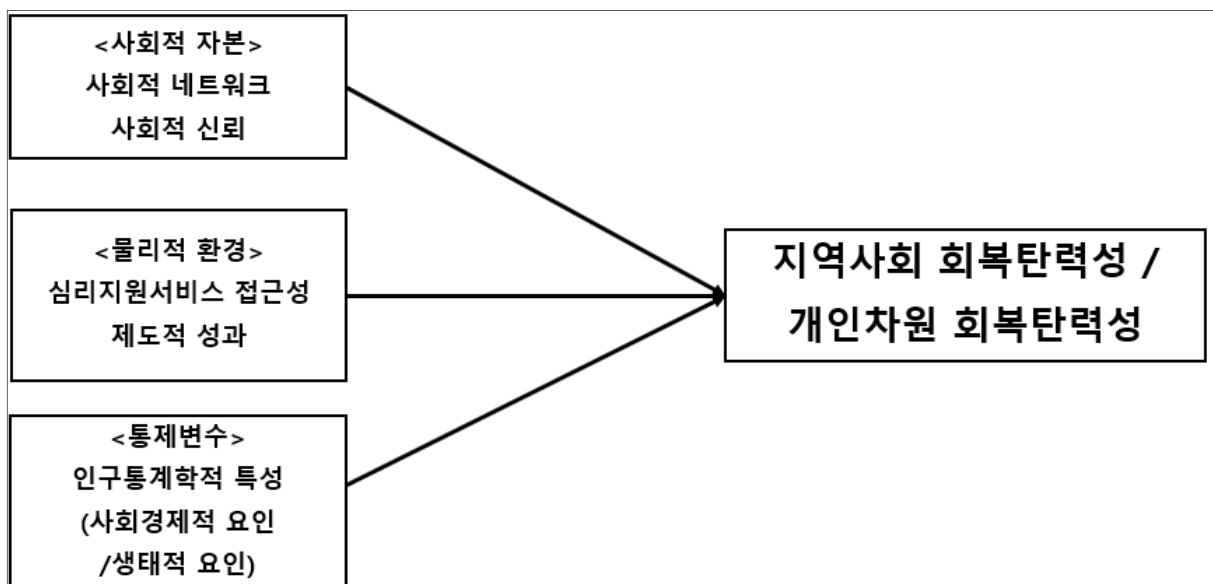
9) 응답자의 편의를 위해 제시한 문항 중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일부 문항은 역코딩함(12-6, 8-1 ~ 8-6)

2. 분석모형의 설계

□ 회복탄력성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모형

○ 주요 선행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영향요인 분석모형을 설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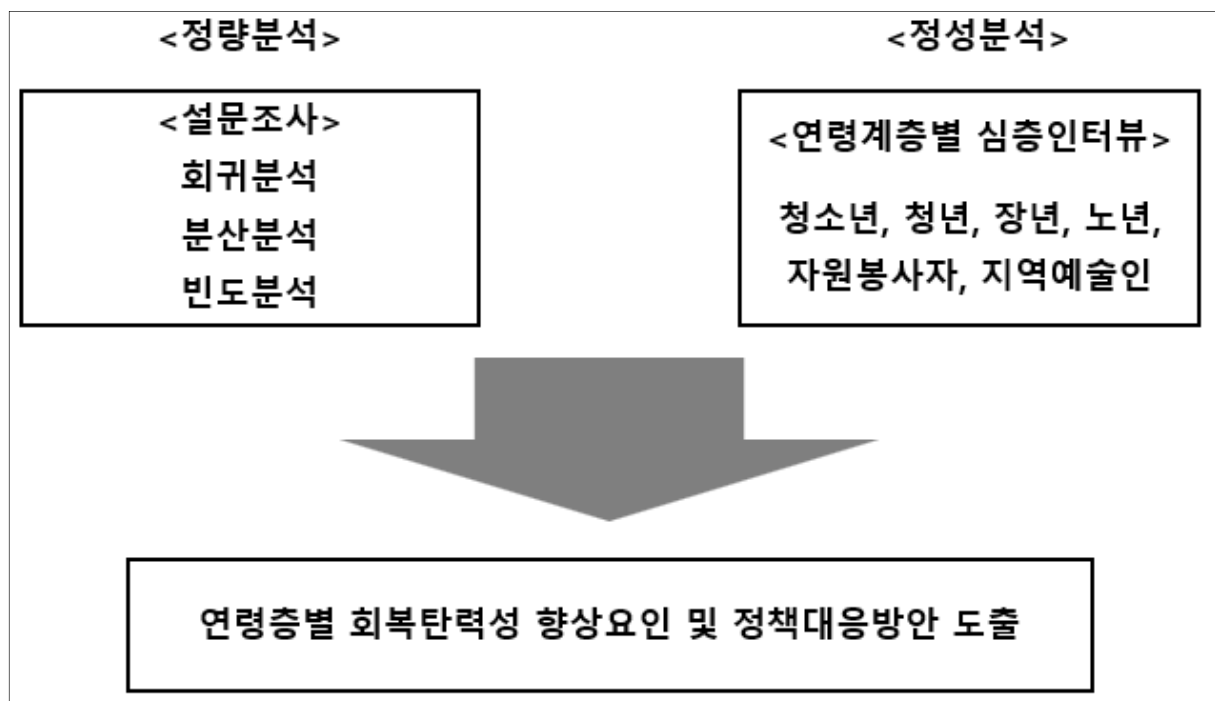
- 앞서 살펴 본 Mayer(2013)를 비롯한 주요 선행연구에서는 커뮤니티 지수(Community Indices), 사회적 결속도(Social Cohesion) 등 집단적 대응효과를 회복탄력성의 주된 요인으로 보았음
- 본 연구에서도 이를 적용하여 ‘사회적 자본’과 ‘물리적 환경’이 ‘지역사회 회복탄력성’과 ‘개인차원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함
- 통제변수 중 연령, 성별, 지역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가변수(dummy)로 변환하여 분석함
- 이를 적용한 회귀모형의 설계는 다음과 같음
- 각 변수의 구체적 측정치는 <표 13>에 제시되어 있음



[그림 16] 회복탄력성 영향요인 분석모형

□ 연구의 분석모형

- 본 연구는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을 실시하여 연령층별 회복탄력성 영향요인 및 대응정책을 도출함
- 1차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계량분석함
 - 설문조사는 회귀분석, 분산분석, 빈도분석 등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함
- 2차적으로 설문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심층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이후 연령층별 심층 인터뷰를 실시함
 - 심층인터뷰는 설문조사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내용에 대한 연령층별 보다 깊이있는 내용과 설문조사에서 다루지 못한 자원봉사자와 지역예술인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결과를 도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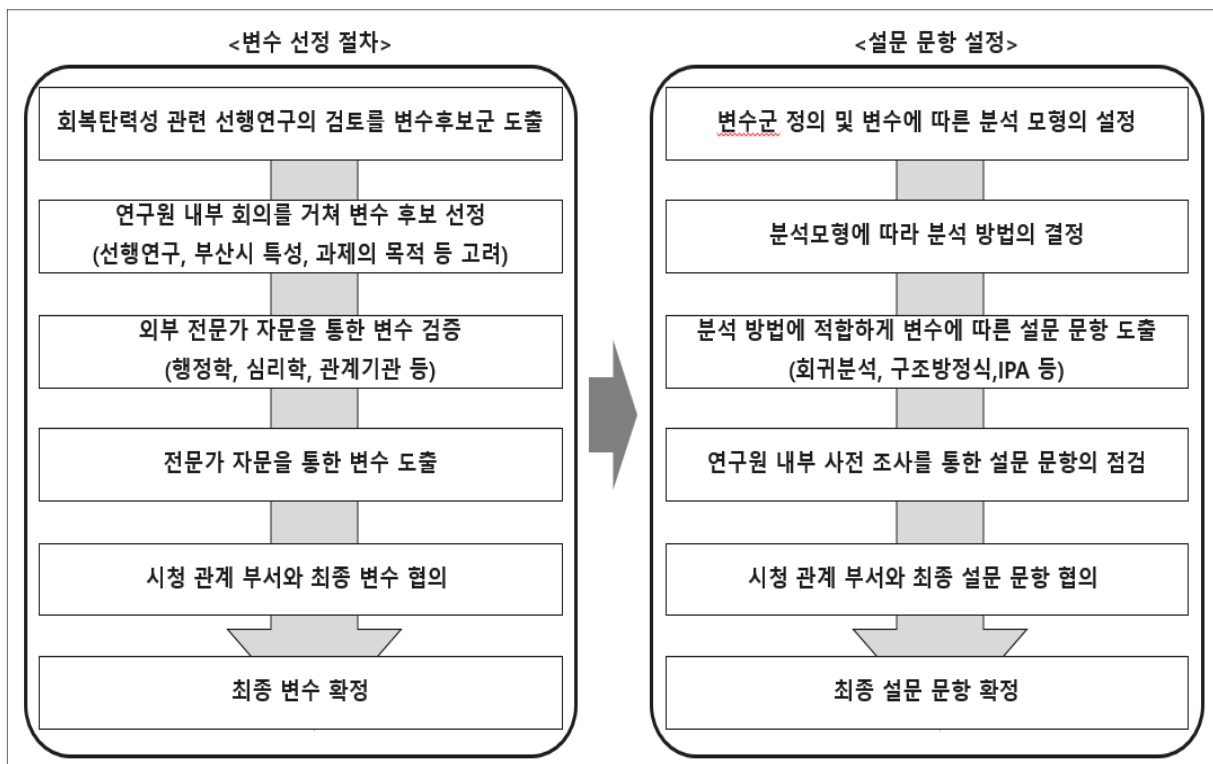
[그림 17] 연구의 분석모형

3. 설문조사 설계

□ 설문 문항 설정 절차

○ 설문 문항 설계는 분석모형 설정에 맞추어 구성됨

- 회복탄력성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모형을 구성하고 이에 적합한 변수를 선정
- 선정된 변수를 측정가능한 문항으로 구성함
- 변수 선정 및 문항 구성은 외부 전문가 자문 및 연구원 내부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적합성을 검증 후 설문조사 실시함
- 이의 절차를 [그림 18]에 나타냄



[그림 18] 변수도출 및 설문 문항 구성 절차

제5장 연구의 주요내용

제1절. 감염병 재난 대응 모델

제2절. 설문조사 주요내용

제3절. 연령층별 주요 인터뷰 내용

제4절. 감염병 재난 시대의 회복탄력성 정의

제5절. 연령층별 주요정책

제5장 연구의 주요내용

제1절 감염병 재난 대응 모델

1. 감염병 재난 대응 모델 구축방안

□ 선행연구

○ 코로나 19 대응 일반 논리모형¹⁰⁾

- 논리모형 : 사업의 목표를 정하고 관련 요소들을 진단하여, 문제를 확인하고 그 해결책을 구체화하는 넓은 의미의 기획과정
- 현황분석 → 이해관계자 분석 → 문제분석 → 해결방안/목표분석 → 전략분석 → 논리모형작성 → 활동계획수립 → 자원투입계획수립
- 논리모형은 현황에 대한 잘 조직된 분석과정을 통해, 타당한 목표를 세우고¹¹⁾ 그 목표들의 위계를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분석과정의 산출물. 따라서 어떤 사업이나 정책의 대상이 처한 현황에 대한 분석과정 없이 만들어진 논리모형은 무의미함

○ 서울시 코로나 대응 모형

- 서울시의 코로나 19 대응 일반 논리모형은 서울시의 약 340여 개 방역정책 내용들을 검토하여 그 목표를 중심으로 분류한 결과 6개의 대응 영역과 서울시 코로나 19 백서에서 제시한 방역 대책의 분류기준에 따라 대응영역 중분류 및 소분류에 따른 주요 방역정책을 정리하였음
- 이는 대표적인 문제 해결 목표들을 중심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어떠한

10) 출처 : 2021.4. 서울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방역 정책모형

11) 이는 이상적이긴 하지만 정책결정자의 권한, 지식적 한계,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함. 이러한 제약으로 합리적 정책 대안 선택의 어려움, 책임소재의 문제 등으로 인해 현실적 적용의 제한 발생

중재활동들이 가능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하여 투입되어야 하는 투입물과 선제조건들을 구성해 ‘코로나 19 대응 논리모형’ 논리모형을 구성함으로써 대응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DB구축과 향후 이를 활용한 대응방안 구축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조성일, 2021)

- 다만, 이는 과거의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DB구축이기 때문에 미래의 상황에 동일하게 대응하여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코로나 감염병 재난 초기의 긴박했던 상황에 비해 2021.12. 현재 기준으로 코로나 감염병 대응 체계는 중앙-지방정부에서 상당한 정도의 대응 역량을 구축하였으며 시민들의 인식 또한 많이 달라졌음
- 향후 동일상황 → 동일대응은 경우에 따라 부적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현실성을 고려한 대응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

<표 14> 코로나19 대응 서울시 특화 정책 논리모형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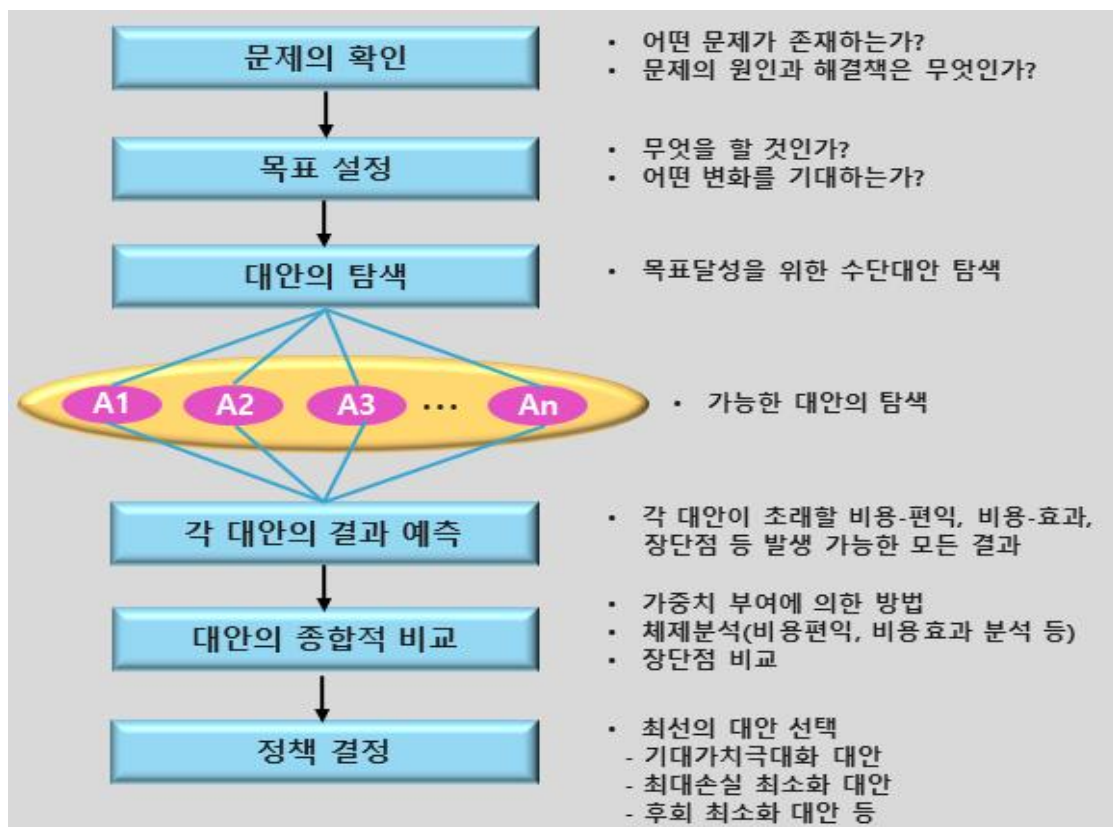
| 대응영역 대분류 3 : 치료 | |
|---|--|
| 대응영역 소분류 “ 국내환자대응 | |
| 정책 : (의료인력 협조요청)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1차의료기관 및 서울시 의사회에 적극적 협조 요청 | |
| 투입물 | 선제조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현장조사원 :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 - 1차 의료기관, 서울시 의사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령 불이행시의 행정처분 :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 정지, 금고 이상 면허 취소)등 조치 |

- <표 14>는 코로나19 대응 서울시 특화 정책 논리모형으로서 의료진이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면허 정지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임. 미래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으며 당시의 임기응변적 대응이었을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이러한 정책의 환류 과정을 통해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성 높음

○ 합리모형

- 합리모형(rational model) : ‘합리성’이란 ‘기대가치의 극대화’, ‘최대손실의 최소화(minimax)’ 또는 ‘후회의 최소화’를 의미.
- 정책결정의 합리모형이란 ‘경제적 의미의 기대가치의 극대화’ 등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
- 합리적 선택이 이루어지려면 [그림 19]와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함¹²⁾



[그림 19] 합리모형

- 12) ① 문제의 인지·파악 : 문제의 존재를 인식하고 파악하는 단계
 ② 명확한 목표 설정 : 문제 해결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상태
 ③ 대안 탐색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 탐색
 ④ 대안의 결과 예측 : 각 대안 실행시 발생가능한 결과 예측
 ⑤ 대안간 비교 :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가중치 부여
 ⑥ 대안의 선택(정책 결정) : 가중치 비교시 ‘점수 X 가중치’의 값이 가장 높은 대안을 선택

- 합리모형의 한계 : 그러나 합리모형은 너무 이상적이어서 정보와 지식의 부족상태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표 15> 합리모형의 한계

| 한계 | 내용 |
|---------------|--|
| 목표 명확화의 곤란성 | 정책목표 계량화의 어려움 |
| 지식의 현실적 한계성 | 이 모형에서 정책결정자는 전지성(全知性)을 전제로 모든 가용대안의 탐색이 요구됨 |
| 사회적 선호도의 비통일성 | 여러 집단과 개인들의 가치는 대부분 상충. 상충되는 가치들의 상호 비교 및 가중치 부여 어려움 |
| 대안선택의 안전성 추구 | 여러 대안의 결과는 불확실성→예기치 않은 결과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기존과 유사한 정책 채택 |
| 대안탐색의 어려움 | 모든 대안을 탐색하는데 비용, 시간, 노력의 과다 |
| 정보수집의 어려움 | 모든 정책대안과 결과 파악에 필요한 정보수집한계 |
| 할거주의 | 부처간 경쟁과 갈등으로 조직 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조정의 어려움 |

○ 엘리슨(Allison) 모형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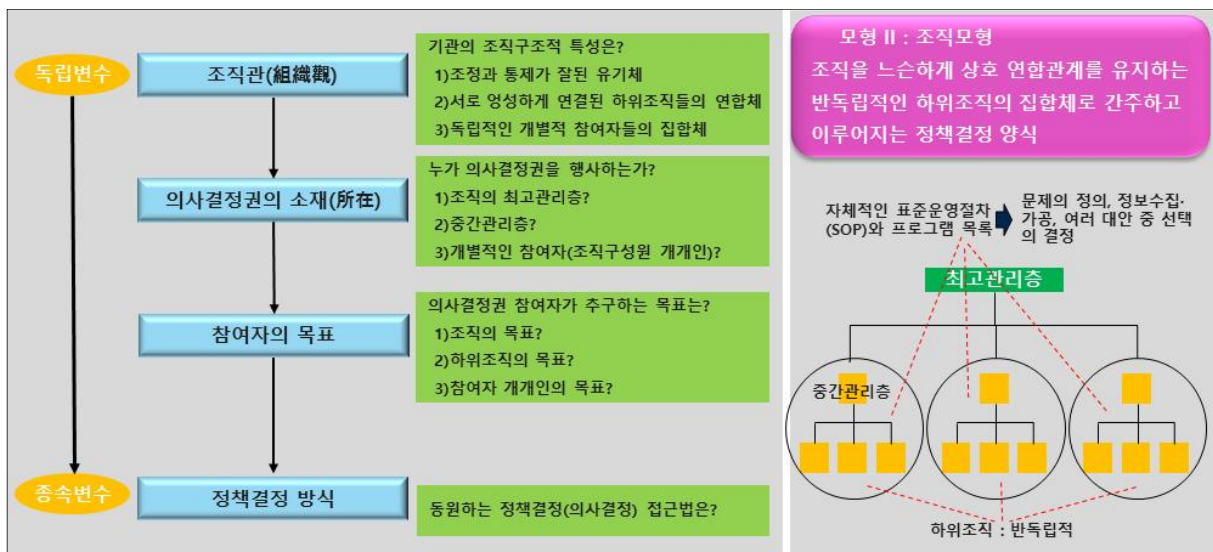
- 문제의 대응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조직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의사결정 방식이 달라짐. 즉 조직관(組織觀)에 따라 정책결정 접근법이 달라짐. 조직관이 독립변수라면 정책결정방식은 종속변수로 파악됨
- 엘리슨(Graham T. Allison)은 정부 정책결정 과정을 세 가지 상호 배타적인 합리모형, 조직모형, 관료정치모형으로 제시함

<표 16> 엘리슨의 집단의사결정 모형

| 구분 | 합리모형(모형 I) | 조직모형(모형 II) | 관료정치모형(모형 III) |
|-------|----------------------------------|------------------|-----------------------|
| 기본 방향 | 합리적 의사결정 |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 해소 | 정치적 의사결정 |
| 조직 특징 | 명령 일원화 조직 | 반독립적인 하위 조직의 집합체 | 독립적인 재량권을 가진 다원주의적 구성 |
| 예시 |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우나 외교정책이나 국방정책 중 일부 | 미국 CIA, 육군, 해군 등 | 선진국 예산 수립 과정 |

13) 이상철(2019). 『가치창조조직론』 고양시 : 대영문화사

- 엘리스 모형의 기본 모형 중 본 연구에 적용가능한 것으로 모형Ⅱ: 조직모형을 응용함
- 정책대안이 특정 부서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종합정책으로 문화, 복지, 보건, 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부서 간 협업에 의한 정책대안 도출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
- 조직모형은 조직을 느슨하게 상호 연합관계를 유지하는 반독립적 하위조직의 집합체로 간주하고 이루어지는 정책결정 양식임
- 하위조직 중간관리자들은 정부전체 목표와 함께 고유의 목표를 가지고 자체적인 표준운영절차(SOP)와 프로그램 목록을 보유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제 정의, 정보 수집·가공, 대안 선택을 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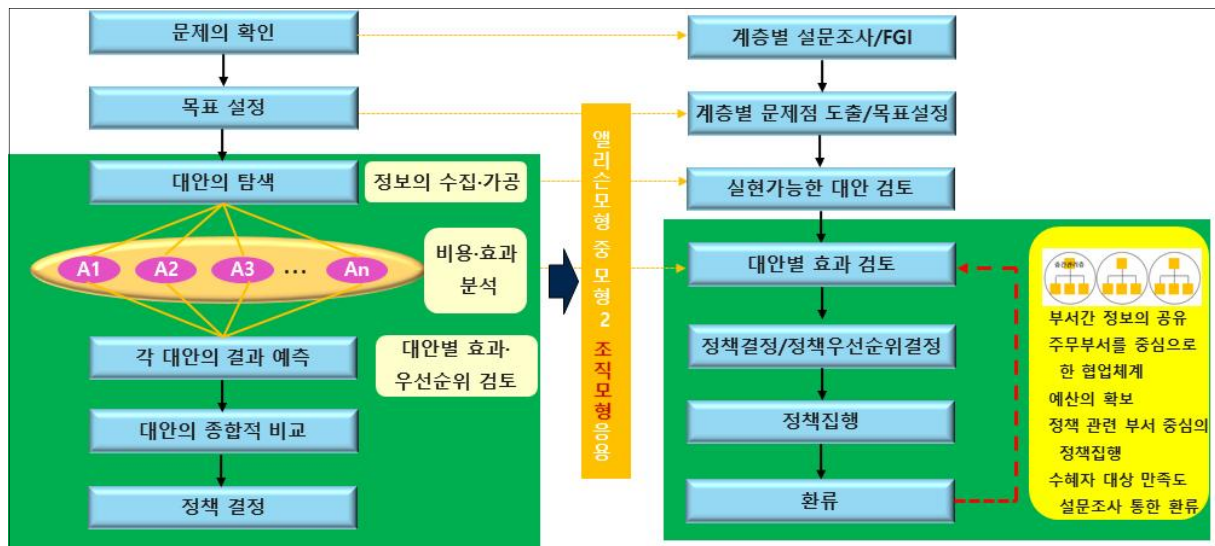
[그림 20] 엘리스 모형

□ 모형 체계화

○ 감염병 재난 심리 회복탄력성 대응모형

-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문제점 도출 및 ‘모형Ⅱ: 조직모형’을 응용하여

부산시의 상황에 맞는 시민연령층별 맞춤형(보편적) 재난대응모델을 도출함



[그림 21] 부산시 맞춤형 재난대응모델

○ 모형 적용 예시

- [그림 21]의 모형에 대해 지역 재능기부 자원봉사 경험 예술인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 모형에 적용한 예시(자원봉사 + 지역사회 협업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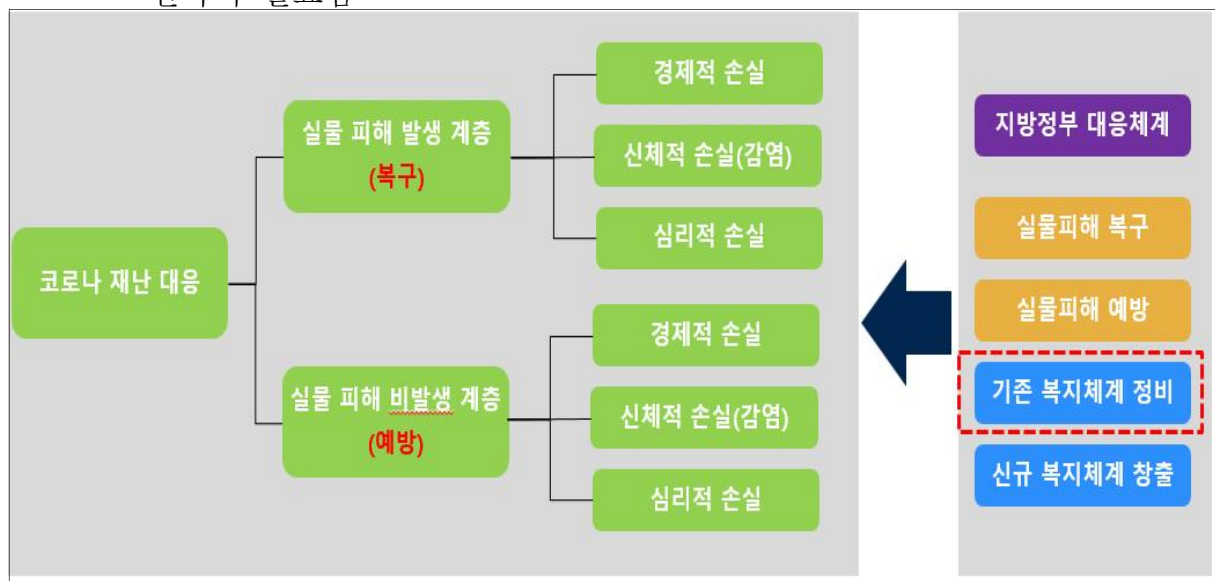
<표 17> 모형 적용 예시

| 모형 단계별 대응 | 내용 |
|--|--|
| 설문조사/FGI/심층인터뷰 | 지역별/연령층별 설문조사, 연령층별 심층 인터뷰 진행 (지방정부 홈페이지 활용 온라인조사) |
| 지역사회 차원에서 커뮤니티 활성화 및 심리 불안 완화를 통한 지역사회 회복 탄력성 향상 |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시민들의 전반적 우울감 증가(대인관계 제한, 사회적 고립 증가, 가정 거주 시간의 증가, 감염 불안 등) |
| 정보의 수집, 정책적 대응 방안, 실현가능성, 부서간 협업 가능성, 주무부서 등 검토 | 과거 사례, 정책 집행에 필요한 예산/인력의 확보 가능성 검토 |
| 문화, 시설, 재정적 지원 등 사례 검토-주무 부서간 정보의 공유 및 협의 | 각 대응 정책별 시민선호도, 정책 효과의 일시적-지속적 효과 검토 |

| 모형 단계별 대응 | 내용 |
|--|---|
| 지역 사회 협조를 통한 지역 예술인 공연 무대 마련(자원봉사 개념 전제, 무대 준비, 사전 연습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 지급) | 지역사회에 예술인 자원봉사 무대 마련 지역사회/지자체/예술인 협회 등의 역할 설정 (주체간 비용부담 정도의 협의) (아파트 관리사무소/광역·기초/예술인 협회 예술인) |
| 지역단위별 / 아파트 단위별 / 문화회관 무상 지원 등 지역별 상황에 맞는 방법 선택 | 지역사회 자원봉사 예술인 공연 실시 (퇴근시간 고려 1시간 30분 ~2시간 정도) 현장참여 및 베란다 음악회 |
| 주민만족도 조사 및 문제점 도출 | 도출된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및 개선정책 집행 방안 검토 |

○ 감염병 재난 유형에 따른 대응체계 차이

- 코로나 감염병 재난의 주요 특징은 모두가 재난 당사자이면서 대부분은 잠재적 당사자라는 것임
- 즉, 코로나로 인해 실직, 폐업, 극도의 매출감소, 감염 등 직접적 재난당사자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위협이 존재하지만 아직 재난(수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잠재적 당사자임
- 따라서 재난의 대응체계도 실물 손실이 발생한 계층의 피해 회복과 잠재적 당사자인 일반인들의 스트레스 완화 및 예방의 두 트랙 대응 전략이 필요함



[그림 22] 감염병 재난 유형에 따른 대응체계의 차이

○ 기존 복지체계 정비 필요성

- 본 연구 결과 기존 정책의 수정/확대, 신규 정책 수립 필요성으로 크게 두 가지가 도출되었음
- 기존 정책의 수정 확대는 정책 자체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기존의 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이 도출된 경우도 많음
- 대표적으로는 일자리지원체계와 자원봉사체계, 격리자관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대두됨

<표 18> 기존 복지체계 정비 필요성

| 주요 서비스 전달체계 | 대두 된 문제점 | 개선방안 |
|-------------|---|---|
| 일자리 지원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취업 희망자의 업무 전문성/취업희망분야 등과 연계 부족 ●실제 취업에 연계된 체계적 지원보다는 업무 적합성 매칭이 거의 되지 않는 지원 실적 채우기용이라는 의견 ●구직자로 등록하여도 체계적 지원이 부족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야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분류 및 이에 적합한 직무교육 지원, 기업정보 제공 ●성과평가지표에 이용자 만족도 항목 추가하여 도출된 문제점 반영 |
| 자원봉사체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봉사 의향이 있어도 정보 부족으로 이용자 접근성이 낮음 ●부산시-대한적십자사-민간 자원봉사 기관간 거버넌스 체계 부족 ●민간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산시의 지원 부족 ●지역별 자원봉사자 활동 근거지 부족 ●설문조사 결과 소극적 참여 의향자 비율 높음→여건이 되면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약 4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봉사 관련 대표 홈페이지 개설하여 부산시의 모든 자원봉사기관 등록 및 소개하여 홈페이지에서 참여기관 및 참여분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홈페이지에서 희망 기관/분야에 바로 기부금 납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자원봉사 희망자의 참여 체계 간소화 ●자원봉사자에 대한 최소경비 지원 ●지역별 자원봉사기관 공유 활동 장소 제공 |
| 격리자 관리체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격리는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격리에 따른 책임 및 경비는 거의 개인이 부담(지원 물품이 턱없이 부족하며 부족분은 개인이 해결하여야 함) ●격리기간 식품 외에 지원이 없어 격리자의 심리적 고립감 가중 ●주부 격리시 가정 생활 유지 어려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식 지원 물품이 부족하면 부산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원 필요 ●격리기간 심리적 고립감을 완화할 콘텐츠 제공 필요 ●가정 주부 격리시 가사도우미 지원 필요 |

- 부산시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2016년부터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음
- 주간감염병 소식지, 뉴스레터, 전문가가 알려주는 예방법 등이 제공되고 있으나 이용율은 저조한 편¹⁴⁾
- 개설 후 6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시민인지도도 낮으며 이용도가 거의 없음
- 정보제공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제공정보의 실효성 고려,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 지역별 맞춤형 정보제공 등 필요

<표 19> 감염병 관리지원단의 주요 제공 서비스와 문제점

| 감염병 관리지원단 | 대두 된 문제점 | 개선방안 |
|------------|---|---|
| 주간 감염병 소식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주 발행되고 있으나 이용율은 극히 저조한 편 ●감염병 관련 전문 통계를 제공하고 있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움(관련 학계나 의료계에서 필요한 정보이지 일반인들이 관심가지기 어려운 내용) ●매주 자료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용도 대비 인력/행정력 낭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제공할 필요성 ●주요 이슈 지역의 정보, 극복사례, 시민 인터뷰 등 스토리텔링 반영 ●격주 생산으로 행정력 낭비 줄임 |
| 감염병 뉴스레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월 발간되고 있으나 이용율은 극히 저조한편 ●예방접종, 진단검사 안내 등 정보의 단순성(이미 알고 있는 내용 등 다른 곳에서도 많이 공개된 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간 감염병 소식지와 통합 운영 방안 검토 |
| 그 외 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조한 이용률 (대체적으로 20~60회 조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이용자 수요를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보제공 |

14) 주간 감염병 소식지의 경우 매주 발행되고 있으나 2021.11.(2021.44주~47주) 자료 기준 최저 19에서 최대 58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음

| | | | | | |
|-----|------------------------------------|--|-----|------------|----|
| 251 | 주간 감염병 소식지(2021-47주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 관리자 | 2021-11-26 | 35 |
| 250 | 주간 감염병 소식지(2021-46주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 관리자 | 2021-11-26 | 19 |
| 249 | 주간 감염병 소식지(2021-45주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 관리자 | 2021-11-12 | 58 |
| 248 | 주간 감염병 소식지(2021-44주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 관리자 | 2021-11-05 | 47 |

[그림 23]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주간 감염병 소식지 조회 수

- [그림 23]에서 보듯 매주 발행되는 '주간 감염병 소식지'의 조회수는 굉장히 낮음
- 주로 전문 의학용어와 전문 통계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콘텐츠와 사용 용어에 대해 대중성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될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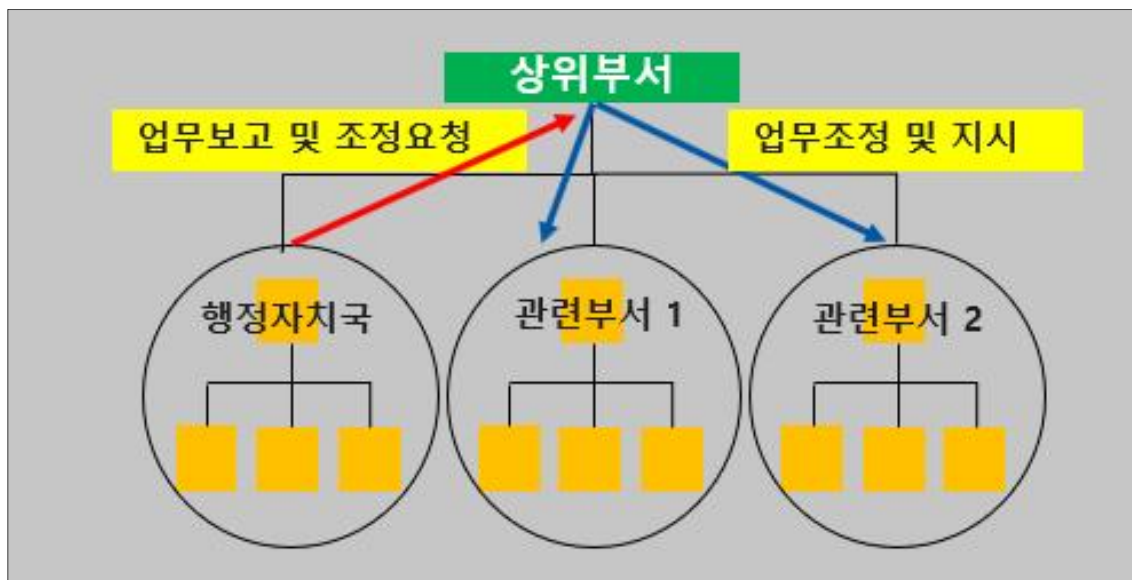
○ 대규모 조직 부서간 협업의 어려움

- 체계적 대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무부서를 중심으로 한 협업체계의 효율적 구성이 이루어져야 함
- 우리나라 대규모 공공조직에서는 부서 간의 엄격한 업무 분장으로 인해 야기된 부서이기주의와 부서할거주의로 인해 일반적으로 부서간 협업의 어려움 발생 가능성 높음
- 현대의 공공조직은 날로 대규모화되고 다양한 고객의 요구로 인해 점차 복잡화·전문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직의 통제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
- 공공조직이 가지는 업무의 속성상 각 부서 간의 목표와 의도하는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방향으로 조직이 움직이기 어려움
- 공공조직의 수와 규모가 양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원 배분을 둘러싼 공공조직 간 또는 부서 간 경쟁이 강화되면서 부서할거주의 심화¹⁵⁾

□ 본 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조직모형 응용 방안 1 : 기존의 조직체계 활용

○ Top-bottom 방식

- 이는 일반적인 조정 기능의 방법으로서 부서간 협업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계층제의 권위나 회의에 의해 조정하는 방법임
- 계층제에서는 하위 직급에서 갈등이 있을 때 상급자(부서)가 권위로서 이를 조정하는 전통적 방법
- 자치분권과→ 행정자치국 → 상위부서¹⁶⁾에 업무 협조 및 조정 요청 → 관련 부서에 업무 배분 및 집행 지시



[그림 24] Top-bottom 방식 적용 예시

□ 본 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조직모형 응용 방안 2 : 애드호크라시 조직 활용 방안

○ 비정형 조직의 활용방식¹⁷⁾

- 애드호크라시는 어떤 정형적인 표준 형태를 갖춘 조직이 아님

15) 사일로 효과 : 부서들간의 담을 쌓고 자기 부서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일컫는 경제 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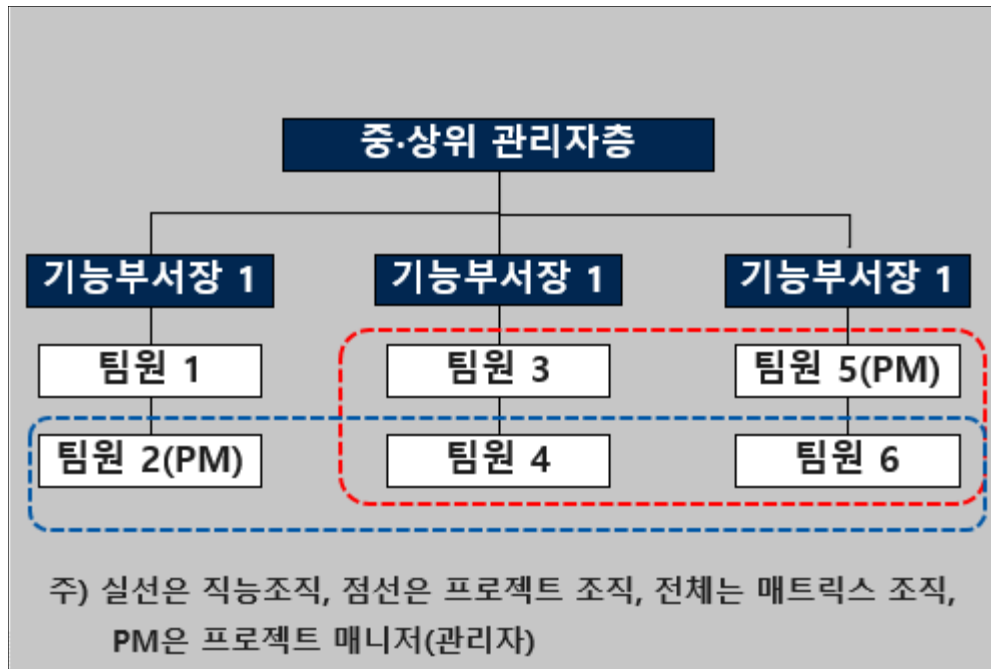
16) 이 때 상위부서는 하위조직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을 하여야 함

17) 이상철(2019). 『가치창조조직론』 고양시 : 대영문화사. pp.157~165

- TF, 임시위원회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되는 조직형태로서 환경 적응적이고 일시적인 문제 해결 중심 조직을 의미
 - ① 태스크 포스: 조직에 관련되는 새로운 문제 해결 위해 문제 해결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직. 프로젝트 팀이라고도 함. 여러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 기관장이 임의로 설치·해산할 수 있는 임시조직
 - ② 매트릭스 조직 : 전통적인 수직적 직능조직에 수평적인 프로젝트 조직의 특징을 첨가한 혼합형 조직. 프로젝트 관리자는 직능부서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프로젝트를 진행,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력은 직능부서의 일과 프로젝트의 일을 병행해서 수행.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원래 소속으로 돌아감
- 현실적으로 극단적 형태의 직능조직과 프로젝트 조직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조직이 매트릭스 조직으로 운영됨
- 지나치게 직능조직에 의존할 경우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성이 낮아지기 쉬우며, 극단적 프로젝트 조직으로 운영할 경우 자원의 낭비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짐

<표 20> 매트릭스 조직의 장단점

| 장 점 | 단 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능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로 부서간 장벽 완화 • 조직 전체 자원을 탄력적으로 활용 • 수직/수평적 정보 공유 가능 • 기능부서 + 프로젝트 장점 조화 • 프로젝트 종료에 따른 혼란이 없음 • 기존조직의 정책/방침에 일관성 • 유연한 조직으로 환경 대응 신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적 조직 체계로 권위가 모호해져 안정적 조직통제의 어려움 • 이중적 책임과 권한으로 갈등 유발 가능성 • 다수의 프로젝트 간 시간, 비용, 목표 협조 등의 균형 유지의 어려움 • 의사결정 기간 장기화 가능성 • 기능조직에서 프로젝트에 우수 인력의 투입을 꺼릴 수 있음 •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렵고 한정된 자원으로 부서 간 갈등 발생 소지 <p>→ 적절한 업무 분장을 통해 문제 해결</p> |



[그림 25] 비정형 조직 활용 예시

제2절 설문조사 주요내용

1. 설문조사 개요

□ 설문조사 주안점

- 설문문항은 연구의 분석모형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음
- 독립/통제/종속 변인에 대한 개인단위의 설문조사를 실시
- 대상단위(object unit)와 주제단위(subject unit)를 명확히 정의하여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 발생 방지

□ 조사 대상 구분

○ 실제 응답이 가능한 연령과 대상을 고려하여 계층을 구분함

-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위기를 받아들이고 회복하는데 있어서, 개인별, 연령별, 연령층별 차이가 존재함을 고려
- 연령, 성별, 거주지역, 소득수준, 가족구성형태, 근로형태, 학력, COVID-19 진단검사 유무, 건강수준(일반적 수준, 우울감 또는 스트레스 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 생태적 요인 정보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
- 청년은 19~25세는 대학생 계층으로 설정, 26~34세는 취(창)업준비생과 취(창)업자로 세분하여 계층을 구분함
- 노년은 60대의 건강한 노년과 70대 이후의 보호가 필요한 노년으로 세분하여 계층을 구분함
- 지역과 계층을 세분화하여 소득수준, 연령층별, 성별, 등 연령별·연령층별 특수성을 고려한 조사를 실시함
- 연령대별(연령층별)분석은 대상별 체계적 지원을 가능케 하는 지방정부의 맞춤형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됨

<표 21> 조사 대상 구분

| 구분 | | 연령층별 구분 근거(예시) |
|-----------------------------|---------------------|--------------------------------|
| 청소년(13~18세) | | 온라인 수업, 교우관계 위축 |
| 청년(19~34세) *부산시 청년조례에 근거 | 대학생 취업준비생 취업자 | 대내외 활동 위축 채용 규모 축소 재택 근무 |
| 중년(35~49세) | 학부모, 경제활동 | 경제활동 위축, 가계 부담, 자녀교육 부담 |
| 장년(50~59세) | 경제활동 | 경제활동 위축, 가계 부담 |
| 노년1(60~69세) | 건강한 노년 | 신체, 건강, 경제 활동에 따른 구분 |
| 노년2(70세 이상) | 보호가 필요한 노년(은퇴자) | |

□ 조사 대상 대표성 확보방안

- 차별없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설문조사 실시
 - 지방자치법 제13조 1항 주민은 ~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공공서비스 혜택의 차별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의견을 대표성 있게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별·연령층별 표본 추출을 실시함(비례층화표본추출방식 적용)
-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부산시 자치구를 주민 소득 수준에 따라 상중하로 분류하여 설문조사 실시
 - 부산시 구군별1인당 소득세 납부 순위에 따라 부자지역(상위5개 자치구), 중간 지역(중위 6개 자치구), 하위 지역(하위 5개 자치구)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표본할당
 - 지역별·연령별 인구 수 도출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 자료를 이용함(2021.02. 기준)
 - 자료 접근 가능성, 정책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청소년(13세 이상) 이상부터 전체 모집단을 설정함
 - 연령 구간 인구수를 본 연구의 특성에 맞추어 지역별·연령대별로 재가공함
 - 부산시 총인구 : 3,387,761명
 - 연령구간 모집단 인구수 :3,079,280명
 - 신뢰수준(%) 99, 표본오차 3%적용 샘플규모 : 1,848명¹⁸⁾
 - 이를 소득수준지역별·연령층별 인구비례 할당하여 표본 수를 도출함
 - 실제 조사에서는 지역적 특수성을 대변할 수 있는 동단위로 세분하여

18) 일반적으로 학술 연구나 통계조사에서는 95%신뢰수준, 표본오차 3.1%를 적용하며 본 연구에 적용할 경우 적정 표본수는 1,000명임. 그러나 본 조사는 지역별·연령층별 할당을 실시하기 때문에 1,000명 기준으로 할당할 경우 지역에 따라서는 표본수가 굉장히 적어 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있음. 따라서 모집단의 규모와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조사에서는 신뢰수준 99%를 적용함

조사를 실시함(ex 해운대구는 상위지역으로 분류되지만 반송이나 재송 지역은 상위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운대구 내에서도 우동/중동 위주로 조사를 실시하여 상위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별 표본수를 도출하기 위한 부산시 16개 구(군)의 지역별·연령층별 인구수는 <표 22>와 같음

- 지역별·연령층별 인구수는 구(군)단위로 도출하였으나 실제 조사는 동단위 로 세분화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함

<표 22> 부산시 지역별·연령층별 인구수

| 행정기관 | 총 인구수 | 청소년 (중고) (13~18) | 청년 (19~34) | 중년 (35~49) | 장년 (50~59) | 건강한 노년 (60~69) | 보호필요 노년 (70~) |
|-------|-----------|------------------------|---------------|---------------|---------------|----------------------|---------------------|
| 부산광역시 | 3,387,761 | 160,198 | 650,930 | 735,619 | 566,594 | 536,607 | 429,332 |
| 중구 | 41,551 | 1,206 | 8,278 | 7,624 | 7,006 | 7,935 | 7,708 |
| 서구 | 107,824 | 4,317 | 19,515 | 20,568 | 17,838 | 19,246 | 18,775 |
| 동구 | 88,639 | 3,027 | 16,257 | 17,122 | 14,643 | 16,175 | 16,126 |
| 영도구 | 112,809 | 4,346 | 17,558 | 20,792 | 19,374 | 22,268 | 21,419 |
| 부산진구 | 360,025 | 14,638 | 79,718 | 75,932 | 58,286 | 56,511 | 46,820 |
| 동래구 | 270,678 | 14,932 | 49,766 | 61,445 | 44,251 | 41,372 | 32,095 |
| 남구 | 266,989 | 13,649 | 50,980 | 58,219 | 42,761 | 41,121 | 35,895 |
| 북구 | 282,799 | 13,744 | 55,823 | 57,606 | 53,489 | 46,100 | 30,949 |
| 해운대구 | 401,280 | 22,785 | 73,566 | 91,409 | 70,119 | 58,388 | 45,952 |
| 사하구 | 310,740 | 14,982 | 59,075 | 65,829 | 54,631 | 51,723 | 37,758 |
| 금정구 | 231,743 | 10,529 | 47,103 | 45,066 | 40,277 | 39,076 | 32,025 |
| 강서구 | 139,088 | 6,169 | 24,147 | 40,531 | 17,059 | 16,107 | 10,149 |
| 연제구 | 208,743 | 9,758 | 40,309 | 46,225 | 34,100 | 32,837 | 26,280 |
| 수영구 | 176,703 | 7,099 | 37,408 | 37,542 | 27,580 | 28,768 | 24,865 |
| 사상구 | 212,038 | 8,879 | 42,674 | 42,198 | 40,820 | 37,220 | 23,978 |
| 기장군 | 176,112 | 10,138 | 28,753 | 47,511 | 24,360 | 21,760 | 18,538 |

* 행정안전부 2012.02.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 재가공

○ <표 22>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별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별 경제수준을 분류함

- 지역별 경제수준은 지방세를 기준으로 분류함
- 지역별 경제수준을 도출하는 기준으로 소득세를 활용한 것은 실제 소득에 근거하기 위함임
- 부동산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활용할 경우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처분하기 전까지는 자산으로 활용하기 어려움¹⁹⁾

<표 23> 지역별 경제수준 도출

| 부산시 자치구·군 | 2018년 결산 1인당 소득세 | 자치구별 1인당 소득세 순위 | 순위에 따른 정렬 | 자치구군 소득 수준 순위 | 소득 구분 |
|--------------|---------------------|-----------------------|--------------|---------------------|-------|
| 중구 | 933,672 | 1 | 1 | 중구 | 상위 지역 |
| 서구 | 162,841 | 13 | 2 | 강서구 | |
| 동구 | 413,050 | 4 | 3 | 남구 | |
| 영도구 | 135,912 | 15 | 4 | 동구 | |
| 부산진구 | 252,522 | 6 | 5 | 해운대구 | |
| 동래구 | 169,740 | 12 | 6 | 부산진구 | 중위 지역 |
| 남구 | 493,442 | 3 | 7 | 기장군 | |
| 북구 | 94,024 | 16 | 8 | 연제구 | |
| 해운대구 | 276,005 | 5 | 9 | 사상구 | |
| 사하구 | 137,635 | 14 | 10 | 수영구 | |
| 금정구 | 183,601 | 11 | 11 | 금정구 | 하위 지역 |
| 강서구 | 553,447 | 2 | 12 | 동래구 | |
| 연제구 | 203,884 | 8 | 13 | 서구 | |
| 수영구 | 190,782 | 10 | 14 | 사하구 | |
| 사상구 | 191,070 | 9 | 15 | 영도구 | |
| 기장군 | 219,762 | 7 | 16 | 북구 | |

*출처 : 공공데이터포털 - 지방세 관련 통계정보 - 2018년 지방세 통계연감 원시자료(2019.10.29. 등록)

19) 부동산 담보 대출을 통해서 자산화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 담보대출은 주로 투자를 위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상의 소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또한 최근 2018~2020년 사이에 부산지역의 부동산 가치 상승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단순히 부동산 가격의 증가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고소득 지역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함. 반면 소득세는 실제 벌어들인 소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보다는 근거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함

○ 신뢰수준 99%, 표본오차 3%를 적용한 본 조사의 표본수는 1,848명임

- <표 22>에서 도출된 지역별 인구수와 <표 23>에서 도출된 지역별 경제 수준을 활용하여 지역별·연령층별 표본규모를 할당하여 <표 24>에 제시함²⁰⁾²¹⁾

<표 24> 지역별 표본규모 할당

| 소득세 수준 순위 | 연령구간 인구 대비 표본수 | 청소년 (중고) (13~18) | 청년 (19~34) | 중년 (35~49) | 장년 (50~59) | 건강한노년 (60~69) | 보호필요 노년(70~) |
|-----------------|-------------------------|------------------------|---------------|---------------|---------------|------------------|-----------------|
| 중구 | 24 | 1 | 5 | 5 | 4 | 5 | 5 |
| 강서구 | 69 | 4 | 14 | 24 | 10 | 10 | 6 |
| 남구 | 146 | 8 | 31 | 35 | 26 | 25 | 22 |
| 동구 | 50 | 2 | 10 | 10 | 9 | 10 | 10 |
| 해운대구 | 217 | 14 | 44 | 55 | 42 | 35 | 28 |
| 부산진구 | 199 | 9 | 48 | 46 | 35 | 34 | 28 |
| 기장군 | 91 | 6 | 17 | 29 | 15 | 13 | 11 |
| 연제구 | 114 | 6 | 24 | 28 | 20 | 20 | 16 |
| 사상구 | 117 | 5 | 26 | 25 | 24 | 22 | 14 |
| 수영구 | 98 | 4 | 22 | 23 | 17 | 17 | 15 |
| 금정구 | 128 | 6 | 28 | 27 | 24 | 23 | 19 |
| 동래구 | 146 | 9 | 30 | 37 | 27 | 25 | 19 |
| 서구 | 60 | 3 | 12 | 12 | 11 | 12 | 11 |
| 사하구 | 170 | 9 | 35 | 40 | 33 | 31 | 23 |
| 영도구 | 63 | 3 | 11 | 12 | 12 | 13 | 13 |
| 북구 | 155 | 8 | 34 | 35 | 32 | 28 | 19 |
| 표본수 합계 | 1,848 | 96 | 391 | 441 | 340 | 322 | 258 |

* 표의 노란색 : 상위지역, 파란색 : 중위지역, 주황색 : 하위지역

20) 하위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 동래구는 동별로 파악하면 온천동·사직동 등 상위·중위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동들이 있음. 따라서 동래구의 조사에 있어서는 북천동·명장동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동 위주로 조사를 실시함

21) 중구와 강서구가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내는 것은 중구의 경우 인구가 굉장히 적은 구이며 상권이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소수의 고소득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음. 강서구의 경우 기업이 밀집해 있는 특성이 반영됨

○ 이를 소득수준에 따라 총 표본을 나타내면 <표 25>와 같음

<표 25> 지역별 표본규모 할당

| 소득수준 | | 표본 수 | 청소년 | 청년 | 중년 | 장년 | 노년1 | 노년2 |
|------|-------------------------|-------|-----|-----|-----|-----|-----|-----|
| 상위지역 | 중, 강서, 남, 동, 해운대 | 506 | 28 | 104 | 129 | 91 | 84 | 70 |
| 중위지역 | 부산진, 기장, 연제, 사상, 수영, 금정 | 747 | 37 | 166 | 177 | 135 | 130 | 104 |
| 하위지역 | 동래, 서, 사하, 영도, 북 | 595 | 31 | 121 | 136 | 114 | 108 | 85 |
| 계 | | 1,848 | 96 | 391 | 441 | 340 | 322 | 258 |

□ 설문 문항 및 조사 설계 과정

○ 설문 문항을 설계함에 있어서 [그림 26]의 과정을 거침

- 선행연구의 이론적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본 연구의 분석 방향을 설정함
-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설문지 초안을 작성 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문항 적합성을 검증함
- 연구원 내부에서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pretest를 실시하여 문항에 대해 설문대상자가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함
- 최종 설문 문항에 대하여 부산시청과 협의하여 최종설문문항을 도출함



[그림 26] 설문 문항 설계 과정

○ 표본 확보 방안

- 본 연구는 지역적 대표성, 설문대상자의 연령층별 대표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다양한 연령 계층을 고려하여 층화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함
- 전문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목적과 방향,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함(불성실, 무응답, 체계적, 비체계적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 복장, 태도, 말투 등)
- 각 자치구별 표본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행정동 중심으로 설문조사 실시함(ex 상위 지역의 경우 해운대구 우·중동, 남구 남천동, 강서구 명지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곳 위주로 설문 조사 실시)
- 시장, 지하철역, 회사, 행정복지센터, 학교 앞, 버스 정류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위주로 하되 표본의 대표성을 위하여 실내/실외 골고루 설문을 실시함
- 각 연령층별,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문조사 실시
- KF94 마스크 사은품 제공 등을 통해 응답률을 제고함



[그림 27] 설문조사 현장사진

2. 설문조사 응답자 개요

○ 설문조사 응답자 분포

- <표 25>에서 1,848명의 표본을 선정하였으며 불성실응답을 제외한 최종 유효 회수 표본은 1,866명임
- <표 25>에서 제시된 ‘청년’은 ‘대학생’과 ‘대졸 이후’로 세분화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함
- ‘노년1’은 일반적으로 은퇴 이후 건강한 60대를 의미함²²⁾
- ‘노년2’는 일반적으로 70대 이후의 보호가 필요한 세대를 의미함²³⁾
- 응답자 최종 유효 표본 분포 현황은 <표 26>에 나타냄

<표 26> 응답자 분포 현황

| 소득수준 | | 표본 수 | 청소년 | 청년1 (대학생) | 청년2 (대졸 이후) | 중년 | 장년 | 노년1 | 노년2 |
|----------|--|-------|-----|--------------|-------------------|-----|-----|-----|-----|
| 상위 지역 | 중, 강서, 남,동, 해운대 | 511 | 34 | 42 | 48 | 133 | 97 | 83 | 74 |
| 중위 지역 | 부산진, 기장, 연제, 사상, 수영, 금정 | 762 | 43 | 51 | 93 | 158 | 128 | 157 | 132 |
| 하위 지역 | 동래,서, 사하, 영도, 북 | 593 | 33 | 42 | 69 | 123 | 111 | 120 | 95 |
| 계 | | 1,866 | 110 | 135 | 210 | 414 | 336 | 360 | 301 |

22) 현대 사회는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60대는 건강하고 활동력있는 세대로 볼 수 있음

23) 70대 이후라도 건강한 경우도 많지만 70대 부터는 활동력이 저하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세대로 구분하였음

○ 응답자 특성

- <표 27>의 응답자 분포 현황을 보면 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 학력 등에 있어서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학력에서 대졸의 비율이 절반 가까운 47.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 학력 분포를 고려할 때 적절한 비율로 판단함
- 가정 소득 또한 4,000만원~6,000만원의 분포가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일반적인 가구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적절한 비율로 판단함
- 백신 접종자의 비율이 27% 정도로 낮게 나타난 것은 조사 시점의 특성상('21.07.) 인구 비례 대비 백신 접종률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함²⁴⁾
- 즉 응답자 분포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구성과 특성별 구성을 층화비례표본추출하여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서 대표성을 확보하였음

<표 27> 응답자 특성

| 구분 | | 빈도(명) | 구성비(%) | 구분 | | 빈도(명) | 구성비(%) |
|-------------|------------------|-------|--------|-------------|------|-------|--------|
| 성 별 | 남 | 1,066 | 56.9 | 거 주 지 | 중구 | 102 | 5.5 |
| | 여 | 806 | 43.1 | | 서구 | 116 | 6.2 |
| 연 령 별 | 13~18세 | 111 | 5.9 | | 동구 | 114 | 6.1 |
| | 19~25세 | 135 | 7.2 | | 영도구 | 113 | 6 |
| | 26~34세 | 210 | 11.2 | | 부산진구 | 152 | 8.1 |
| | 35~49세 | 414 | 22.1 | | 동래구 | 128 | 6.9 |
| | 50대 | 338 | 18.1 | | 남구 | 101 | 5.4 |
| | 60대 | 361 | 19.3 | | 북구 | 121 | 6.5 |
| | 70대 이상 | 301 | 16.1 | | 해운대구 | 103 | 5.5 |
| | 결 혼 여 부 | 기혼/재혼 | 1,208 | | 65.2 | 사하구 | 115 |
| 미혼 | | 311 | 16.8 | | 금정구 | 138 | 7.4 |
| 이혼/사별 | | 66 | 3.6 | | 강서구 | 93 | 5 |
| 기타 | | 269 | 14.5 | | 연제구 | 151 | 8.1 |
| | | | | | 수영구 | 159 | 8.5 |
| | | | | | 사상구 | 162 | 8.7 |

24) 21.07.10. 기준 국내 백신 접종률은 1차 접종 30.4%, 접종 완료 11.4%로 나타남(출처 :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네이버에서 인용). 8월부터 백신 접종률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0월에는 약 80%가 1차접종하였으며 12.25.기준 1차 접종 완료 85.6%, 접종완료 82.4%임

| 구분 | | 빈도(명) | 구성비(%) | 구분 | | 빈도(명) | 구성비(%) |
|------------------|---------------|-------|--------|---------------------------------|-------------|-------|--------|
| 직 | 농업/임업/어업 | 18 | 1.2 | 학 력 | 초 이하 | 1 | 0.1 |
| | 자영업 | 414 | 22.2 | | 중졸 이하 | 123 | 6.6 |
| | 판매/서비스직 | 263 | 14.1 | | 고졸 이하 | 566 | 30.3 |
| | 기능/현장업 | 93 | 5 | | 대학 재/휴 | 177 | 9.5 |
| | 사무/기술직 | 395 | 21.1 | | 대졸 | 881 | 47.1 |
| | 경영/관리/전문직/공무원 | 158 | 8.5 | | 대학원 이상 | 122 | 6.5 |
| 업 | 가정주부 | 160 | 8.6 | 가 정 연 평 균 수 입 | 3000만원 이하 | 247 | 13.2 |
| | 중고등학생 | 109 | 5.8 | | 3001~4000만원 | 322 | 17.2 |
| | 대학생 | 65 | 3.5 | | 4001~5000만원 | 669 | 35.8 |
| | 취업준비 | 73 | 3.9 | | 5001~6000만원 | 479 | 25.7 |
| | 무직 | 58 | 3.1 | | 6001~7000만원 | 127 | 6.8 |
| | 기타 | 63 | 3.4 | | 7001만원 이상 | 23 | 1.2 |
| 주 거 형 태 | 아파트 | 939 | 50.3 | 가 족 수 | 1인 | 294 | 15.7 |
| | 단독주택 | 419 | 22.4 | | 2인 | 721 | 38.6 |
| | 빌라/맨션 | 243 | 13 | | 3인 | 425 | 22.8 |
| | 오피스텔 | 161 | 8.6 | | 4인 | 250 | 13.4 |
| | 고시원 | 18 | 1 | | 5인 | 167 | 8.9 |
| | 원룸/투룸 | 82 | 4.4 | | 6인 이상 | 11 | 0.6 |
| | 기타 | 5 | 0.3 | 백신 접종 여부 | 네 | 507 | 27.1 |
| 주 거 유 형 | 자가 | 822 | 43.9 | | 아니오 | 1361 | 72.9 |
| | 전세 | 791 | 42.2 | | | | |
| | 월세 | 237 | 12.6 | | | | |
| | 기타 | 16 | 0.9 | | | | |

3. 설문조사 주요결과

□ 사회적 관계 빈도분석 결과

○ 문항 :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인식

- <표 28>의 주요 응답 비율을 보면 ‘마스크 착용’, ‘5인 이상 모임 자제’, ‘외출 및 외부활동 제한’ 등에 대해 불편하다는 응답이 64%~74%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외출 및 외부활동 제한이 73.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²⁵⁾

<표 28> 코로나 이전과 비교시,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인식 (단위 : %, 유효 퍼센트, 무응답 제외)

| 문항 | 매우 불편함 | 불편함 | 별로 상관없다 | 전혀 상관없다 | 총응답자(수) |
|------------------|----------|------|-----------|---------|---------|
| | 불편함 응답비율 | | 상관없다 응답비율 | | |
| 2M 이상 거리두기 실천 | 19.8 | 36.4 | 31.2 | 12.5 | 1,874 |
| | 56.2 | | 43.7 | | |
| 손소독제(세정 제) 사용 | 12.5 | 27.9 | 42.2 | 17.5 | 1,869 |
| | 40.4 | | 59.7 | | |
| 마스크 착용 | 22.6 | 41.7 | 26.5 | 9.2 | 1,872 |
| | 64.3 | | 35.7 | | |
|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 14.7 | 33.7 | 40.6 | 11 | 1,873 |
| | 48.4 | | 51.6 | | |
| 실내 환기 및 소독 | 13.3 | 30.6 | 41.9 | 14.1 | 1,874 |
| | 43.9 | | 56 | | |
| 5인 이상 모임 자제 | 23.5 | 43.7 | 29.2 | 3.6 | 1,874 |
| | 67.2 | | 32.8 | | |
| 외출 및 외부활동 제한 | 24.4 | 49.1 | 23.6 | 2.9 | 1,872 |
| | 73.5 | | 26.5 | | |

25) 이에 대해 시민 대상 심층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인터뷰 결과에서는 마스크 착용이나 5인 이상 모임자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음. 반면 외출 및 외부활동 제한에 대해서는 대인관계 제약으로 인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서 사회적 고립감, 혼자 있는 시간 증가, 사회 활동 제약 등으로 인한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토로하였음

○ 코로나 19 방역과 관련된 인식

- <표 29>의 주요 결과에 의하면 시민들은 코로나 전염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등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다중이용시설이나 대중이 밀집한 곳 등 개인의 노력으로 통제하기 힘든 환경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적 모임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마스크만 잘 착용하면 괜찮다.’는 답변이 36~39%정도로 상대적으로 안심도가 높음
-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실외 인구 밀집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환경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개인이 통제하기 힘든 환경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실외 인구 밀집지 이용’에 대해서는 약 40%의 응답자들이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

<표 29> 코로나 19 방역과 관련된 인식

(단위 : %, 유효 퍼센트, 무응답 제외)

| 문항 | 매우 불편하다 | 마스크를 착용해도 조심하게 된다. | 마스크만 잘 착용하면 괜찮다 | 코로나 이전과 똑같다. | 총응답자(수) |
|------------------------------------|---------|--------------------|-----------------|--------------|---------|
| 악수 등 가벼운 신체접촉 | 18.5 | 40.9 | 38.6 | 2 | 1,873 |
| 회의 등 소모임 | 18.9 | 43.2 | 36.7 | 1.1 | 1,873 |
| 대중교통 이용 | 26.9 | 47.2 | 24 | 1.9 | 1,870 |
|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종교, 운동, 문화, 병원 등) | 36.1 | 48 | 14.3 | 1.6 | 1,871 |
| 실외 인구 밀집지 이용 (집회, 번화가, 정류장 등) | 39.5 | 47.5 | 11.4 | 1.5 | 1,873 |
| 전반적인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 28 | 53.5 | 15.7 | 2.8 | 1,873 |

○ 코로나 이후의 대인관계 인식

- <표 30>에 의하면 ‘대면 만남 시 코로나 감염의 걱정이 든다.’가 76.2%로 타 문항 대비 훨씬 높은 응답을 나타냄
- 코로나 감염병 재난은 ‘감염’에 대한 실물 재난이라기보다는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심리적 재난의 성격이 강함을 알 수 있음
- 전반적으로는 긍정과 부정의 응답이 50% 전후로 비슷하게 나타남

<표 30> 코로나 이후의 대인관계

(단위 : %, 유효 퍼센트, 무응답 제외)

| 문항 |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총응답자(수) |
|------------------|--|-----------|------|----------|-----------|---------|
| | | 아니다 응답비율 | | 그렇다 응답비율 | | |
| 대 인 관 계 | 대면 만남시 코로나 감염의 걱정이 든다. | 7 | 16.8 | 51.1 | 25.1 | 1,873 |
| | | 23.8 | | 76.2 | | |
| | 대인관계가 위축되었다. | 13.5 | 35.7 | 35 | 15.8 | 1,870 |
| | | 49.2 | | 50.8 | | |
| | 감염 우려 때문에 일반적으로 타인을 대하는 시선이 부정적이다. | 15.6 | 40.7 | 29.8 | 14 | 1,868 |
| | | 56.3 | | 43.8 | | |
| | 사회적 거리두기는 인간관계를 악화시킨다. | 13.6 | 38.7 | 35.9 | 11.9 | 1,870 |
| | | 52.3 | | 47.8 | | |
| |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주의화 되었다. | 13.9 | 33 | 41.2 | 12.5 | 1,863 |
| | | 46.3 | | 53.7 | | |

○ 코로나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 인식

-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감염병 재난’사회에 적응해 가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등교하지 않는 온라인 수업은 비효율적이다.’는 답변에 대해 약 64%가 그렇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장차 우리 사회가 비대면 중심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할 때 온라인 수업의 ‘비효율 요인’을 찾아서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
- 이는 ‘온라인 회의’에 있어서도 63.1%가 비능률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과 비슷하게 나타남
- ‘익숙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인지 실제로 ‘비효율적’인지 검토할 필요 있음

<표 31> 코로나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인식

(단위 : %, 유효 퍼센트, 무응답 제외)

| 문항 |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총응답자(수) |
|---------------------------------|------------------------------|-------------|------|-------------|-----------|---------|
| | | 아니다 응답비율 | | 그렇다 응답비율 | | |
| 사 회 적 거 리 두 기 | 실내에서도 마스크는 착용 하여야 한다 | 5 | 17.9 | 49.3 | 27.8 | 1,871 |
| | | 22.9 | | 77.1 | | |
| | 악수를 청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선입견이 든다 | 9.4 | 45 | 32.7 | 12.9 | 1,867 |
| | | 54.4 | | 45.6 | | |
| | 일반적으로 어떠한 신체접촉도 하지 않아야 한다 | 7.2 | 28.1 | 43.1 | 21.7 | 1,873 |
| | | 35.3 | | 64.8 | | |
| | 등교하지 않는 온라인 수업은 비효율적이다 | 5.4 | 30.8 | 41.3 | 22.5 | 1,871 |
| | | 36.2 | | 63.8 | | |
| | 온라인 수업은 교우관계를 약화시킨다 | 9.5 | 37.2 | 34.7 | 18.6 | 1,872 |
| | | 46.7 | | 53.3 | | |
| | 비대면 온라인 회의는 비능률적이다 | 6 | 30.8 | 40.6 | 22.5 | 1,869 |
| | | 36.8 | | 63.1 | | |

○ 코로나 이후의 방역정책 / 회복 및 지원에 대한 인식

- 방역정책에 대해 응답자들은 대부분 상당히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 대응정책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코로나 대응 정책을 위반하는 것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감염자에 대해서도 선입견을 가지기보다는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포용하려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음
- 회복 및 지원과 관련하여 자원봉사 체계를 갖추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표 32> 방역정책 / 회복 및 지원에 대한 인식

(단위 : %, 유효 퍼센트, 무응답 제외)

| 문항 |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총응답자(수) |
|---|---|-----------|------|----------|-----------|---------|
| | | 아니다 응답비율 | | 그렇다 응답비율 | | |
| 방역 정책 | 나는 부산시의 코로나 대응 정책을 지지하는 편이다 | 5.7 | 23.8 | 51.6 | 19 | 1,871 |
| | | 29.5 | | 70.6 | | |
| | 코로나 대응 정책 위반자나 업체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대로 규제하여야 한다 | 2.2 | 16.1 | 53.2 | 28.5 | 1,873 |
| | | 18.3 | | 81.7 | | |
| | 부산시는 법에서 정한 코로나 대응 규제를 잘하고 있다 | 5 | 20.1 | 53.2 | 21.6 | 1,872 |
| | | 25.1 | | 74.8 | | |
| | 코로나 감염자가 심리적 격리를 겪지 않도록 사회에서 포용하여야 한다 | 3.6 | 17.5 | 50.5 | 28.4 | 1,871 |
| | | 21.1 | | 78.9 | | |
| 감염자도 우리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치료기간 격리 외에는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 | 4 | 19.7 | 49 | 27.3 | 1,873 | |
| | 23.7 | | 76.3 | | | |
| 회복 및 지원 | 나는 코로나 관련 자원봉사를 할 의향이 있다 | 12.2 | 33.6 | 43.5 | 10.7 | 1,873 |
| | | 45.8 | | 54.2 | | |
| | 부산시는 코로나 관련 자원 봉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경비, 시설) | 2.6 | 20.4 | 50.2 | 26.7 | 1,873 |
| | | 23 | | 76.9 | | |

○ 코로나 감염 후 완치자에 대한 인식

- 응답자들은 완치자는 일반인과 똑같다고 인식하지만 종업원이나 손님 중 감염자가 발생한 매장에 대하여 방문을 꺼리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는 ‘완치자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면 안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내 주위 또는 내가 자주 가는 매장에서 감염자가 발생했다면 완치 및 방역이 이루어져도 감염의 위험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남아있음
- 이는 감염자가 발생한 매장의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음을 시사

<표 33> 코로나 감염 후 완치자에 대한 인식

(단위 : %, 유효 퍼센트, 무응답 제외)

| 문 항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총응답자(수) |
|---|-----------|------|-----------|-----------|---------|
| | 아니다 응답비율 | | 그렇다 응답비율 | | |
| 완치자는 일반인과 똑같다 | 2.5 | 23.3 | 56.5 | 17.7 | 1,873 |
| | 25.8 | | 74.2 | | |
| 감염자가 발생한 매장도 방역이 철저히 되었다면 상관없다 | 15 | 33.3 | 39.9 | 11.9 | 1,870 |
| | 48.3 | | 51.8 | | |
| 매장이 2주간 휴업한다면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했기 때문일 것이다 | 20.7 | 41.3 | 32.2 | 5.7 | 1,873 |
| | 62 | | 37.9 | | |
| 업주 및 종업원이 감염 후 완치되었다면 그 매장이 방문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 17.1 | 38.1 | 35.2 | 9.5 | 1,873 |
| | 55.2 | | 44.7 | | |

□ 물리적 환경 빈도분석 결과

○ 부산시가 운영하는 심리상담 기관에 대한 이용경험 및 인지도

- 심리 상담 센터에 대해 전반적 인지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용 경험은 상대적으로 낮음²⁶⁾
- 특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인지도에 비해 이용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청소년들이 이용의 필요성을 못느끼기 때문인지, 이용절차의 어려움이나 신분노출의 두려움 같은 것이 작용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 청소년들은 학업과 관련하여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심리상담의 욕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이용절차의 간소화, 비밀 보장 등의 체계를 갖추고 청소년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성

<표 34> 심리상담 기관에 대한 이용경험 및 인지도

(단위 : %, 유효 퍼센트, 무응답 제외)

| 구 분 | 인지도 | | 이용경험 | | |
|----------------|------|------|------|------|---------|
| | 안다 | 모른다 | 있다 | 없다 | 해당사항 없음 |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76.4 | 23.6 | 2.9 | 20.5 | 76.5 |
| 부산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 76.9 | 23.1 | 23.7 | 76.3 | |
| 우리 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 | 76.4 | 23.6 | 25.7 | 76.3 | |

26)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용경험이 25% 내외인데 비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2.9%의 이용경험을 나타내고 있음. 그러나 '해당사항없음'을 제외하면 23.5% 중 2.9%이기 때문에 실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용경험에 대한 응답율은 약 12% 정도임($23.5 \times 12\% = 2.82$)

○ 부산시의 코로나 피해 회복 지원 서비스 관련

- 피해 회복 정책에 대해 대체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며 필요성도 높은 편으로 인식하고 있음. 심리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실물지원에 대한 욕구가 더 높다는 것을 나타냄

<표 35> 코로나 피해 회복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의견

(단위 : %, 유효 퍼센트, 무응답 제외)

| 문항 | | 전혀 효과없다 | 별로 효과없다 | 약간 효과있다 | 매우 효과있다 |
|----------------|--------------------|------------|------------|------------|------------|
| 경제적 지원 | 재난지원금 | 7.5 | 25.5 | 34.9 | 32.1 |
| | 동백전 규모 확대 | 9.8 | 32.4 | 39.4 | 18.8 |
| 방역 소독 지원 | 확진자 동선에 따른 소독 | 4.3 | 17.5 | 47.9 | 30.2 |
| | 생활 속 거리두기 홍보 | 2.5 | 19.3 | 50.8 | 27.4 |
| | 시니어 생활방역단 운영 | 7.4 | 31.4 | 44.5 | 16.6 |
| 취약 계층 | 이용시설 운영 모니터링 | 4.6 | 25 | 45.7 | 24.8 |
| | 긴급돌봄생활지원비 | 3.3 | 18.9 | 45.3 | 32.6 |
| 유학생지원 | 입국예정자부산입국/ 모니터링 | 5.2 | 25.7 | 39.7 | 29.4 |
| | 생활지원상담센터 운영 | 3.9 | 21.6 | 49.8 | 24.6 |
| 심리 지원 | 심리상담 | 5.7 | 30.1 | 44.4 | 19.9 |
| | 정보제공 | 7.3 | 27 | 44.6 | 21.1 |
| 돌봄 | 아이돌봄 서비스 | 2.7 | 19.4 | 50.9 | 26.9 |
| 문항 | | 전혀 필요없다 | 별로 필요없다 | 약간 필요하다 | 매우 필요하다 |
| 경제적 지원 | 재난지원금 | 2.7 | 13.5 | 43.3 | 40.6 |
| | 동백전 규모 확대 | 3.3 | 26.1 | 49.3 | 21.3 |
| 방역 소독 지원 | 확진자 동선에 따른 소독 | 2.6 | 18.5 | 43.1 | 35.8 |
| | 생활 속 거리두기 홍보 | 1.9 | 17.3 | 45.3 | 35.5 |
| | 시니어 생활방역단 운영 | 5.8 | 23.9 | 49.8 | 20.5 |
| 취약 계층 | 이용시설 운영 모니터링 | 3.3 | 19.2 | 46.4 | 31.1 |
| | 긴급돌봄생활지원비 | 1.8 | 17.2 | 48.6 | 32.4 |
| 유학생지원 | 입국예정자부산입국/ 모니터링 | 2.7 | 17.8 | 38.1 | 41.3 |
| | 생활지원상담센터 운영 | 3.1 | 19.3 | 52.1 | 25.4 |
| 심리 지원 | 심리상담 | 3.5 | 28.7 | 47.4 | 20.4 |
| | 정보제공 | 4.5 | 25.8 | 48.3 | 21.4 |
| 돌봄 | 아이돌봄 서비스 | 2.1 | 16.9 | 52.1 | 28.9 |

○ 부산시 신뢰 / 지역사회연대감에 대한 의견

- 시민들은 부산시의 코로나 대응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80.3%로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음
- 부산시장의 코로나 지원정책에 대한 지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코로나 지원 정책은 시장의 리더십보다는 부산시 자체의 체계적인 대응체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냄
-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도도 65% 내외로 높은 편으로 나타남

<표 36> 부산시/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단위 : %, 유효 퍼센트, 무응답 제외)

| 문항 |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총응답자(수) |
|-----------------------------|---|-----------|------|----------|-----------|---------|
| | | 아니다 응답비율 | | 그렇다 응답비율 | | |
| 부산 시 신 뢰 | 부산시의 코로나 지원 대응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3.8 | 15.8 | 64 | 16.3 | 1,873 |
| | | 19.6 | | 80.3 | | |
| | 부산시는 시민의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 다양한 지원 방법이 있다 | 7.1 | 24.1 | 54.8 | 13.9 | 1,872 |
| | | 31.2 | | 68.7 | | |
| | 부산시장은 코로나 지원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 10.3 | 32 | 46.4 | 11.4 | 1,872 |
| | | 42.3 | | 57.8 | | |
| 지역 사 회 연 대 감 | 우리 동네에서는 코로나 대응과 관련하여 주민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다 | 3.9 | 31.8 | 50.6 | 13.7 | 1,866 |
| | | 35.7 | | 64.3 | | |
| | 주민들간에는 서로를 신뢰하고 있다 | 4.4 | 32.9 | 47.2 | 15.5 | 1,868 |
| | | 37.3 | | 62.7 | | |
| | 나는 내 옆집 이웃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 | 4 | 31.3 | 50 | 14.7 | 1,873 |
| | | 35.3 | | 64.7 | | |
| | 주민들은 마을의 운영에 대하여 협조하는 편이다 | 5.1 | 29.8 | 57.1 | 8 | 1,871 |
| | | 34.9 | | 65.1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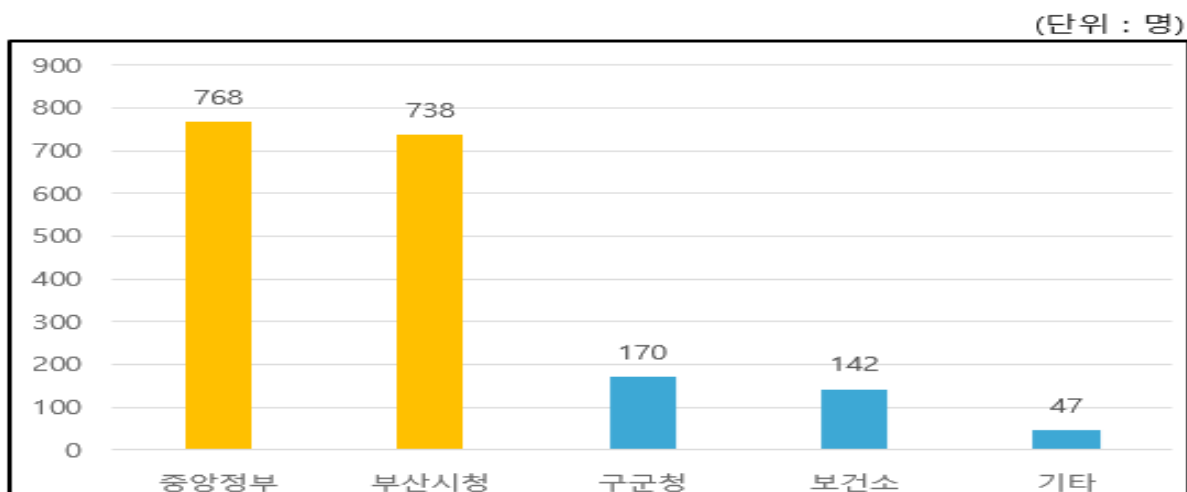
○ 부산의 코로나 대응 콘트롤 타워에 대한 인식

-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 지역, 연령, 학력, 소득, 성별 등을 교차분석하였으나 연령그룹 외에 특이할만한 차이점은 없음
- 모든 분석결과 중앙정부와 부산시청의 응답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단 소득이 높을수록 중앙정부 응답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남)
- 이는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특정 지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며 중앙정부의 방역지침을 기준으로 지방정부에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어디가 더 중요한가에 대해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
- 심층 인터뷰 결과에서는 국민들의 지역간 이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적 방향 설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

<표 37> 부산의 코로나 대응 주된 콘트롤 타워(총괄기관)

(단위 : %, 유효퍼센트, 무응답 제외)

| | 소득수준 | | | 전체 (1,859명) |
|------|----------------|----------------|----------------|----------------|
| | 상위지역 (511명) | 중위지역 (761명) | 하위지역 (587명) | |
| 중앙정부 | 37.2 | 47.4 | 36.3 | 41.1 |
| 부산시청 | 42.3 | 35.6 | 42.6 | 39.6 |
| 구군청 | 7.6 | 7.5 | 12.4 | 9.1 |
| 보건소 | 11.5 | 4.7 | 8 | 7.6 |
| 기타 | 1.4 | 4.7 | 0.7 | 2.5 |



[그림 28] 부산의 코로나 대응 주된 콘트롤 타워(총괄기관)

○ 부산의 코로나 대응 주된 컨트롤 타워 인식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 계층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 실시
- 학생(중고대), 경제활동세대(26~59세), 은퇴이후 세대(60대이상)으로 구분 후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실시
- 분산의 동질성²⁷⁾, 분산분석의 유의확률을 충족함
- <표 40>에서 최소한 하나의 집단은 컨트롤 타워 인식에 차이가 있음
- 따라서 Tukey 사후 분석을 통해 검정함

<표 38> 기술통계

| | N | 평균 | 표준편차 | 표준오차 |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 | 최소값 | 최대값 |
|--------|-------|------|-------|-------|--------------------|------|-----|-----|
| | | | | | 하한값 | 상한값 | | |
| 학생 | 244 | 1.96 | 1.079 | 0.069 | 1.83 | 2.1 | 1 | 5 |
| 경제활동세대 | 956 | 1.95 | 1.033 | 0.033 | 1.89 | 2.02 | 1 | 5 |
| 은퇴이후세대 | 661 | 1.82 | 0.954 | 0.037 | 1.75 | 1.9 | 1 | 5 |
| 합계 | 1,861 | 1.91 | 1.013 | 0.023 | 1.86 | 1.95 | 1 | 5 |

<표 39> 분산의 동질성 검정

| Levene 통계량 | df1 | df2 | 유의확률 |
|---------------|-----|-------|-------|
| 2.315 | 2 | 1,858 | 0.099 |

귀무가설 : 모든 연령그룹별 분산은 동일하다. →0.05보다 크므로 귀무가설 채택 (등분산성 가정 채택)

<표 40>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 | 제곱합 | Df(자유도) | 평균 제곱 | F | 유의확률 |
|------|-----------|---------|-------|------|-------|
| 집단-간 | 7.537 | 2 | 3.769 | 3.68 | 0.025 |
| 집단-내 | 1,902.933 | 1,858 | 1.024 | | |
| 합계 | 1,910.471 | 1,860 | | | |

귀무가설 : 모든 연령그룹별 총괄기관 인식은 동일하다 → 0.05보다 작으므로 귀무가설 기각

27) 만약 일원배치 분산분석에서 동질성 검정 가정이 기각된다면 기본가정인 동질성 검정 가정에 위반되므로, 분석을 진행할 수 없음. 이 경우는 비모수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하여야 함

○ 집단차이 확인을 위한 사후분석(Tukey) 실시 결과

- 분산의 동질성, 분산분석의 유의확률을 충족하여 Tukey 사후분석실시, 그러나 의미있는 집단분류가 되지 않음
- 이에 Dunnett t-검정을 통한 다중 비교 실시결과 은퇴이후 세대는 경제활동 세대와 유의수준(0.05)범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 됨(두 계층 간의 차이는 다른 사후 분석에서도 모두 유의수준 (0.05)범위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냄)
- 하지만 모든 그룹에서 39.5~43.0%로 중앙정부를 보다 높게 선택하고 있으며 부산시청을 선택한 비율과 비슷함

<표 41> Tukey HSD 다중비교

| 연령그룹 | N | 유의수준 = 0.05에 대한 부집단 | |
|--------|-----|---------------------|-------|
| | | 1 | 2 |
| 은퇴이후세대 | 661 | 1.82 | |
| 경제활동세대 | 956 | 1.95 | 1.95 |
| 학생 | 244 | | 1.96 |
| 유의확률 | | 0.052 | 0.892 |

<표 42> Dunnett t (양측)a

| (I) 연령그룹 | | 평균차(I-J) | 표준오차 | 유의확률 | 95% 신뢰구간 | |
|----------|--------|----------|-------|-------|----------|------|
| | | | | | 하한값 | 상한값 |
| 학생 | 은퇴이후세대 | 0.14 | 0.076 | 0.119 | -0.03 | 0.31 |
| 경제활동세대 | 은퇴이후세대 | .131* | 0.051 | 0.021 | 0.02 | 0.24 |

종속변수 : 부산의 코로나 19 대응정책과 관련하여 주된 컨트롤 타워(총괄기관)

*. 평균차는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

a. Dunnett t-검정은 한 집단을 하나의 제어로 취급하고 다른 모든 집단을 이 제어와 비교합니다.

□ 심리 회복관련 주요 결과

○ 응답자들의 현재 상태에 대한 인식을 설문함

- 응답자의 약 70%는 인생을 즐기고, 의미있다고 느낀다고 응답함으로써 시민들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대체적으로 긍정적 마인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울, 불안, 절망 등의 불안한 감정을 자주 느낀다는 응답은 38.6%로 나타났으며 매우 그렇다는 응답도 8.6%로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²⁸⁾

<표 43> 현재 상태에 대한 인식

| 문항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총응답자(수) |
|---|-----------|------|----------|-----------|---------|
| | 아니다 응답비율 | | 그렇다 응답비율 | | |
| 나는 인생을 즐기고 있다 | 5.2 | 24.8 | 61.3 | 8.7 | 1,871 |
| | 30 | | 70 | | |
| 내 인생은 의미있다고 느낀다 | 6 | 25.6 | 59.3 | 9.1 | 1,871 |
| | 31.6 | | 68.4 | | |
| 나는 업무, 공부 등에 있어서 잘 집중할 수 있다 | 12.7 | 38.2 | 43.1 | 6 | 1,871 |
| | 50.9 | | 49.1 | | |
| 내 외모는 만족스럽다 | 8.3 | 39 | 46 | 6.7 | 1,871 |
| | 47.3 | | 52.7 | | |
| 나는 나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있다 | 8.4 | 42 | 43.1 | 6.5 | 1,869 |
| | 50.4 | | 49.6 | | |
| 나는 지난 한달 동안 우울감, 불안, 절망 등의 불안한 감정을 자주 느꼈다 | 8.4 | 52.9 | 30 | 8.6 | 1,870 |
| | 61.3 | | 38.6 | | |

28) 그러나 본 설문 결과만으로는 이의 원인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움. 이것이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영향인지, 아니면 코로나 상황과 관련없이 원래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음. 다만 원인이 어디에 있든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것은 분명함

○ 불안한 감정응답자의 연령대별 응답 특성 파악

- 심층 분석을 위해 연령층별 응답 특성을 파악함
- 타 계층과 비교하여 중년(35~49세)계층에서 불안감의 응답 비율이 높으며(47.1%) 응답자 수도 가장 많음
- 특히 중년계층에서 ‘매우 그렇다’는 항목이 14.8%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남
- 19~49세까지 주로 청장년층에서 불안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 계층은 경제활동을 준비하거나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계층으로서 취업·경제적 문제와 관련하여 불안감이 높아짐을 추측할 수 있음
- 중고등학생의 34.2%가 불안한 감정을 자주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나 ‘매우 그렇다’는 2.7%로 전 계층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정서적 불안을 야기시킨다고 볼 수 있으나 스트레스의 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음
- 따라서 **중고등학생에 대한 정기적 상담의 체계화**는 건전한 마인드 유지에 높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표 44> 불안감의 연령대별 특성

| | | 연령대 | | | | | | | 전체 |
|--|-----------|---------------|---------------|---------------|---------------|---------------|---------------|---------------|----------------|
| | | 13세~ 18세 | 19세~ 25세 | 26세~ 34세 | 35세~ 49세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
| 나는 지난 한달 동안 우울감, 불안, 절망 등의 불안한 감정을 자주 느꼈다. | 전혀 아니다 | 13.5 | 12.7 | 4.3 | 7.5 | 12.7 | 6.9 | 5.6 | 8.4 |
| | 아니다 | 52.3 | 54.5 | 55.2 | 45.4 | 54.4 | 54.7 | 57.8 | 53 |
| | 그렇다 | 31.5 | 20.9 | 31 | 32.3 | 26 | 32.5 | 31.2 | 30 |
| | 매우 그렇다 | 2.7 | 11.9 | 9.5 | 14.8 | 6.8 | 5.8 | 5.3 | 8.6 |
| 연령층별 응답율합계(%)/ 응답자 수 | | 100.0/ 111 | 100.0/ 134 | 100.0/ 210 | 100.0/ 412 | 100.0/ 338 | 100.0/ 360 | 100.0/ 301 | 100.0/ 1866 |

○ 심리 회복을 위해 필요한 우선 순위에 대한 의견

- 본 문항은 복수 응답으로 3순위까지 응답하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1순위로 제시된 상위 5개는 2순위, 3순위에서도 다 상위권으로 높게 나타나서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피해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45> 심리 회복에 필요한 우선순위

(단위 : %, 유효퍼센트, 무응답 제외)

| 문항 | 1순위 (1,873명) |
|------------------------------|-----------------|
| 코로나 백신 접종 | 17.9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향상 | 16 |
| 충분한 재난 지원금 | 15.7 |
| 공동시설에 대한 정기적 방역 | 6.5 |
| 접촉자의 자가 시설격리 범위 확대 | 5.8 |
| 충분한 휴식 | 5.1 |
| 비등교로 인한 자녀 돌봄 지원 정책 | 4.4 |
| 문항 | 2순위 (1,873명) |
| 코로나 백신 접종 | 14.6 |
| 공동시설에 대한 정기적 방역 | 11.5 |
| 충분한 재난 지원금 | 11.3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향상 | 9.8 |
| 투명한 정보 공개(확진자 동선, 방역매장 정보 등) | 8.8 |
| 접촉자의 자가 시설격리 범위 확대 | 8.3 |
| 감염병 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 | 6.9 |
| 문항 | 3순위 (1,872명) |
| 코로나 백신 접종 | 13.6 |
| 공동시설에 대한 정기적 방역 | 11.1 |
| 충분한 재난 지원금 | 8.7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향상 | 6.4 |
| 투명한 정보 공개 | 6.3 |
| 적절한 운동 | 6.1 |
| 접촉자의 자가 및 시설격리 범위 확대 | 5.8 |

○ 연령층별 피해회복 요인 1순위

- 1순위 응답에 대해 연령층별 응답 내용을 보면 ‘코로나 백신 접종’이 17.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향상’이 전체 16%로 두 번째, ‘충분한 재난 지원금’이 15.7%로 세 번째로 나타나고 있음
- 그 외의 문항은 네 번째가 ‘공동시설에 대한 정기적 방역’으로 나타나지만 비율은 6.5%로서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차이가 9.2%로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즉 상위 세 번째까지 항목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적절한 운동’ 항목에 대해 타 계층 대비 70대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충분한 재난 지원금’ 항목에 대해 60대 이상 계층이 타 계층보다 상당히 높은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음
- 즉 고령층에서는 ‘건강’과 ‘경제’가 주요 이슈임을 알 수 있으며, 이 계층은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 신체적 건강, 경제적 안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적 대안 수립이 보다 중요함
- 또한 60대 계층에서는 온라인 심리상담과 심리상담에 있어서 타 계층보다 높은 우선 순위를 나타내고 있어 경제활동 전선에서 은퇴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신체적으로 활발한 시기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음
- ‘취미 및 여가생활’, ‘충분한 휴식’ 항목은 ‘대학생’ 계층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음
- 대학생들은 치열한 입시 경쟁을 거쳤고 아직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이기 때문에 타 계층보다 ‘문화, 여가’ 등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46> 연령층별 피해회복 요인 1순위

(단위 : 응답률 %)

| 문항 | 연령대 | | | | | | | 평균 |
|-------------------------|------|------|---------|------|------|-------|--------|-------|
| | 청소년 | 대학생 | 취업(준비)생 | 장년 | 중년 | 건강한노년 | 70대 이상 | |
| 적절한 운동 | 6.3 | 4.5 | 3.8 | 5.1 | 3.0 | 1.9 | 7.0 | 4.3 |
| 취미 및 여가생활 | 0.9 | 5.2 | 3.3 | 2.2 | 2.4 | 1.9 | 2.3 | 2.5 |
| 충분한 휴식 | 1.8 | 9.7 | 6.2 | 3.4 | 5.3 | 3.0 | 8.3 | 5.1 |
| 가족간의 의지, 화목한 가정 생활 | 2.7 | 4.5 | 2.9 | 3.4 | 3.8 | 3.0 | 5.0 | 3.6 |
| 캠핑, 여행 등 야외활동 | 1.8 | 3.0 | 1.4 | 1.9 | 0.9 | 1.7 | 2.0 | 1.7 |
| 비 등교로 인한 자녀 돌봄지원 정책 | | 3.0 | 4.3 | 6.0 | 6.2 | 3.3 | 3.7 | 4.4 |
| 충분한 재난 지원금 (3위) | 8.1 | 14.2 | 13.8 | 14.7 | 13.6 | 19.1 | 20.3 | 15.7 |
| 투명한 정보 공개 | 0.9 | 4.5 | 4.8 | 4.3 | 6.5 | 4.7 | 1.7 | 4.2 |
| 공동시설에 대한 정기적 방역 | 8.1 | 3.7 | 7.6 | 7.5 | 6.8 | 7.5 | 3.7 | 6.5 |
| 체계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비밀보장) | 0.9 | 2.2 | 1.9 | 1.4 | 2.7 | 3.0 | 2.7 | 2.2 |
| 온라인심리상담 관련 서비스 | 0.9 | 1.5 | 2.4 | 1.2 | 1.5 | 3.0 | 1.3 | 1.8 |
| 감염병 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 | 3.6 | 4.5 | 3.8 | 5.3 | 3.6 | 5.5 | 2.0 | 4.2 |
| 접촉자의 자가 및 시설격리 범위 확대 | 3.6 | 6.7 | 5.7 | 4.1 | 6.2 | 6.6 | 7.3 | 5.8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향상 (2위) | 6.3 | 17.2 | 15.7 | 14.7 | 18.0 | 21.3 | 12.3 | 16.0 |
| 코로나 백신 접종 (1위) | 45.0 | 12.7 | 20.0 | 18.6 | 16.6 | 11.4 | 16.6 | 17.8 |
| 마을단위 공동활동 등 주민간 협력 | | 1.5 | | 0.5 | 0.3 | 0.6 | 0.7 | 0.5 |
| 이웃간 정보, 지식 공유 | 0.9 | | 0.5 | 0.2 | 0.3 | 0.3 | 1.3 | 0.5 |
| 봉사활동 등 재능기부 | | | 0.5 | 0.2 | 0.3 | 0.3 | 0.3 | 0.3 |
| 공로자에 대한 포상 | | | | | 0.3 | 0.3 | 0.3 | 0.2 |
| 재택근무제 확대 | 1.8 | 0.7 | 1.0 | 1.7 | 0.6 | 0.3 | 1.0 | 1.0 |
| 유급휴일 확대(대체휴일제, 백신접종자 등) | 5.4 | 0.7 | 0.5 | 1.7 | 0.6 | | | 0.9 |
| 건강검진 시 정신건강 분야 포함 | 0.9 | | | 1.7 | 0.6 | 1.1 | 0.3 | 0.8 |
| 응답자 수(명) | 111 | 134 | 210 | 414 | 338 | 361 | 301 | 1,869 |

○ 가중치 부여 방법 : (1순위 X 3) + (2순위 X 2) + (3순위 X 1) = 항목 최종 점수

<표 47> 가중치 부여한 순위 도출

(단위 : 점수, 가중치 부여)

| 문 항 | 전체 순위 | 1순위(X3) | 2순위(X2) | 3순위(X1) | 전체 |
|------------------------------|-------|---------|---------|---------|-------|
| 적절한 운동 | 9 | 240 | 98 | 115 | 453 |
| 취미 및 여가생활 | 14 | 138 | 52 | 42 | 232 |
| 충분한 휴식 | 8 | 288 | 122 | 78 | 488 |
| 가족간의 의지, 화목한 가정 생활 | 12 | 204 | 78 | 54 | 336 |
| 캠핑, 여행 등 야외활동 | 15 | 96 | 48 | 26 | 170 |
| 비 등교로 인한 자녀 돌봄지원 정책 | 10 | 246 | 134 | 62 | 442 |
| 충분한 재난 지원금 | 2 | 882 | 422 | 163 | 1,467 |
| 투명한 정보 공개(확진자 동선, 방역매장 정보 등) | 6 | 237 | 330 | 118 | 685 |
| 공동시설에 대한 정기적 방역 | 4 | 366 | 430 | 208 | 1,004 |
| 체계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비밀보장) | 11 | 126 | 164 | 59 | 349 |
| 온라인심리상담 관련 서비스 | 13 | 99 | 152 | 60 | 311 |
| 감염병 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 | 7 | 234 | 260 | 73 | 567 |
| 접촉자의 자가 및 시설격리 범위 확대 | 5 | 327 | 310 | 108 | 745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향상 | 3 | 900 | 368 | 120 | 1,388 |
| 코로나 백신 접종 | 1 | 1,008 | 548 | 254 | 1,810 |
| 마을단위 공동활동 등 주민간 협력 | 20 | 27 | 40 | 30 | 97 |
| 이웃간 정보, 지식 공유 | 19 | 27 | 30 | 50 | 107 |
| 봉사활동 등 재능기부 | 22 | 15 | 20 | 37 | 72 |
| 공로자에 대한 포상 | 21 | 9 | 22 | 43 | 74 |
| 재택근무제 확대 | 17 | 54 | 48 | 44 | 146 |
| 유급휴일 확대(대체휴일제, 백신접종자 등) | 16 | 51 | 48 | 66 | 165 |
| 건강검진 시 정신건강 분야 포함 | 18 | 45 | 22 | 62 | 129 |
| 빈도 | | 1,873 | 1,873 | 1,872 | |

○ 3순위까지 전체 응답률(합계 300%)에 따른 항목별 평균값 도출

<표 48> 연령층별 피해회복 요인 평균값

(단위 : 응답률 %, 1, 2, 3순위)

| 문항 | 연령대 | | | | | | | 평균 |
|----------------------------|------|------|---------|------|------|-------|--------|--------|
| | 청소년 | 대학생 | 취업(준비)생 | 장년 | 중년 | 건강한노년 | 70대 이상 | |
| 적절한 운동 | 8.1 | 11.2 | 13.3 | 15.7 | 12.7 | 9.1 | 16.6 | 12.4 |
| 취미 및 여가생활 | 7.2 | 7.5 | 6.2 | 4.1 | 5.9 | 5.8 | 8.0 | 6.4 |
| 충분한 휴식 | 10.8 | 17.2 | 15.7 | 10.9 | 11.5 | 10 | 15.6 | 13.1 |
| 가족간의 의지, 화목한 가정 생활 | 4.5 | 10.4 | 7.1 | 8.0 | 11.2 | 7.8 | 9.3 | 8.3 |
| 캠핑, 여행 등 야외활동 | 4.5 | 6.0 | 4.8 | 4.6 | 2.7 | 3.9 | 5.6 | 4.6 |
| 비 등교로 인한 자녀 돌봄지원 정책 | 0.9 | 9.7 | 12.4 | 13.0 | 15.1 | 10.0 | 10 | 10.2 |
| 충분한 재난 지원금 | 34.2 | 32.1 | 38.1 | 32.9 | 34.9 | 35.2 | 41.5 | 35.6 |
| 투명한 정보 공개 | 5.4 | 17.9 | 20 | 22.5 | 17.5 | 27.1 | 13.0 | 17.6 |
| 공동시설에 대한 정기적 방역 | 30.6 | 28.4 | 26.2 | 29.5 | 34 | 34.3 | 18.6 | 28.8 |
| 체계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비밀보장) | 8.1 | 9.0 | 9.0 | 9.4 | 8.3 | 11.4 | 11.6 | 9.5 |
| 온라인심리상담 관련 서비스 | 5.4 | 6.0 | 12.4 | 9.4 | 8.0 | 9.7 | 9.3 | 8.6 |
| 감염병 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 | 15.3 | 16.4 | 15.7 | 16.2 | 13.9 | 15.8 | 12.3 | 15.1 |
| 접촉자의 자가 및 시설격리 범위 확대 | 29.7 | 20.1 | 17.6 | 15.7 | 20.1 | 21.3 | 21.6 | 20.9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향상 | 17.1 | 38.1 | 30.5 | 31.9 | 33.4 | 38.8 | 27.9 | 31.1 |
| 코로나 백신 접종 | 72.1 | 41.8 | 42.9 | 43.5 | 48.5 | 34.9 | 54.8 | 48.4 |
| 마을단위 공동활동 등 주민간 협력 | 0.9 | 4.5 | 3.8 | 4.1 | 2.7 | 2.2 | 3.3 | 3.1 |
| 이웃간 정보, 지식 공유 | 6.3 | 3.7 | 5.2 | 2.7 | 3.3 | 3.9 | 5.0 | 4.3 |
| 봉사활동 등 재능기부 | 0.0 | 1.5 | 3.3 | 3.4 | 2.4 | 4.4 | 1.7 | 2.4 |
| 공로자에 대한 포상 | 1.8 | 6.7 | 2.4 | 3.6 | 2.1 | 3.0 | 2.7 | 3.2 |
| 채택근무제 확대 | 1.8 | 4.5 | 5.7 | 6.8 | 4.1 | 3.6 | 3.7 | 4.3 |
| 유급휴일 확대(대체휴일제, 백신접종자 등) | 19.8 | 4.5 | 4.8 | 7.2 | 3.6 | 3.0 | 5.0 | 6.8 |
| 건강검진 시 정신건강 분야 포함 | 15.3 | 3.0 | 2.9 | 5.1 | 4.1 | 4.7 | 2.7 | 5.4 |
| 응답자 수 합계(각계층 응답률 합계는 300%) | 111명 | 134명 | 210명 | 414명 | 338명 | 361명 | 301명 | 1,869명 |

○ 코로나 사태 이전 대비 코로나로 인한 전반적인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

<표 49> 코로나 사태로 인한 현재의 전반적 스트레스 수준 (단위 : %, 유효 퍼센트, 무응답 제외)

| 문항 | 연령대 | | | | | | | 전체 (1,864명) |
|--|-------------|-------------|-------------|-------------|------|------|-----------|----------------|
| | 13세~ 18세 | 19세~ 25세 | 26세~ 34세 | 35세~ 49세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
|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코로나 때문에 매우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 | 15.3 | 22.6 | 39.7 | 27.8 | 28.2 | 27.6 | 33.2 | 28.9 |
|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약간 스트레스가 증가한것 같다. | 24.3 | 13.5 | 22.5 | 20.3 | 22.0 | 22.3 | 20.6 | 21 |
|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 7.2 | 30.1 | 14.8 | 16.7 | 19.6 | 20.3 | 23.3 | 19.2 |
| 코로나 사태와 나의 심리적 스트레스와는 전혀 관련 없다. | 13.5 | 15 | 9.6 | 12.3 | 8.9 | 12.8 | 7.3 | 10.9 |
|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으나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다 | 39.6 | 18.8 | 13.4 | 22.9 | 21.4 | 17 | 15.6 | 20 |
| 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스트레스가 매우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취(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계층과 70대 이후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서 스트레스 증가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청소년 계층은 극심한 스트레스 응답률은 낮지만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는 응답률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음
- 청소년 계층에서는 타계층 대비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39.6%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타계층보다 굉장히 높은 회복탄력성을 나타내고 있음
- 이는 청소년들이 코로나 사태 초창기에는 감염의 두려움, 학업에 지장이 발생할 것에 대한 걱정 등으로 스트레스가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의 정서가 그만큼 안정적이고 긍정적 마인드를 유지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음
- 단, 스트레스를 받는 계층도 40%로 적지 않은 만큼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을 위한 정기적 심리상담의 의무화 등 정책적 대응 필요성 높음

○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는 응답자의 스트레스 증가 이유

- 이는 <표 49>문항에서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유를 2개까지 복수 응답한 결과를 <표 50>에 나타냄
- 전체 985명 중 418명이(약 42.5%) ‘감염의 두려움 때문’이라고 응답함
- ‘대인관계의 축소’는 334명 (약 34%)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감염의 두려움’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심리적 영역에 해당하며 ‘대인관계의 축소’는 실제 발생하고 있는 실체적 영역임
- ‘회사 매출 감소로 인한 실직의 두려움’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심리적 영역임
- ‘수익’의 감소는 실체적 영역임
- 즉, 크게 ‘감염, 실직’이라는 발생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적 어려움, 대인관계 축소, 돌봄의 어려움’ 등 실체적 영역으로 구분됨

- 따라서 예방과 회복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대응방안을 고려 하여야 함
- 이에 <표 50>의 문항에 심리, 실물, 회복, 예방을 구분하여 제시함

<표 50> 코로나 이전 대비 스트레스 증가 이유(복수응답)

(단위 : 유효 %, 연령층별 응답비율, 복수응답문항)

| 문항(영역, 대응 방향) | 연 령 대 | | | | | | | 전체(명) |
|---|------------------|------------------|-------------------|-------------------|---------------|---------------|------------------|--------|
| | 13세~18세 (43명) | 19세~25세 (50명) | 26세~34세 (134명) | 35세~49세 (208명) | 50대 (175명) | 60대 (203명) | 70대 이상 (172명) | |
| 언론매체의 보도가 감염의 두려움을 증가하게 만든다.(심리, 예방) | 25.6 | 40.0 | 29.9 | 33.2 | 27.4 | 28.1 | 36.0 | 307 |
| 주위 사람이 코로나에 걸린 줄 모르고 있다가 나도 전염될까봐 (심리, 예방) | 58.1 | 66.0 | 32.8 | 38.5 | 44.0 | 37.9 | 47.7 | 418 |
|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수익의 감소(실물, 회복) | 0 | 12.0 | 28.4 | 17.8 | 27.4 | 22.7 | 29.1 | 225 |
| 회사의 매출감소로 인한 실직의 두려움 (실물, 예방) ²⁹⁾ | 2.3 | 6.0 | 26.1 | 26.9 | 20.6 | 23.2 | 25.6 | 222 |
|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 이동의 제한, 만남의 감소, 온라인 수업 등 대인관계의 축소 (실물, 회복) | 30.2 | 30.0 | 26.9 | 38.0 | 41.1 | 37.4 | 25.0 | 334 |
| 자녀가 등교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녀 돌봄의 어려움 발생(실물, 회복) | 2.3 | 2.0 | 15.7 | 37.0 | 14.3 | 13.8 | 7.0 | 125 |
| 기타 | 7.0 | 0 | 0.7 | 0 | 0 | 0 | 0.6 | 5 |
| 계(복수응답 비율의 합) | 125.5 | 156 | 161 | 191 | 175 | 163 | 171 | 985(명) |

29) 회사의 매출감소는 실제 발생하였기 때문에 '실물'에 해당하며 '실직의 두려움'은 '실직'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으로 구분함. 단 실제 실직이 발생한 시민에게는 '회복'이 이루어져야 함

- <표 49>의 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는 응답자의 스트레스 감소 이유
 -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985명이었는데 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385명으로 나타남
 - <표 51>의 응답을 보면 ‘초기에는 갑작스런 상황이 두려웠으나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기 때문이다’는 응답이 전체 385명 중 149명으로 1순위로 나타남
 - 이는 정책에 따른 결과에 더하여 어느 정도 상황에 대한 정보의 습득과 코로나 재난 상황의 익숙함에 따른 결과로 보는 것이 합당함³⁰⁾
 - 그러나 청소년들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져 가는 것보다는 실제 자신의 주위에서 감염자를 본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 즉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감염이 생각보다 위협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³¹⁾
 - 또한 전 계층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키기 때문이다’는 응답이 골고루 나타나고 있음
 - 즉 초기에는 대응방안 자체를 못찾고 감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이제는 예방을 위해서 백신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예방정책을 잘 지킴으로서 코로나 감염을 상당 부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음

30) 코로나 대응 정책이 어느 정도 체계화 되어 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예방 접종 등의 효과도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과 감염병 재난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이를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일상의 삶 속에서 적응해 가고 있다고 보아야 함

31) 2021년 12월 23일 기준 감염자는 589,978명으로서 실제 감염률은 전 국민의 1%를 약간 상회하고 있음. 청소년들이 자신의 주위에서 감염자가 발생하는 것은 흔한 일상이 아니라 특별한 일로 인식될 수 있음

<표 51> 코로나 이전 대비 스트레스 증가 이유(복수응답)

(단위 : 유효 %, 연령층별 응답비율, 복수응답문항)

| 문항 | 연 령 대 | | | | | | | 전체(명) |
|---|------------------|------------------|------------------|------------------|--------------|--------------|-----------------|--------|
| | 13세~18세 (45명) | 19세~25세 (24명) | 26세~34세 (30명) | 35세~49세 (98명) | 50대 (74명) | 60대 (63명) | 70대 이상 (51명) | |
| 백신을 접종하였기 때문이다. (예방) | 0 | 0 | 40.0 | 16.3 | 28.4 | 22.2 | 21.6 | 74 |
| 초기에는 감염이 걱정되었으나 실제 내 주위에서 감염된 사람을 보기 어렵다. (심리, 예방) | 48.9 | 29.2 | 20.0 | 25.5 | 28.4 | 23.8 | 27.5 | 110 |
| 초기에는 사람들이 방역정책을 잘 지키지 않았으나 이제는 잘 지키기 때문이다. (예방) | 17.8 | 16.7 | 23.3 | 29.6 | 10.8 | 12.7 | 27.5 | 78 |
| 초기에는 갑작스런 상황이 두려웠으나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심리) ³²⁾ | 17.8 | 66.7 | 40.0 | 34.7 | 45.9 | 49.2 | 27.5 | 149 |
| 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키기 때문이다.(예방) | 40.0 | 25.0 | 33.3 | 32.7 | 39.2 | 22.2 | 27.5 | 123 |
| 초기에는 야외활동도 자제하였으나 이제 운동, 취미활동, 산책 등을 통해 심신이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심리, 예방) | 24.4 | 25.0 | 16.7 | 27.6 | 20.3 | 20.6 | 33.3 | 94 |
| 계 | 148.9 | 162.6 | 173.3 | 166.4 | 173 | 151.7 | 164.9 | 385(명) |

32) 코로나 감염 초기,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막연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 정보의 확보와 백신 접종, 예방수칙 준수 등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심리적 안정을 회복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감염병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되어진다면 시간은 최고의 '회복탄력성 향상 방안' 중 하나임

○ 재난 지원금에 대한 의견

-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는 연령, 소득, 지역, 성별 등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 모든 연령층별 영역에서 ‘재난 지원금은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즉 시민들은 소득 하위 88%와 같은 기준이 근거도 부족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절대적 형평’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인식함
- 이에 대해 심층 인터뷰에서 확인된 내용은 ‘재난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음
- 단, 이것은 지급될 때의 기준이며 보편적 지원보다는 ‘어려운 계층만 지급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음
- 즉, 보편적 지원보다는 손실발생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위주의 선별 지원이 보다 적합하며 보편적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전 국민 대상 정책 일괄지급이 보다 합당하다는 것임
-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장래의 국가 채무 발생과 이 부담을 후대에게 짐 지우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음
-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하되 자치단체 차원에서 시민들간 사회적 갈등 유발 / 상대적 차별에 따른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

<표 52>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소득수준 교차표

(소득수준 중 %, 명)

| | 소득수준 | | | 전체 | |
|---|---------------|---------------|---------------|---------|--------|
| | 상위지역 | 중위지역 | 하위지역 | | |
| 재난지원금은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 48.60% 237 | 46.30% 336 | 50.20% 297 | 48.20% | 870명 |
| 재난지원금은 재난으로 인해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33.00% 161 | 36.40% 264 | 28.20% 167 | 32.80% | 592명 |
| 재난지원금은 똑같이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취약계층에게 추가로 더 지급되어야 한다. | 18.40% 90 | 17.20% 125 | 21.60% 128 | 19.00% | 343명 |
| 전체 | 100.0%/488 | 100.0%/725 | 100.0%/592 | 100.00% | 1,805명 |

○ 재난 복구를 위한 참여 의사 정도

- 연령, 소득, 지역, 성별 등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모든 연령층별에서 ‘나는 자원봉사를 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53> 연령층별 재난복구 참여의향

(단위 : 유효 %, 연령층별 응답비율, 복수응답문항)

| | 13세~ 18세 | 19세~ 25세 | 26세~ 34세 | 연령대 35세~ 49세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합계 (명) |
|---|---------------|---------------|---------------|--------------------|---------------|---------------|---------------|-----------|
| 나는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다. | 17.1 | 31.9 | 24.8 | 26.6 | 23.1 | 26.3 | 25.6 | 474 |
| 나는 자원봉사를 할 의향이 있다. | 66.7 | 58.5 | 50 | 48.6 | 47 | 47.1 | 57.1 | 966 |
| 나는 마을 또는 지역사회의 재난 복구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 22.5 | 31.1 | 31 | 33.8 | 37.9 | 41.3 | 38.5 | 665 |
| 재난 복구는 부산시 또는 관련 기관에서 하는 것이므로 나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 13.5 | 12.6 | 18.6 | 21.7 | 17.5 | 20.2 | 15.9 | 341 |
|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은 별로 없지만 여건이 되면 참여할 수도 있다. | 42.3 | 37.8 | 39 | 36.5 | 41.7 | 36.8 | 49.5 | 754 |
| 기타 | 0 | 0 | 0.5 | 1.2 | 0.6 | 0 | 0.3 | 9 |
| 연령층별 복수응답비율합계(%)인원(명) | 162.1 /111 | 171.9 /135 | 163.9 /210 | 168.4 /414 | 167.8 /338 | 171.7 /361 | 186.9 /301 | 1870 |

□ 지역사회 회복탄력성 영향요인

○ 지역 사회 회복탄력성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모형

- 변수의 정의는 <표 13>에 제시한 것을 참고
-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더미 변수화 함³³⁾

<표 54> 더미변수의 목록 및 정의

| 연령(age) | | 1 | 2 | 3 | 4 | 5 | 6 | | |
|-----------------------------|------|---|---------------------|---|---|--------------------------------|---|------|--|
| 13~18세1 | | 1 | 0 | 0 | 0 | 0 | 0 | | |
| 19~25세2 | | 0 | 1 | 0 | 0 | 0 | 0 | | |
| 26~34세3 | | 0 | 0 | 1 | 0 | 0 | 0 | | |
| 35~49세4 | | 0 | 0 | 0 | 1 | 0 | 0 | | |
| 50대5 | | 0 | 0 | 0 | 0 | 1 | 0 | | |
| 60대6 | | 0 | 0 | 0 | 0 | 0 | 1 | | |
| 70대이상7 | | 0 | 0 | 0 | 0 | 0 | 0 | | |
| 성별 (gender) | 성별더미 | | | | | 백신접종 (vaccine) | | 접종더미 | |
| 남성1 | 1 | | | | | 네 1 | | 1 | |
| 여성2 | 0 | | | | | 아니오 2 | | 0 | |
| 지역소득 수준(local income) | 1 | 2 | 학력수준 (education) | 1 | 2 | 가정소 득수준 (home income) | 1 | 2 | |
| 상위지역1 | 1 | 0 | 고졸이하1 | 1 | 0 | 하위 소득1 | 1 | 0 | |
| 중위지역2 | 0 | 1 | 대졸이하2 | 0 | 1 | 중위 소득2 | 0 | 1 | |
| 하위지역3 | 0 | 0 | 대학원 이상3 | 0 | 0 | 상위 소득3 | 0 | 0 | |

33) 지역구분, 연령대, 성별 등의 범주형 변수는 사칙연산(가감승제)을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순서는 서열이나 많다 적다 등의 양적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단순 기호의 역할만을 함. 이러한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귀분석에서 가변수(dummy variable)화 하여야 함.

더미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준변수를 정하여야 하며 기준변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변수의 영향력에 대한 상대적 파악을 하기 위함. '0'을 기준변수화 하여 다른 변수들을 '1'로 구분함으로써 '0' 대비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본 분석에서는 상위, 중위, 하위 지역으로 설정하였는데 하위 지역을 '0'으로 설정하고(0, 0), 상위지역(1, 0), 중위지역(0, 1)로 설정함으로써 (0, 0)과 비교하여 (1, 0)과 (0, 1)의 상대적 영향 정도를 파악함. 따라서 더미변수(가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미변수의 설정을 제시하여야 변수에 따른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음

○ 지역사회 회복탄력성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 ‘지역사회 회복탄력성’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는 <표 55>와 같음
- 모형의 설명력(adj R²)은 28.1%로 나타나서 모형의 설명력은 높지 않은 편(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0.3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자기 상관을 나타내는 Durbin-Watson은 1.910으로 2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어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³⁴⁾
- <표 56>의 분산분석에서 유의확률 .000으로 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됨³⁵⁾

<표 55> 모형요약

| 모형 | R | R 제곱 | 수정된 R 제곱 | 추정값의 표준오차 | Durbin-Watson |
|----|-------|-------|----------|-----------|---------------|
| 1 | .535a | 0.287 | 0.281 | 0.31188 | 1.91 |

<표 56> 분산분석

| 모형 | | 제곱합 | 자유도 | 평균 제곱 | F | 유의확률 |
|----|-------|---------|------|-------|--------|-------|
| 1 | 회귀 모형 | 71.22 | 25 | 4.748 | 48.813 | .000b |
| | 잔차 | 177.222 | 1822 | 0.097 | | |
| | 합계 | 248.442 | 1837 | | | |

34) Durbin-Watson 통계량은 $0 < d < 4$ 의 값을 가짐

d~0 : 잔차끼리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

d~2 : 잔차끼리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음

d~4 : 잔차끼리 음의 상관관계를 가짐

회귀분석 후 잔차의 독립성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test로서 2에 가까울수록 자기 상관이 없고, 0이나 4에 가까울수록 자기 상관이 심해짐. 본 분석에서는 2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어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35) 모형이 유의하다는 것은 ‘여러 독립변수 중 하나라도 유의한 것이 있다’는 의미임. 일반적으로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05보다 작아야 함

- <표 57>의 공선선 통계량에서 공차는 1.0미만, VIF는 10미만으로서 공선성이 없음
- 지역 외의 모든 통제변수는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상위지역일수록 보다 높은 영향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표 57> 계수

| 모형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베타 | t | 유의확률 | 공선성 통계량 | |
|----------------|---------|-------|--------------|--------|-------|---------|-------|
| | B | 표준오차 | | | | 공차 | VIF |
| (상수) | 0.721 | 0.09 | | 8.03 | 0.000 | | |
| 재난복구참여의사 | -0.004 | 0.008 | -0.01 | -0.477 | 0.633 | 0.937 | 1.067 |
| 감염자사회적지지 | 0.116 | 0.017 | 0.157 | 6.993 | 0.000 | 0.773 | 1.294 |
| 대인관계 | 0.065 | 0.014 | 0.117 | 4.775 | 0.000 | 0.651 | 1.537 |
| 사회적거리두기 | 0.033 | 0.015 | 0.051 | 2.185 | 0.029 | 0.707 | 1.414 |
| 심리지원인지 | 0.213 | 0.022 | 0.213 | 9.87 | 0.000 | 0.842 | 1.188 |
| 심리상담이용경험 | 0.057 | 0.009 | 0.139 | 6.227 | 0.000 | 0.781 | 1.28 |
| 경제적지원 | 0.005 | 0.007 | 0.018 | 0.745 | 0.456 | 0.644 | 1.553 |
| 방역소독지원 | 0.066 | 0.015 | 0.105 | 4.303 | 0.000 | 0.655 | 1.526 |
| 취약계층지원 | 0.044 | 0.014 | 0.077 | 3.185 | 0.001 | 0.668 | 1.497 |
| 유학생지원 | 0.024 | 0.013 | 0.044 | 1.812 | 0.070 | 0.661 | 1.512 |
| 심리지원 | 0.061 | 0.012 | 0.124 | 5.055 | 0.000 | 0.65 | 1.539 |
| 아이돌봄서비스 효과성 | 0.001 | 0.011 | 0.002 | 0.084 | 0.933 | 0.705 | 1.418 |
| 지방정부지지 | 0.146 | 0.012 | 0.263 | 12.271 | 0.000 | 0.85 | 1.177 |
| 지역더미1(상위지역) | 0.102 | 0.019 | 0.124 | 5.275 | 0.000 | 0.71 | 1.408 |
| 지역더미2(중위지역) | 0.073 | 0.018 | 0.098 | 4.123 | 0.000 | 0.692 | 1.446 |

a. 종속변수: 지역사회회복탄력성

○ 개인회복탄력성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 ‘개인 회복탄력성’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는 <표 58>과 같음
- 모형의 설명력(adj R²)은 11.1%로 나타나서 모형의 설명력은 높지 않은 편
- 자기 상관은 나타내는 Durbin-Watson은 1.934로서 2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어 자기상관이 없음
- <표 59>의 분산분석에서 유의확률 .000으로 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본 모형의 설명력이 낮기 때문에 본 결과는 정책 결정의 보완적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

<표 58> 모형요약

| 모형 | R | R 제곱 | 수정된 R 제곱 | 추정값의 표준오차 |
|----|-------|-------|----------|-----------|
| 1 | .344a | 0.118 | 0.111 | 0.47606 |

<표 59> 분산분석

| 모형 | | 제 곱합 | 자유도 | 평균 제 곱 | F | 유의 확률 |
|----|-------|---------|------|--------|--------|-------|
| 1 | 회귀 모형 | 55.723 | 16 | 3.483 | 15.367 | .000b |
| | 잔차 | 414.518 | 1829 | 0.227 | | |
| | 합계 | 470.241 | 1845 | | | |

- <표 60>의 공선선 통계량에서 공차는 1.0미만, VIF는 10미만으로서 공선성이 없음
- 연령 외의 모든 통제변수는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더미 4는 35~49세의 중년이며 기준변수인 70대 대비 더 부정적 영향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B값이 음수를 나타내고 있음)

<표 60> 계수

| 모형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베타 | t | 유의확률 | 공선성 통계량 | |
|----------------|---------|-------|--------------|--------|-------|---------|-------|
| | B | 표준오차 | | | | 공차 | VIF |
| (상수) | 1.219 | 0.128 | | 9.561 | 0.000 | | |
| 재난복구참여의사 | -0.025 | 0.012 | -0.048 | -2.135 | 0.033 | 0.947 | 1.056 |
| 감염자사회적지지 | 0.211 | 0.025 | 0.209 | 8.513 | 0.000 | 0.803 | 1.245 |
| 대인관계 | 0.121 | 0.021 | 0.157 | 5.798 | 0.000 | 0.657 | 1.521 |
| 사회적거리두기 | 0.052 | 0.023 | 0.059 | 2.232 | 0.026 | 0.697 | 1.435 |
| 심리지원인지 | 0.171 | 0.033 | 0.125 | 5.192 | 0.000 | 0.835 | 1.198 |
| 심리상담이용경험 | 0.072 | 0.014 | 0.127 | 5.119 | 0.000 | 0.780 | 1.282 |
| 경제적지원 | -0.019 | 0.010 | -0.046 | -1.814 | 0.070 | 0.738 | 1.355 |
| 1 심리지원 | 0.056 | 0.017 | 0.083 | 3.219 | 0.001 | 0.733 | 1.365 |
| 아이돌봄서비스 효과성 | -0.019 | 0.017 | -0.029 | -1.138 | 0.255 | 0.744 | 1.343 |
| 지방정부지지 | 0.021 | 0.018 | 0.027 | 1.155 | 0.248 | 0.853 | 1.173 |
| 연령더미 | -0.107 | 0.055 | -0.05 | -1.936 | 0.053 | 0.714 | 1.400 |
| 연령더미2 | -0.050 | 0.051 | -0.025 | -0.981 | 0.327 | 0.729 | 1.373 |
| 연령더미3 | -0.074 | 0.043 | -0.046 | -1.695 | 0.090 | 0.649 | 1.541 |
| 연령더미4 | -0.135 | 0.037 | -0.111 | -3.61 | 0.000 | 0.509 | 1.966 |
| 연령더미5 | -0.001 | 0.039 | 0 | -0.016 | 0.987 | 0.549 | 1.821 |
| 연령더미6 | -0.065 | 0.038 | -0.05 | -1.69 | 0.091 | 0.541 | 1.850 |

a. 종속변수: 개인회복탄력성

□ 설문조사 주요결과의 시사점

- 스트레스의 주요 요인으로는 대인관계 제약, 경제적 어려움, 전염에 대한 두려움이 주요 원인으로 도출됨
- 각 연령층별 심도있는 추가 조사를 통해 연령층별 맞춤형 정책 도출 필요성
- 모든 계층에서 외부활동 제약, 모임 제약 등의 제약을 불편하게 느끼는 비율이 70% 내외임
 - 코로나 상황이 당분간 지속된다고 예상한다면 소모임, 가정생활, 실내 여가활동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 강구할 필요성
 - 반려 동식물, 온라인 활용 문화활동 및 강좌의 활성화는 혼자 지내는 경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경우 정서적 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원예, 텃밭 등의 정책적 지원과 온라인 콘텐츠 지원에 대한 체계적 지원 정책 수립 필요성
- 감염자의 심리적 격리 경감 필요성
 - 자원봉사자의 적극적 활용, 취약계층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확대, 자원봉사체계의 양적/질적 확대, 감염자 발생 매장에 대한 지원 필요성
- 부산시 정책에 대한 신뢰도, 지지도는 높은 편임
 - 평균 70% 이상의 효과성과 80% 이상의 필요성을 나타냄
 - 경제적 지원, 입국자 관리, 아이돌봄서비스 등이 주요하게 도출됨, 중앙과 차별되는 지역밀착형 정책 도출 필요성
- 연령층별 맞춤형 대응방안 도출 필요성
 - 26~34세(사회생활 시작 계층)의 스트레스 증가율 높음(경제적 원인이 타 계층보다 높게 나타남)
 - 감염에 대한 두려움/대인관계 축소 등이 주요 이유
 - 학부모 세대(35~49세)는 돌봄의 어려움 비율이 높음

- 코로나 감염병 재난은 특정 지역이나 대상에 한정적이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분석에서도 전반적 분석에서 계층에 따른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도출되지 않음
 - 이는 현 코로나 상황에 대해 연령층별 특성에 관계없이 전 계층의 보편적 인식이 비슷하다는 의미
 - 따라서 연령층별 맞춤형 우선 정책보다는 보편적 정책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미
 - 단 연령층별 특성이 도출되는 영역에 대하여서는 정책적 대응을 검토할 필요(ex, 비등교로 인한 자녀 돌봄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30~40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나타내고 있음, 70대 이상에서는 휴식, 취미, 여가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장년 계층에서는 우울증, 불안감을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자원봉사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 필요성
 - 전체 응답자의 약 50%, 10~20대의 약 60%가 자원봉사에 참여할 의향을 가지고 있음
 - 실제 자원봉사 참여율이 낮은 것은 자원봉사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임
 - 자원봉사의 활성화는 시민의 지역적 연대감 형성, 자아성취, 시의 인적/물적 부담 경감, 수혜자의 만족도 향상 등 기대
- 응답자의 1,900여명 중 1,600여명 정도는 재난복구에 참여의지를 나타냄
 - 이는 시민을 서비스의 수혜자로서만 대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 공급자로서 기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의미
 - 적극적 계층도 있지만(응답자의 약 60%) 소극적 계층(응답자의 약 40%) 비율도 높음
 - 기부금, 자원봉사, 재난복구 활동 등에 시민이 참여하는 시스템 구축 및 홍보 필요성

제3절 연령층별 주요 인터뷰 내용

1. 심층 인터뷰 주요 내용

1) FGI 개요

- 설문조사의 한계 및 설문조사로는 심도있는 파악이 어려운 연령층별 내면 속 깊은 생각을 이끌어 내기 위해 FGI를 진행 함
- 대상자 섭외의 어려움³⁶⁾, 스케줄 조정의 어려움, 특히 자영업자는 근무시간에는 인터뷰가 불가능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퇴근을 하기 때문에 스케줄 조정의 어려움 발생³⁷⁾

<표 61> FGI 개요

| 구분 | 대상 | 내용/비고 |
|---------|---|--|
| 조사 방법 | • 연령층별 지인 + 눈덩이 기법 | • 초기 인터뷰 대상자에게 같은 계층 추가 섭외 요청 |
| 조사 기간 | - | • 2021. 8.~10. 중, 대상자의 일정에 맞추어서 진행함 |
| 조사 목적 | - | • 설문조사의 한계 보완 및 설문조사 응답결과의 원인에 대한 파악 |
| 조사 대상 | • 청소년, 청년, 40대 사업가, 코로나 실직 40대 주부, 60대, 70대, 80대, 전문자원봉사자, 지역예술인 등 | • 자영업자 인터뷰 섭외의 어려움(업무시간 불가능, 업무시간 이후 퇴근해야 해서 일정 잡기 어려움), 70대 보호가 필요한 노년 집족의 어려움(코로나로 대면 자체를 꺼림, 관련 기관 대면 거부) |
| 조사 인센티브 | - | • 인터뷰 비 1인당 3만원지급, 청소년들은 인터뷰 후 단체 식사 지원 |
| 조사 장소 | • 사업장 • 거주지 인근 커피숍 • 녹음파일 전달 • 연구원 회의실 → 그룹당 1:30~2:00(시간) 진행 | • 지역 예술인은 예술인의 사업장 방문 인터뷰 진행, • 70대는 청년 인터뷰 대상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인터뷰 진행한 것을 녹음하여 연구원으로 녹음 파일 전달(사전에 질문지 전달하였음), • 80대 거주자 인근 커피숍에서 만나서 인터뷰 진행, • 그 외 연구원 회의실에서 진행함 • 추가 질의사항은 카카오톡으로 진행하였음 |

36) 70대 이상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는 실제 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정요양 중인 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기관에서는 코로나 등의 상황으로 인하여 대면을 꺼림. 요양보호사 등 대리할 수 있는 분의 만남을 제시하였으나 거절당함. 따라서 본 인터뷰는 70대 이상이지만 건강하신 분을 상대로 대상자 분의 지인에 대한 의견 및 대상자 분이 보호를 받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를 가정한 간접적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37) 자영업자에 대하여 별도 섭외하여 퇴근 후 늦은 시간(오후 10:30경)에 본 연구원 회의실에서 인터뷰 진행함

<표 62> 설문조사와 FGI의 비교

| 구분 | 설문조사 | | FGI |
|-----------|--|----------|---|
| 대표성 확보 방안 | 1인당 소득세로 구분하여 소득 상위/중위/하위지역으로 구분 후 각 지역 연령층별 인구 비례 표본 수 추출 | | 각 연령층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상 선정 후 개인적 의견 외에 대상 계층의 보편적 상황 및 의견 추가 설문 (ex. 건강한 80대에 주위 동년배 지인의 상황 및 의견 질문) |
| 조사 방법 | 전문 설문조사 업체 활용, 조사원 사전 교육(방법, 태도, 표본 확보 방안 등), 현장 설문 조사 실시 | | 연구자의 지인 확보하여 지인에게 같은 계층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터뷰 대상자 섭외 요청 후 장소/일정 조율하여 심층 인터뷰 실시 |
| 조사 기간 | 2021.07. | | 2021.08~10. |
| 조사 대상 | 청소년(13~18) | | 고1 여, 고3 여, 고3 남 총 7명 |
| | 청년(19~34) | 대학생 | 대2,대4 총 2명 |
| | | 취(창)업준비생 | 30대 청년(자신의 의견 및 청년 손님들과 나눈 대화를 기반으로 자영업자의 현실과 청년 계층의 문제점과 현실적 어려움 대변) |
| | | 취(창)업자 | |
| | 중년(35~49) | | 40대 주부, 40대 사업가(남) |
| | 장년(50~59) | | 50대 주부, 50대 자영업(남)(재능기부 자원봉사자이면서 50대 가장이자 자영업자), 50대 전문 자원봉사자(여) |
| | 노년1(60~69) | | 60대 1인가구, 60대 사업+주부(여) |
| | 노년2(70~) | | 70대 주부, 80대 1인 거주(여) |

2) 주요 인터뷰 내용의 시사점

○ 청소년

- 비 효율적 온라인 수업에 따른 시간 낭비 및 중하위 계층의 학업 결손 발생 가능성 높음(중위권의 붕괴)
- 학우들과 어울리는 기회의 감소에 따른 교우 관계 형성 어려움(원래 알던 친구 아니면 같은 반 학우도 잘 모르는 상황 발생)
- 체육활동, 수련회 등 단체 활동이 감소함에 따라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의 어려움. 단체활동의 욕구 높음

- 심리상담, 체육활동, 문화바우처 등 개인의 필요에 대한 선택권 부여에 대한 욕구 높음

○ 청년 1(대학생)

-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따른 활동 및 대인관계의 제약이 주요 스트레스 요인(체육활동, 여행 등의 제약에 따라 스트레스 해소 어려움)
- 온라인 수업 방식으로 2020년 입학 이후 동기들을 만난적이 없어 동기들을 전혀 모름. 대학의 낭만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
-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짜증이 나니까 가족들과 사소한 것에도 부딪히게 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 산책로, 체육시설 등에 대한 정비가 시민들에게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주는 기능 제공(개인적으로 가벼운 산책, 운동으로 해소)
- 중앙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지자체간 자율성 및 협업으로 방역이 이루어져야 효율성이 높을 것
-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 선별 지원이 최상이지만 보편적 지급이면 전체 지급이 사회적 갈등 최소화(지역경제 활성화 요인도 됨)
- 비등교에 따른 정보 획득의 어려움 → 취업, 유학, 자격증, 대학간 교류 등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 향상 방안 필요
- 코로나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 대학생 할인 제도, 문화바우처, 취업박람회 같은 정책 욕구

○ 청년 2(30대)

- 코로나 발생 후 대부분 자영업자 매출 급락, 폐업 증가, 운영의 어려움 증가에 따른 대안 부재 상황
- 특히 폐업 시 누적된 빚, 폐업 비용, 세금 부담, 생활고 등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 발생

- 청년 자영업자에게 높은 대출문턱, 전문성 부족에 따른 지원방안 미흡(정보부족, 높은 자격조건, 프로그램 부족 등)
- 높은 주택 비용에 따른 주거 문제 심각 → 결혼도 보류/포기 → 급등하는 집값에 따라 ‘벼락거지’라는 상실감
- 회사의 매출감소에 따른 해고의 두려움
- 시간제한/인원제한 → 대인관계 멀어짐, 혼자있는 시간 많아 짐, 여가생활 부재 → 우울증/스트레스 요인
- 자영업자/결혼 예비 청년에 대한 대출 장벽 완화 필요
- (예비)자영업자에 전문성 향상 방안(창업, 운영, 세금, 상권, 창업 자금 대출, 전문인 노하우 전수 등) 컨설팅이 준비되지 않은 창업과 이에 따른 폐업의 감소 효과
- 일반적으로 청년들은 창업(자영업 전문성)과 주택 문제(결혼의 장벽)가 가장 큰 고민
- 격리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너무 부족 → 자영업자는 일을 해야만 수입이 발생 → 격리에 따른 수입/심리적 타격의 보전 방안 필요
- 격리기간 전문 향상 프로그램(강의수강), 미디어 지원 → 격리기간 업에 대한 전문성 향상/문화를 통한 우울감 해소

○ 중년(40대, 사업가, 남)

- 학교/유치원 휴원에 따른 보육 스트레스 → 자녀 보육 문제로 업을 그만두고 전업 주부 생활 → 수입감소에 따른 경제적 스트레스
- 코로나 지원금 88% 기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유발 → 우선순위(보건, 취약계층) 투입 필요(아니면 국민 전체 지급)
- 자주 적절한 운동 통한 스트레스 관리 → 산책, 공원, 체육시설(이런 시설 관리 중요)
- 지자체 코로나 대응은 지자체 협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지원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발생 방지할 필요성(필요없는 사회적 갈등 유발 됨)

- 재난 지원금뿐 아니라 관련 정책에 있어서 주변 지자체와 형평성 유지할 필요
- 시간제약은 자영업자에 피해만 줄 뿐 방역 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움 → 시간 제한이 아니라 기간 제한(2주 정도)이 더 효과적일 것
- 강제 격리에 따른 충분한 지원(물품, 비용) 필요(정책에 따른 격리인데 심적/물적 피해는 개인의 몫)
- 확진자에 대해서는 치료, 심리상담, 경제적 자립 방안 등의 전방위 지원 필요
- 주부 격리자 → 가정 생활 올스톱, 여기에 대한 대책 부재 →주부 격리 시 가정 돌봄 서비스 지원 필요
- 심리상담은 격리자보다 확진자에게 진짜 필요함
- 충분한 병상/의료시설/의료인 확보 필요
- 부모 격리시(특히 엄마) 자녀 학력 저하 문제 → 학력 공백 메우기 위한 정책 필요

○ 중~장년(40 ~ 50대, 주부, 여)

- 코로나로 인한 실직 → 중장년층 재취업의 어려움 →우울, 자존감 하락
- 현재 중장년 취업지원 센터 실효성 부족 → 내 상황을 고려한 정보 제공 안됨 →취업지원센터 실효성 높이기 위한 정책 필요
- 코로나 상황에서 자녀가 집에 있는 시간 많아짐 → 보육의 어려움(부모가 일하러 가고 집에 없다면 자녀 방치되는 상황)
- 자녀들 대외 활동 제약, 예체능 과목 제약 → 자녀 전인 교육의 문제 발생 가능성 높음
- 위드 코로나 되면 각 자치구별(또는 지역별) 상설 벼룩시장 → 주민들 친목 도모, 경제적 효용 발생 → 제도화 통한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

필요

- 이 때 단순한 베풀시장이 아니라 문화/예술이 함께 한다면 지역예술인에 기회제공, 주민들 정서적 안정 효과
- 심리상담센터 홍보/활성화 필요(대부분 잘 모름) → 연령 및 계층대별 세분화해서 맞춤형 상담 추진 할 필요성
- 일하면서 자녀 챙겨야 하는 스트레스(이중고)(보육의 어려움)
- 자녀 체험 학습 제한에 따른 스트레스(조부모/한부모 가정 제약 더 많을 것)
- 아이돌봄 지원사업 실효성 부족 → 대상 선정이 실제 현장과 매치가 잘 안됨 → 필요한 사람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 선정의 체계화 필요성(소득 기준은 많은 오류 발생 가능성 높음)
- 코로나 지원의 자치구별 형평성 부족(특히 초기에 마스크 꼭 필요한 상황에서 자치구별 지원 정책 차이 - 상대적 박탈감)
- 재능기부 봉사 →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큰 도움 → 체계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체계적 일자리 지원 센터 운영 필요

○ 노년 1(60대 , 건강한 노년, 여)

- 대인관계/야외 활동의 제약으로 인한 스트레스(명절 때 가족/손주도 못 만남)
- 자영업자 영업장에 코로나 격리자 발생하면 심적 부담 크게 증가(자영업자 자살 뉴스 동병상련 느낌)
- 시간제한/인원제한에 따른 자영업자 매출 감소와 이에 따른 경제적 타격 엄청남 → 개인이 책임을 다 부담 → 정책적 지원 필요
- 재난지원금 받는 건 좋으나 국가 재정 부담 가중 및 후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대한 부담(국가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재정적 부담,

그러나 일반적 개인에게 큰 도움 되는 건 아니다. 일시적/용돈 개념
여윌돈 정도 → 취약 계층 위주 지원 필요

- 88% 기준은 사회적 갈등만 유발, 다 주거나, 진짜 어렵고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할 필요성
- 60대에게 사회적 기업 할 수 있도록 지원 해 주면, 노인들 제대로 된 일자리 제공, 제대로 된 근로, 제대로 된 보상 →사회에 기여, 자아실현의 기회 될 것(식품 제조, 또는 자신의 전문성 살릴 수 있는 분야)
- 백신에 대한 부정적 뉴스는 노인들에게 불안감 조성 →좀 더 안전한 백신 공급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 노인들은 야외 활동에 대한 두려움 있음. 그래도 2~3명 정도 모여서 간단한 배움, 취미활동, 당일 여행 등으로 스트레스 해소
- 정신건강센터 들어 본 적 없음 → 이용활성화 위해 홍보 필요성
- 동백전 들어 본 적 없음 → 이용 방법 복잡하면 노인들 접근하기 힘들
→ 노인들 동백전 활성화 방안 필요
- 야외 활동 제약 → 공연, 영화 등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적 지원 방안
- 체육시설, 공원 등 정비 및 활성화(H/W, S/W)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하며 스트레스 완화, 건강유지에 도움 될 것

○ 노년 2(70대, 여, 주부, 시인)

- 코로나 이전에 가지던 정기 모임을 코로나 후 비대면 모임(Zoom)으로 시행 →새로운 문화에 대한 흥미 생김 →노인들에 대한 비대면 모임 활용 지원 정책 유용
- 노인들은 야외 활동이 제한되니 오히려 지출이 감소 → 이는 사회활동의 감소로 인한 노인들의 고립감 증가 의미
- 텃밭 가꾸기 통해 스트레스 해소(직접 기른 채소를 수확해 먹는 재미)

- 식물/반려동물 등 활용하여 노인들의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재난지원금 약간 효과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라 빚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걱정, 후손에 짐을 지우는 듯한 부담, 개인은 지원받아도 아주 적은 도움일 뿐, 하지만 당장 경제적으로 힘드니 받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 →어려운 사람 선별 지원이 타당한 듯
- 보편적 지급이면 부산시에 재정적 여유가 된다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은 맞추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
- 고령자에게 건강에 대한 지원 필요 →일반적 건강 검진 + 고령자 특화 건강검진 및 몸이 불편한 고령자 케어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재활치료나 주기적 검사 등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의료 혜택의 확대)
- 고립되어 있는 노인이 많다. → 말벗 자원봉사 도움 →고령자가 관심있는 분야 특화 자원봉사라면 더 좋을 듯(문학, 예술, 운동, 건강, 헤어케어 등) → 노인이 자원봉사 분야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준다면 단순한 말벗 보다 훨씬 정서적 도움이 될 것(관심분야에 대해 교육도 받고, 대화 및 같이 가벼운 활동도 한다면 훨씬 좋을 듯, 소수가 함께 그룹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안)
- 일상적 어려움에 대한 정기적 심리상담은 매우 좋은 방안(움직일 수 있다면 내가 가는 것도 좋고, 가정 방문 상담도 좋음)
- 정기적인 지역상품권 →노인들의 경제적 도움 →지역상권 활성화(식품 등 사용처 한정, 특히 취약 계층 고령자 지원 필요)
- 위드 코로나 시행되어도 노인들은 정부 정책 잘 따르겠지만 고령층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지킬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듯

○ 노년 2(80대, 여, 1인가구)

- 대인관계 제약 → 그 사이 수술한 친구/사망한 친구, 못 가봤다. 안타까움, 명절에도 가족 못만남 → 스트레스 요인
- 정신건강센터 들어본 적 없음. 일상 심리 상담 받을 의향 있음. 고령층은 주기적 만남과 자주 대화를 좋아 함
- 경제적 안전망이 부족한 노인에게 개인적 해결 방안이 없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 → 사회적 안전망 강화 필요
- 내 나이대에 혼자인 경우 많음.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개인적 보호망이 갖추어 지지 않은 경우 경제적/신체적 문제 발생
- 친구의 사망 소식 → 굉장히 우울해 짐 → 노인인구 증가, 대부분 1인가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보호망 필요
- 아직 움직일 수 있다면 공원에서 땀흘리고 운동 / 종교활동 → 상당히 스트레스 해소 /우울감 감소에 도움 →하지만 움직이기 힘든 분에게는 심리 상담이나 정기적 만남의 기회 제공이 매우 중요한 요인
- 고령 1인가구는 스트레스/외로움 해소방안이 매우 부족, 남자는 술로 달래는 경우도 많음 →상담, 말벗, 만남의 기회 필요 →자원봉사자의 주기적 방문을 통한 상담 매우 좋을 듯 →나도 받을 의향 있음
- 재능있는 자원봉사자의 공연기회 →기능인에게 기회 제공 →참여 시민들의 스트레스/우울감 감소
- 많은 노인들이 잠이 잘 안오니까 혼자 새벽에 공원같은 곳에 나옴 → 표정이 어두운 분 많음 →여생을 건강하고 사회와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정책 필요

○ 전문 자원 봉사자(대한 적십자사 소속)

- 코로나 감염으로 자영업자 2주간 문닫으면 사실상 폐업 →지속적 경제적 문제(폐업비용, 세금, 부가세, 빚, 생활고 등)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게 됨 →소상공인 감염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필요

- 취약 계층 도시락 지원 → 도시락 뿐 아니라 방문을 통한 안부/말벗 → 취약계층에 신체적/정서적 지원이 됨(지역사회가 함께 하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 →참여 소상공인에 수익/홍보 → 자원봉사 도시락 사업에 부산시 지원 필요(장소, 재정 등)
- 취약계층/격리자/감염자 등에 전화통로 오픈 →재난 현장 당사자들은 생각보다 극심한 스트레스 충격
- 대한적십자사의 자원봉사단이나 독거노인지원센터에 대한 부산시의 인적/물적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 →맞춤형 복지 시스템 필요하지만 인원 부족 →부산시의 인적/물적 지원 필요
- 심리지지 인적 지원 방안으로 퇴직한 전문가 활용 필요(재능의 사회 환원 시스템 구축) →퇴직한 전문가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 온라인 수업/일정하지 않은 등교 → 부모들 스트레스 심함 →보육정책 체계화 필요
- 복지관에서 거동 불편자 도시락 지원사업 → 대한적십자사에서 복지관에 재정 지원 필요 →부산시의 지원 필요
-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해외 우수사례, 선진사례에 대한 연수 및 교육기회 제공 필요 →보다 체계적인 자원봉사 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자들이 자부심과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지지 및 지원 필요(최소한의 경비 및 도시락 제작 공간)
- 재난 대피소 물품 구비 필요 →대피소에 기본 생활 할 수 있는 물품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음 →이용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품 및 체계를 갖출 필요

○ 지역예술인(50대, 전문음악인)

- 자원봉사 음악회에 인근 아파트 주민까지 참여, 주민들 반응 매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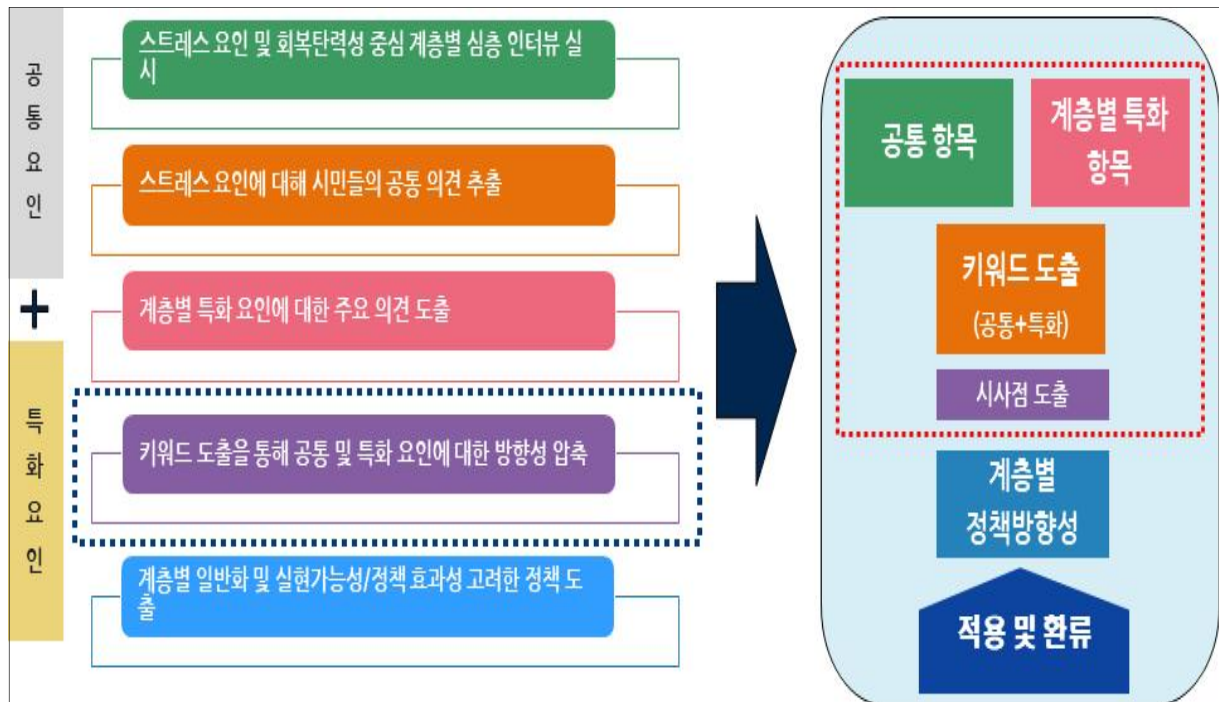
- 좋았음 → 예술인들의 재능기부 자원봉사는 예술인에게 공연 기회 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정서회복/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
- 공연 1회 약 30여명 전후 참여하며 비용은 최소 700~1천만원 가량 발생 → 지역 A, 자치구, 시에서 1:1:1 비용 지원하면 좋을 듯
 - 같은 주제로 연속하여 공연을 하면 공연 당 비용 발생 최소화할 수 있음(연습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비용발생도 줄어 듭)
 - 코로나로 운영하는 학원 원생 감소/예정된 공연 취소 → 경제적 타격 엄청 남 → 공연기회 상실/경제적 타격 → 상실감/우울감 → 예술인(음악, 미술, 문학, 체육 등)에게 활동 기회 부여
 - 경제적 타격은 자녀 교육의 질에도 직접적 영향(자녀 학원 최소화, 내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풀게 되는 악순환)
 - 음악을 듣고, 연주하면서 스트레스 해소 → 예술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 → 문화, 음악, 체육, 식물/반려동물 등을 활용한 스트레스 해소는 굉장히 효과적
 - 예술인의 자원봉사 시스템을 체계화 할 필요성 → 공모형식 → 선정된 기관/개인에 공연(전시회) 기회 제공 및 최소한의 경비 지원 → 시민들의 문화수준 향상 → 정서적 치유에 큰 도움 →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에 도움

2. 연령층별 회복 탄력성 정책 방향 도출

1) 연령층별 회복탄력성 방향성 도출 절차

□ 연령층별 인터뷰

-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들의 보다 내면에 있는 속마음을 이끌어 내어 실제 시민들의 정서 회복 탄력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실시
- 연령층별 인터뷰를 통한 정책 방향성 도출 프레임



[그림 29] 연령층별 인터뷰를 통한 정책 방향성 도출 프레임

2) 인터뷰 주요 키워드 도출

□ 공통 항목 : 인터뷰 대상 전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내용

<표 63> 공통 항목의 주요 키워드

| 구분 | 스트레스 요인 | 개인적 해소 방안 | 정책적 해소방안 |
|--------|--|--|--|
| 주요 키워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인관계/시간 제약 경제적 문제 낮선 상황에 대한 불안 / 두려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책 가벼운 운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역 수칙 준수 및 체계화 정책의 지역적 형평성 체육시설, 공원 정비(H/W, S/W) |

○ 공통 항목의 시사점

- 모든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호소
→ 심리적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도출됨
- 공통적으로 가벼운 운동, 산책을 통해 해소하고 있음
→ 활동의 제약 /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공통의 탈출구

○ 공통항목의 기타 주요 키워드

-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모두들 짜증이 나니 가족과 자주 부딪히게 됨
-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콘텐츠를 접하는 시간이 늘어 남
- 대부분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에 반대함(높은 연령대로 갈수록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 공통적으로 국가의 재정 부담 이유) → 취약계층 위주 선별 지원 선호, 그러나 보편적 지급 방식이면 88%가 아닌 100%를 선호함(사회적 갈등 방지)
- 대부분의 계층에서 문화적 지원을 선호함(청소년은 체험학습 기회, 젊은 계층은 문화 바우처, 노년은 공연, 영화, 강연 티켓)
- 현 상황의 재난은 광범위/보편적 재난으로서 기존 재난과 같은 극도의 불안감/고립감의 형태는 아님 → 주로 경제적 요인 → 따라서 보편적 시민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 심리상담보다는 취약계층/감염(격리)자/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자 위주 선별 상담이 효과적(코로나 초기의 광범위한 팬데믹 불안감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 → 어려움 요인에 대한 직접적 지원 정책이 보다 효과적³⁸⁾

□ 청소년 (연령층별 키워드는 공통 키워드 제외한 부분)

<표 64> 청소년 주요 키워드

| 구분 | 스트레스 요인 | 개인적 해소 방안 | 정책적 해소방안 |
|--------|---|---|--|
| 주요 키워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효율적 온라인 수업 • 교우관계 붕괴 • 수련회/활동 못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간 활용 • 휴대폰 활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격차 해소 • 방역수칙 준수하여 선별 (야외, 현장, 수련회 등)활동 기회 |

38) 사회적 고립감 때문에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정기적인 상담이 스트레스 완화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가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때문에 경제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심리상담은 문제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 높음. 이 경우는 심리상담보다 경제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보다 효과적

○ 시사점

- 온라인 수업은 개인의 의지가 부족할 경우 학습효과 저하 → 중위권 붕괴 방지 및 온라인 수업 효율화 방안 필요
- 비등교 방식, 야외 활동의 감소→ 건전한 인성교육 위해 가능한 범위 내 야외 활동/신체 활동 기회 제공 필요

□ 청년 1 : 대학생

<표 65> 청년 1(대학생) 주요 키워드

| 구분 | 스트레스 요인 | 개인적 해소 방안 | 정책적 해소방안 |
|--------|---|---|--|
| 주요 키워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수업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 교우관계 붕괴 • 대학낭만 사라짐 • 정보의 비대칭(취업, 자격, 교류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Zoom) 술자리 • 홈트레이닝 • 온라인 콘텐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접근 가능성 향상 방안 • 대학생 할인제도 |

○ 시사점

- 온라인 수업으로 대학생 생활 사라짐 → 가장 대인 관계가 활발할 시기에 개인주의화 됨 → 사회활동 기회제공 필요
- 정보의 비대칭 해소방안 고려할 필요

□ 청년 2 : 대학졸업 이후 (취(창)업(준비)자)

<표 66> 청년 2(대학졸업 이후) 주요 키워드

| 구분 | 스트레스 요인 | 개인적 해소 방안 | 정책적 해소방안 |
|--------|--|---|---|
| 주요 키워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 매출 감소 • 여가시간 활용방안 부재 • 업의 전문성 미흡 • 코로나로 폐업, 이에 따른 경제적 문제 심각(재창업의 어려움) • 주택 문제(벼락거지)³⁹⁾ • 결혼 보류(포기) • 청년 직장인 해고의 두려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근하면 이미 시간제한으로 여가생활 거의 불가능 • 개인적으로 집 또는 근처에서 가벼운 산책/운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자영업, 결혼 예비 청년 주거 문제 해결 위한 대출장벽 완화 필요 • 업의 전문성향상 위한 전문컨설팅 필요 • 격리자(감염자 포함)에 인적·물적·심리적 충분한 지원 필요 |

39) 주택 문제나 결혼 문제는 코로나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움. 원래 우리 사회에 존재하던 구조적 문제에 해당함. 최근 몇 년 사이 주택 가격의 급증이 코로나 때문은 아니며 혼인률 감소 또한 코로나 발생

○ 시사점

- 청년 자영업자의 전문성 부족은 코로나 상황에서 경영 악화와 직결→ 전문성 향상 지원을 통한 경제적 안정성 도모
- 직업/결혼/주거 등 사회적 안정성이 갖추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기 → 체계적 정책 지원 방안 도출 필요

□ 중년 : 40대, 사업, 남

<표 67> 중년 주요 키워드

| 구분 | 스트레스 요인 | 개인적 해소 방안 | 정책적 해소방안 |
|--------|---|---|--|
| 주요 키워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거리두기, 대면 업무 제약 • 자녀의 비등교에 따른 보육 문제 • 자녀 보육을 위한 업의 중단으로 경제적 피해 감수 • 단체 활동(운동)의 제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목한 가정 생활 중요 • 산책, 공원, 체육시설 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간 형평성 있는 정책 지원 • 특정시간 제약보다 일정기간 제약 • 격리에 따른 업의 중단, 이에 대한 보상 체계 구축 필요 • 확진자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필요 • 주부 격리시 가정돌봄 서비스 필요 • 확진자 중심 심리 상담 필요 • 충분한 병상, 의료인, 의료시설 확보 • 자녀학력 공백 방지위한 교육서비스 |

○ 시사점

-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한 활동 계층 → 업무의 각종 제약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음
- 비등교에 따른 자녀 보육 문제 심각 → 업을 그만두고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필요
- 이 계층에서 격리가 발생할 경우 가정생활/경제 부분에 직접적 타격 → 가정 유지/경제적 피해 보전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필요
- 일반인에 대해서는 심리상담보다는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적 해소 방안이 더 필요함

이전부터 대두되던 문제임. 다만 이러한 것들이 코로나 감염병 재난으로 인하여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보다 심화된 측면이 있음

□ 중~장년 : 40~50대, 주부

<표 68> 중·장년 주요 키워드

| 구분 | 스트레스 요인 | 개인적 해소 방안 | 정책적 해소방안 |
|--------|---|---|---|
| 주요 키워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권고사직 실직 • 중장년층 재취업의 어려움 • 중장년 취업지원 센터 현장 상황 고려 안된 탁상 행정 • 재취업 어려움에 따른 자존감 하락 • 자녀의 대외활동 제약/수업의 질 하락 • 자녀 비등교에 따른 돌봄 문제 발생 • 부산내에서도 코로나 지원 정책 차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부가 할 수 있는게 거의 없음 • 가끔 음악 들으며 힐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ith코로나 되면 지역 상설시장(벼룩시장 형태) 통해 주민들 친목 도모/경제적 효용 도모→제도화 필요성 • 벼룩시장 + 예술인 재능기부 기회 제공 • 취업지원센터 실효성 향상 방안 필요 • 연령대별 세분화한 맞춤형 심리 상담 필요(상담 센터 홍보 필요) • 아이돌봄 지원 사업 진짜 필요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

○ 시사점

- 전업주부/맞벌이 등 다양한 형태 존재 - 상황에 맞는 정책적 대응 필요
- 이 계층은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자녀 양육 / 가정주부 / 경제활동 / 재취업⁴⁰⁾ 등에서 가정 전반과 관련한 문제 발생함
- 중장년 취업 지원 센터나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그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탁상행정에 머물고 있다고 인식함
- 따라서 이미 제공되고 있는 공공서비스 중 그 기능이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 파악⁴¹⁾ 및 개선을 통해 이용자에게 실질적 정책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높음

40) 특히 이 계층의 재취업과 관련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제공하는 정책적 지원과 수혜자의 수요 사이에 상당한 미스매칭(mismatching)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계층에서 코로나로 인하여(또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실직이 발생하게 되면, 특히 사무직종의 경우 업무특성에 맞는 재취업이 이루어지기 상당히 어려움. 다만 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직종으로의 연결은 이용자 만족도 및 직무 능률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사무 등 보편적이지 않은 영역의 실직자에 대해서는 기업과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이용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할 필요있음. 기업 입장에서 40대 중 후반 이후의 고소득 실직자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혜자 또한 현실적인 재취업 가능성을 고려하여 눈높이를 맞추어야 하며 직무 교육 및 새로운 직종에 적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41) [그림 21]을 응용하면 대상자(이용자 및 이용경험이 있는 자) 설문조사를 통해 취업지원센터의 제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문제점, 수요 등을 파악할 수 있음.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또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노년 1 : 60대

<표 69> 건강한 노년 주요 키워드

| 구분 | 스트레스 요인 | 개인적 해소 방안 | 정책적 해소방안 |
|--------|--|---|---|
| 주요 키워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인관계의 어려움 명절/연휴에도 가족/손자 못만남 사업장에 코로나 격리자 발생에 대한 두려움 백신에 대한 부정적 뉴스에 따른 두려움 확진자 동선 공개 자주 보니 불안감 커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명 소수 배움/취미/당일 여행 등으로 해소 공원/산책/간단한 신체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지원금 취약계층 위주 지원 필요 동백전 사용방법 간소화해서 노인도 이용할 수 있게 할 필요 공연/영화 등 방역수칙 준수하여 문화 즐길 수 있는 지원 정책 필요 공원/산책로 등에 특정 시간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건강 프로그램 건강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필요 노인 활용 사회적 기업 지원 필요 |

○ 시사점

- 노인계층에서는 특히 대인관계의 제약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고 후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는 걱정과 취약계층 선별 지원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강함
- 건강, (가벼운 신체)운동, 문화 관련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정보의 접근성⁴²⁾에 대한 어려움 / 정책 수혜 방법에 대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음

42) 대학생 계층에서 도출된 정보 접근성의 제약은 비등교로 인해 야기되는 것인 반면, 고령 계층에서 정보의 접근성에 대한 어려움은 최신 기술과 문물에 대한 익숙지 않음에서 야기되는 것이 더 많음. 예를 들어 동백전 같은 경우 고령 계층에서는 인지도도 낮지만 안다고 하더라도 사용 방법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자원봉사자의 방문을 통한 동백전 안내, 대리등록 및 자동이체 등록 등을 통한 매월 자동 충전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 노년 2 : 70대

<표 70> 보호가 필요한 노년 주요 키워드_1

| 구분 | 스트레스 요인 | 개인적 해소 방안 | 정책적 해소방안 |
|--------|---|---|--|
| 주요 키워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대인 관계 주저. 모임에 대한 두려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텃밭 작물 재배를 통해 내 손으로 키우고 수확해서 먹는 재미 방역 수칙 지키면서 지인들과 정기모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지원금 취약계층 위주 지원 필요 재난지원금 일괄지원이면 지역적 형평성 유지할 필요성 정기건강검진 외 고령자 특화 건강지원 프로그램 재활치료나 주기적 검사 등 고령자 특화 의료 혜택의 확대 주기적 말벗 고령자의 관심분야에 대한 자원봉사 지원(헤어, 강의, 교육, 체험, 관련분야 대화 등 고령자에게 선택권 부여할 수 있는 제도화 필요) 일상적 어려움에 대한 주기적 심리상담 (취약계층) 고령자 주기적 지역상품권 제공 |

○ 시사점

- 노인계층에서는 특히 대인관계의 제약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재난지원금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는 걱정과 취약계층 선별 지원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강함(40~80대 공통 인식)
- 건강, (가벼운 신체)운동, 문화 관련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식물(원예), 텃밭 재배 등이 정서 안정에 도움
-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자원봉사 선택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정책성과도 높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
- 이를 위해서는 자원봉사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함
- 자원봉사는 고령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분야별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야함(말벗, 가벼운 신체활동, 교육, 강좌 등)
- 거동 불편자를 위해 자원봉사자가 가정 방문도 이루어질 필요성

□ 노년 2 : 80대

<표 71> 보호가 필요한 노년 주요 키워드_2

| 구분 | 스트레스 요인 | 개인적 해소 방안 | 정책적 해소방안 |
|--------|--|---|---|
| 주요 키워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인관계의 어려움 명절/연휴에도 가족/손자 못만남 고령 남자 1인가구는 술로 외로움을 달래는 경우 많음, 혼자 있는 분들 외로움, 고립감, 불안감 등 스트레스 해소 방안이 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에서 가벼운 운동 종교활동을 통한 마음의 안정 아직 움직일 수 있어서 가벼운 활동을 통해서 해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상담이나 정기적인 사람과의 만남 개인적 보호망이 없는 고령 1인가구는 심신의 건강에 상당히 취약적이기 때문에 국가적 보호망을 갖출 필요 기능인(예술, 문학)의 자원봉사 공연기회 제공은 기능인에 재능을 펼칠 기회가 되고 참여자들의 심리적 우울감도 해소될 것 여생을 건강하고 사회와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정책 |

○ 시사점

- 노인계층에서는 특히 대인관계의 제약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고령층의 대부분이 정신건강센터에 대해 알지 못함
- 친구나 지인의 사망 소식은 고령자에게 불안감, 우울감, 스트레스 증가 요인 → 신체적·정신적 사회적 보호망 필요
- 장년 이하 계층에서는 심리상담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 정책 지원을 선호하며 노년계층에서는 일상적이고 주기적인 심리 상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 80대 이상에서는 여생을 건강하게 사회와 어울려서 보내는 것에 관심이 많음

□ 재능기부 지역예술인

<표 72> 지역예술인 주요 키워드

| 구분 | 스트레스 요인 | 개인적 해소 방안 | 정책적 해소방안 |
|--------|--|--|---|
| 주요 키워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은 무대가 생명인데 무대가 다 사라짐 재능을 펼칠 기회 상실에 따른 자존감 하락 경제적 피해 개인적으로 협찬을 받고 예술인들 모아서 자원봉사 공연 진행하지만 현실적·재정적 한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기회가 사라지다 보니 집에서 혼자 음악들으면서 지휘 연습 예술인들 공연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정서적·문화적 안정감 제공 관중들의 호응이 예술인들에게 생명력을 불어 넣고 힘이 나게 함 지역민에 봉사한다는 자부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의 공연에는 장소 / 시설 / 장비 /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비용이 발생하므로 예술인의 자원봉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지역·자치구·부산시의 협력체계 조성) 이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 시민들의 문화적 정서 함양 |

○ 시사점

- With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한 지역의 예술인 공연 기회 + 상설 베틀 시장은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와 커뮤니티의 재난 회복 탄력성 향상에 매우 긍정적 영향(실제 해운대 센텀 센시빌 아파트에서의 자원봉사 공연([그림 30])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으며 인근 아파트에서도 높은 관심을 나타냄)
- 지역/자치구/부산시 협력 체계를 통한 자원봉사 공연 지원 방안 마련은 커뮤니티회복 탄력성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



[그림 30] 자원봉사 음악회 공연

□ 전문자원봉사자 의견

<표 73> 전문자원봉사자 주요키워드

| 구분 | 확진자 | 개인적 해소 방안 | 정책적 해소방안 |
|--------|---|---|---|
| 주요 키워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진자는 감염의 두려움, 고립에 따른 외로움, 경제적 피해에 따른 상실감으로 자원봉사자에게 애기를 쏟아 냄 자영업 확진자는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지며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떠안게 됨(폐업비용, 빚, 세금, 생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진자의 개인적 해소방안은 거의 없는 상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락 제공의 정책화(주기적 방문 통한 말벗, 안부 확인) 자원봉사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들에게 큰 힘이 됨 전화통로 오픈으로 재난 당사자에 선제적 대응 필요 자원봉사자 인원/공간 부족 해소 위해 최소경비 및 도시락 만들 공간 지원 퇴직한 전문가 활용 체계적 자원봉사자 양성 시스템 구축 필요 자원봉사자 연수 및 교육 재난대피소 생활할 수 있는 시설 구비 필요 |

○ 시사점

-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지는 않더라도 자원봉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시설 지원 필요함
- 퇴직 전문가 활용 및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 구축 필요(참여, 교육 등 자원봉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
- 현재 부산시는 재난 상황 발생시 자원봉사 체계나 재난대피소 이용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상당히 미비한 상황



[그림 31] 부산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문자원봉사자의 도시락 배달

3) 연령층별 심층 인터뷰 시사점

- 모든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호소
 - 이는 심리적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도출됨
 -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문제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심리 상담은 효과가 낮음
 - 단, 정서 불안이나 고립감, 격리자 및 확진자, 극심한 신체적/경제적/정신적 스트레스 경험자, 60대 이상 노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공통적으로 가벼운 운동, 산책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방안으로 응답
 - 활동의 제약 /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공통의 탈출구
 - 이에 따라 산책로 / 공원 /체육시설의 정비에 대해 공통적으로 요구 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장년 이상 계층에서는 공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및 가벼운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 공통적으로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 회복탄력성 관련, 문화 / 예술 관련 지원에 대한 선호가 높게 도출됨
 - 20대까지는 문화바우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콘텐츠의 지원(할인 카드 등)에 대한 욕구가 높게 도출 : 개인적 문화소비 선호
 - 40대 이후는 지역커뮤니티와 결합된 문화에 대한 욕구가 높게 도출(재능기부 공연 + 베품시장) : 집단적 문화소비 선호
 - 30대는 사회생활이 본격화되는 계층으로서 문화나 정서와 관련된 부분보다는 취·창업, 주택, 결혼, 대출, 전문성 향상 등 보다 현실적인 지원에 더 욕구를 나타냄(단, 이는 30대는 문화 소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없다는 의미는 아니며 타 연령층 대비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의미)

- 모든 연령층에서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 선별 지원이 타당하다고 인식
 -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지원하니까 받는다는 인식, 하지만 취약계층 선별 지원이 합리적이라는 생각
 - 일반인들에게 그 정도 금액(1인당 25만원)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금액이 아니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재정적 부담 가중된다고 인식
 - 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인식
 - 지원한다면 100% 지급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인식

- 온라인 활용 문화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확산이 필요
 - 온라인 모임, 온라인 술자리 등 새로운 문화의 형성
 - 이는 유사 상황 발생시 오프라인 제약에 따른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
 - 장년 이상 계층은 온라인 활용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를 프로그램 제공, 사용법 제공 등 정책적 지원화하여 장년 이상 계층의 비대면 문화에 대한 적응력 높일 필요 있음

-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와 심층 인터뷰의 주요 결과가 상당 부분 유사함
 - 이는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설문조사의 거시적 방향을 바탕으로 인터뷰에서 도출된 연령층별 정책의 적용에 대한 근거가 됨(연령층별 세부정책 도출)
 - 예를 들어 인터뷰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는 모든 계층 공통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대인관계/외부활동 제약,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출됨. 설문조사에서 청년 계층의 경제적 원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뷰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 학부모 계층에서 돌봄의 어려움 호소가 높게 나타난 것, 감염자에 대한 심리적 지지 등이 높게 나타난 것도 동일한 결과임

- 따라서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의 공통 결과를 중심으로 연령층별 세부 정책에 대한 접근은 합리적인

4) 연령층별 주요 회복 탄력성 요인 - (설문조사와 FGI의 종합)

<표 74> 연령층별 주요 회복 탄력성 요인_1

| | 청소년 | | 대학생(청년) | | 취업(준)생(청년) | | 중년 | |
|-------------------------|----------------|---------------------------|----------------|----------------------------|--------------------------|----------------------|----------------|-----------------------|
| | 설문조사 | FGI | 설문조사 | FGI | 설문조사 | FGI | 설문조사 | FGI |
| 순위별 주요 키워드 (FGI는 순위 아님) | 백신접종 | 학습격차 해소방안 | 백신접종 | 취업, 교육, 교류, 시험, 자격 등 정보접근성 | 백신접종 | (예비)자영업자 전문성 향상 컨설팅 | 백신접종 | 자녀학력 공백 방지위한 교육지원 |
| | 재난지원금 | 야외활동 기회 제공(체육, 수련회, 체험 등) | 사회적 거리 두기 | 대학생 할인제도 | 재난지원금 | (취)창업, 운영 등 대출 장벽 완화 | 재난지원금 | 지자체간 정책 지원의 형평성 |
| | 정기적 방역 | 온라인 수업방식 개선 | 재난지원금 | 공원, 산책로 정비 | 사회적 거리 두기 | 주거 문제 해결 위한 대출장벽 완화 | 사회적 거리 두기 | 시간제약 보다는 기간제약 |
| | 체계적 격리 시설 및 지원 | | 정기적 방역 | 온라인 문화 콘텐츠 지원 | 정기적 방역 | 격리자 인적/물적/심리적 충분한 지원 | 정기적 방역 | 격리자 인적/물적/심리적 충분한 지원 |
| | 유급휴일 확대 | | 체계적 격리 시설 및 지원 | 취업 박람회 | 투명한 정보 공개 | 공원, 산책로 정비 | 투명한 정보 공개 | 주부격리 시 가정돌봄 지원 |
| | 거리두기 철저 | | 충분한 휴식 | | 체계적 격리 시설 및 지원 | 청년직장인 고용안전성 | 예방법 위반자 처벌 | 확진자 중심 심리상담(그외 전방위지원) |
| | 심리상담 | | 예방법 위반자 처벌 | | 예방법 위반자 처벌 / 충분한 휴식 (동점) | | 체계적 격리 시설 및 지원 | 충분한 병상, 의료인, 시설 확보 |

<표 75> 연령층별 주요 회복 탄력성 요인_2

| | 청년(50대) | | 건강한 노년(60대) | | 보호가 필요한 노인(70대 이상) | | FGI | |
|-------------------------|---------------|--------------------|----------------|----------------------|--------------------|------------------------------------|--------------------------|-------------------------|
| | 설문조사 | FGI | 설문조사 | FGI | 설문조사 | FGI | 자원봉사자 | 지역예술인 |
| 순위별 주요 키워드 (FGI는 순위 아님) | 백신접종 | 지역 상설벼룩 시장의 제도화 | 사회적 거리 두기 | 취약계층 위주 재난지원금 | 백신접종 | 취약계층 위주 재난지원금 | 도시락 제공의 정책화 (말벗, 안부확인) | 재능기부 자원봉사 체계화 방안 |
| | 재난지원금 | 예술인 재능기부 기회제공 | 재난지원금 | 동백전 사용방법 간소화/홍보 | 재난지원금 | 정책의 지역적 형평성 | 취약계층 전화통로 오픈 | 최소한의 경비 지원(연습/장비/무대/식사) |
| | 정기적 방역 | 취업지원 센터 실효성 제고 | 백신접종 | 공연/전시/영화 등 문화 콘텐츠 지원 | 사회적 거리 두기 | 고령자 특화 건강 프로그램 지원 |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화(인적/물적/시설) | 예술인들은 무대가 생명 |
| | 사회적 거리두기 | 심리상담 센터 홍보 필요 | 정기적 방역 | 공원, 산책로 등의 정비 | 체계적 격리 시설 및 지원 | 고령자 특화 의료혜택 확대 | 자원봉사에 드는 경비 지원 | 자원공연 통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
| | 체계적 격리시설 및 지원 | 아이돌봄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 투명한 정보 공개 | 자유로운 참여 가능한 건강 프로그램 | 정기적 방역 | 자원봉사 관심분야 선택권 확대 | 퇴직 전문가 활용 자원봉사 양성 시스템 | 시민들의 문화적 정서 및 심리회복 영향 |
| | 투명한 정보공개 | 지역별 재난 정책 형평성 제고 | 체계적 격리 시설 및 지원 | 생활체육 활성화 | 적절한 운동 | 주기적 심리상담(일상적 어려움, 말벗) | 자원봉사자 연수 및 교육 (더나은 자원봉사) | |
| | 자녀돌봄 지원 | 자녀비등 교에 대한 돌봄/교육방안 | 예방법 위반자 처벌 | 노인참여 사회적 기업 지원 | 투명한 정보 공개 | 주기적 지역상품권(생필품 지원) 고령1인 가구 국가보호망 | 재난대피소 생활시설 구비 | |

○ 정책요인별 분야

<표 76> 정책요인별 분야

| 구분 | 청소년 | 대학생 | (예비)취(창)업생 | 중년 | 장년 | 60대 | 70대 이상 | 자원봉사자 | 지역예술인 |
|--------|----------------------|-------------------------------|--------------------|---------------------------------|--------------------------|---------------------------|--------------------|---------------------------------|-----------------------------|
| 경제 | 재난지원금 | *재난지원금, 대학생할인제도 | 재난지원금, 주택/자영업 대출완화 | 재난지원금, 격리자 충분한 보상지원 | 재난지원금 | 재난지원금, 동백전 활용도 향상 | 재난지원금, 주기적 지역상품권 | 자원봉사실비 지원 | 공연최소경비 지원방안 |
| 문화 | 야외활동 기회 | 온라인 문화컨텐츠 지원 | | | 지역상설 베틀시장, 예술인 재능기부 체계화 | 공연/전시 등 문화컨텐츠 지원, 생활체육활성화 | 자원봉사 분야 선택권 | 취약계층방문 말벗/ 안부 / 간단한 (신체)활동(주기적) | 재능기부 자원봉사 체계화, 지역커뮤니티/정서 회복 |
| 교육 | 온라인 수업방식 개선, 학습격차 해소 | 취업, 교육, 시험 등의 정보접근성 해소 | 전문성 향상 컨설팅 | 자녀 학력공백 방지지원 | 자녀돌봄 지원서비스, 취업지원센터 실효성 | | | 자원봉사자 연수 및 교육, 퇴직한 전문가 자원봉사 | |
| 상담 | 심리상담 | | | 격리자/확진자 심리상담 | 심리상담센터 홍보필요 | | 주기적 상담 및 말벗 | 취약계층 전화통로 오픈 | |
| 시설 | | 공원/산책로 정비 | 공원/산책로 정비 | 공원/산책로 정비 | 공원/산책로 정비 | 공원/산책로 정비 | 공원/산책로 정비 | 자원봉사자 시설, 재난대피소 시설 구비 | 공연장소 지원(문화회관이 나 A광장 등) |
| 건강 | | 충분한 휴식 | | 병상,의료인, 시설 확보 | 자유로운 참여의 건강프로그램 | | 고령자특화 건강 프로그램,의료혜택 | 도시락 제공 정책화 | |
| 감염병 관리 | 백신, 방역, 격리시설, 거리두기 | 백신, 방역, 격리시설, 거리두기, 예방법 위반 관리 | 백신, 방역, 격리시설, 거리두기 | 백신, 방역, 격리 시설, 거리두기, 정보공개, 기간제약 | 백신, 방역, 격리시설, 거리두기, 정보공개 | 백신, 방역, 격리시설, 거리두기 | 백신, 방역, 격리시설, 거리두기 | | |
| 기타 | 유급휴일 확대 | | | 주부격리시 가정돌봄, 정책 형평성 | | 노인의 사회적 기업 지원 | 정책형평성, 국가보호망 체계화 | | 예술인에게 무대기회 제공 |

*대학생 이상의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 위주 선별 지원을 의미함

제4절 감염병 재난 시대의 회복탄력성 정의

1. 코로나 재난

□ 재난의 특징

- 일반적으로 재난은 특정 지역에 강력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보편적임
- 반면 코로나 재난은 전 세계적인 유행이며 약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음
- 이런 재난은 현 세대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굉장히 드문 일이며,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재난에 대한 연구나 축적된 자료 또한 거의 없음
- 이에 보편적 의미의 재난과 코로나 감염병 재난의 특성 비교를 통해 코로나 감염병 재난의 특성을 반영한 회복탄력성을 검토할 필요 있음

<표 77> 재난의 특징

| 구분 | | 종류 | 특징 |
|------|-----------------------|----------------------------------|---|
| 자연재난 | | 수해, 태풍, 산불 ⁴³⁾ , 지진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적, 지역적, 당사자에 강력한 심적/물적 타격 ●물리적 복구는 단시간내에 회복 가능하지만 심리적 손실의 회복은 상당기간이 소요되거나 영구적으로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음 |
| 사회재난 | | 전쟁, 침몰, 붕괴, 폭발, 화재, 교통사고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리적 복구를 위한 공공·민간 협업이 잘 이루어지는 편임 ●사망이나 영구적 장애 등 회복불가능한 손실이 발생하기도 함 |
| | 코로나 재난 ⁴⁴⁾ | COVID-19 및 변종 코로나(델타, 오미크론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적, 광범위, 재난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려움(전국민, 전인류, 전지역) ●집단 공포에 빠지기도 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에 적응함에 따라 집단적으로 자연스럽게 심리적으로 회복되어 가기도 함 ●모두 힘을 합쳐 이겨내야할 물리적 부분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커뮤니티, 자원봉사 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음 ●모두가 재난당사자이기 때문에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경우도 거의 없음 (코로나로 인한 실직, 폐업 등 직접적 피해 당사자 제외) |

43) 산불의 경우 자연재난인 경우도 많지만 인재인 경우도 많음(담뱃불, 취사 등으로 인한 실수 등)

44) 전염병은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임. 재난 관리법에서도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있음.

2. 회복탄력성

□ 보편적인 회복 탄력성 개념

- 연구 초기에 선행연구 분석 등을 통하여 보편적인 재난 하에서의 ‘회복탄력성’ 개념을 정의하였음
 - ‘시스템의 변동은 자연스러운 현상, 생태학적 복원력’이라는 개념에 근거함(Holling, 1973)
 - 이에 Adger(2000; Kwok et al., 2016)의 ‘회복탄력성’ 정의가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의 ‘회복 탄력성’ 개념으로 정의함

급작스러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환경적 변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집단적·체계적 대처 역량

- 그러나 연구 결과, <표 77>에서 나타나듯 감염병 재난은 일반 재난과는 성격이 달라서 일반적인 재난 하에서의 ‘회복 탄력성’ 정의를 적용하기에는 무리라는 판단
 - 이에 ‘감염병 재난 하에서의 회복탄력성 개념 정의’의 필요성 도출

□ 감염병 재난 시대의 회복탄력성

- 기존의 회복탄력성 정의는 변화에 대해 지역사회의 대처역량이라는 관점에서 정의를 하였으나 코로나 감염병 재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대처역량이라는 기준은 부적절함
- 코로나 상황으로 집단 패닉이 절정에 달하던 2020년 중순경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1/3 수준으로 떨어졌으나⁴⁵⁾ 2020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대체적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의 70~80% 정도를 회복하였으며 2021.11.의 위드코로나 이후 전반적으로 매출 향상이

45) 이는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자영업자 대상 인터뷰의 체감 경기 응답 내용임. 한편 코로나 발생 후 2020.05.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율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19 이전 매출을 100으로 가정할 경우 부·울·경 지역은 -5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그래픽] ‘코로나 19’발생 전 대비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율. 2020.05.13. 연합뉴스.

이루어지고 있음

- 집단적 대처역량보다는 개인차원에서 코로나 상황에 대해 정부의 방역지침이나 기준을 준수하고 백신접종을 통해 극도의 공포감에서 벗어나 현재의 상황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해 가는 자연적 회복탄력성이 더 중요함
- 이는 설문조사 결과와 심층 인터뷰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출한 결론임
- 코로나 감염병 재난은 시민 개인으로 보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재난 상황이지만 감염이나 실직 등 나에게 닥칠지 모르는 심리적 불안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물론 실제 감염자와 경제적 피해를 당한 계층에게는 실물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대부분의 경우 ‘감염의 두려움’이 코로나 재난에서 가장 주요한 스트레스 원인으로 나타남(<표 30>, <표 50>참조)⁴⁶⁾
- ‘감염의 두려움’은 아직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감염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단대처역량보다는 ‘개인적으로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스트레스 극복의 보다 효과적인 수단으로 나타남
- 이에 본 연구의 결과로 코로나 감염병 재난 사회의 회복 탄력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함

감염병과 동행하는 삶을 받아들이고 이에 적응해 가는 개인적·집단적·체계적 대처역량

46) <표 50>에서 스트레스 증가 요인 1, 2순위는 대인만남시 감염의 두려움(418명), 언론보도로 감염의 두려움 증가(307명)로 나타남. 이는 응답자 985명중 725명이 응답함으로써 거리두기나 경제적 손실보다 훨씬 높은 응답율을 보임

제5절 연령층별 주요 정책

1. 연령층별 주요 정책 도출 절차

-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표 74>, <표 75>, <표 76>을 바탕으로 하여 연령층별 주요 정책을 도출함

- 연령층별 주요 정책을 도출함에 있어서 <표 78>의 절차를 따름⁴⁷⁾

<표 78> 연령층별 주요 정책 도출 절차

| | | |
|-----|------------------------------|--|
| 1단계 | 중앙, 지자체 업무 구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 정부 소관 업무, 지역 지원 가능 업무 구분 • 지방정부 : 지방정부의 재량으로 가능한 업무 구분 |
| ↓ | | |
| 2단계 | 중앙정부 업무 중 지자체에서 보완 가능한 업무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고유 역할은 1단계에서 종료, • 단, 중앙 고유 역할 외 지방정부의 재량으로 보완할 수 있는 범위 확인, 방안 제시 |
| | 지방정부 업무 정책 분석 및 정책 방향 도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에서 구분한 지방정부 업무 : 현재 수행 정책 분석 • 📄 (구분) ① 이대로 유지, ② 확대·수정, ③ 새로운 형태 |
| ↓ | | |
| 3단계 | 정책 방안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 확대·수정, ③ 새로운 형태 : 구체적 방안 |
| ↓ | | |
| 4단계 | 부산시 적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 중앙정부 업무 중 지방의 보완 가능책, • 2단계 지방정부 업무 중 이대로 유지, • 3단계 정책 방안을 모두 종합 • 📄 부서별 역할 |

47) 본 연구는 부산시 광역 자치단체에서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그대로 수용하거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추가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적용함

2. 연령층별 주요 정책 리스트

<표 79> 청소년/대학생/(예비)취(창)업생 주요 정책 리스트

| 구분 | 청소년 | 대학생 | (예비)취(창)업생 |
|-----------|------------------------------|-----------------------|--------------------------------|
| 경제 | 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원스톱서비스 | 저소득 대학생 재난지원금 지원 | 청년 취업앵커 인프라 연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
| | 외국인청소년에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 대학생 문화바우처 | 청년사회진입활동비 지원사업 |
| | | | 청년 지원사업 정보 일원화 제공으로 정보접근성강화 |
| | | | 경영악화/폐업 청년 자영업자 지원기준 마련 |
| | | |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
| 문화 | 청소년 문화의집 온택트 페스티벌 | 부산시 자체 콘텐츠 개발 | |
| | 청소년 야외 활동공간 조성 | 온라인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 |
| | 체험활동 확대 | 대학 동아리 공연 및 버스킹 지원 | |
| | 문화바우처 | | |
| 교육 | | 온라인 교육 및 진로 콘텐츠 제공 | 취창업생 멘토스쿨 운영 |
| | | 취업박람회 체계화 | 청년 폐업자와 재창업 희망분야 전문가 멘토스쿨 |
| | | 원스톱 취업정보 서비스 | 주요산업체 청년 견학 프로그램 |
| | | 대학생 해커톤캠프 | 청년 창업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확대 |
| | | 대학생 깡이어 프로젝트 | 부산형 도전숙 |
| 상담 | 청소년심리상담 의무화 | | |
| | 심리상담 바우처 | | |
| 시설 | | 청년문화(활동)공간 조성 | |
| 건강 | | 산책로 조성/ 정비 | 산책로 조성 / 정비 |
| 감염병 관리 | 청소년 방문시설 모니터링 강화 | 대학생 방문시설 모니터링 강화 | 청년 방문시설 모니터링 강화 |
| | | | 자영업 매장 대상 백신스티커 제작 및 보급 |
| | | | 격리자에 대한 지원금 외 보상안 마련 |
| 기타 | | | |

<표 80> 중년/장년/60대 주요 정책 리스트

| 구분 | 중년 | 장년 | 60대 |
|-------|------------------------------------|--------------------------|--|
| 경제 | 코로나 19 격리자 충분한 보상지원 | 장년층 맞춤형 고용안정지원금 |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추가지급(전시민 대상 + 60대 이상 취약계층 추가지급) |
| | | | 60대 이상 동백전 이용활성화 지원 |
| 문화 | | 지역별 상설 벼룩시장 정기 개설 | 코로나 블루 극복 체험키트 활용 비대면 생활원에 체험 |
| | | 재능기부 자원봉사 체계화 | |
| 교육 | 중년층 재취업지원 | 전인교육(음악, 미술, 체육) 확대 | |
| | |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 |
| 상담 | 격리자/확진자 심리상담 | 4050 장년층 맞춤형 무료 심리상담 | |
| | 계층 특성에 적합한 심리상담 인력 확보 | 심리상담센터 홍보 활성화 | |
| 시설 | 산책로 조성, 정비(60대 이상 공원 및 산책로 이용률 높음) | | |
| | | | 어르신 배움교실 공간 조성 / 프로그램 개설 |
| 건강 | 충분한 병상, 의료인, 시설 확보 | 주요 공원 자유로운 건강 참여 프로그램 | 어르신 생활체육지도 프로그램 |
| | | 코로나 극복 실내·외 운동 아이디어 영상공모 | |
| 감염병관리 | 자가격리자/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충분한 구호물품 지급 | | |
| |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 공개 | | |
| 기타 | 주부격리시 가정돌봄 서비스 제공 | | 노인 사회적 기업 운영 및 지원 |
| | 가족돌봄 휴가제도 | | |
| | 어린이집 교사 고용 안정성 향상 | | |

* 정책 리스트에서 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연령층별 회복 탄력성 향상에 있어서 보다 강조되는 주요 정책임

<표 81> 70대 이상/자원봉사자/지역예술인 주요 정책 리스트

| 구분 | 70대 이상 | 자원봉사자 | 지역예술인 |
|--------|----------------------------------|-----------------------------|---------------------------------|
| 경제 | 거동불편 독거노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방문신청 서비스 | 자원봉사단체 경비/물품 지원 | 자원봉사 공연자 최소 경비 지원(신청 및 심사 후 선정) |
| | 시설 입소 독거노인 재난지원금 제도홍보 및 방문신청 서비스 | | |
| 문화 | 자원봉사 수혜분야 선택권 부여 | 방문 말벗, 안부 연계 도시락 배달 서비스 | 벼룩시장 연계 지역예술인 자원봉사 체계화 |
| | 자원봉사자 공연 지원 및 시설 대여 | | 아마추어 예술인/대학동아리/청소년합창단 자원봉사 체계화 |
| 교육 | | 자원봉사자 연수 / 교육 프로그램 | |
| | | 퇴직 전문가 자원봉사 참여 프로그램 | |
| 상담 | 정기 상담 및 말벗 방문 서비스 | 심리 취약계층 상시 전화통로 지원 체계화 | |
| 시설 | 산책로 조성, 정비 | 구 별(또는 권역별) 봉사단체 전용 공간 | 재능기부 자원봉사기관/단체 지역 문화회관 무료대관 |
| | 텃밭 임대 및 재배방법 교육 / 실내텃밭 | 자원봉사기관 거점 활동공간 조성 | |
| 건강 | 고령자 건강관리 디지털 플랫폼 | 대한적십자사 연계 황금도시락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 |
| 감염병 관리 | 노인 자가격리 돌봄 서비스 | | |
| 기타 | | 재난 대피소 내 최소 물품 구비 | |

3. 연령층별 주요 정책

1) 청소년

(1) 경제

<표 82> 청소년 (경제 - 재난지원금)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경제 재난지원금 | 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원스톱 서비스 |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대응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지급 시기 연장 - 기존 신청기한인 11월 30일 이후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급 시기 연장 | 유지 |
| | 외국인 청소년에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시 거주 외국인 청소년에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 지급대상자 및 지원 규모에 대한 검토 - Ex) 2002.01.~2013.12. 관내 외국인 체류자, 1인 10만원, 동백전 예시 - 광명시 : 교육재난 지원금 외국인 청소년까지 확대-경기 광명시는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교육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을 관내 초·중·고생과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외국인 청소년까지 확대·시행 | 신설 |

○ 시사점

- 학교밖 청소년, 외국인 청소년 등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의 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

(2) 문화

<표 83> 청소년 (문화 - 야외활동 기회)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문화 야외활동기회 | 청소년 문화의 집 온택트 페스티벌 | 여성가족국 각 구의 청소년 문화의 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단위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대상 현장활동 프로그램 다양화 - Ex)경찰서 체험, 공예품 만들기, 마술 교육, 재난 가방 준비법 교육, 적외선 센서 드론 만들기 등 청소년 수련관은 8개 구에 미설치, 청소년 문화의집은 9개 구가 미설치 | 확대 |
| | 청소년 야외 활동공간 조성 | 여성가족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관련 센터 및 부산시 산하 기관 내의 야외활동 공간 조성 및 확대 - 인조잔디, 야외무대, 청소년전용카페 설치 - 운동, 독서, 관람 등의 공간으로 활용가능 부산의 청소년성장 공간은 수도권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확대 |
| | 체험활동 확대 | 교육청/ 각 학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드코로나에 따른 학교차원의 오프라인 당일/1박2일 수련회, 체험활동 검토 및 안전기준 마련 - 학년별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 - 체험시설 안전기준 확립 및 점검 감염병 재난으로 학교를 통한 활동 제약시 문화바우처 지급(학기 5만원 정도) | 신설 |

○ 시사점

- 위드코로나의 추세에 따라 학교차원에서의 청소년의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운영기준, 안전기준에 대한 검토 필요성

(3) 상담

<표 84> 청소년 (상담 - 심리상담)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상담 심리상담 | 청소년 심리상담 의무화 | 여성가족국 시민 건강국 부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심리상담강화 및 설문조사 의무화 - 대상 : 중1~고3 전원 - 방식 : 청소년 대상 개인·집단상담 프로그램, 부모교육, 심리검사 등 • 코로나 19에 따른 사이버상담 수요 증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그에 맞춰서 상담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확대 |
| | 심리상담 바우처 | 시민건강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센터 및 병원 이용을 위한 바우처 지급 - Ex) 심리상담 및 설문조사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집단을 대상으로 바우처 지급 | 확대 |

○ 관련 사례 : <여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전국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 ‘전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고민해결을 위해 개인상담, 심리검사, 부모교육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전화상담 채널과, 문자·카카오톡·온라인채팅 등 비대면상담 채널로 구성되어 다양한 경로로 청소년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 향후 청소년 상담 정책에 있어서 채널 다변화 필요성을 시사

2) 대학생

(1) 경제

<표 85> 대학생 (경제 - 재난지원금 대학생 할인제도)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경제 - 재난지원금 대학생 할인제도 |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사회복지국 청년산학창업 국 복지정책과 / 지산학협력과 |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확대 |
| | 대학생 문화바우처 | 문화체육국 | 1안 : 공공문화기관 등 공연 입장료 할인(부산지역 대학생 학생증 기반 30~50% 범위, 청소년 적용 확대 고려) 2안 : 부산시 소재 대학생 문화바우처 연간 5만원 (공공문화기관 또는 부산시와 협약을 맺은 문화기관에서 사용가능하며 30~50%차감 적용) *1안은 할인에 따른 부담을 공공문화기관이 부담하게 되며 2안은 부산시가 부담하게 됨 | 확대 |

○ 시사점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대학생 문화생활 할인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이외의 상시 지원 체계 재점검 필요성

(2) 문화

<표 86> 대학생 (문화 - 온라인 문화 콘텐츠 지원)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문화 - 온라인 문화 콘텐츠 지원 | 부산시 자체 콘텐츠 개발 | 문화체육국 | 부산시 자체적인 OTT서비스(넷플릭스, 왓챗등), 유튜브 콘텐츠 개발 Ex) 부산 배경의 드라마 시리즈, 부산 지역의 역사 및 발전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홈트레이닝 가이드 등 | 신설 |
| | 온라인 문화 콘텐츠 제작 지원 | 문화체육국 | 온라인 문화 콘텐츠 제작 지원(감염병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하게 될 경우 지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기회의 활동을 제공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사람들이 즐길만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함 지원 내용 :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개인 및 단체에 온라인 콘텐츠 제작 경비와 공간 지원(촬영장소 및 기본 소품 제공) 공모 선정 방식이므로 지원대상자수와 지원 규모는 사전 공지 우수 콘텐츠 제작자에게 시상 및 제작된 콘텐츠는 무료로 배포 부산시 플랫폼 이용, 또는 유튜브(QR 제공) 부산시민이면서 콘텐츠 무료제공에 동의하여야 함 | 신설 |

○ 시사점

- 성장하는 OTT 시장에서 플랫폼 콘텐츠 공급자로 발돋움하여, 각 계층에 대한 온라인 문화 콘텐츠 지원의 복지와 더불어 부산시 자체 수익 사업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필요성
- 효율적인 정책 제공을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의 확보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함

(3) 교육

<표 87> 대학생 (교육 - 취업, 교육, 시험 등의 정보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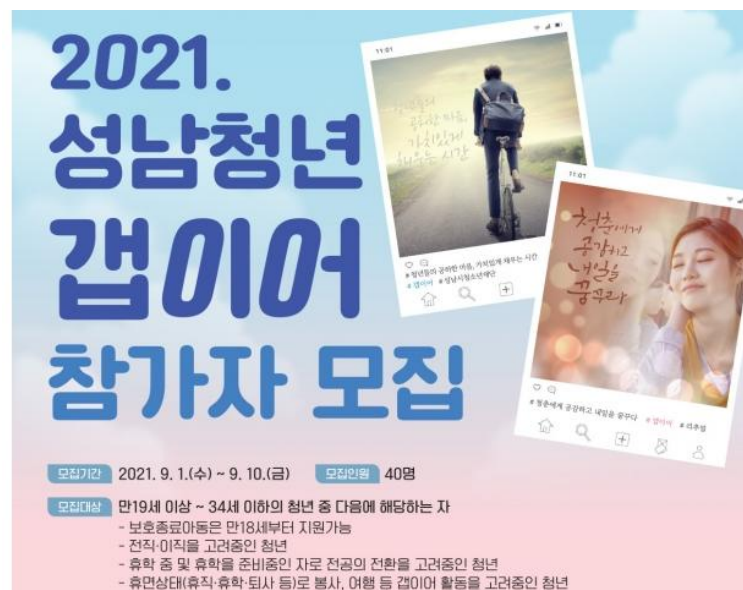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교육 - 취업, 교육, 시험 등의 정보 접근성 | 온라인 교육 및 진로 콘텐츠 제공 | 교육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교육 및 진로 콘텐츠 제공 - 부산시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여 부산지역 내 직업정보나 직무교육 제공 - 주요 정보는 직업별 내용 소개 및 각 직업별 필요역량과 이를 갖추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한 소개 - 부산시 소재 기업들에게 콘텐츠를 제공받고 관심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부산시 SNS 서포터즈 등이 기업 방문하여 인터뷰 및 기업 소개 방식(업무 내용, 필요역량, 복지정보, 위치 등) -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 취업준비자는 보다 정확한 정보 획득 | 신설 |
| | 취업 박람회 | 디지털경제혁신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시 자체 취업박람회 프로그램 체계화 - 산업별, 직무별로 묶어서 전문성 강화 - 관련업체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유인책 확충 - 상반기·하반기·연간 등 기준에 따라 정기화 | 신설 |
| | 원스톱 취업정보 서비스 | 디지털경제혁신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시 자체 취업정보 원스톱 서비스 개편 - 부산지역 내 취업시장 정보, 설명회 정보, 자격증 시험 정보, 직무 교육 정보 등을 원스톱으로 모아서 볼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를 개설하여 정보접근성 강화 | 신설 |
| | 대학생 해커톤 캠프 교육 기획 및 진행 | 부산시내 대학교와 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대학에서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소재 대학생에게 참여 기회 제공하며 부산시와 대학에서 1:1 비용 부담 예시 - 부산대 : 해커톤 대회는 부산대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SW 전공자-비전공자 간의 SW개발 프로젝트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로 다른 전공 간 융합을 통한 SW 프로젝트 개발 역량을 높이고 교내 SW 융합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음 | 신설 |
| | 대학생 갭이어 프로젝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꿈을 찾는 기회를 제공 (예시) - 갭이어 프로그램 - 공모를 통해 지원자 선정 - 수혜자의 지원을 통한 수혜 스토리를 부산시 블로그 및 유튜브에 공유 - 자신을 돌아보고 진로탐색 및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 - 이를 공유함으로써 부산시 홍보 및 코로나에 지친 대학생들에게 경험의 공유와 이를 통한 정서적 힐링 제공 | 신설 |

○ 시사점

- 대학생 대상의 취업, 교육, 시험 등의 정보를 원스톱으로 취합하여 제공하는 페이지를 개설하여 취업 및 시험을 위한 정보 접근성 향상 필요성
- 부산시내 대학교 및 부산소재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대학생에 대한 다양한 교육 경험 제공 필요성
- 대학생, 청년 등에게 자신의 삶과 미래와 직업을 고민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함

○ 깡이여 타지자체 사례

- 대구시는 청년 깡이여 활동을 적극 지원함(대구시, 청년 깡이여 활동 지원 올인, ‘대구청년학교 탄길’, ‘청년 내일학교’ 참여청년 모집, 새로운 분야 체험 통해 진로 적극 탐색할 수 있도록, 2020.05.06. 대구일보)
-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깡이여 프로그램(성남청소년재단 2021년 성남청년 깡이여 참가자 모집, ‘청년들의 공허한 마음, 가치 있게 채우는 시간!’, 2021.09.06.경인매일)



[그림 32] 타지자체 깡이여 지원 정책 사례

(4) 시설

<표 88> 대학생 (시설 - 공원/산책로 정비)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산책로 조성, 정비 (전 계층) | 녹색환경정책실 | 교육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시가 관리하는 공원, 갈맷길 및 산책로, 체육시설 전구역 점검 및 유지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화된 시설의 경우 리모델링 및 연관 시설간 연계개발 추진 - 이용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시설 교체 및 추가 - 전연령층이 접근할 수 있는 쉼터화 | 유지 / 확대 |

○ 시사점

- 향후 본격적인 언택트사회,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 야외 개방형 공원 및 산책로 공간에 대한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부산시 소재 공원, 산책로, 체육시설에 대한 전구간 점검 및 시민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리모델링, 시설간 연계개발, 교체 및 추가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도출할 필요성
- 부산시민 설문조사와 부산시 차원 검토를 바탕으로 쉼터 시설의 개발 및 리모델링에 관한 장기 계획을 검토하여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성
- 코로나 재난으로 인한 대인관계 제한에 따라 대부분의 계층에서 공원 산책 및 가벼운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것으로 도출됨에 따라 전 계층에서 본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게 도출되었음

(5) 건강⁴⁸⁾

<표 89> 대학생 (건강 - 충분한 휴식)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건강 - 충분한 휴식 | (문화) 대학 동아리 공연 및 버스킹 지원 | 문화체육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드코로나에 따른 대학생들을 위한 온·오프라인 문화 콘텐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동아리 공연 및 버스킹 지원 : 장소 및 공연시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 및 홍보 지원(무대 및 음향장비 등은 관련 기획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지원함) ▶ *부산민간사례 (AGIT - 버스킹 모집) 온라인 전시회, 온택트 공연 등 온라인 콘텐츠 확대 | 신설 |
| | (시설) 청년문화공간 조성 | 문화체육국 /각 자치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지역이나 주거밀집지역내 청년이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청년문화공간 조성 청년활동공간 역할 : 동아리 활동, 공유오피스, 쉼터, 대관, 공유주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청년작당소 등 | 확대 |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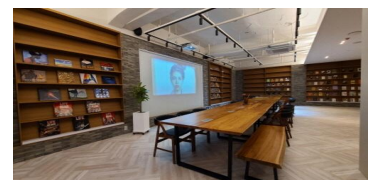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문화활동을 재활성화할 방안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문화 콘텐츠 확대 및 청년문화공간 마련 등을 추진할 필요성
- 부산시는 타 지자체 대비 청년/대학생 활동 공간이 부족한 편으로 이에 대해 부산시 위상에 걸맞는 청년/대학생 활동 공간 및 지원 정책 보완 필요



<AGIT의 버스킹>



<청년채움공간>



<청년작당소>

[그림 33] 청년 버스킹 / 청년 활동 공간

48) 대학생 및 청년 계층에 있어서 건강은 신체의 건강보다는 주로 정서적 건강을 의미함

(6) 감염병 관리

<표 90> 대학생 (감염병 관리 - 백신, 방역, 격리시설)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감염병 관리 · 백신, 방역, 격리시설 | 방문시설 모니터링 강화 | 대학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1차 개편에 따른 대학생 방문시설 모니터링 강화 - 대상 : 학교,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등 - 업종, 운영시간, 밀집도, 이용대상, 접종증명 시행여부 등 - 향후 부산시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기준 개편을 위한 데이터 확보 | 유지 |
| | 백신접종 확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생 대상 백신 상시 접종 확대 | 확대 |

○ 시사점

-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및 확진자 발생 시설 현황 등의 모니터링을 체계화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현실의 실정에 맞게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원제한이나 영업시간 등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을 만들어갈 필요성⁴⁹⁾

49) 2021.11.1. 정부는 위드코로나 1단계를 시행하였으나 감염자의 급격한 증가로 21.12.18.~22.1.2.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다시 시행하고 있음

3) (예비)취·창업생

(1) 경제

<표 91> (예비)취·창업생 (경제 - 재난지원금)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감염병 관리· 백신· 방역· 격리시설 | 청년취업앵커인프라 연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 청년스타트업 도약 창직·창업 지원사업 | 부산인재평생 교육진흥원미 래청년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취업앵커 인프라 연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청년 스타트업 도약 창직·창업지원 사업”을 정기화 및 대상확대 – 지난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수혜대상자 만족도 조사 및 수정·보완사항 의견청취를 통해 사업의 확대 반영 – 대상자 확대 및 지원 기간 확대 등 검토 | 수정 / 유지 |
| | 청년 사회진입활동비 지원사업 | 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 근거 - 부산경제진흥 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초에 추진한 *청년사회진입활동비 지원사업을 재추진 – *미취업 청년들에게 청년디딤돌카드를 발급하여 지급하는 지원금 | 유지 |
| | 청년 지원사업 정보 일원화제공으로 정보접근성강화 | 디지털경제혁 신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 취업·창업생들에게 지급하는 각종 재난지원금 사업의 내용을 모아서 볼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를 개설하여 정보접근성 강화 | 신설 |
| | 경영악화/폐업 청년 자영업자 지원기준 마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업하거나 경영난이 심화된 청년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철거비, 재도전 장려금) 지급 및 실상을 반영할 수 있는 지급기준 마련(사행성, 미풍양속 저해, 불법 제외) – 청년 자영업자 중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에 따른 폐업자를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폐업에 따른 세무 상담 지원 및 폐업 비용 지원(대출방식) – 폐업지원 수혜자가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 컨설팅 지원(멘토스쿨과 연계방안 검토) | 신설 |
| |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 부산시 / 한국주택금융 공사 / 부산은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시에서 진행중인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유지 및 2022년 차기 사업규모 확대 검토 | 유지 / 확대 |

○ 시사점

- 기존의 예비 취업생, 창업생에 대한 지원 사업의 재추진 및 소요 예산 검토를 진행할 필요성
- 재난지원금 사업 내용을 원스톱으로 파악할 수 있는 페이지를 개설하여 정보접근성 강화 필요성
- 신혼부부 주택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
- 폐업 및 경영난이 심화된 청년 자영업자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 규모 및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

○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폐업지원 정책 사례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써 2020.08.16. 이후 폐업신고를 한 소상공인(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 희망리턴패키지 :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취업교육 및 심리회복, 법률자문, 전직장려수당 등 다양한 지원이 패키지 형태로 진행(지원 홈페이지 : SBIZ.OR.KR/NHRP/MAIN.DO)
- 서울시 금천구의 폐업지원금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지원금 50만원 지원(폐업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2020.03.22.~2021.05.23. 중 폐업한 소상공인 대상)
- 따라서 부산시에서는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 확대 및 중앙정부 지원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폐업 지원 및 재창업에 대한 컨설팅 등 진행 필요
- 실제 청년 대상 인터뷰를 통해 이런 부분의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게 도출되었음

(2) 교육

<표 92> (예비)취·창업생 (교육 - 전문성 향상 컨설팅)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교육 전문성 향상 컨설팅 | 취창업생 멘토스쿨 / 청년 폐업자와 재창업 희망분야 전문가 멘토스쿨 | 디지털 경제 혁신실 (서울시 정책을 부산시에 맞게 응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창업생에 대한 멘토스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설계 컨설팅 : 멘토 특강 직무설계 컨설팅 : 창의적 아이템, 유망직업에 대한 전문컨설턴트의 강의 취업역량 강화 컨설팅 :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면접 롤플레이, 직무적성검사 실시 채용설명회 : 멘토스쿨 참가자에 대한 채용설명회 진행 현장면접 컨설팅 : 면접예정자에 대한 모의면접 실시 및 면접컨설팅 진행 코로나로 인한 청년 폐업자와 재창업 희망분야 전문가와 멘토스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관리 등 전문성 강화 컨설팅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 멘토 사전에 확보 및 멘토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청년 폐업자가 희망분야 성공 운영자 업체에 인턴으로 취업하여 실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간 및 지원 비용 검토) | 신설 |
| | 주요산업체 청년 견학 프로그램 | 디지털경제 혁신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시 소재 고용창출우수기업 및 주요산업체에 청년 견학 프로그램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기업과 업무제휴를 통해 예비 취창업 청년에 실무에 대한 시야 확대 및 미래비전을 가질 수 있게 함 부산시 예비 취창업자 대상 주요 산업체 방문기회 제공 홍보(홈페이지, 대학 게시판 등) 참여자에게 경비 및 식사/간식 제공 | 신설 |
| | 청년 창업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확대 | 디지털경제 혁신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창업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컨설팅 단계'에서 유사 창업자와의 매칭을 강화하여 청년창업자에 대한 멘토링 서비스 확대 창업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보기쉽게 구성한 온라인 페이지나 (예비)창업자간 지역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인터넷카페를 운영하여 정보부족 문제 해결 지원자격 완화를 통한 정책 접근성 강화 | 유지 / 확대 |
| | 부산형 도전숙 | 디지털경제 혁신실 건축주택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전숙 :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시 각 구에서 협업하여 운영중인 프로그램이며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직주혼합형 임대주택(2016년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도시공사와 연계하여 부산형 도전숙 프로그램 운영 재정적으로 열악한 창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창업기회 제공 및 인구의 유출방지 효과 | 신설 |

○ 시사점

- 취업생 및 창업준비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 서울시의 정책을 기초로 부산시 자체적인 취업, 창업 멘토 프로그램을 체계화할 필요성
- 창업 교육 및 지원 사업의 경우 부산시 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혁신 기업이 배출될 가능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어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
- 예비 청년 창업자에 대한 다양한 정책의 경우, 중앙부처의 권고안 및 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정책을 참고하여 부산시 창업 환경에 맞는 부산형 창업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

(3) 시설

<표 93> (예비)취·창업생 (시설 - 공원/산책로 정비)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산책로 조성, 정비 (전 계층) | 산책로 조성, 정비 | 녹색환경정책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가 관리하는 공원, 갈맷길 및 산책로, 체육시설 전구역 점검 및 유지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화된 시설의 경우 리모델링 및 연관 시설간 연계개발 추진 - 이용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시설 교체 및 추가 - 전연령층이 접근할 수 있는 쉼터화 | 유지 / 확대 |

○ 시사점

- 향후 본격적인 언택트사회,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 야외 개방형 공원 및 산책로 공간에 대한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부산시 소재 공원, 산책로, 체육시설에 대한 전구간 점검 및 시민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리모델링, 시설간 연계개발, 교체 및 추가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도출할 필요성

- 부산시민 설문조사와 부산시 차원 검토를 바탕으로 쉼터 시설의 개발 및 리모델링에 관한 장기 계획을 검토하여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성

(4) 감염병 관리

<표 94> (예비)취·창업생 (감염병 관리 - 백신, 방역)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감염병 관리 · 백신, 방역 | 청년 방문시설 모니터링 강화 | 시민안전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1차 개편에 따른 취·창업생 방문시설 모니터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식당, 스터디카페, 학원, 독서실, 도서관, 전 사회 등 - 업종, 운영시간, 밀집도, 이용대상, 접종증명 시행여부 등 - 향후 부산시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기준 개편을 위한 데이터 확보 | 유지 |
| | 자영업 매장 대상 백신스티커 제작 및 보급 | 시민건강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스티커 제작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소규모 자영업자 매장 - 내용 : 운영자 및 종업원이 백신접종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부산시 인증 스티커를 제작 및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매장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함 | 신설 |
| | 격리자에 대한 지원금 외 보상안 마련 | 시민건강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리자에 대한 지원금 이외의 보상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리기간동안 본업 관련 직무 강의 제공 - 격리기간 중 시청할 수 있는 영화·넷플릭스 등 미디어 지원 - 격리자가 격리기간 중 강의/문화 등에 이용가능한 온라인용 바우처 지원 | 확대 |

○ 시사점

- 소규모 자영업자 매장에 운영자 및 종업원이 백신접종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부산시 인증 백신 접종 완료 매장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이용자들은 안심하고 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장에 대한 신뢰도 증가 및 매출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

4) 중년

(1) 경제

<표 95> 중년 (경제 - 지원금)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경제 - 지원금 |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충분한 보상지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격리자에 대한 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재자립에 필요한 지원금 등의 보상체계(기준)를 재점검하여 형평성 문제 발생 방지 - 실질적인 피해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되는 금액을 조사하여 지급기준을 재정립하고, 과다지급금은 축소 (ex. 코로나19 확진 의심신고 검사자 가족 전원에게 검사기간 중 경제활동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지원금을 주는 것은 과다하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어 축소가 필요함) - 격리로 인해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나, 입은 피해에 비해 과소하게 지급되는 케이스를 조사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 마련 (ex. 격리로 인한 타격이 큰 자영업자, 비정규직, 취약계층 등을 선별하여 피해규모나 취약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수정 |

○ 시사점

- 코로나19 확진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금이 실제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케이스를 건별로 파악하여 지원금 지급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성
- 반대로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에 비해 과소하게 지급되는 케이스를 건별로 파악하여 피해규모, 취약도에 따른 지급 대상 기준을 체계화할 필요성

(2) 교육

<표 96> 중년 (교육 - 중년층 재취업 지원)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교육 중년층 재취업 지원 | 중년층 재취업 지원 | 디지털경제 혁신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희기관을 활용한 체계적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필요 ex. 해운대기술교육원이 사실상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당 건물에 중장년층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실시 기타 부산지역 내 유희기관 활용 가능성 검토 일자리 지원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취업 희망 분야의 매칭이 중요하나 사실상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 ⇒ 재취업 희망 분야 관련 기업에 재취업자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실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기업에서는 일 할 사람이 없다고 하고 재취업자는 일할 곳이 없다고 하는 상황) 사무직, 생산직, 서비스직 등 최소한의 분류를 통해 원하는 분야와 연계한 교육 및 정보제공이 필요함 기업과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적용할 필요성 높음 | 수정 |

○ 시사점

- 부산 소재의 유희 공공기관 시설 현황을 파악하여 취업교육, 문화교육 등 다양한 목적의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성
-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 및 컨설턴트의 고용 증가 예상
- 이용자 수요가 반영된 체계적 재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코로나 재난으로 인한 실직자에 대한 직업 만족도, 정책 만족도 향상
- 기업은 직무에 적합한 인재 채용이 가능해 구인에 따른 업무 공백, 비용지출 등을 줄일 수 있음

(3) 상담

<표 97> 중년 (상담 - 격리자/확진자 심리상담)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상담 격리자/확진자 심리상담 | 격리자/확진자 심리상담 | 시민건강국 부산시,보건 소, 부산정신건강 복지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심리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책의 혜택이 실제 부산지역 취약계층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검토하고, 미흡한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홍보를 하거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자체적인 심리지원정책 수립을 통해 심리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임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중 실제 운영이 미흡하거나 구체성이 결여된 문구가 있다면, 부산시 차원에서 보완해서 자체적인 정책화를 해야 할 것임 (ex. 가이드라인 중 “마음건강 정보제공”, “정신건강 평가”는 문구의 추상성으로 인해 형식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심리지원절차에 대한 설명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부산시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신규 심리지원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부산지역 확진자 및 가족, 유가족, 정신건강평가 고 위험군 대상으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영남권 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제도,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지원 핫라인 제도 등의 홍보가 필요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 중앙정부 지원을 못받는다 면 부산시 자체운영 검토(버스가 운행되는 것만으로도 부산시 심리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기능을 함) | 수정 / 신설 |
| | 계층 특성에 적합한 심리상담 인력 확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년층에 맞는 심리상담 인력 확보 중년층이 직면한 책임과중, 고용불안 등에 따른 심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심리상담 전문가 육성·지원 필요 중년층에 맞는 일반적 심리 상담 수준은 어느 정도의 트레이닝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중년층 재취업 문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퇴직한 전문가(교사, 교수, 공무원 등)심리상담 전문 인력 양성 - 대학의 평생 교육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함 | 확대 |

○ 시사점

- 중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심리문제의 원인은 급격한 역할변화 등에 따른 중년 계층의 특수한 사회적 위치에서 기인함
- 중년층을 전담으로 심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 확보를 통해서, 심리적 취약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담인력의 고용 확대 달성이 가능함
- 중년층 심리상담 활성화를 통해, 중년층이 주요하게 직면하고 있는 심리적 불안과 고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림 34]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4) 시설

<표 98> 중년 (시설 - 공원/산책로 정비)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산책로 조성, 정비 (전 계층) | 산책로 조성, 정비 | 녹색환경정책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가 관리하는 공원, 갈매길 및 산책로, 체육시설 전구역 점검 및 유지보수 - 노후화된 시설의 경우 리모델링 및 연관 시설간 연계개발 추진 - 이용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시설 교체 및 추가 - 전연령층이 접근할 수 있는 쉼터화 | 유지 / 확대 |

○ 시사점

- 향후 본격적인 언택트사회,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

야외 개방형 공원 및 산책로 공간에 대한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부산시 소재 공원, 산책로, 체육시설에 대한 전구간 점검 및 시민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리모델링, 시설간 연계개발, 교체 및 추가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도출할 필요성
- 부산시민 설문조사와 부산시 차원 검토를 바탕으로 쉼터 시설의 개발 및 리모델링에 관한 장기 계획을 검토하여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성

(5) 건강

<표 99> 중년 (건강 - 병상, 의료인, 시설확보)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건강 + 병상, 의료인, 시설확보 | 충분한 병상, 의료인, 시설 확보 | 시민건강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확진자 추이를 고려한 충분한 병상, 대체의료시설, 의료인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재분배·확충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및 의료기관 실태 조사 - 의료인 참여 유인 확대 방안 검토(ex 일정 시간 이상 코로나 업무 종사자에 감사패 전달 및 기프트 박스 제공 등) | 확대 |

○ 시사점

- 기존 코로나19뿐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및 오미크론의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역 사회에서의 확진자 증가가 예상됨(오미크론 국내 첫 확진자 이후 최대폭 증가...81명 감염 ·누적343명, 2021.12.15. 조선비즈)
- 선제적인 병상, 대체의료시설, 의료인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병상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필요성
- 병상 확보 문제는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부산시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 및 보완 정책 수립이 필요함(靑, 코로나 병상 확보

“절대절명의 과제...전적으로 정부 책임”, 2021.12.24. 파이낸셜뉴스)

(6) 감염병 관리

<표 100> 중년 (감염병 관리 - 백신, 방역, 격리시설, 정보공개)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감염병 관리 - 백신, 방역, 격리시설, 정보공개 | (부산시) 자가격리자에 대한 구호물품 지급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구호물품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격리자 및 자가격리자에게 제공하는 구호물품 목록 재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격리자 및 격리 유경험자 대상 구호물품 관련 설문조사 실시 (항목 구성 : 치료센터에 머무는 기간, 버려지는 물품, 부족한 물품, 품질이 떨어지는 물품, 개선사항 등) 설문조사를 통해 방역키트 및 생필품 목록을 재구성 ①낭비되는 물품은 제외하거나 축소, ②필요한 물품은 추가하거나 품질 향상 제고, ③개인별 소비량이 다른 물품은 개인이 요구시 추가지급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 마련 구호물품 부족, 예산 부족 문제 완화 가능 | 신설 |
| |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 페이지 | 시민건강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진자 정보 공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진자 이동경로, 노출일시, 소독여부에 대한 기존의 정보공개 체계 유지 (부산시 코로나19 사이트, 긴급 재난문자 등) 정보공개 사각지대 해소 (코로나19 정보공개가 미흡한 사업장이나 시설을 조사하여 정보공개) | 유지 |

○ 시사점

- 격리자에 제공되는 구호물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격리자 및 유경험자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호물품 목록 및 지급 가이드라인 재점검 필요성

(7) 기타

<표 101> 중년 (기타 - 주부격리 시 가정돌봄, 정책 형평성)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기타 - 주부격리 시 가정돌봄, 정책 형평성 | 주부격리시 가정돌봄 서비스 제공 | 여성가족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부격리시 가정돌봄 서비스 제공 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지원금 제공 돌봄 인력 검증 및 확보(돌보미 활동이력, 자격재제 사유 등 정보공개) 가정돌봄인력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가정방문 불시 점검 등) - 인천시 유사사례(코로나 19 자가격리 대상으로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일시적 돌봄서비스 지원) | 신설 |
| | 가족돌봄휴가 제도 | 여성가족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돌봄휴가* 지원기간 연장 - *가족 중에 질병이 발생하여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가 필요할 때 연간 최대 10일 사용 가능한 제도 부산시 재정 소요를 고려한 가족돌봄휴가 신청 기준 체계화 (돌봄아동나이에 대한 기준, 조손가정의 조부모에 대한 명확한 지원 기준 마련) | 유지 |

○ 시사점

- 주부가 격리시 타 계층 격리와는 다르게 가정 유지에 심각한 문제 발생 가능성
- 주부격리에 따른 돌봄 영역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 인력, 지원금 제공 정책 필요

<표 102> 중년 (기타 - 고용안정성)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기 타 - 고 용 안 정 성 | 어린이집 교사 고용 안정성 향상 | 시민안전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교사의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행정명령 재검토/ 고용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차후 유사상황 발생시) - ‘긴급돌봄을 제외한 부산 지역 모든 어린이집의 한시적 휴원’이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다수의 어린이집 교사가 실직하는 어려움이 발생하였음 - 어린이집 교사의 급여를 일정기간동안 줄이는 대신, 고용신분은 보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코로나로 인한 실직 발생시 재취업의 어려움 때문(최저임금 위반의 문제 등 발생소지 있어 어린이집 구성원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분은 유지한 채 일정기간 로테이션 근무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단, 쉬는 기간 동안 급여의 중단이 발생하므로 구성원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 이는 코로나상황에서 매출감소가 대규모 실직으로 이어지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이므로 이에 따른 고용노동법 적용의 유예 등의 검토가 필요함(대규모 실직시 위기가정 증가,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높음) | 수정 |

○ 시사점

- 본 정책은 어린이집 교사의 고용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중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
-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고용 불안을 겪고 있거나 실직한 계층에 대한 현황 파악과 지원,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명령 재설계의 필요성
- 코로나19에 따른 대규모 실직에 대한 부산시 차원의 다양한 방안 검토 필요

5) 장년

(1) 경제

<표 103> 장년 (경제 - 재난지원금)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경제 재난지원금 | 장년층 맞춤형 고용 안정지원금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대 장년층에 맞는 고용안정지원금 등 부산시 차원에서의 경제적 지원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대가 코로나로 인해 실직하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재취업이 어렵게 됨 특히 외벌이 50대 가장으로서 실직하게 될 경우 가정의 경제에 치명적 위기가 올 수 있음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유지하되 재취업시까지 또는 일정기간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필요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장년층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가능성 검토가 필요 지급대상 : 외벌이 50대 가장으로서 코로나로 인한 실직자 중 실직이후 기준중위소득 일정기준 이하(기준 검토)가구 우선 적용 지원방법 : 자녀 교육비 바우처(자녀 1인당), 긴급생활자금 | 신설 |

○ 시사점

- 50대 장년층의 경우 재취업 기회가 매우 축소될 수밖에 없음
- 50대 장년층에 맞는 부산시 차원의 다양한 경제적 지원 및 지원금 지급 기준 체계화 필요

(2) 문화

<표 104> 장년 (문화 - 지역상설 벼룩시장, 예술인 재능기부 체계화)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문화 - 지역상설 벼룩시장, 예술인 재능기부 체계화 | 지역별 상설벼룩시장 정기 개설 | 각 구청 / 지역의 아파트관리사무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洞마다(마을단위별) 아파트 단지를 활용한 상설 벼룩시장 개최(월 1회, 3월부터 11월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요일에 개최하여 많은 지역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의 각 아파트에서 로테이션으로 개최하도록 함(지역주민은 자유롭게 참여) - 구청에서 공인하여 진행(구청에서는 각 지역별 벼룩시장 개최 신청을 받아 연간 개최장소를 지역별 협의. 공인플랭카드 제공, 심리상담 부스 운영, 부산시 및 구청의 정책 홍보 팜플렛 제공. 예술공연무대 지원 등) - 판매자는 지역의 주민으로서 사전에 판매물품 및 판매가격 등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도록 하여 부스를 배정함(고가품, 개봉된 식품류, 성인물 등 미풍양속 저해 및 벼룩시장 취지에 맞지 않는 판매 제한) - 어린이 판매자 전용 부스, 청소년 판매자 전용부스 등 제공하여 청소년들에게 경제관념을 가지는 기회 제공 - 판매자에게 부스제공별 일정비용을 받아서 다시 지역의 취약계층이나 기관에 기부하도록 하며 이를 홍보함으로써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자원봉사기부에 동참한다는 자부심 부여 - 필요없는 물품 처분을 통해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 가능, 주민들의 봉사활동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 신설 / 확대 |
| | 재능기부 자원봉사 체계화 | 부산시청 / 각 구청 / 지역의 아파트관리사무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설벼룩시장과 연계하여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및 체계화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예술인, 음악/미술/문학 동호회 등 참여하여 전시/공연 등 기회제공(벼룩시장의 취지에 적합한 금액으로 아마추어 미술작품의 판매도 가능) - 지역예술인들의 경우 사전에 신청을 받아 벼룩시장 개최 아파트와 협의를 통한 공연기회 제공(이 경우 무대설치 및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지원이 필요하게 되므로 시청/구청/아파트 관리사무소 협의 필요) - 예술인 공연을 하게 될 경우 벼룩시장은 오후 5시까지 마치고 이어서 공연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 | 신설 |

○ 시사점

-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전 계층에 해당
- 지역상설 베틀시장의 수익기능, 청소년 교육기능, 사회환원기능,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등의 순기능 확대를 위해 각 구별, 동별로 활성화 필요성
-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민에 대한 심리 지원, 예술인에 대한 기회 제공,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 지역사회에 다양한 가치를 생산할 수 있음
-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상설베틀시장과 연계하여 체계적 방안 마련 필요

(3) 교육

<표 105> 장년 (교육 - 자녀돌봄 지원서비스, 취업지원 센터 실효성)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교육 · 자녀돌봄 지원서비스 · 취업지원 센터 실효성 | 전인교육 확대 | 교육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차원의 오프라인 전인교육(음악, 미술, 체육) 수업시수 확대 추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해 중고등학생 자녀의 음악, 미술, 체육 활동 제약이 생김 - 지식전달 교육 이외의 학업 스트레스 발산을 위한 전인교육의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부산시 차원의 전인교육 수업시수 확대 필요성 - 전인교육 확대를 통한 청소년 정서안정은 코로나 재난시대에 부모계층의 경제적·정서적 부담 완화 | 확대 |
| | 고용센터, 워크넷)맞춤형 취업프로그램 | 디지털경제혁신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년층 맞춤형 취업지원센터 운영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년층 재취업자의 경우, 청년층 구직자에 비해 부산시의 지원이나 관심도가 낮고, 개인설문조사가 추천 일자리에 반영되는 정도가 낮음 - 부산시 차원에서 중장년의 재취업과 관련하여, 개인별 인적사항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한 전문 컨설턴트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중년 카테고리 중년재취업지원 정책 참고 | 수정 / 확대 |

○ 시사점

- 장년층 재취업자에 대한 개인설문조사의 실효성 제고, 맞춤형 일자리 제공, 전문 컨설턴트 육성 필요성

(4) 상담

<표 106> 장년 (상담 - 심리상담센터 홍보필요)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상담 - 심리상담센터 홍보필요 | 4050 장년층 맞춤형 무료 심리 상담 | 시민건강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50 장년층 맞춤형 무료 심리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년층의 경우, 조기퇴직, 역할변화, 이중 부양 스트레스 등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지원이 필요 - 4050 장년층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 가능한 맞춤형 상담사 확보 필요 - 중년 카테고리 심리상담 지원 정책 참고 | 신설 / 확대 |
| | 심리상담센터 홍보 활성화 | 시민건강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상담센터 홍보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년층의 경우 심리상담의 기회가 있어도 정보부족으로 인해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 - 장년층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자서비스, 카카오톡, 지역방송 공익광고를 통한 심리상담제도 홍보 필요 | 신설 / 확대 |

○ 시사점

- 장년 계층은 자녀 교육에 높은 경제적 부담, 자녀와의 소통, 실업 발생시 재취업의 어려움, 노후에 대한 불안감 등이 발생하기 쉬운 계층
- 장년 계층은 심리적·신체적·경제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 심리 상담이 필요해지는 연령대에 해당
- 장년층 접근성이 높은 홍보 채널을 활용한 심리상담센터 홍보 필요성

(5) 건강

<표 107> 장년 (건강 - 자유로운 참여의 건강프로그램)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건강 · 자유로운 참여의 건강프로그램 | 주요 공원 자유로운 건강 참여 프로그램 / 코로나 극복 실내·외 운동 아이디어 영상공모 | 녹색환경정책 실시민건강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안 : 부산시의 주요 공원(수영강 시민공원, 온천천 시민공원 등 각 지역별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원)의 시민들의 주요 산책코스(농구장 등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일정시간대(새벽 5~6시 사이, 저녁 7~8시 사이 등)에 시에서 지정받은 강사들이 나와서 가벼운 율동, 체조 등을 실시하며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함(강사섭외, 홍보 등 필요) 2안 : 코로나 우울증 극복을 위한 실내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아이디어 영상공모 및 부산시 공식 채널을 통한 홍보(상금확보필요) <p>- *1안과 2안은 선택의 개념보다는 각각의 정책임</p> | 신설 / 확대 |

○ 시사점

- 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에 대한 안을 검토하여 장년층의 참여 및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수립 필요
- 주요 산책로의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은 심층 인터뷰에서 여러 계층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 감염병 재난 시대에 UCC를 활용한 운동아이디어 영상공모는 타 지자체 사례에서도 살펴 보았듯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음

(6) 감염병 관리

<표 108> 장년 (감염병 관리 - 백신, 방역 격리시설, 정보공개)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감염병 관리 · 백신 · 방역 격리시설 · 정보공개 | (부산시) 자가격리자에 대한 구호물품 지급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구호물품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격리자 및 자가격리자에게 제공하는 구호물품 목록 재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격리자 및 격리 유경험자 대상 구호물품 관련 설문조사 실시 (항목 구성 : 치료센터에 머무는 기간, 버려지는 물품, 부족한 물품, 품질이 떨어지는 물품, 개선사항 등) 설문조사를 통해 방역키트 및 생필품 목록을 재구성 ①낭비되는 물품은 제외하거나 축소하고, ②필요한 물품은 추가하거나 품질을 향상시키고, ③개인별 소비량이 다른 물품은 개인이 요구시 추가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 마련 구호물품 부족, 예산 부족 문제 완화 가능 | 신설 |
| |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 페이지 | 시민건강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진자 정보 공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진자 이동경로, 노출일시, 소독여부에 대한 기존의 정보공개 체계 유지 (부산시 코로나19 사이트, 긴급 재난문자 등) 정보공개 사각지대 해소 (코로나19 정보공개가 미흡한 사업장이나 시설을 조사하여 정보공개) | 유지 |

○ 시사점

- 개인 설문조사를 통한 구호물품 재정비를 통해 낭비되는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

6) 노년 1(건강한 노년)

(1) 경제

<표 109> 60대 (경제 - 재난지원금, 동백전 활용도 향상)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경제 - 재난지원금, 동백전 활용도 향상 |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추가지급 | 시민건강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인 “소득하위 88%”에 대한 성찰 및 지급형태 재검토 필요성 - 현재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88%의 전국민이며, 지급형태는 지급대상에게 동일한 금액을 획일적으로 지급하고 있음 • 1안 : 중앙정부재난지원금정책이 소득하위 *%로 지원 결정될 경우 타지역과의 형평성, 수혜자와 비수혜자의 갈등 및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방지를 위해 모든 부산시민에게 지급하는 방안 검토(의회와 예산안 협의 필요) (중앙정부정책 +부산시정책) • 2안 : 현재 재난지원금은 수혜자에게 25만원씩 균등하게 지급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적은 금액임. 따라서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부산시의 취약계층에 추가 지급하는 방안 검토(이 때 대상자 선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60대 이상 무주택 1인가구, 미취업 청년 1인가구 등 뚜렷한 기준 설정 필요 - 소득하위 *%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 지원금규모와 대상은 의회와 예산안 협의 필요) | 신설 / 확대 |
| | 60대 이상 동백전 이용활성화 지원 | 민생노동정책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대(이상)의 동백전 인지도 및 활용도 향상 방안 : TV광고, 문자서비스를 통한 안내 - 60대가 쉽게 접할 수 있는 TV에서 지역방송시간대에 동백전 활용 공익광고를 방영하거나, 문자서비스로 링크를 전송해 동백전 활용 안내를 해서 60대의 동백전 인지도, 활용도 향상 도모 - 60대 이상 이용 활성화를 위해 60대 이상 이용자의 월 캐시백 한도 증액방안 고려(ex. 2021.12.31.까지 동백전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일시적임. 따라서 60대 이상 이용자에게는 항상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 등) - 동백전 이용 활성화 방안 - 동백전 공식 블로그를 운영하여 홍보 및 동백전 이용후기도 올릴 수 있도록 함. 정기적으로 우수 이용후기자를 선정하여 시상으로 일정액의 동백전을 충전하도록 함. 동백전 이용 가능 업소 중 지역의 명소소개, 맛집 소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활용도를 높임 | 신설 |

○ 시사점

-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기준 및 대상을 재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방지, 시민간, 지역간 상대적 박탈감 최소화
- 선별적 지급을 통한 예산 절감을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
- 동백전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년층 대상의 홍보 채널을 확보하여, 노년층에 대한 지역화폐 이용 기회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2) 문화

<표 110> 60대 (문화 - 공연, 전시 등 문화콘텐츠지원, 생활체육 활성화)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문화 - 공연, 전시 등 문화콘텐츠지원, 생활체육 활성화 | 어르신 생활체육지도 프로그램 | 시민건강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의 주요 공원(수영강 시민공원, 온천천 시민공원 등 각 지역별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원)의 시민들의 주요 산책코스(농구장 등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일정시간대(새벽 5~6시 사이, 저녁 7~8시 사이 등)에 시에서 지정받은 강사들이 나와서 가벼운 율동, 체조 등을 실시하며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함(강사섭외, 홍보 등 필요) • 예시 - 부평구 - 건강체조교실(에어로빅, 국학기공), 생활체육교실 운영 | 신설 |
| | 코로나 블루 극복 체험키트 활용 비대면 생활원에 체험 | 농업기술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블루 극복 체험키트 활용 비대면 생활원에 체험 - 코로나 상황에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며 반려식물은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 - 60대 뿐 아니라 전 연령 및 계층에 적용 가능하며 비용이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보다 많은 계층이 수혜 가능(신청을 통해 선착순 또는 대상 선정) | 신설 |

○ 시사점

-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건강한 노년층인 60대를 위한 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성

(3) 시설

<표 111> 60대 (시설 - 공원/산책로 정비)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시설 - 공원 / 산책로 정비 | 산책로 조성, 정비 | 녹색환경정책실 시민건강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시의 주요 공원(수영강 시민공원, 온천천 시민공원 등 각 지역별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원)의 시민들의 주요 산책코스(농구장 등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일정시간대(새벽 5~6시 사이, 저녁 7~8시 사이 등)에 시에서 지정받은 강사들이 나와서 가벼운 율동, 체조 등을 실시하며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함(강사섭외, 홍보 등 필요) 예시 - 부평구 - 건강체조교실(에어로빅,국학기공), 생활체육교실 운영 | 신설 |
| | 어르신 배움교실 공간 조성 / 프로그램 개설 | 사회복지국/ 노인종합복지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12명이하,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포함*)로 진행할 수 있는 배움, 취미, 만남을 위한 공간 마련 -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1차 개편의 사적모임 제한인원수를 참고함 - 실내공간인 경우, 최대 12인을 수용하되 창문, 환기 시설(공기청정기 등)이 구비되어야 하고, 주기적인 소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신설 |

○ 시사점

- 모임 제한인원 범위 내의 소규모 모임을 위한 실내 공간 마련 및 주기적인 관리 필요성
- 건강한 노년 계층에서는 아직 활동적이기 때문에 신체활동, 배움활동, 사회활동에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소규모 그룹으로 배움 활동에 대해서 높은 수요가 나타남

(4) 감염병관리

<표 112> 60대 (감염병 관리 - 백신, 방역, 격리시설)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감염병 관리·백신· 격리시설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 시민안전실 시민건강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월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1차 개편에 따른 60대의 방문시설 모니터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실내체육시설, 식당, 마트, 전시회,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 업종, 운영시간, 밀집도, 이용대상, 접종증명 시행여부 등 - 향후 부산시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기준 개편을 위한 데이터 확보 | 신설 |

○ 시사점

- 주요 방문시설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방역지침 수립의 필요성
- 고령층은 특히 감염이나 후유증 등에 취약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을 통해 감염을 최소화 하는 것임
- 고령 계층에 대해 방역 수칙 준수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대한 지속적 정보 홍보와 이에 대한 대응정책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단순히 방역 정책의 준수만이 아니라 방역 정책 준수에 따라 사회활동 제약, 장기간 고립 등에 대한 해소 방안까지 검토하여야 함)

(5) 기타

<표 113> 60대 (문화 - 공연, 전시 등 문화콘텐츠지원, 생활체육 활성화)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기타 · 노인의 사회적 기업지원 | 노인 사회적 기업 운영 및 지원 | 사회복지국/ 사회적 경제지원 | <p><노인인력을 활용한 사회적기업(시장형기업)운영 및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 및 유망사업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부산시에서 노인인력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 운영 사례로는 구립도서관 연계 책배달사업(금정구), 커피로스팅 및 유통사업(사회복지법인 빛과소금복지재단) 등이 있음 유망사업분야로는 식품제조사업, 맞춤형 돌봄사업, 관광안내사업, 조정사업, 빨래방사업 등이 있음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력있는 유통망이나 플랫폼서비스 기술(인력을 필요한 곳에 매칭하는 용도)을 구비한 기업을 선정·평가하여 ‘노인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으로 선정 선정된 기업에 대해 부산시 산하 단체 및 공공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①공급계약 체결, ②공공시설 무상임대, ③보조금 및 대출이자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 노인인력에 대한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성 강화 부산시의 주기적인 기업 평가를 통해 수익성을 점검하고 보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인 제고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사회에 대비한 일자리 대책으로 중장기적인 관심 및 육성이 필요 민간기업의 수익성을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유가치창출(CSV) 가능 부산시 차원의 사업모델 발굴 및 지원을 통해 타 지자체에도 귀감이 될 수 있는 모범사례 형성 가능 | 유지 / 확대 |

○ 시사점

- 노년층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을 발굴 및 지원을 통해 고령사회에 대비한 일자리 대책과 기업 자체적 수익성 확보 가능

7) 노년 2(보호가 필요한 노년)

(1) 경제

<표 114> 70대 이상 (경제 - 재난지원금, 주기적 지역상품권)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경제 · 재난지원금, 주기적 지역상품권 | 거동불편 독거노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방문신청 서비스 | 사회복지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동불편 독거노인(거동불편 장애인 포함)에 대해 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집까지 찾아가서 재난지원금 및 지역상품권을 홍보·신청받는 서비스 예시 - 광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자 등 행정복지센터 요청→담당직원 지원대상 여부 확인→해당 가구 직접 방문, 광주상생카드 지급 - ※기존에 파악된 독거노인·장애인 등에 문자·우편 등 사전안내와 가정방문으로 신청방법 적극 안내 예정 | 신설 |
| | 시설 입소 독거노인 재난지원금 제도 홍보 및 방문신청 서비스 | 사회복지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 존·비속이 없는 시설입소 독거노인에 대한 시설차원의 제도홍보 및 방문 신청 서비스 - 요양원, 요양병원 등 노인 입소 시설에 부산시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공문을 보내, 입소 노인들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및 지역상품권 제도를 홍보하고, 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받는 제도 | 신설 |

○ 시사점

- 거동불편 독거노인, 직계가족이 없는 시설입소 독거노인 등 법률사각지대의 노년층 지원 정책 강화 필요성
- 사례 : 제주자치경찰단, 독거노인 등 찾아가는 재난지원금 신청 지원, 제주환경일보, 2020.06.01. -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의 행복치안센터 근무 중인 ‘우리동네경찰관’들은 관내 거주하는 독거, 치매노인, 거동불편 장애인 등 사회적 양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2) 문화

<표 115> 70대 (문화 - 사회봉사 분야 선택권)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문화 + 사회봉사 분야 선택권 | 자원봉사 수혜 분야 선택권 부여 | 행정자치국 (협치정책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별 자원봉사 수혜 분야 선택권 부여(분야별 자원봉사자 확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인 노인복지 이외에도 노인들이 개별적으로 관심있는 분야(상담, 운동, 스트레칭, 미용, 문학, 강의, 토론 등)를 선택해서 지원받는 제도 노인(개인 또는 소수그룹)이 기관에 방문을 하거나 자원봉사자가 직접 집으로 방문하는 형태로 진행 | 신설 |
| | 자원봉사자 공연 지원 및 시설 대여 | 행정자치국 (협치정책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봉사자의 공연을 위한 지원 및 시설 대여 절차 간소화 | 신설 |

○ 시사점

- 노년층이 일반 복지 이외의 봉사활동 수혜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필요
- 심층 인터뷰 결과 노인 계층에서는 단순한 말벗도 좋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며 취미활동도 하고 교육이나 강좌, 체육 프로그램 등 자원봉사 분야를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음
- 이는 고령층이 수동적 계층으로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수혜하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 계층으로서 자신들이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

(3) 상담

<표 116> 70대 이상 (상담 - 주기적 상담 및 말벗)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상담 + 주기적 상담 및 말벗 | 정기 상담 및 말벗 방문서비스 | 사회복지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대상의 주기적 상담 및 말벗을 위한 방문서비스 (신청자를 대상으로) - 전문 상담사가 방문하여 심리상담을 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를 소통하는 형태로 진행(방문 도시락 배달 서비스와 연계 검토) | 신설 |

○ 시사점

- 고령층의 어려움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약해지는 시기이면서 사회적 영향력의 감소, 사회활동의 감소, 고립으로 인한 소외감, 외로움, 경제적 취약 등 신체적·정서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임
- 심층 인터뷰 결과 대인관계 활성화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음
- 노인 거주지 방문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봉사활동을 연계하여 상담, 말벗, 도시락 배달, 지원금 신청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

(4) 시설

<표 117> 70대 이상 (시설 - 공원/산책로 정비)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시설 공원 / 산책로 정비 | 산책로 조성, 정비 | 녹색환경정책 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시가 관리하는 공원, 갈맷길 및 산책로, 체육시설 전구역 점검 및 유지보수 - 노후화된 시설의 경우 리모델링 및 연관 시설간 연계개발 추진 - 전연령층이 접근할 수 있는 쉼터화 | 유지 / 확대 |
| | 텃밭 임대 및 재배방법 교육 / 실내텃밭 | 사회복지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텃밭에서 식물이나 농작물을 키울 수 있도록 소면적의 유휴 농업용지를 소액(또는 무료)으로 임대해주는 방안 검토 - 노인층을 포함한 전계층 대상, 비상업용도 한정 1안 : 실내텃밭교실 운영 - 마땅한 부지가 없는 경우, 실내에서 텃밭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60대의 배움, 취미 정책과 연계하여 운영가능). 취약계층, 1인독거노인 등에는 실내텃밭 재료 지원 및 재배방법 교육 검토 2안 : 실외 텃밭 임대 - 지역별 텃밭 보유자의 신청을 받아 텃밭 확보, 지역민 신청자에게 저렴하게 분양 - 예시 - 종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텃밭 14개소 조성, 자투리 땅, 옥상 텃밭, 학교 텃밭 등 발굴/조성 | 신설 |

○ 시사점

- 노년층을 위한 실내텃밭교실, 실외 텃밭 임대 제도 등을 부산시 차원에서 검토하여 관련 정책 수립 필요성
- 텃밭을 활용한 정서 안정화 정책은 여러 타 지자체에서도 실시 중임

(5) 건강

<표 118> 70대 이상 (건강 - 고령자특화 건강프로그램)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건강 + 고령자특화 건강프로그램 | 고령자 건강관리 디지털 플랫폼 | 사회복지국 시민건강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이 불편한 고령자를 케어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반 고령자에게 필요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통신사와 업무협약 필요 - 통신사는 어르신 모니터링과 관제 서비스 제공, 지자체는 AI로봇 플랫폼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보급 - 예시 - 곡성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T고령자 건강관리 디지털플랫폼 업무협약 체결 | 신설 |

○ 시사점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노년층 건강관리 디지털 플랫폼 보급 필요성
- 곡성군-KT 사례 외에도 논산시의 ‘온-시민 건강관리 플랫폼’ 구축

(6) 감염병 관리

<표 119> 70대 이상 (감염병 관리 - 백신, 방역, 격리시설)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백신, 방역, 격리시설 | 노인 자가격리 돌봄 서비스 | 사회복지국 시민건강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격리 노인, 시설격리 노인을 위한 24시간 돌봄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사회서비스원 소속 긴급돌봄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 재가서비스, 외부활동(장보기, 의약품 대리수령 등) - 감염 위험이 높은 긴급돌봄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 체계 마련 - 사례 : 동작구, 자가격리 노인 긴급돌봄지원단 가동하여 식사도움, 청소, 장보기 등 지원, 시설입소 땀 동반입소 | 확대 |

○ 시사점

- 자가격리 노인에 대한 밀착 돌봄 체계 확립 필요성
- 자가격리 노인 돌봄인력에 대한 금전적, 심리적 지원 및 코로나 감염시 우선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병상 지원 등의 혜택

8) 자원봉사자

(1) 경제

<표 120> 자원봉사자 (경제 -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경제 · 자원봉사자 · 실비지원 | 자원봉사단체 경비/물품지원 |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에 필요한 실비지원사업 및 신청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구나 동별로 활동중인 자원봉사단체에 대해 운영비, 임금, 식대·교통비 등을 지원 - 필요시 자원봉사 운영에 필요한 물품으로 지원하는 방안 검토 (서울시 기준) • 지급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프로그램에 1일 4시간 이상 참여한 사람 • 지급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비 : 5,000원 이내 - 급식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공무원 급식단가 이내 - 활동용품비 등 | 유지 / 확대 |

○ 시사점

-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물품 지원 /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를 통해 봉사활동에 따른 사회적 편익 제고 및 자원봉사자의 자부심 향상

(2) 문화

<표 121> 자원봉사자 (문화 - 취약계층방문 (말벗,안부,간단한 신체활동))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취약계층방문 문화 | 방문 말벗, 안부 연계 도시락 배달 서비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말벗, 안부, 간단한 신체활동을 하는 자원봉사활동을 동 별, 구 별 단위로 연계 - 대한적십자사 도시락 배달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락 배달 → 안부 → 말벗 → 간단한 신체 활동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유지 / 확대 |

○ 시사점

-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방문 프로그램(말벗, 안부, 신체활동,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합 운영할 경우 프로그램 효과성 향상 기대

(3) 교육

<표 122> 자원봉사자 (교육 - 자원봉사자 연수 및 교육, 퇴직한 전문가 자원봉사자)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자원봉사자 연수 및 교육, 퇴직한 전문가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 연수 / 교육 프로그램 | 녹색환경 정책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인력 전문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설계 - 타 지자체, 해외 우수사례 연수 및 교육을 지원하여 자원 봉사 서비스의 질 제고 - 자원봉사자에 대한 주기적 교육 실시를 통한 전문성 제고 | 유지 / 수정 |
| | 퇴직 전문가 자원봉사 참여 프로그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한 전문가가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의사, 교수, 공무원 등 퇴직한 전문가가 재능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전문분야, 교육, 상담 등 퇴직 전문가가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이수 후 자원봉사자 활동 - 세종시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은퇴은행'운영, 자원봉사 은퇴은행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 체력 저하등으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는 65세 이상 자원봉사자를 은퇴은행에 등록하여 이들에게 돌봄/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예시 - 세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퇴한 전문가들이 재해·재난 위험요소 사전점검 등 시민 안전 분야, 취약계층 돌봄 분야, 민원 고충 상담과 학교폭력 재심지원 등 시정·법제 분야에 투입돼 봉사활동을 벌임 | 유지 / 확대 |

○ 시사점

-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연수 지원, 퇴직한 전문가의 봉사활동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봉사활동 인력 전문화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효과성 증대

(4) 상담

<표 123> 자원봉사자 (상담 - 취약계층 전화통로 오픈)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상담 - 취약계층 전화통로 오픈 | 심리 취약계층 상시 전화통로 지원 체계화 | 부산 정신건강복지 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적 취약계층에 대한 상시 전화통로 지원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코로나 우울 대응 심리지원 핫라인’ 제도 홍보·확대 - 수동적으로 전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에게 선제적으로 전화를 걸어 주기적인 전화상담체계를 갖출 필요성 | 유지 / 확대 |

○ 시사점

- 보건복지부의 심리지원 가이드라인을 부산시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심리지원 체도를 보다 체계화하고 홍보를 확대하여 이용률을 제고할 필요성

| 광역형 | | 기초형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도민 대상 • 정신건강 연구 및 기획사업, 프로그램 개발, 정신건강 인식개선 홍보, 전문인력 양성 교육, 정신건강 네트워크 구축 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군민 대상 •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체계 구축, 지역주민 및 중증정신질환자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제공 | |
| 기관명 | 전 화 | 주 소 | 홈페이지 |
|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051-242-2575 | 남구 수영로 299 루미너스타워 11, 12층 |  |
|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51-973-3418 | 강서구 공항 진입로8 (주)제이슨 2층 |  |
| 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51-518-8700 | 금정구 중앙대로 1777 금정구청 별관 5층 |  |

[그림 35] 부산시 광역 /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5) 시설

<표 124> 자원봉사자 (시설 - 자원봉사자 시설, 재난대피소 시설 구비)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시설 · 자원봉사자 시설, 재난대피소 시설 구비 | 구별(권역별) 봉사단체 전용 공간 / 자원봉사기관 거점 활동공간 조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 별로 봉사단체 전용 공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봉사단체(적십자, 온누리 봉사단 등)는 각 동별로 15개 정도가 있으나, 사무실이나 전용 공간이 없어 자원봉사자들의 자비로 운영공간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음 - 어느 단체든지 이용할 수 있는 봉사단체 전용 공간을 설치 및 지정하는 정책이 필요 각 구별(또는 권역별) 자원봉사기관 거점 활동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민간 자원봉사기관 및 참여자들의 거점 활동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자원봉사기관간 연대, 회의, 자원봉사 준비, 간단한 식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 - 각 구별 자원봉사센터와 민간자원봉사기관의 협업 검토(공간 제공 등) - 예시 - 고양시 자원봉사 거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드 코로나 시대에 시민들과 함께하는 거점센터, 마을 자원봉사 놀이터로서의 거점센터 | 유지 / 확대 |
| | 재난 대피소 내 최소 물품 구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대피소 내 물품 구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소는 있지만 대피소에 생활시설 준비가 미비 (냉장고,밥통,선풍기,세탁기 등 미비) - 재난대피소 내 이재민이나 자원봉사자가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목록을 제출받아, 시나 구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 | 유지 / 확대 |

○ 시사점

- 자원봉사단체 및 기관이 활동할 수 있는 전용공간 및 물품 지원을 각 구나 권역별로 지원할 필요성
- 재난 대피소는 거주 할 수 있는 체계를 사전에 미리 구비하여야 함

(6) 건강

<표 125> 자원봉사자 (건강 - 도시락 제공 정책화)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건강 - 도시락 제공 정책화 | 대한적십자사 연계 황금도시락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 부산 정신건강복지 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적십자사의 ‘도시락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초기 지원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대한적십자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락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중임 (황금도시락 캠페인) - 부산시에서 대한적십자사에게 초기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대한적십자사에서 식당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식당은 도시락을 200개 이상 만들어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음 - 참여업체가 수익이 발생하면 캠페인 홍보효과까지 거둘 수 있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음 예시 - 대한적십자사 부산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4가 전해주는 황금도시락’ 행사는 후원금을 전달받은 소상공인들이 영양만점 도시락을 제작하고 대한적십자사 동구지구협의회회원들이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사업 | 신설 |



[그림 36] 대한적십자사 황금도시락 사례

9) 지역예술인

(1) 경제

<표 126> 지역예술인 (경제 - 공연최소경비 지원방안)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경제 공연최소경비 지원방안 | 자원봉사 공연자 최소공비 지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 공연자에 대한 공연 최소경비 지원 검토(신청 및 심사 후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로 인해 예정된 공연이 취소되어 음악인들이 아파트단지 내에서 지역시민들을 위한 무상 음악회를 개최한 사례가 있음 - 지역주민들에게는 정서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음악인들은 새로운 무대의 기회가 주어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 자원봉사 공연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 신청 및 심사 절차 마련 - 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 | 신설 |

○ 시사점

- 자원봉사 공연자에 대한 공연 경비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경우 정서 회복, 음악인들의 경우 새로운 기회제공 등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음
- 상설 베틀시장 등과 연계하면 효과 극대화 기대할 수 있음
- 지역커뮤니티 회복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그림 37] 아파트 단지 내의 자원봉사 음악회 개최 사례

(2) 문화

<표 127> 지역예술인 (문화 - 재능기부 자원봉사 체계화, 지역커뮤니티 정서회복)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문화 · 지역커뮤니티 정서회복 | 재능기부 자원봉사 체계화 / 아마추어 예술인/대학동 아리/청소년합 창단 자원봉사 체계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안 : 자원봉사 공연을 부산시나 구·동 차원에서 정기화·체계화하여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지역공연시설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유료공연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극심한 공연인들에게는 일정한 지원금 및 수익이 발생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정서회복의 기회가 주어짐 - 장년 카테고리 문화부분 참고(벼룩시장과 연계방안) 2안 : 지역예술인뿐 아니라 아마추어 예술인/대학 동아리/청소년 합창단 등의 참여 방안 검토 | 신설 |

○ 시사점

- 지역예술인, 아마추어 예술인, 대학 동아리, 청소년 합창단 등 다양한 참여 대상의 확대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기대
- 지역예술인, 아마추어 예술인 등 다양한 예술인에게 활동 기회의 제공을 통해 무대의 기회를 가지게 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자부심 함양 기대

(3) 시설

<표 128> 지역예술인 (시설 - 공연장소지원)

| 구분 | 정책 | 관련부서 | 내용 | 방향 |
|-------------------|--|------------------------------------|--|----|
| 시설 공연장소지원 | 재능기부 자원봉사기관/ 단체 지역 문화회관 무료대관 | 자치구 문화회관 / 각 아파트 주민협의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문화회관이나 홀을 무료로 대관해주는 방안 지역예술인의 자원봉사 공연은 공연준비(연습)가 필요함 공연을 위한 준비가 되면 동일 프로그램으로 여러 번 진행할 경우 별도의 연습 과정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공연자의 시간/경비/준비 등의 부담 절감 따라서 동일 프로그램으로 지역 순회 공연시 1회당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어 공연 횟수 증가, 보다 많은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음 인근 지역 아파트에 순회 공연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접근성도 높일 수 있고 무대 부족 문제도 경감할 수 있음 | 신설 |

○ 시사점

- 무대비용을 고려하여 1회당 비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여러 팀들을 동시에 참여시키는 방안 필요성
- 시민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공연 관람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됨

제6장 정책 제언

- 제1절. 연령층별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정책
제2절. 정책 제언

제6장 정책 제언

제1절 연령층별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정책

□ 경제분야

- 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 정책으로서 부산시의 역할은 정책 소외자 또는 중앙정부 정책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정책의 실효성 달성과 사회적 형평 달성을 목적으로 보완적 성격을 가짐

<표 129> 경제분야 연령층별 주요 정책

| 구분 | | 정책 및 내용 |
|----------------|-------------|--|
| 청소년(10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원스톱서비스 :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된 학교밖 청소년의 지원금 지원 지급 시기 연장 •외국인청소년에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 부산 거주 외국인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
| 청년 (20~30대) | 대학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 대학생 재난지원금 지원 : 저소득층 대학생 재난지원금 지급 •대학생 문화바우처 : 공연 입장료 할인 또는 대학생 문화바우처 등 |
| | (예비) 취(창)업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취업앵커 인프라 연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 기존 사업 정기화 및 대상 확대 •청년사회진입활동비 지원사업 : 청년사회진입활동비 지원사업 재추진 •청년 지원사업 정보 일원화 제공으로 정보접근성강화 : 재난지원금 사업 정보가 한곳에 있는 포털 개설 •경영악화/폐업 청년 자영업자 지원기준 마련 : 폐업하거나 경영난이 심한 청년 자영업자에게 지원금 지급 등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유지, 사업규모 확대 검토 등 |
| 중년(40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 19 격리자 충분한 보상지원 : 격리자에 대한 지원금, 유급휴가비용 등 보상체계(기준) 재점검 |
| 장년(50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년층 맞춤형 고용안정지원금 : 장년층에 맞는 고용안전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 검토 |
| 60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추가지급(전시민 대상 + 60대 이상 취약계층 추가지급) :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지원기준 검토 및 부산시의 보완적 정책 고민 •60대 이상 동백전 이용활성화 지원 : 동백전 공식 블로그 운영, 문자서비스 안내 등 |
| 70대 이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동불편 독거노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방문신청 서비스 : 주민센터 직원 방문 재난지원금 지급 서비스 •시설 입소 독거노인 재난지원금 제도홍보 및 방문신청 서비스 : 직계 존·비속이 없는 시설입소 독거노인에 대한 시설차원의 제도홍보 및 방문 신청 서비스 |

□ 문화분야

○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 문화는 상당히 효율적인 수단임

- 또한 문화를 활용한 정책의 혜택은 다수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투입 대비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공연, 전시, 베품시장 등)
- 취업을 준비하거나 왕성한 경제 활동 계층에서는 문화에 대한 수요가 거의 도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이 계층에서 문화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취업, 경제 등)가 보다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며 이들 계층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방안도 고려할 필요성

<표 130> 문화분야 연령층별 주요 정책

| 구분 | | 정책 및 내용 |
|----------------|------------|---|
| 청소년(10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문화의집 온택트 페스티벌 : 구단위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대상 현장활동 프로그램 다양화 • 청소년 야외 활동공간 조성 : 청소년 관련 센터 및 부산시 산하 기관 내의 야외활동 공간 조성 및 확대 • 체험활동 확대 : 위드코로나에 따른 학교차원의 오프라인 수련회, 체험활동 검토 및 안전기준 마련 • 문화바우처 : 감염병 재난으로 학교를 통한 활동 제약시 문화바우처 지급 |
| 청년 (20~30대) | 대학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자체 콘텐츠 개발 : 부산시 자체적인 OTT서비스(넷플릭스, 왓챗등), 유튜브 콘텐츠 개발 • 온라인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개인 및 단체에 온라인 콘텐츠 제작 경비 및 공간 지원 • 대학 동아리 공연 및 버스킹 지원 : 대학 동아리 공연을 위한 장소, 공연시간 지원 |
| | (예비)취(창)업생 | — |
| 중년(40대) | | — |
| 장년(50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상설 베품시장 정기 개설 : 각 洞마다 아파트 단지를 활용한 상설 베품시장 개최(월 1회, 3월부터 11월까지) • 재능기부 자원봉사 체계화 : 상설베품시장과 연계하여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및 체계화 방안 마련 |
| 60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블루 극복 체험키트 활용 비대면 생활원에 체험 : 신청을 통해 선착순 또는 대상 선정 |
| 70대 이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 수혜분야 선택권 부여 : 노인들이 개별적으로 관심있는 분야(상담, 운동, 스트레칭, 미용, 문학, 강의, 토론 등)를 선택해서 지원받는 제도 • 자원봉사자 공연 지원 및 시설 대여 : 자원봉사자의 공연을 위한 지원 및 시설 대여 절차 간소화 |

□ 교육분야

○ 코로나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 및 인원제한으로 대인관계 제약

- 이로 인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대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제한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콘텐츠 제공 필요성
-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의 필요
- 취(창)업 준비자 및 재취업 준비자에게 관련 교육 제공의 필요성

<표 131> 교육분야 연령층별 주요 정책

| 구분 | | 정책 및 내용 |
|----------------|-------------|--|
| 청소년(10대) | | - |
| 청년 (20~30대) | 대학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교육 및 진로 콘텐츠 제공 : 부산시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여 부산지역 내 직업정보나 직무교육 제공 • 취업박람회 체계화 : 산업별, 직무별로 묶어서 전문성 강화 / 정기화 • 원스톱 취업정보 서비스 : 취업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모아볼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 개설 및 운영 • 대학생 해커톤캠프 : 부산시와 대학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부산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술, 직무, 창업 교육 진행 • 대학생 깎이어 프로젝트 : 대학생 대상 진로 탐색 프로그램(공모를 통한 지원자 선정 방식으로 진행) |
| | (예비) 취(창)업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창업생 멘토스쿨 운영 : 취·창업생을 대상으로 진로설계, 직무설계, 취업역량 강화, 채용설명회, 현장면접 컨설팅을 진행 • 청년 폐업자와 재창업 희망분야 전문가 멘토스쿨 : 청년 폐업자와 재창업 희망분야 전문가를 연결하여 운영/관리 등 전문성 강화 컨설팅 진행 • 주요산업체 청년 견학 프로그램 : 부산시 소재 고용창출우수기업 및 주요산업체에 청년 견학 프로그램 신설 • 청년 창업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확대 : 창업자와의 매칭을 강화하여 청년창업자에 대한 멘토링 서비스 확대, 창업정보를 취합한 온라인 페이지 운영 • 부산형 *도전숙 : 부산도시공사와 연계하여 부산형 도전숙 프로그램 운영(*도전숙: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시 각 구에서 협업하여 운영중인 프로그램이며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직주혼합형 임대주택) |
| 중년(40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년층 재취업지원 : 유흥기관을 활용한 체계적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필요 |
| 장년(50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인교육(음악, 미술, 체육) 확대 : 학교 차원의 오프라인 전인교육(음악, 미술, 체육) 수업시수 확대 추진 검토 •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 장년층 맞춤형 취업지원센터 운영방안 마련(맞춤형 일자리 발굴, 장년층 대상전문 컨설팅트 육성) |
| 60대 | | - |
| 70대 이상 | | - |

□ 상담분야

- 코로나 감염병 재난은 실물 피해에 대한 트라우마적 스트레스보다는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더욱 높은 비중
- 연구 결과 실물 피해 발생 계층은 손실 복구가 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주기적 상담과 피해 발생 계층에 대해 손실 복구에 대한 지원과 같이 심리 상담이 이루어질 필요성
- 노년 계층은 주기적 만남을 통한 말벗에 선호가 높음
- 연령대와 상관없이 격리자에 대해서는 격리에 따른 고립감 경감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함

<표 132> 상담분야 연령층별 주요 정책

| 구분 | | 정책 및 내용 |
|----------------|-------------|---|
| 청소년(10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심리상담 의무화 : 청소년 대상 개인·집단상담 프로그램, 부모교육, 심리검사 등 • 심리상담 바우처 : 심리센터 및 병원 이용을 위한 바우처 지급 |
| 청년 (20~30대) | 대학생 | - |
| | (예비) 취(창)업생 | - |
| 중년(40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리자/확진자 심리상담 :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심리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책의 혜택이 실제 부산지역 취약계층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검토, 미흡한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홍보를 하거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자체적인 심리지원정책 수립 • 계층 특성에 적합한 심리상담 인력 확보 : 퇴직한 전문가(교사, 교수, 공무원 등) 활용 및 대학의 평생교육 등과의 연계를 통한 심리상담 인력 확보 |
| 장년(50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50 장년층 맞춤형 무료 심리 상담 : 4050 장년층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 가능한 맞춤형 상담사 확보 필요 • 심리상담센터 홍보 활성화 : 장년층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자서비스, 카카오톡, 지역방송 공익광고를 통한 심리상담제도 홍보 필요 |
| 60대 | | - |
| 70대 이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상담 및 말벗 방문 서비스 : 전문 상담사가 방문하여 심리상담을 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를 소통하는 형태로 진행(방문 도시락 배달 서비스와 연계 검토) |

□ 시설분야

- 모든 계층에서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를 공원 산책,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해소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음
 -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원 및 체육시설의 정비 필요
- 청년의 경우 활동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게 도출되었음
 - 청년을 위한 문화, 교육, 여가 등의 활동공간 조성 필요성

<표 133> 시설분야 연령층별 주요 정책

| 구분 | | 정책 및 내용 |
|----------------|-------------|---|
| 청소년(10대) | | — |
| 청년 (20~30대) | 대학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문화(활동)공간 조성 : 거점지역이나 주거밀집지역내 청년이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청년문화공간 조성 |
| | (예비) 취(창)업생 | — |
| 중년(40대) | | — |
| 장년(50대) | | — |
| 60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책로 조성, 정비 : 부산시가 관리하는 공원, 갈매길 및 산책로, 체육시설 전구역 점검 및 유지보수 |
| 70대 이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르신 배움교실 공간 조성 / 프로그램 개설 : 소규모로 진행할 수 있는 배움, 취미, 만남을 위한 공간 마련 텃밭 임대 및 재배방법 교육 / 실내텃밭 : 텃밭에서 식물이나 농작물을 키울 수 있도록 소면적의 유휴 농업용지를 소액(또는 무료)으로 임대해주는 방안 검토 |

□ 건강분야

- 체육공원 시설과 더불어 공원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 높음
 - 특히 50대 이상 계층에서 자유로운 체육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선호 높음
- 감염자 및 격리자 증가에 따른 충분한 병상, 의료인, 시설 확보 필요성
- 건강관리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어르신 건강관리 체계 구축 필요
 - 고령층의 경우 건강 관리에 상당히 높은 수요를 나타내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관련 서비스 제공은 비용 대비 높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표 134> 건강분야 연령층별 주요 정책

| 구분 | | 정책 및 내용 |
|----------------|---------------------------|---|
| 청소년(10대) | | - |
| 청년 (20~30대) | 대학생 (예비) 취(창) 업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책로 조성/정비 : 부산시가 관리하는 공원, 갈맷길 및 산책로, 체육시설 전구역 점검 및 유지보수 |
| 중년(40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분한 병상, 의료인, 시설 확보 : 시설 재분배·확충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및 의료기관 실태 조사 / 의료인 참여 유인 확대 |
| 장년(50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공원 자유로운 건강 참여 프로그램 : 주요 공원의 산책코스를 활용하여 일정시간대에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건강 프로그램 운영 코로나 극복 실내·외 운동 아이디어 영상공모 : 실내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아이디어 영상공모 및 부산시 공식 채널을 통한 홍보 |
| 60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르신 생활체육지도 프로그램 : 부산시 주요 공원에 시에서 지정받은 강사들이 나와서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 |
| 70대 이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건강관리 디지털 플랫폼 : 통신사와 업무협의를 통해 고령자 모니터링 및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도입 및 보급 |

□ 감염병관리 분야

- 코로나 재난 기간이 장기화 됨에 따라 방역 수칙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도 상당히 성숙되어 감
 - 시민들의 의식이 성숙되어 가는 것에 비해 아직까지 H/W적 체계는 부족한 편
 - 특히 자가격리자/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심적/물적 지원 체계의 미비
 - 고령자 자가격리 발생시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가격리자 또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호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

<표 135> 감염병관리 분야 연령층별 주요 정책

| 구분 | | 정책 및 내용 | |
|----------------|-------------|--|---|
| 청소년(10대) | | • 청소년 및 대학생 방문시설 모니터링 강화 : 학교, 독서실,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등 대학생 방문시설 모니터링 강화(업종, 운영시간, 밀집도, 이용대상, 접종증명 시행여부 등) | |
| 청년 (20~30대) | 대학생 | | |
| | (예비) 취(창)업생 | • 청년 방문시설 모니터링 강화 : 식당, 스터디카페, 학원, 독서실, 도서관, 전시회 등 청년 방문시설 모니터링 강화(업종, 운영시간, 밀집도, 이용대상, 접종증명 시행여부 등) • 자영업 매장 대상 백신스티커 제작 및 보급 : 소규모 자영업자 매장 대상 백신스티커 제작 및 지원 • 격리자에 대한 지원금 외 보상안 마련 : 격리기간동안 활용할 수 있는 본업 관련 직무 강의, 영화·넷플릭스 등 미디어, 온라인 문화 바우처 지원 | |
| 중년(40대) | | • 자가격리자/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구호물품 목록 재점검 : 격리자 및 격리 유경험자 대상으로 구호물품 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호물품 지급에 대한 가이드라인 재정비 | •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 공개 : 확진자 이동경로, 노출일시, 소독여부 등에 대한 기존 정보공개 체계 유지 및 확대를 통한 정보공개 사각지대 해소 |
| 장년(50대) | | | |
| 60대 | | | |
| 70대 이상 | | • 노인 자가격리 돌봄 서비스 : 부산시사회서비스원 소속 긴급돌봄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자가격리, 시설격리 노인을 위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 |

□ 기타

- 코로나 감염병 재난으로 인하여 가장 직접적 타격을 받는 경우는 감염, 실직, 폐업, 가정돌봄의 문제발생, 수입의 감소 등임
- 특히 가정주부가 감염으로 인하여 격리될 경우 가정 유지에 상당한 문제 발생 가능성 높기 때문에 가정주부 격리시 가정 유지를 위한 돌봄 서비스 반드시 필요
- 매출 감소로 인한 대량 실직을 방지하기 위해 유연한 근로 형태 적용 검토
- 노인을 돌봄이 필요한 수동적인 계층으로서만이 아니라 경제적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지원 확대 필요성

<표 136> 기타 분야 연령층별 주요 정책

| 구분 | | 정책 및 내용 |
|----------------|-------------|--|
| 청소년(10대) | | — |
| 청년 (20~30대) | 대학생 | — |
| | (예비) 취(창)업생 | — |
| 중년(40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부격리시 가정돌봄 서비스 제공 : 주부격리시 가정돌봄 서비스 제공 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지원금 제공(돌봄 인력 검증 및 확보, 모니터링 강화) • 가족돌봄 휴가제도 : 가족돌봄휴가 지원기간 연장, 신청기준 체계화 • 어린이집 교사 고용 안정성 향상 : 어린이집 교사의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행정명령 재검토/ 고용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
| 장년(50대) | | — |
| 60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사회적 기업 운영 및 지원 : 노인인력을 활용한 사회적기업(시장형기업) 운영 및 육성 |
| 70대 이상 | | — |

제2절 정책 제언

□ 복지전달체계 개편

○ 복지전달체계 개편 필요성 대두

- 기존의 복지전달체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기능 및 역할의 보완 필요성 대두
- 코로나 감염병 재난으로 인하여 잘 드러나지 않았던 기존의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문제점이 두드러진 경우가 많음
- 이는 일반적으로 제공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 이용방법의 어려움, 너무 높은 기준,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수요자 needs에 부합하지 못하는 정책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음
- 특히 코로나 감염병 재난과 관련하여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지원체계, 격리자에 대한 지원 체계,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적 고립감 감소를 위한 상담 체계 등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 필요성 높음

□ 피해 회복과 피해 예방의 대응 체계 구축

○ 감염병 재난은 발생 손실 극복과 손실 발생 예방의 두 가지 접근 방법이 필요

- 실직, 폐업, 경제적 피해 계층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복구 지원이 필요하지만 대다수 시민은 잠재적 재난대상자임
- 위드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백신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 개인의 방역기준 준수가 중요해 짐
- 시 차원에서 방역기준에 대한 적극적 홍보, 연령층별 체계적 심리상담, 분야별 필요 정책의 적절한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과도한 공포심에서 벗어나 위드코로나 시대에 적응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부산시 부서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대두

- 연령층별/분야별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어느 하나의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움
- 여러 부서의 업무가 서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조율하여 정책대응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함
- 부서간 또는 기관간 협력이 이루어 진다 하여도 정책별 주무부서를 선정하여 주무부서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효율성 향상
- 선제적 대응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회 - 부산시간 협력 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
- 기존의 정형화된 조직, TF 등의 비정형화 조직 활용 등 부서간 이해관계보다는 정책 대응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조직 운영을 유연하게 할 필요성

○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성 대두

- 스트레스 주요 요인은 크게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심리적 요인과 경제적 손실이라는 실물적 요인임
- 이는 부산시 광역 정부의 노력이나 역할만으로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중앙 - 지방, 기관 - 기관, 민간 - 기관 등의 협력적 대응체계 구축이 중요하게 대두됨
- 백신접종이나 전국민 재난 지원금 등은 중앙정부의 역할이지만 시민들의 정책수혜 형평성 달성은 부산시의 역할이 보다 중요함

- 시 차원에서 중앙정부 지원정책의 보완을 통한 정책 형평성 달성을 통해 시민들이 정책의 상대적 차별성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함
- ex)심리상담의 경우 부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대한적십자사간, 민간 자원봉사자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함으로써 행정력 손실 감소, 정책 효과성 향상을 이룰 수 있음
-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민간의 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이들을 서비스 제공의 주체자로 기능하게 할 필요성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자원봉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과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함

□ 환류 체계 구축

○ 환류 체계 구축 필요성

- 정책 전달은 시민 수요에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함
- 수혜자 중심의 정책 전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혜자의 needs가 반영되어야 함
- 부산시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하던 주관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주기적으로 정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전달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도출과 이에 따른 개선 사항 반영의 환류 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
- 성과지표에 이용자 만족도를 반영함으로써 정책달성 정도 파악 및 성과 향상 방안을 도출할 필요성

□ 감염병 재난 대응모델 적용

○ 부산시 맞춤형 재난대응모델의 적용

- 『지방자치법』 (2021.10.21.) 제13조 ①항에 주민은 소속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법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함
- 이에 주민의 권리가 단지 법령에 존재하는 선언적 권리가 아니라 실제 양적·질적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누릴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본 모델을 제시하였음
- 이는 재난대응모델로 제시하였지만 재난대응에만 국한된 모델은 아니며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부분을 고려하여 제시된 모델
- 따라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본 모델의 활용가능성
- 실제 행정 현장에서 본 모델의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질 때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및 전 주민에게 보다 균등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임

□ 예산 확보 방안

○ 부산시 - 의회의 협력적 관계에 의한 예산 확보

-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다양한 정책들은 필수적으로 예산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함
- 이는 부산시와 의회의 협력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함
- 특히 코로나 재난으로 인하여 직간접 피해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빠른 일상으로의 회복을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해 이것이 정파적 논리나 정치적 편향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되어서는 안됨
- 필요성이 높은 정책이나 부산시 자체 예산으로만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국비 확보도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부산시와 의회는

시민들이 일상으로의 복귀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적 관계 구축 필요

□ 회복탄력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시도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심리 회복탄력성 향상방안 시도

- 지금까지 재난은 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복구 및 이에 대한 대응체계 위주로 이루어져 왔음
- 학계에서 다루어진 대부분의 회복탄력성 또한 재난지역 피해자들의 물적 피해 회복과 피해당사자들의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피해 지원 차원에서 접근함(최남희, 2018)⁵⁰⁾
- 즉 지금까지 심리 회복탄력성 또한 재난 발생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자살 충동 등에 대한 피해 회복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짐
- 그러나 코로나 19 감염병 재난을 기점으로 기존의 재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어지는 시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1.12. 9.)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감염병 재난은 ‘감염병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 ③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 ⑤항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에 대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즉, 재난안전법은 포괄적으로 재난으로 인한 심리지원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어 심리피해 지원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토대는 마련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재난은 ‘파괴된 시설’에 기준을 두며 지원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에 기준을 두고 있음

50) 최남희(2018)는 ‘재난 이후 회복력 제고를 위한 심리지원 방안 연구’에서 연령층별 재난에 따른 심리상태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일반적인 개념의 재난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즉 재난 발생 지역 재난당사자의 재난 후 심리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 주로 급성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등 재난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이에 따른 심리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다룸

- 금번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한 본 연구는 기존의 기준과 관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재난에 대해 ‘전 시민 연령층에 대한 심리 회복탄력성 향상 방안’을 시도한 최초의 연구라 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부산시 뿐 아니라 타 지자체, 나아가 장래의 유사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함
- 다만,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적, 기간적, 상황적 제한이 존재하고 있어 지역과 시기를 넘어서서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타 지자체 및 유사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보다 보편화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
- 본 연구의 결과는 상황과 시기를 초월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수요에 따른 공공서비스 제공, 이용자 만족도 향상 방안 등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시키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함

□ 감염병 재난 시대 인식의 전환

○ 감염병과 동행하는 삶

- 일반적으로 재난은 일시적이고 강력하며 상당한 인적·물적·심리적 피해를 동반하는 특성이 있음
- 반면, 코로나 감염병 재난은 전지구적, 전인류적 재난이면서 상당히 장기간이라는 특성을 가짐(끝을 알 수 없으며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도 완전히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으며 제 2의 코로나가 언제 생길지 알 수 없는 상황)
- 2021.12.06. 기준 우리나라 누적 확진자 수는 477,358명으로서 우리나라 인구수 51,821,669명(KOSIS)의1%가 채 되지 않지만 이에 따른 간접적 피해는 엄청나게 커서 자영업자의 폐업, 실직과 이에 따른 여러 사회문제가 파생되고 있음

-
- 하지만 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발생 되었다기보다는 겪어보지 않은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사회의 집단 패닉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코로나 발병 사태를 겪으며 우리 사회는 개인적· 집단적· 정책적으로 상당한 대처역량과 적응역량을 향상시켜 왔음(감염병 재난에 대응하는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예방접종 효과)
 - 따라서 코로나 사태 뿐 아니라 이후의 제2의 코로나 사태가 닥치더라도 2020년의 집단 패닉이나 사회 경제 체제의 붕괴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
 - 국민들은 방역수칙 준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 등은 삶의 일부로서 받아들이고 적응하기 시작하였음(청결유지, 마스크 쓰기 등으로 인해서 감기같은 계절 유행 질병이 거의 사라지게 된 것은 긍정적 효과)
 - 따라서 감염병 재난에 대한 개인적·집단적·정책적 대처역량 향상이 감염병 재난 하에서의 최고의 회복탄력성이라 할 수 있음

참고문헌

- 강희숙·이순섭·조성희. (2021). 대학생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 사이코 드라마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2(1).
- 기경희·김광수. (2018). 회복탄력성 연구 동향과 과제: 회복탄력성 개념과 척도를 중심으로. 초등상담연구. 17(2).
- 김상임. (2020). 사회적 자본이 재난피해자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1(6).
- 김수영. (2020). 재난피해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1인가구와 다인 가구 비교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11(3).
- 김창진·노은경·양기근. (2021). 재난안전취약계층의 재난 회복탄력성 우선순위 도출. Crisisonomy. 174(1).
- 김혜진. (2018). 회복탄력성 프로그램의 중학교 자유학기 적용 사례연구. 윤리교육연구. (49).
- 박진규. (2016). 대도시 공공서비스 배분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진희. (2015). 재난 위험 사회의 위험 관리 전략의 새로운 모색: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시민성(Citizenship) 향상을 중심으로. 환경철학. 19.
- 손현일 외. (2020). 코로나19에 대응한 부산시민의 심리적 방역 대책. 토요정책 토론회. 부산연구원.
- 송영지, 김새봄. (2019). 재난피해 여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영향요인: 회복탄력성, 우울. 인문사회. 10(6).
- 송영지·박로사·최송식. (2020) 경제수준,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가 재난 후 노인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11(1).

- 오재환 외. (2020). 코로나19 부산시민 생활 변화 인식 조사. BDI 현안분석. 부산연구원.
- 이가을·변병설. (2020). 지자체 역량이 재난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환경정책. 28(4).
- 이대웅, 권기현. (2017). 재난정책분야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결정요인 분석: 재난유형 가운데 자연재난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6(2).
- 이유현, 권기현. (2017). 국제사회의 재난정책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한국 재난정책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6(4).
- 이가을, 변병설. (2020). 지자체 역량이 재난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환경정책, 28(4).
- 정영철 외. (2020). 국가건강조사 정신건강영역 설문개발.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 조성일 외. (2021).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방역 정책모형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해외공유 모델 개발’ 연구용역 보고서. 서울특별시.
- 최남희 외. (2018). 재난 이후 회복력 제고를 위한 심리지원 방안 연구. 재난안전연구소.
- 추병완. (2017). 초등 교실에서 회복탄력성 증진 방안. 초등도덕교육. 55.
- Adger, W. N. (2000). Social and ecological resilience: are they related?.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4(3).
- Benight, Charles C. 2004. Collective Efficacy Following a Series of Natural Disasters. *Anxiety, Stress & Coping*. 17(4).
- Bonanno, George A. 2004. Loss, Trauma, and Human Resilience: Have We Underestimated the Human Capacity to Thrive after Extremely

- Aversive Events?. *American psychologist* 59(1).
- Coles, E., and P. Buckle. 2004. Developing Community Resilience as a Foundation for Effective Disaster Recovery. *Australian Journal of Emergency Management*. 19(4).
- Folke, Carl. 2006. Resilience: The Emergence of a Perspective for Social-Ecological Systems Analyses. *Global Environmental Change*. 16(3).
- Ha, K. M., Park, J. G. et al. 2021. How to Improve Emergency Management Information: A Case Study, *Disaster Advances*, 14(3).
- Holling, Crawford Stanley. 1973. Resilience and Stability of Ecological Systems. *Annual Review of Ecology and Systematics*. 4.
- Kapucu, N., C. V. Hawkins, and F. I. Rivera. 2013. Emerging research in disaster resiliency and sustainability: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In *Disaster resiliency: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edited by N. Kapucu, C. V. Hawkins, and F. I. Rivera, 355–358.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Kwok, A. H., Doyle, E. E., Becker, J., Johnston, D., & Paton, D. 2016. What is ‘Social Resilience’? Perspectives of Disaster Researchers, Emergency Management Practitioners, and Policymakers in New Zea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ster Risk Reduction*, 19.
- Lahtinen, E, Lehtinen, V, Riikonen, E, Ahonen, J. Framework for Promoting Mental Health in Europe. Helsinki: Stakes. 1999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 Meyer M. A. 2013. Social Capital and Collective Efficacy for Disaster Resilience, Ph.D. Dissertation of Colorado State University.

- Mileti, Dennis. 1999. *Disasters by Design: A Reassessment of Natural Hazards in the U.S.* Washington, D.C.: Joseph Henry Press.
- Nelson, Donald R., W. Neil Adger, and Katrina Brown. 2007. Adaptation to Environmental Change: Contributions of a Resilience Framework. *Annual Review of Environment and Resources* 32(1).
- Ostadtaghizadeh, A., A. Ardalan, D. Paton, H. Jabbari, and H. R. Khankeh. 2015. Community Disaster Resilience: a Systematic Review on Assessment Models and Tools. *PLoS Currents*, 7.
- Putnam, R.D. 2001.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NY: Simon and Schuster.
- Timmerman, P. 1981. *Vulnerability, Resilience and the Collapse of Society: A Review of Models and Possible Climatic Applications.* Toronto: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University of Toronto.
- Tiernan, A. et al. 2018. A review of themes in disaster resilience literature and international practice since 2012, *Policy Design and Practice*, 2(1).
- Webster, B. A.(1984).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Local Government Services. *Urban Affairs Quarterly*.(March 1984)
- Wenping, Xu. et al, 2021 The Influence of COVID-19 on Community Disaster Resil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88).

부록

<부록 1> 설문조사

감염병 재난에 대한 연령층별 회복탄력성 향상 방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사)공공정책연구원에서는 부산시와 함께 감염병 재난에 대한 부산 시민의 심리적 회복탄력성 향상 방안을 위한 정책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재난에 따른 부산시민의 연령층별 계층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통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보다 살기 좋은 부산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오직 통계분석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조사결과는 감염병 재난에 대한 연령층별 회복탄력성 향상 방안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바쁘시더라도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6월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자치분권과(균형발전팀)

조사기관: (사)공공정책연구원 박진규 수석연구원

(handsm@naver.com)

1. 다음은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문1】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 문항 | 매우 불편함 | 불편함 | 별로 상관없다 | 전혀 상관없다 |
|---------------------|--------|-----|------------|------------|
| 문1-1) 2M 이상 거리두기 실천 | ① | ② | ③ | ④ |
| 문1-2) 손소독제(세정제) 사용 | ① | ② | ③ | ④ |
| 문1-3) 마스크 착용 | ① | ② | ③ | ④ |
| 문1-4)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 ① | ② | ③ | ④ |
| 문1-5) 실내 환기 및 소독 | ① | ② | ③ | ④ |
| 문1-6) 5인 이상 모임 자제 | ① | ② | ③ | ④ |
| 문1-7) 외출 및 외부활동 제한 | ① | ② | ③ | ④ |

【문2】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다음의 항목에 대한 귀하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 문항 | 매우 불편하다. | 마스크를 착용해도 조심하게 된다. | 마스크만 잘 착용하면 괜찮다 | 코로나 이전과 똑같다 |
|--|-------------|-----------------------------|-----------------------|-------------------|
| 문2-1) 악수 등 가벼운 신체접촉 | ① | ② | ③ | ④ |
| 문2-2) 회의 등 소모임(4인이하) | ① | ② | ③ | ④ |
| 문2-3) 대중교통 이용 | ① | ② | ③ | ④ |
| 문2-4)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종교, 운동, 문화, 병원 등) | ① | ② | ③ | ④ |

| | | | | |
|--|---|---|---|---|
| 문2-5) 실외 인구 밀집지 이용 (집회, 변화가, 정류장 등) | ① | ② | ③ | ④ |
| 문2-6) 전반적인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 ① | ② | ③ | ④ |

【문3~6】 코로나 이후 다음 각 문항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문항 |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대인 관계 | 문3-1) 대면만남 시 코로나 감염의 걱정이 든다. | ① | ② | ③ | ④ |
| | 문3-2) 대인관계가 위축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 | 문3-3) 감염 우려 때문에 일반적으로 타인을 대하 는 시선이 부정적이다. | ① | ② | ③ | ④ |
| | 문3-4) 사회적 거리두기는 인간관계를 악화시킨다. | ① | ② | ③ | ④ |
| | 문3-5)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주의화 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 사회 적 거리 두기 | 문4-1) 실내에서도 마스크는 착용하여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 | 문4-2) 악수를 청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선입견이 든다. | ① | ② | ③ | ④ |
| | 문4-3) 일반적으로 어떠한 신체 접촉도 하지 않아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 | 문4-4) 등교하지 않는 온라인 수업은 비효율적이다. | ① | ② | ③ | ④ |
| | 문4-5) 온라인 수업은 교우관계를 악화시킨다. | ① | ② | ③ | ④ |
| | 문4-6) 비대면 온라인 회의는 비능률적이다. | ① | ② | ③ | ④ |
| 방역 정책 | 문5-1) 나는 부산시의 코로나 대응 정책을 지지하는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 | 문5-2) 코로나 대응 정책 위반자나 업체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대로 규제하여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 | 문5-3) 부산시는 법에서 정한 코로나 대응 규제를 잘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 문5-4) 코로나 감염자가 심리적 격리를 겪지 않도 록 사회에서 포용하여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 | 문5-5) 감염자도 우리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치료기 간 격리 외에는 어떤 차별도 받아서는 안된다. | ① | ② | ③ | ④ |
| 회복 및 지원 | 문6-1) 나는 코로나 관련 자원봉사를 할 의향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 문6-2) 부산시는 코로나 관련 자원 봉사에 대한 체 계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경비, 시설 등). | ① | ② | ③ | ④ |

【문7】 코로나 감염 후 완치자에 대한 귀하의 인식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주위에서 그런 경험이 없다면, 있다는 가정 하에 응답해 주십시오)

| 문항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문7-1) 완치자는 일반인과 똑같다. | ① | ② | ③ | ④ |
| 문7-2) 감염자가 발생한 매장도 방역이 철저 저히 되었다면 상관없다. | ① | ② | ③ | ④ |
| 문7-3) 매장이 2주간 휴업한다면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했기 때문일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 문7-4) 업주 및 종업원이 감염 후 완치되 었다면 그 매장에 방문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 ① | ② | ③ | ④ |

2. 다음은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부산시는 코로나 피해 회복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직·간접 정책을 시행중입니다.

다음 문항의 응답시에 본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 문항 | 내용 |
|-------------------------------|---|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 담당 전문기관 |
| 정신건강 복지센터 (부산시 및 각 자치구 소재) |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정신건강 전문기관 |
| 동백전 | 동백전 발행 규모를 확대하여 시민들에게는 사용금액의 10%페이백 제공(월 30만원 한도) |
| 시니어 생활 방역단 |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시니어 방역단을 통해 지역 곳곳의 방역작업 시행 |
| 이용시설 운영 모니터링 | 취약계층 집단시설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예방 일일 모니터링 실시 |
| 긴급 돌봄 생활 지원비 |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관광마이스업 등 직·간접 피해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
| 부산시유학생지원센터 | 부산에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및 생활 정착 지원, 유학생 입국예정자 분산입국 위한 지속 모니터링 |
| 정보 제공 |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마음건강 자가검진, 건강한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보 제공 |
| 아이돌봄 서비스 | 코로나시기 아이돌봄에 대한 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돌봄 인력 확대 |

【문8】 다음은 부산시가 운영·지원하는 심리상담 기관들입니다. 귀하의 의견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인지도와 이용경험 둘 다 응답해 주십시오. 해당사항없음은 해당정책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아니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심리방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문항 | 인지도 | | 이용경험 | | |
|-----------------------|-----|-----|------|----|------------|
| | 안다 | 모른다 | 있다 | 없다 | 해당사항 없음 |
| 문8-1)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① | ② | ① | ② | ③ |
| 문8-2) 부산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 ① | ② | ① | ② | |
| 문8-3) 우리 구의 정신건강 복지센터 | ① | ② | ① | ② | |

【문9】 위 보기에서 제시된 부산시의 코로나 피해 회복 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문항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응답해 주십시오(정책효과성과 정책필요성 둘 다 응답하여 주십시오)

*정책효과성 : ‘지금까지 이 정책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귀하의 인식입니다.

정책필요성 : ‘앞으로 이 정책은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귀하의 인식입니다.

| 문항 | | 정책효과성 | | | | 정책 필요성 | | | |
|----------------|-----------------------------|----------------|----------------|----------------|----------------|----------------|----------------|----------------|----------------|
| | | 전혀 효과 없다 | 별로 효과 없다 | 약간 효과 있다 | 매우 효과 있다 | 전혀 필요 없다 | 별로 필요 없다 | 약간 필요 하다 | 매우 필요 하다 |
| 경제적 지원 | 문9-1) 재난지원금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 문9-2) 동백전 규모 확대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방역 소독 지원 | 문9-3) 확진자 동선에 따른 소독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 문9-4) 생활 속 거리두기 홍보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 문9-5) 시니어 생활방역단 운영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취약 계층 | 문9-6) 이용시설 운영 모니터링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 문9-7) 긴급돌봄생활지원비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유학생 지원 | 문9-8) 입국 예정자 분산 입국/ 모니터링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 문9-9) 생활지원상담센터 운영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심리 지원 | 문9-10) 심리상담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 문9-11) 정보제공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돌봄 | 문9-12) 아이돌봄서비스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문10】 다음의 문항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응답해 주십시오

| 문항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문10-1) 부산시의 코로나 지원 대응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문10-2) 부산시는 시민의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 다양한 지원 방법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문10-3) 부산시장은 코로나 지원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문10-4) 우리 동네에서는 코로나 대응과 관련하여 주민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문10-5) 주민들간에는 서로를 신뢰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문10-6) 나는 내 옆집 이웃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문10-7) 주민들은 마을의 운영에 대하여 협조하는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문11】 부산의 코로나19 대응정책과 관련하여, 주된 컨트롤타워(총괄기관)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 ① 중앙정부 ② 부산시청 ③ 구·군청
④ 보건소 ⑤ 기타()

3. 다음은 심리 회복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문12】 다음 문항에 대해 귀하의 현재 상태에 대한 의견을 응답해 주십시오.

| 문항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문12-1) 나는 인생을 즐기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문12-2) 내 인생은 의미있다고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 문12-3) 나는 업무, 공부 등에 있어서 잘 집중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문12-4) 내 외모는 만족스럽다. | ① | ② | ③ | ④ |
| 문12-5) 나는 나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문12-6) 나는 지난 한달 동안 우울감, 불안, 절망 등의 불안한 감정을 자주 느꼈다. | ① | ② | ③ | ④ |

【문13】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피해의 회복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응답해 주십시오.

중요한 순서대로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각 순위별 하나만 선택하여 응답하십시오)

| 문항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적절한 운동 | | | |
| 취미 및 여가생활 | | | |
| 충분한 휴식 | | | |
| 가족간의 의지, 화목한 가정 생활 | | | |
| 캠핑, 여행 등 야외활동 | | | |
| 비 등교로 인한 자녀 돌봄 지원 정책 | | | |
| 충분한 재난 지원금 | | | |
| 투명한 정보 공개(확진자 동선·방역매장 정보 등) | | | |
| 공동시설에 대한 정기적 방역 | | | |
| 체계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비밀 보장) | | | |
| 온라인 심리상담 관련 서비스 | | | |
| 감염병 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 | | | |
| 접촉자의 자가 및 시설격리 범위 확대 | | |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향상 | | | |
| COVID-19(코로나) 백신 접종 | | | |
| 마을단위 공동활동 등 주민 간 협력 | | | |
| 이웃 간 정보·지식 공유 | | | |
| 봉사활동 등 재능기부 | | | |
| 공로자에 대한 포상 | | | |
| 재택근무제 확대 | | | |
| 유급휴일 확대(대체휴일제, 백신접종자 등) | | | |
| 건강검진 시 정신건강 분야 포함 | | | |
| 기타() | | | |

【문14】 귀하는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하여 코로나로 인한 전반적인 심리적 스트레스가 어떠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코로나 때문에 매우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 → **【문14-1】**로 가십시오
- ②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약간 스트레스가 증가한 것 같다. → **【문14-1】**로 가십시오
- ③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 **【문15】**로 가십시오
- ④ 코로나 사태와 나의 심리적 스트레스와는 전혀 관련 없다. → **【문15】**로 가십시오
- ⑤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으나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다 → **【문14-2】**로 가십시오

【문14-1】 귀하의 스트레스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2개까지 복수응답 가능)
→ **【문15】**로 가십시오

- ① 언론매체의 보도가 감염의 두려움을 증가하게 만든다.
- ② 주위 사람이 코로나에 걸린 줄 모르고 있다가 나도 전염될까봐
- ③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수익의 감소
- ④ 회사의 매출감소로 인한 실직의 두려움
- ⑤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 이동의 제한, 만남의 감소, 온라인 수업 등 대인관계의 축소
- ⑥ 자녀가 등교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녀 돌봄의 어려움 발생
- ⑦ 기타 ()

【문14-2】 귀하는 코로나 사태 초기와 비교하여 지금 스트레스가 완화된 이유는 무엇입니까?(2개까지 복수응답 가능) → **【문15】**로 가십시오

- ① 백신을 접종하였기 때문이다.
- ② 초기에는 감염이 걱정되었으나 실제 내 주위에서 감염된 사람을 보기 어렵다.
- ③ 초기에는 사람들이 방역정책을 잘 지키지 않았으나 이제는 잘 지키기 때문이다.
- ④ 초기에는 갑작스런 상황이 두려웠으나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 ⑤ 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키기 때문이다.
- ⑥ 초기에는 야외활동도 자제하였으나 이제 운동, 취미활동, 산책 등을 통해 심신이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 ⑦ 기타 ()

【문15】 재난지원금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재난지원금은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 ② 재난지원금은 재난으로 인해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③ 재난지원금은 똑같이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취약계층에게 추가로 더 지급되어야 한다.

【문16】 재난 복구를 위해 선생님의 참여의사 정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3개까지 복수 응답가능)

- ① 나는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다.
- ② 나는 자원봉사를 할 의향이 있다.
- ③ 나는 마을 또는 지역사회의 재난 복구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 ④ 재난 복구는 부산시 또는 관련 기관에서 하는 것이므로 나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 ⑤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은 별로 없지만 여건이 되면 참여할 수도 있다.
- ⑥ 기타 ()

4. 통계분석을 위한 응답자의 특성 파악

【문17】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문18】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 ① 13세~18세 ② 19세~25세 ③ 26세~34세 ④ 35세~49세
⑤ 50대 ⑥ 60대 ⑦ 70대 이상

【문19】 귀하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 ① 기혼/재혼(현재 유지) ② 미혼 ③ 이혼/사별
④ 기타

【문20】 귀하가 현재 거주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 | | | |
|-------|--------|--------|
| ① 중구 | ② 서구 | ③ 동구 |
| ④ 영도구 | ⑤ 부산진구 | ⑥ 동래구 |
| ⑦ 남구 | ⑧ 북구 | ⑨ 해운대구 |
| ⑩ 사하구 | ⑪ 금정구 | ⑫ 강서구 |
| ⑬ 연제구 | ⑭ 수영구 | ⑮ 사상구 |
| ⑯ 기장군 | | |

【문21】 귀하는 어떤 직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중복될 경우 더 적합한 곳에 응답하십시오)

- ① 농업/임업/어업 ② 자영업 ③ 판매/서비스직
④ 기능/현장업 ⑤ 사무/기술직 ⑥ 경영/관리/전문직/공무원
⑦ 가정주부 ⑧ 중·고등학생 ⑨ 대학생
⑩ 취업준비 ⑪ 문직 ⑫ 기타

【문22】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무학 포함) ② 중학교 졸업 이하
 ③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④ 대학교(전문 대학 포함) 재학/휴학
 ⑤ 대학교(전문 대학 포함) 졸업 ⑥ 대학원 이상(재학/휴학/졸업)

【문23】 귀하 가정의 연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가족 전체 포함, 잘 모를 경우 가장 유사한 것에 응답하십시오)

- ① 3,000만원 이하 ② 3,001만원~4,000만원
 ③ 4,001만원~5,000만원 ④ 5,001만원~6,000만원
 ⑤ 6,001만원~7,000만원 ⑥ 7,000만원 이상

【문24】 귀하 가정의 주거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 ①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② 단독주택 ③ 빌라/맨션
 ④ 오피스텔 ⑤ 고시원 ⑥ 원룸/투룸
 ⑦ 기타

【문25】 귀하 가정의 주거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기타

【문26】 귀하가 같이 거주하는 가족은 몇 명입니까?(본인 포함)

- ① 1인 ② 2인 ③ 3인
 ④ 4인 ⑤ 5인 ⑥ 6인 이상

【문27】 귀하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셨습니까?

- ① 네 ② 아니오

바쁘신 중에도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록 2> 연령층별 인터뷰 내용

□ 청소년 : 고3 남학생

| 질문 | 답변 내용 |
|-----------------------------|---|
| 비등교 방식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 : 학업부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년(2020년)까지 등교를 하다 안하다 하니까 학업에 손실 발생 ◦ 수업의 점검으로 과제를 내주는데 과제가 출석이 되기 때문에 출석을 위한 과제 수행(별 의미없는 과제) ◦ 등교를 하면 1교시 수능 패턴에 맞춰야 되는데 집에 있으니 그런것이 어려움 |
| 코로나로 인한 교우관계의 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를 만난 기회가 줄어든다. 안 친하던 애랑 친해질 기회가 없다. 고교학점제 정책으로 같은 과목 선택한 애들끼리 수업을 하므로 반의 의미가 거의 없다. 대면을 하기 전에 온라인 수업을 하면 친해질 기회가 거의 없다. 원래 알던 아이들하고만 다닌다. 마스크를 끼니까 얼굴도 모르고, 마주칠 일도 별로 없다. |
|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법의 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학년은 수업을 다 나가기 때문에 개인주의화가 코로나 영향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움 ◦ 주말에 만나서 축구, 농구를 하는데 학교에서 아예 문을 닫았다. 올해 들어서 문을 닫지는 않는데 작년 패턴이 그냥 그대로 지속 |
|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완화하기 위한 개인적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심시간에 헬스, 밤에 잠시 산책 ◦ 개인적으로 휴대폰으로 푼다. ◦ 체육시간에 운동을 한다. 주로 축구, 농구, 배드민턴 / 체육시간을 주로 활용 |
| 시/교육청에 바라는 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생 백신 우선 접종 ◦ 실시간 수업보다는 녹화형식이 더 나을 것 같다.(선생님이 제 때 등장하지 않는 경우 자주 발생) / 선생님이 늦게 오시는 경우 온라인 클래스 방을 실시간으로 활성화 안되면 수업을 안하는 줄 알고 나갔다가 출결에 피해 발생 / ◦ 출석체크를 확인하기 위한 과제는 실제 학업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음 ◦ 수련회나 수학여행 때 급속도로 친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기회가 사라지다 보니 친구들과 친밀감을 느낄 기회가 거의 없음.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1박2일 수련회나 체험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방역수칙 잘 지키고 백신도 맞게 되면 작년에 비해 활동적인 부분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체험활동, 수련회 기회 확대 →그나마 얼마 안되던 기회도 다 사라졌다. ◦ 중위권 붕괴 - 코로나로 3,4 등급 유지하던 애들도 등급이 급락한 친구들이 많다. 온라인으로는 현재 상황을 극복할 방법이 별로 없을 것 같다. |

□ 청소년 : 고1 여학생

| 질문 | 답변 내용 |
|-----------------|---|
|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를 써서 독서실에서 답답함. ◦ 시간제한으로 인해 마음껏 놀 수 없다는 답답함(식당, 카페, 피시방 등 시간제한, 인원제한) ◦ 온라인 수업 → 밴드로 출석체크만 하면 되니까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나태해지기 쉬움. 수업의 집중도 떨어짐 / 의지가 약한 학생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부하려고 하는 애와 아닌 애들 간에 학습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 같다. |
|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해소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투기 학원에서 운동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편. ◦ 잠자는 걸로도 스트레스를 해소함 ◦ 심리상담보다는 스트레스 해소 꺼리를 주는게 더 좋을 것 같다. 스트레스 해소 꺼리는 학교에서 특활시간(또는 자습시간) 활용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심리상담, 체육활동, 문화바우처 등) |
| 자원봉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등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자원봉사에 크게 의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함. 나도 마찬가지. |
| 시나 교육청에 바라는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예회, 체육대회, 수학여행, 수련회가 사라졌다. 학창 시절에 대한 추억이 없다.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행사들인데 이게 사라져서 다들 아쉬워한다. - 대체방안 : 그날을 대체 휴일로 보장해 주는 방안, 현장체험학습을 반별 또는 학년별 나눠서 갔다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 청년 : 대4 남학생

| 질문 | 답변 내용 |
|---------------------|--|
|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 또는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불편. 대부분 대학생들은 이 부분이 스트레스 요인 ◦ 사회적 활동이 친구와 많기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제약이 지속되니까 정신적으로 힘들다. ◦ 마스크가 운동 및 활동에 제약이 많다. 운동장, 체육관에서 주로 운동하는데 운동하면 숨이 가빠지는데 마스크 때문에 더 힘든 것 같다.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 몸이 조금만 안 좋아도 코로나 의심 불안이 든다. |
|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요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은 그대로인데 교육의 질이 낮아진다. 이 돈(등록금)이 가치가 있는가? 등록금이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하는 경우에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든다. ◦ 이제 곧 졸업을 하면 취업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업시장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보건의 계열 쪽은 코로나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 수 있다. |

| 질문 | 답변 내용 |
|----------------|---|
| 스트레스 관리 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과 비대면으로 술을 마시기도 한다.(Zoom을 틀어 놓고 서로 화면으로 건배하고 마시고...) ◦ 홈트레이닝(집에서 운동)으로 풀기도 하고,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서 넷플릭스 콘텐츠로 풀기도 한다. |
| 부산시의 코로나 관리 역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코로나는 한 지역에 국한된게 아니라 지역간 이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온 나라가 문제. 지방정부의 관리 영역에 한계. 지역과 지역의 이동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부분이 가장 문제. |
| 재난 지원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운 사람에게만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어려운 사람의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다 주는게 더 좋다고 생각함. 또한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도 크다고 생각한다. |
| 부산시에 바라는 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 대학간 교류, 자격증 정보 등, 취업시장에 대한 정보들이 학교에 가면 알 수 있는 것들을 학교에 못 가니 모를 수 있다. 이런 정보들에 대한 접근 가능성 향상 방안을 시에서 지원 해주면 좋겠다. ◦ 코로나로 아르바이트 자리도 거의 없고 대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학생 할인 제도 있으면 좋겠다. |

□ 청년 : 대2 남학생

| 질문 | 답변 내용 |
|---------------------|---|
|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능치고 코로나 발생해서 여행계획 잡은게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 마음대로 여행도 갈 수 없는게 스트레스, 나는 주로 여행을 통해서 스트레스 푸는데 지금으로서는 풀 데가 없다. |
|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요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하고 나서 코로나가 발생해서 중간, 기말고사때만 학교에 출석하고 그 외는 온라인 수업이라서 동기들을 아예 만난적이 없다. 시험칠 때 만나도 누가 누군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 관심도 별로 없고, 같은 과목이라도 들어야 시험 때 만나지만 모르는 사람이고 수업이 다르면 아예 볼일도 없다. 학교도 사회생활인데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학의 낭만이 다 사라져 버린 것 같다. 2020년에 입학한 전문대학생은 아예 캠퍼스 생활없이 졸업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
| 스트레스 관리 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대에서 인원 제한 때문에 친구들이 휴가를 제때 못 나온다. ◦ 집에 없으면 부모님과 부딪힐 일도 잘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니까 가족들과 사소한 다툼도 많이 늘어나는 편이다. ◦ 새벽에는 온천천에 사람이 없으니까 마스크 내리고 새벽공기 마시면서 산책을 하면 답답함도 좀 사라지는 거 같다. (가벼운 산책, 가벼운 운동) |

| 질문 | 답변 내용 |
|----------------|---|
| 부산시의 코로나 관리 역할 | ◦ 부산시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걸 바탕으로 전체적인 컨트롤은 부산시가 해야 된다. |
| 부산시에 바라는 정책 | ◦ 돈이 제일 필요하다. 친구들이랑 놀 때도 돈 걱정, 나도 대학생 할인 제도 가 좋다고 생각한다. ◦ 취업 박람회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

□ 청년 : 30대, 미혼, 헤어디자이너

| 질문 | 답변 내용 |
|-------------|---|
| 영업장 상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전과 비교해서 코로나 발생 시점에서는 크게 매출에 변화가 없었는데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매출이 평상시 대비 50% 이상 급락, 그 후로 1년 반이 지났는데 최하 수준 대비 약간 회복되었지만 기존 대비 평균 30%가량 하락한 상태. - 헤어디자이너는 프리랜서 개념인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수익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퇴사한 헤어디자이너가 7명(전체 20명, 화명동에서 가장 큰 헤어매장). 매장에 디자이너가 20명인데 작년에 한참 심각할 때에는 하루 손님 자체가 5~6명 수준이었음. 이게 4개월 가량 지속되었음. - 인근의 1인 hair shop은 수익성 악화에 따라 대부분 폐업. 우리처럼 대형 매장은 독립디자이너를 양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매장처럼 대형 매장이 무너질 경우 디자이너 개인이 전문성을 기르고 독립하기 위한 기반 형성이 어려워짐. 현재로서는 대부분 독립을 포기한 상황 |
| 청년 자영업 상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명동은 일찍 자영업을 시작하는 청년이 많은 편.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많이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음. 폐업으로 자연스럽게 빚이 발생되어지고 대출도 잘 안되기 때문에 당장 생활도 어려움을 겪게 됨. 폐업으로 인한 빚의 어려움과 생활의 어려움의 이중고 발생. - 다시 사업을 하기에 두려움이 발생. 빚과 사업자금 부족으로 새로운 창업의 어려움. 새로 시작하려는 20대 후반의 청년들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원하지만 실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거의 없는 상황(정보부족, 지원자격의 까다로움, 프로그램 부족 등). 대출에 대한 문턱도 높음. |
| 청년 주거/결혼 고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에 대한 고민이 많음. 화명동의 경우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을 살 수 없다. 대출도 잘안되고.. 이게 결혼의 장벽이 되어진다. 청약 당첨되어도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청약 보류, 당첨 포기. 이렇게 집을 보류(포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도 포기(보류). 전세도 구하기 어렵고 월세는 월세 자체의 부담. 전세는 매물 부족, 자가는 너무 높은 현실 벽. 단독주택이나 빌라에서 시작하는 경우는 찾기 어려움. 아파트가 아닌 경우 본적 없음. 급등하는 집값에 청년들은 벼락거지라는 상실감에 빠져 있는 경우 많음. |

| 질문 | 답변 내용 |
|-----------------------|--|
| 청년 직장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두려움. 중소기업은 회사가 어려울 수록 인원 삭감이 되는데 당장 일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사람은 유지시키고 청년이 감원 대상 1순위가 되는 경우 많음. 채용공고를 내면 취업자리 부족으로 지원자가 많음. 회사에서는 청년의 해고에 크게 부담을 안가지는 구조. |
| 스트레스 요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적 쪼트다운제, 인원제한 → 남성의 경우 대인관계가 멀어지고 혼자있는 시간이 많아짐. 퇴근을 해도 갈 데가 없음. 여가생활 거의 사라짐 → 우울증, 스트레스 요인 |
| 청년들이 부산시에 정책적으로 바라는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 결혼 예비 청년에 대한 대출 장벽 완화 - 예비자영업자에 대한 프로그램 : 창업교육, 세금감면, 상권에 대한 분석 정보, 창업에 대한 분석정보, 창업 자금 대출, 창업컨설팅 - 창업자에 대한 프로그램 : 기존 전문인들의 know-how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ex. 고깃집 잘되는 사람의 노하우 전수) 서비스, 손님응대 등 경영에 필요한 부분을 현장에 있는 사람이 티칭해 준다면 자영업자의 실패 확률이 줄어든 것 - 결혼예비청년 : 주택 구입에 대한 정책적 지원 →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주택문제와 자영업 전문성 문제 |
| 격리자에 대한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리자는 자기 잘못 없이 정책적으로 격리된 것인데 여기에 대한 보상 대책이 너무 부족.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일을 해야만 수입이 발생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격리기간 최소한 본인의 수입을 보전해 줄 필요성. 2주간의 격리로 심리적 타격에 대한 보전 필요. 식사가 가장 어려움. 지원되는 물품으로는 많이 부족 → 배달 필요 → 지역상품권 등 지급 방안. ◦ 격리기간동안 본인의 업 관련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강의 수강), 미디어 지원(넷플릭스나 영화 등) → 이 두가지 지원으로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정될 것. |

□ 중년 : 40대 남, 기혼, 2자녀

| 질문 | 답변 내용 |
|-------------------|--|
| 코로나 이전 이후 스트레스 비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는 규제에 대한 압박감 → 대면 업무가 많은데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제약이 많음. ◦ 아이들 감염 노출 최소화 때문에 엘리베이터 및 일상생활 긴장. ◦ 학교나 유치원 휴원에 따른 독박 육아의 스트레스 → 원래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전업 주부로 살아야 하는 스트레스(부인) → 이로 인한 부인의 수입감소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코로나 지원금 적지만 단비 같았음) ◦ 사회적 관점 : 코로나 지원금 88% 이해 안됨 → 우선순위(보건, 취약계층)에 투입이 좋을 것 같다. 기준 설정에 따른 사회적 갈등 유발. 일반 국민지원금 안했으면 좋겠다. 자영업자나 어려운 곳 도울 곳 많을 것임 ◦ 단체운동의 금지, 조기 축구 제한 → 스트레스적 요인 |

| 질문 | 답변 내용 |
|--------------|--|
| 개인적 스트레스 해소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목한 가정생활 중요 ◦ 자주 적절한 운동 → 주로 산책, 공원, 체육시설 활용 → 이런 시설의 관리가 중요 |
| 경제적 부분의 스트레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전락 → 외벌이 당사자인 내가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더 뛰어야 하는 것 → 경제적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한발 더 뛰면서 수입을 만들어서 스트레스 해소할 수 밖에 없다. |
| 사회적 해소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에서 코로나 대책 세울 때 지자체 협의회랑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지원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발생 방지 - 경기도는 자체적 재난 지원금 별도 지원 →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 발생 ◦ 시간제약 → 자영업자에 피해만 줄 뿐 실제 별 도움 안됨 → 위기 상황이면 시간대 상관없이 일정기간 제약이 더 효과적(하루중 특정 시간대 제약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6시라고 전염이 덜 되고 10시라고 더 잘되는 것도 아닌데...) |
| 격리 경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및 모든 활동이 2주간 중단 → 경제적 피해 → 당사자 심리적 격리감 엄청나다. 격리는 사회화의 단절을 넘어서서 감금되는 듯한 심리적 압박감 →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가족과도 접촉 제한. 격리 당시에 음성이 나와도 음성결정이 아니라 2주 후 한번더 검사 → 가족과 접촉의 부담. 그릇, 수건, 화장실 등 일상생활의 엄청난 불편 야기. 집에 화장실이 하나라면 사실상 나가서 별도로 생활 → 격리비용 별도 지원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다 부담 → 2주간 격리에 지원 물품 턱없이 부족 및 부실 → 부족분사비로 배달로 해결 → 강제 격리에 따른 충분한 지원 필요(물품 및 경비)(2주격리기간 경제활동 중단 → 벌어놓은 걸로 생활) ◦ 만약 확진시 사회적 색안경 → 사회활동 뿐 아니라 경제활동에 굉장한 타격(치료, 심리상담, 경제적 자립 전방위 지원 필요) |
| 부산시에 바라는 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내 사무실에서 격리 → 그나마 가족접촉에 따른 위험 부담 해소.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 격리해야 되는데 가정생활 파탄날 수도 있다. 맞벌이 엄마가 격리되면 주부로서의 활동 중단 → 가정 엉망 된다. 주부 격리시 가정돌봄 서비스 지원 필요하다. ◦ 주변 지자체와 협의하여 형평성 있는 정책 개발 필요 / 격리시 충분한 지원 물품 및 경비 지원 필요 ◦ 격리자보다는 확진자에 대한 심리 상담이 필요 / 충분한 병상 확보 및 대체 의료 시설, 의료인 확보 필요 ◦ 격리시 자가격리하면서 자녀들 같은 경우 밀접접촉자 취급으로 학교 못다니게 됨 → 학력적 문제 발생 → 학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교육서비스(온라인 또는 방문 교육 지원) 필요 |

□ **중년 : 40대 주부, 코로나 실직 후 재취업, 자녀有**

| 질문 | 답변 내용 |
|---------------|--|
| 학부모로서 겪는 어려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을 하면서 자녀의 학업을 챙겨야 하니 이중고 ◦ 체험학습을 못하니 그 스트레스가 많음(조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자녀들은 더욱 제약이 많을 거 같음) ◦ 아이돌봄 지원사업(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실효성 별로 없음 → 실제 처해있는 상황과 소득과의 괴리 : 너무 소득 기준 → (ex 한부모 가정 지인 사례 : 아파트 명이가 있다고 아이돌봄 지원 사업 해당 안됨) |
| 부산시 지원 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대구는 마스크 지급 없었음(기장군은 많이 지급하였음) → 마스크가 필수인 상황에서 노숙인이 쓰레기통 뒤진 사례도 있음. 해운대구는 지원금도 없었음 → 해운대구 소통의 문제 ◦ 재능기부 자원 봉사 통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 ex. 센텀 센시빌 A 예술인의 지역 주민을 위한 오케스트라 연주 → 음악을 통한 힐링, 예술가에게는 무대(활동기회)를 제공 →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예술가에게 생계 지원 ◦ 체계적 일자리 지원 센터 운영 필요 → ex. 해운대기술교육원 사실상 건물이 놓고 있음. 단지 이름을 올려서 실적을 채우는 용도밖에 없는 것 같음 → 중장년층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적 지원 필요 ◦ 심리상담센터 활성화 필요 → 코로나로 인한 일반적 심리 상담 수준은 어느 정도의 트레이닝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음 → 공공의 영역에서 지원체계 구축 필요(사설은 수준이 너무 높음) |
| 어린이집 교사 실직 경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로 신규 원생이 줄면서 어린이집 폐원(2021.2.에 폐원한 어린이집이 많음) → 긴급돌봄서비스 등으로 보육 기관을 압박 → 지원책은 거의 없고 매뉴얼만 계속 하달함(서비스 지원에 대한 부담은 어린이집 교사가 다 떠안게 됨) → 실제 긴급 돌봄은 맞벌이 부부가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 가정에서 더 많이 보내는 상황 발생(편법으로 자격을 충족하여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가정에서 서비스 수혜 → 정작 필요한 가정에서 못받게 되는 상황 발생) → 긴급 돌봄 서비스 행정명령만 하달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효율적 정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침 기준 및 지원체계를 갖출 필요성 - 어린이집 교사의 급여를 일정 기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함 → 코로나로 인한 실직 발생하게 되면 중장년층 사실상 재취업의 어려움 |

□ 장년 : 50대 주부, 코로나 실직, 자녀 有

| 질문 | 답변 내용 |
|--------------|---|
| 경제적 피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기자재 관련 외국계 기업 부장 재직 중 코로나 사태로 권고사직 실직, 약 100여명 권고사직 당함 - 코로나로 인한 실직 → 중장년층 재취업의 어려움(고용센터 상담 → 젊은 층 실직 많아서 중장년 층에 기회가 많이 없을 거라는 답변) → 구직활동 지속 중이나 어려움 → 코로나 우울, 자존감 하락 ◦ 현재의 중장년 취업 지원 센터 실효성 없음 → 개별화된 대응(맞춤 지원) 안됨 → 설문지에 개인 요청 사항 기재해도 반영 안됨 → 자존감 낮아짐(답변자는 고학력 사무직 → 쿠팡 물류센터 정리 추천해 줌) → 현장 상황 고려 안된 탁상행정 → 수수료 받는 혜택을 위한 요식행위 많이 이루어짐 ◦ 국민취업제도 : 일자리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과 공감력 부족 ◦ 국민배움지원카드 : 실직자, 소득기준이 적용(모두 겪는 재난 상황, 소득 수준 위주 기준 적절하지 않음) |
| 학부모로서 겪는 어려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발산을 하기 어려움 - 자녀는 특목고 → 대외 활동 제약, 수업의 질 하락, 교사의 수업 시간 지각 / 음악, 미술, 체육 등 과목으로 풀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 전인 교육이 제대로 안됨 → 내가 코로나로 실직했지만, 만약 실직하지 않았다면 자녀 케어의 문제 심각하게 발생했을 것 |
| 부산시 지원 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ith 코로나 된다면 → 각 구마다 '당근 마켓, 벼룩시장'을 상설화해서 친목도 다지고, 경제적 효용도 높을 것. 이를 제도화한다면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 시청,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주관해 주면 신뢰성도 높아지고, 일시적 경제적 위해를 필요없는 물품을 처분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상쇄 가능 → 비대면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문화·예술 활동 등으로 심리적 안정을 잠시나마 제공하면 좋을 듯. → 주민들 봉사활동 참여도 가능(자존감 회복, 지역사회 활성화) ◦ 연령대별 세분화해서 심리 무료 상담 → 상담 센터 홍보가 필요 → 코로나 제한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인원 제한적이기 때문에 유연한 정책이 필요 |

□ 노년1 : 건강한 노년, 개인사업, 1인가구

| 질문 | 답변 내용 |
|----------------------|--|
|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스트레스 요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년 1 : 대인관계, 친구들 만나고 바람쐬고 하는데 제약 → 운동, 활동, 마트 같은 곳도 꺼려짐. 아파트 안에서도 제약 (겁이 나서 나가기 어려움, 커뮤니티 센터 이용 중단)/ 5인이상 금지 → 이번 명절(21년 추석)에도 자식, 손자들 못만남(매우 스트레스 요인). 추석, 방학, 연휴 등 못만남 ◦ 노년 2 : 자영업자는 코로나 자가 격리자 발생하면 걱정 → 코로나로 자영업자 자살, 뉴스 보면 동병상련 느낌, 그런 것에 대한 심적 부담 발생 |

| 질문 | 답변 내용 |
|-------------------|--|
| 가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요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1(늦깎이 대학생) : 비대면 수업으로 하니 제대로 된 대학생활이 안됨. 동기들 못만남(2020년 입학). 개인적으로 사회에 뭘 배우러 가는 것도 제약. 언니가 마산에서 황토방 가든, 업종 특성상 단체 손님 위주 → 인원제한으로 단체 손님 못받아서 거의 장사 안됨. 6시 이후 2인, 4인, 2인, 이런 식으로 정책이 자주 바뀌니 손님 다 떨어져서 현재 문닫고 있음. 배우자의 수입이 아니라면 죽고 싶은 생각 들것. 식당에서 나오는 중고 물품 너무 넘쳐나서 받을곳이 없다고 함 |
| 재난지원금에 대한 인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1 : 받으면 좋긴 한데 나라 빚이 자꾸 늘어나는게 걱정. 이거 받는다고 개인이 살아나는 것도 아닌데.... 결국 자식들 빚만 늘어난다. 국민연금도 고갈. 선거철이라서 야당에서 반대 못한 것 아닌가? →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복지 정책 적용 해야지, 이 돈 받아서가정이 살아나는 것 아니다. 하위 계층 내버려 두면 사회적 격차만 늘어난다. 재난 지원금 사실상 효과 없다. 정말 받아야 될 사람 제대로 못 찾아 내고, 먹고 살 만한 사람들에게 다 간다. 노인 2 : 나는 못 받았다. 88%는 누가 정한 것인가? 다 주거나,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나 했으면 좋겠다. 사회적 갈등 많다 |
| 60대 활용 사회적 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1 : 식품만드는 것, 두부, 된장, 김치 등. 60대에게 사회적 기업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노인들 일거리 만들어 주고, 제대로된 근로, 제대로 된 보상 → 사회에 기여, 자아 실현의 기회가 될 것. 별 필요하지도 않은 공공근로보다는 실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좋겠다. |
| 백신에 대한 신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스에 부정적 뉴스 자주 나오니 백신에 대한 신뢰성이 높지 않다(접종 후 사망, 마비 등). 좀 더 안전했으면 좋겠다. 뉴스에 나오지 않은 많은 케이스 있다. 그래도 맞을 수 밖에 없다. |
| 스트레스 완화하기 위한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1 : 집에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밖에 나갔다가 밖에서 사먹고 오기도 하는데 겁이 나서 집에만 매여 있으니 힘들다. 그래서 2~3명 모여서 배움 및 취미 활동, 간단한 여행으로 해소하는 편 |
| 정신건강센터 인지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1, 2 : 들어 본 적 없다. 뭐하는 곳인가? 어떻게 이용하는가? |
| 부산시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지원금 자체가 크게 도움되는 건 아니지만 줄거면 다 주자. 정작 세금많이 내는 사람들 혜택에서 제외된다. 동백전 : 들어 본 적 없다. 정보부족. 노인들은 복잡하면 사용하기 힘들 것이다. 확진자 동선 공개 : 너무 자주 보면 불안감 증폭, 스트레스 요인 60대 특화 지원 방안 : 자주 가던 여행을 잘 못하게 되었다. 공연, 영화 등의 티켓 등 시간대별 좌석 거리두기 지정하여 문화적 지원해 주면 좋겠다. - 온천천 주변 운동 강사들 시에서 지원해서 특정 시간대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 건강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좋을 것 같다. 생활 체육의 활성화 → 스트레스 완화, 건강 유지 |

□ 노년2 : 70대 시인, 가정주부

| 질문 | 답변 내용 |
|--------------------------|--|
|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스트레스 증가 요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감염이 불안하니까 대인관계를 주저하게 됨. 모임에 가려고 하면 약간의 두려움. 시인들이 모이는 곳에 가기가 어려워 짐. 코로나 전에는 시인들끼리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코로나 이후 비대면 모임(Zoom 활용)을 진행하였음. 의외로 비대면 모임도 재미있었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모임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된 것은 나름 흥미로웠음. 하지만 그 이후 오프라인 모임을 진행하고 있음. 나에겐 중요한 모임(시인들 모임)이라 불안감 속에 참석하고 있는 상황. |
| 경제적 부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밖을 잘 못 나가니 쓰임새가 오히려 더 줄었음. 시인이 크게 돈 버는 직업은 아님. |
| 심리적 스트레스 완화하기 위한 개인적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뒷뜰의 조그만 텃밭에서 새싹들을 키우는 재미. 아침 저녁로 물 주면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시상이 떠 오르면 시도 쓰면서 스트레스를 풀. 내 손으로 키우고 수확해서 먹는 재미. |
| 재난 지원금 인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원금 받은 것, 약간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너무 어려운 시기니까. ◦ 지금 활동을 못하고 있으니까 어떤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정부의 지원에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싫다. 개인은 지원 받으면 적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나라 빛이 늘어나는 거 생각하면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다. 결국 우리 후손들에게 다 짐을 지우게 되는 일이니까 |
| 부산시에서 지원 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운 시기니까 부산시에 재정적 여유가 있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형평한 재정적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 어려운 분들 세금감면 /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건강과 관련한 지원. 예를 들어 고령자에게 건강검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 몸이 불편한 고령자 분 케어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재활치료나 주기적 검사 등 고령자를 위한 의료 혜택의 확대) ◦ 옷같은 건 날마다 사 입는 건 아니니까 줄여도 되지만 밥은 날마다 먹어야 하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지속된다면 시장이나 마트에서 쓸 수 있는 지역상품권을 어려운 계층에 주기적으로 지원해 주어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나도 받으면 좋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 취약 계층 등) |
| 심리상담 받을 의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 어려움에 대해 심리상담을 받는다면 내가 가는 것도 좋고 우리 집에 와서 해 주는 것도 좋다. |

| 질문 | 답변 내용 |
|--------------------------|--|
| 자원봉사자에게 지원받고 싶은 부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으니까 몇일에 한번이라도 친구처럼 말벗이 있으면 좋겠다. ◦ 내가 관심 있는 분야와 소통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 예를 들어 나는 시인이니까 이런 쪽에 관심이 있거나 시인(출신)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 확대 된다면 좋을 듯. 예를 들어 운동에 재능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 한다면 어르신 방문하여 말상대와 더불어 가벼운 스트레칭,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운동 방법 등에 대해 교육도 받으면서, 같이 운동도 하면서, 건강관리와 관련한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단순한 말벗보다 훨씬 유익할 것이다. ◦ 운동, 스트레칭, 미용, 문학 등 전문분야 자원봉사자를 선택할 수 있다면 적은 그룹으로 모여서 수업(운동, 머리 컷트, 강의 및 토론)도 하면 좋겠다. → 내가 관심있는 자원봉사 분야 선택 → 내가 방문(소수 그룹 가능)하거나 자원봉사자가 집으로 방문하는 형태 → 전문 분야 활동 → 대화 및 토론 |
| 고령층의 입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층은 특히 건강에 취약하니까 나라에서 하라는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함. With 코로나 시행되면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 나 혼자라도 마스크 쓰겠다. 이제 날도 추워지는데 마스크 쓰니까 따뜻하고 해서 계속 쓸 것임 → With 코로나 시행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외출을 자제 할 것. 정부정책은 따라야 하지만 고령층이니까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다. |

□ 노년2 : 80대, 1인가구

| 질문 | 답변 내용 |
|----------------------------|---|
|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스트레스 요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들, 정기적 모임이 있는데 코로나 이후 한번도 못 만남. 그 사이 친구 수술했는데 못가봤다. 안타깝다. ◦ 가족 : 명절이나 생일 때 만나는데 못 만나고 있다. 개인적으로 모임에 선뜻 가기도 부담스럽다. 만나야 될 사람들 못 만나고 가기도 어렵다. |
| 정신건강센터 인지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어 본 적 없다. 일상 심리 상담을 해준다면 받을 의향이 있다. 고령층은 주기적 만남과 자주 대화를 좋아한다. |
| 경제적 부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딸이 매달 생활비를 주고 있다. 모자란 부분 사위가 줄 때도 있다. 재난지원금이 약간 도움이 되었다. 내 주위 비슷한 연령대 사람들도 남편 없어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편. 그러나 개인적 해결 방안이 없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
| 스트레스 해소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에 나가서 운동 좀 하고 땀 흘리고 하니 괜찮다. 나는 교회에 가니까 종교가 상당히 마음에 안정을 가져다준다. ◦ 개인적으로는 아직 움직일 수 있고, 교회도 가고,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하지만 내 나이대의 대부분은 몸도 마음도 약해져 있다. 심리 상담이나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제공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

| 질문 | 답변 내용 |
|-------------|--|
| 건강 문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들이 돌봐 주고 하니까 남편이 일찍 가도 보호에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아직 건강한 편이지만 내 나이대에 대부분 혼자 있는 경우가 많다(자녀 결혼, 남편 사망). 개인적 보호망이 없다면 경제적, 신체적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어느 날 친한 친구의 사망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우울해 진다. 노인인구 증가, 대부분 1인 가구 → 신체적, 정신적 보호망이 사회적으로 갖추어지면 좋겠다. |
| 부산시에서 지원 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대는 잘 되어 있어서 바랄 게 없다. 사람들 공원에 오면 마스크 벗고 다니는 경우 많은데 그런 부분 서로 배려할 필요있다. ◦ 1인 가구 특히 남자 : 술을 먹고 외로움을 달랜다. 혼자 있는 분들 보면 해소방안이 부족하다. 상담해 주고 애기도 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 자원봉사자들의 공연 기회를 만들어 주면 기능인들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자들의 심리적 우울감도 상당히 해소될 것이다. 자원봉사자의 주기적 방문, 상담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 노인이 많아 니까 개개인을 보면 말을 잘 안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나온다. 어두운 얼굴로, 잠도 안오고 하니까 혼자 어디론가 간다. 여생을 건강하고 사회와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

□ 기타 : 전문 자원 봉사자

| 질문 | 답변 내용 |
|-----------|---|
| 코로나 걸린 분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기를 쏟아낸다. 상대적 우울감. 문 앞에 물품 갖다 놓고 나서 나중에 전화하면 마음을 여는 경우가 많다. ◦ 자영업자는 2주간 문을 닫아야 하는데 이게 사실상 폐업으로 연결된다. 3주 후 다시 문을 열어도 업주가 코로나 걸린 걸 알고 손님들이 방문 자체를 안 한다.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다. 일시적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삶이 바뀌게 된다. 폐업을 해도 부가세 신고, 세금 신고, 폐업비용 등.. 폐업 한다고 돈 들어가고, 세금내고, 그 지역에서 다시 오픈하기 어렵다. 코로나에 걸렸다는 낙인. - 다른 동네로 옮겨서 오픈 해야 되는데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도 소문이 무섭다. 보통 연고지에서 장사를 하는데 멀리 가서 하기 힘들다. 폐업까지 했는데 세금부담까지 징벌적 과세 → 소상공인들 삶이 통째로 좌우된다. |

| 질문 | 답변 내용 |
|----------------------|---|
| 부산시에서 지원 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에서 적십자에 지원을 하고 적십자에서 식당에 300만원을 지원 → 방역철저 조건 → 300만원으로 도시락 지원 사업 확대 → 식당은 도시락을 200개 이상 만들어 어려운 분들 도와 줌 → 가게 홍보(생생정보통, 페이스 북 홍보 등) → 참여 업체가 다수 익이 발생하고 홍보도 됨.(2021.03.22. 생생정보마당-황금도시락) ◦ 자원봉사자들 통해 따뜻한 말 한마디(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동질감, 당신이 사회에서 격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 ◦ 전화 통로 오픈 → 재난 현장 가보면 극심한 스트레스 충격 - 신체적 문제까지 옴 → 너무 힘드니까 자기를 잡아 달라고 전화가 옴 |
| 재난 현장 상담 경험 및 활성화 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으로 심리적 상담 1:1 매칭 전화 → 단체 상담, 개인 상담 → 심각한 경우 1:1 상담, 기본 2번인데 3~4번 하는 경우 많음 → 적십자 심리지지 상담시 7~8천원 비용 발생 → 적십자 심리지지 교육이수 후 합격자에게 심리지지 자격 부여 → 보건복지부 산하 심리지지 → 부산시 → 부산시에서 적십자로 위탁 → 너무 덩거나 춥거나 수해까지 → 심리지지 수행 ◦ 독거 노인 지원 센터 : 보건복지부 → 부산시 → 복지관 → 부산시의 인적·물적 지원은 없는 상태 → 맞춤형 복지 시스템 필요한데 현재 인원 부족 → 부산시에서 인적·물적 지원 필요 ◦ 심리지지 인적 지원 방안 :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교육 이수,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 학교 선생님의 봉사 활동 참여 ◦ 퇴직한 전문가(교사, 의사, 교수, 공무원 등)의 활용 - 재능의 사회 환원 시스템 필요(퇴직한 전문가가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 코로나 상황 →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가혹. 차상위 이하 수급자는 수업 듣는 것조차 어려움(컴퓨터, 탭의 성능 저하 등) ◦ 초중학교 등교일이 다름 → 부모가 받는 스트레스 큼, 청소년도 스케줄 붕괴(학원을 가다 안가다... 학원비가 싼 것도 아님) ◦ 거동 불편자 → 코로나 이후 외부인 발길 끊김 / 고독사 → 코로나 발생 초기 3~4개월 복지관에서도 방문 못함 → 현재는 복지관에서 도시락을 만들어 집 앞에 두는데 적십자사에서 복지관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음 |
|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에 대한 연수 및 교육 → 해외의 우수 사례, 선진사례 - 구 별로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자원봉사자들의 자비로 해결 → 각 동별 봉사단체(적십자, 온누리 봉사단 등) 15개 정도씩 있음 → 어느 단체든지 이용할 수 있는 봉사단체 전용 공간 필요. 봉사단체가 상당히 열악. 봉사를 위해서 모이면 봉사자들도 식사, 커피 등 다 돈이 든다. 현재는 다 개인 돈으로 해결 → 동 별로 봉사원 대비 지원금 지원 필요 ◦ 각 구마다 도시락 만들 공간 필요 → 자원봉사 도시락을 만들 공간 자체가 없음 ◦ 재난 대피소 물품 구비 필요 → 대피소는 있지만 대피소에 생활 시설 준비가 안되어 있다. → 냉장고, 밥통, 선풍기, 세탁기, 아무것도 없다. 대피소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준비해 줄 필요성(시나 구에서). 대피소는 잠만 자는 곳이 아님. |

□ 기타 : 지역예술인(50대, 강의 및 음악학원 운영, 자원봉사 음악회 개최)

| 질문 | 답변 내용 |
|-------------------------------|---|
| 아파트 내에서 음악회 개최 계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엔터테인먼트(대중가요 기획사) + 부산00오케스트라 협동조합에서 주최하여 개최 → 원래 UN평화공원에서 市 지원으로 연주계획 → 코로나로 연기되다 결국 취소됨 → 취소되어 저를 포함한 단원들 너무 허탈해 함 → 약간의 이윤이 남는 행사가 취소되었으니 홀 연주장도 구할 수 없는 상태(비용적 문제 + 사회적 거리두기) → 그래서 우리들끼리 시민을 위한 연주회를 하기로 계획 → 장비는 00엔터테인먼트(대중가요 기획사)에서 무상 대여, 무료 봉사로 진행 → 단원들에게는 원래 pay의 절반만 지급하기로 함 → 오케스트라 협동조합에서 일부 협찬, 내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일부 협찬하여 진행, A 관리사무소로부터 공연마치고 회식비하라고 50만원 협찬 → 공연 당시 인근 A주민까지 참여해서 약 600여명 정도 관중 모임 → 사전에 미리 홍보하고 진행. → 입주민 대표 만나서 협의했는데 아주 긍정적 반응 → 전반부에는 대중가요 1시간 정도, 후반부 오케스트라 클래식 1시간 정도 - 주민들 반응 : 아주 환호가 쏟아졌다. 이런 음악회 한 거 처음 본다. 클래식 잘 모르고 지겨워 할 줄 알았는데 실제 클래식 연주에 대한 반응 아주 좋았다. 아마 대중적 선곡을 해서 그런 듯 - 음악인들에게는 무대가 생명이다. 그래서 올해 가을부터 sensi빌 가을 음악회 개최할 예정이다. 협연자들(지역 음악인) 구해서 정기 연주회를 하려고 한다. 자원봉사 개념으로 접근해도 25~30명 정도 하면 무대부터 장소 섭외까지 비용이 700~800만원 정도 발생, 현재 500만원 정도 협찬을 받은 상태, 약 300만원 가량 모자라다. 어쨌든 음악인들의 연주하고 싶은 욕망. 음악인들은 무대에 서는 것을 통해서 자아실현이 이루어진다. |
| 예술인 재능기부가 지역 주민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주 크다. 일시적 재난에는 대중가요가 순간적 파급효과가 있는 반면 이런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재난에서는 클래식이 오히려 정서 회복에 훨씬 영향력이 크다. 방역수칙 준수한 채 이런 공연은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회복, 정서 회복에 상당한 영향력 |
| 코로나가 학원 운영 및 기타 대외 활동에 미치는 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생이 25명 정도 유지되다가 코로나 이후 3개월 정도 쉬었는데 월세는 계속 지출 → 다시 문을 열어도 원생 수 회복이 안됨 → 현재는 많이 회복된 상태, 정상화되는데 4개월 정도 소요. → 개인 레슨도 많이 취소, 20여 건의 연주도 다 캔슬 되었다. ◦ 경제적 피해는 엄청나지만 사실상 혼자 다 감당해야 되는 상황(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자원봉사 공연도 주민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였다. 무대에 대한 갈망. 참여 음악인들이 다 같은 심정) |

| 질문 | 답변 내용 |
|-----------------------------|---|
| 지역에서 예술인 자원봉사 활성화 요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들은 무대를 서고 싶다. 이런 공연이 진행되려면 자원봉사 개념으로 접근해도 최소한의 경비가 발생한다. 특히 이런 공연이 공공의 지지 下에 이루어진다면 더 좋을 것이다. 비용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일부 협찬 + 시청이나 구청에서 일부 지원 및 공연 장소와 일시까지 정해주면 지역예술인들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참여 하려고 할 것이다. → A 광장 넓은 곳에 기본 무대만 만들어주면 광장에서 주민들 직접 참여 + 각 가정의 베란다에서도 참여가능하다. (이것을 베란다 음악회라고 한다.) - 주민들 퇴근시간 이후 공연이 이루어져야 한다. → 여름에는 해가 길어 조명이 필요없다. 발전차 필요없다. 겨울은 추워서곤란하고 봄 가을은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조명이 필요 → 일반 220V로 안되기 때문에 발전차 필요, 계절에 따른 장비, 오케스트라 편성 25인 정도까지 1회 공연당 최소 700~800만원 발생(최소한의 인건비+경비, 일반적으로 약 1천만원). → 공공에서 지역의 문화회관이나 홀을 무료로 대관해 주면 무대 비용의 최소화 - 한번 연습한 것 스트레이트로 공연하면 비용 확 줄어든다. 같은 프로그램으로 스트레이트 스케줄이라면 따로 연습을 안해도 되니까 인건비 부분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 (정상대비 약 50~60% 수준)(공연을 하려면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연시간만 생각하면 안된다.) -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아파트, 자치구, 시에서 1:1:1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
| 개인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 많은 연주를 해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오케스트라 안되니 스트레스 → 내가 건의 해서 음악 법인 만들었는데 하나도 돈 못 벌고, 2년동안 법인에 매우 눈치가 보였다. 업이 중지되다시피 하는 부분이 제일 스트레스 ◦ 경제적 부분이 줄어드니 거기서 다 파생되어 진다. 자녀들에게도 필수적인 것 외에는 다 끊었다. →일이 안되니까 짜증이 나고 →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짜증을 자녀에게 풀게 되고, 가장으로서 책임감때문에 스트레스 가중 |
|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해소 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음악인이니까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악보를 보면서, 좋아하는 연주를 공부, 곡을 집에서 연습하면서, 관중있다고 생각하고 지휘를 하는 게 행복했다. ◦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고 그 외는 땀을 내면서 운동을 하는 것으로 스트레스 해소 하기도 한다. |
| 부산시 차원에서 자원봉사 공연 활성화 체계화 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런 공연에 대해 공모를 내면 민간 오케스트라 7~8곳이 응모한다. →이력서 및 기획서 제출해서 선정된 곳은 공연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 ◦ 예산에 여유가 되면 지역 문화예술 사업에 투자해 주면 시민들 문화 수준도 올라가고 정서적 치유에도 큰 도움 될 것. - 클래식은 잔잔한 공감, 선율있는 멜로디로 마음을 자극하고, 감성을 자아내면 정서 치유가 더 깊이 있게 된다.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 시민들의 문화적 정서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 |